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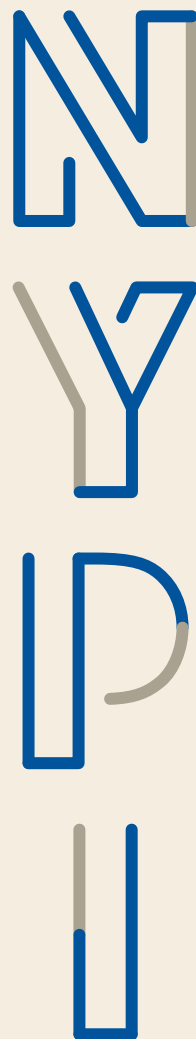
연구보고 20-R1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연구보고 20-R14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저 자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이동훈(성균관대학교 교수)
_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김다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훈(성균관대학교 교수)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장희영 전문연구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3차년도 연구로, 청소년기 중·후반과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10대 중·후반 ~ 20대 중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 학교를 떠난 이후의 경험, 진로준비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경험 등에 대해 질적종단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도시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규모 검토, 지역사회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3개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와 관련된 행정통계와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둘째,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그리고 전년도 학교 밖 청소년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셋째, 이제 20대 성인이 된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 22명을 대상으로 3차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넷째, 10대 중·후반의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33명을 구축하고 1차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COVID-19로 인해 기존 패널 및 신규 패널 대부분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는 횡단(2020년 수집자료 중심) 및 종단자료(2018~2020년 수집 자료) 분석을 모두 수행하였고, 신규 패널의 경우 1차년도 면접조사 결과 분석과 더불어 이 중 5명에 대한

생활시간을 조사하여 결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다섯째, 광주, 부산,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과 함께 이들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실무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6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웹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① 청소년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원 마련,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강화, ③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개선, ⑤ 지역사회 및 환경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⑥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차별화 전략 구축 등의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비대면 사업 개발 및 대면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확대, 청소년 요구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공간 지원,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원체계와 관련된 4개의 정책과제, 대도시 지역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학교 밖 청소년, 질적종단자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3차년도 연구로, 청소년기 중·후반과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10대 중·후반~20대 중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 학교를 떠난 이후의 경험, 진로준비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경험 등에 대해 질적종단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지역단위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도시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었음.

2.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원관련 선행연구 고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 현황 검토
-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조사(3차 조사) 및 결과 분석
 - ※ 대도시 지역 거주자 22명은 심층면접, 타 지역 20명은 패널관리 조사에 참여함.
-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구축 및 1차 조사 실시, 결과 분석
 - ※ 학교 밖 청소년 33명 면접조사 참여(이 중 5명은 생활시간조사에도 참여함)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도시 지역사회 지원체계 조사
 - ※ 2018년: 기초 조사, 2019년: 중소도시 조사, 2021년: 읍면지역 조사 예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대도시 포함) 지원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규모추정, 지역사회 지원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국내·외 정책사례와 3개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파악을 위해 행정통계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내용, 현장실무자 대상 면접·설문조사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함.

- 질적 연구

- 기존 패널(만 21~25세)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만15~20세)을 구축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였음.

※ 연구범위, 일정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존 패널 대상 심층면접은 대도시 거주자 2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타지역 거주자 20명에 대해서는 모바일 패널관리조사를 실시하였음.

연도별 학교 밖 질적 패널 구축 및 조사 결과

패널구분	2018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기존 청년패널 (20대 초중반)	62명 면접조사	48명 면접조사	22명 면접조사, 20명 패널관리조사		
신규 청소년패널 (10대 중후반)			33명 면접조사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팀장급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음.
- 양적 연구: 대도시지역에 위치한 총 75개 꿈드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웹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56개 꿈드림 종사자에 대해 조사 완료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무부처 담당자와 본 연구의 내용 전반과 이후 정책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정책포럼 개최: 본 연구가 연속 연구임에 따라 2019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2020년 연구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 본 연구를 위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결과를 활용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음.

연구내용	연구방법	결과 활용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정책사례	문헌연구, 웹조사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관련 NYPI 연구 개관 등 - 국내·외 정책사례 제시
기존 학교 밖 패널 조사	- 기존 패널 추적 - 면접조사 수행* - 패널관리조사	2020년 조사자료(22명) 분석 3년간(2018~2020) 종단질적자료(11명) 분석 - 패널관리 및 근황(20명) 조사 및 결과 분석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조사	- 신규 패널 구축 - 면접조사(33명) - 생활시간 조사(5명) - 협동연구 수행(별권)	- 질적자료(33명) 분석 - 생활시간(5명) 분석(질적자료분석에 포함하여 분석) - 여성청소년(8명) 면접자료 분석 2차자료 통계 활용 분석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분석	- 문헌연구 (행정통계 등) -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대도시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황/실태 파악(3개 특별시·광역시, 청소년 인구수, 재정자립도, 지자체 지원내역 등) - 대도시 꿈드림 센터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결과분석(3개 센터) - 대도시 꿈드림 센터(75개)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56개 센터) 결과 분석
정책제언	- 문헌연구 - 학교 밖 청소년과 현장종사자 대상 조사 - 전문가 자문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과제

* 기존 패널들이 학교를 떠나고 5~10년이 경과함에 따라 2015년 이후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사업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구축함(33명). 이에 기존 패널은 대도시 거주자 중심으로 면접조사 대상을 제한하였음.

4. 주요결과

1) 선행연구 고찰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2014년에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의해 법적으로 정의됨. 학업중단자는 2016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중단사유는 유학, 해외 출국 사유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부적응과 기타(조기진학, 종교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사유가 대부분이었음.
-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추산하였음.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24만명으로 추산되었는데(간접추정방법: 부분집합 방식/주민등록인구현황 활용), 이 숫자는 그 이전 추산된 규모에서 약 7만명 가량 차이를 보임. 이는 규모 추산을 위해 활용하는 통계가 다르고, 또 각 통계마다의 모집단 기준과 통계수집 및 발표 시점의 차이, 연령범위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6년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서 수행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특히 2013~2017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양적 패널을 구축하여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8년에는 이들 중 일부를 질적패널로 전환하여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음. 특히 2018년도부터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주요 환경인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어, 2018년에는 기초조사, 2019년에는 중소도시, 2020년에는 대도시의 지원체계를 조사하였고, 2021년에는 읍면지역을, 2022년에는 총괄연구가 진행될 예정됨.

2) 국내·외 정책 사례

-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14년 관련법률 제정 이후 전국 214개 지역에 2018개 시·도 및 시·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또한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내일이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교육부의 사업은 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사업,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대도시 지자체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꿈드림 시·도센터 외에 별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대전광역시에는 5개 자치구 중에서 2개 자치구에만 꿈드림 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시·도센터가 일부 직접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국외: 아일랜드(더블린)는 학교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는 전국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스톡홀름)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음. 일본(요코하마)은 은둔형 외톨이·니트(NEET)에게 적절한 수준의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홍보, 제 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복귀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기존 패널 조사 면접조사 결과

(1) 3차년도 조사결과

- 면접조사 결과는 내용분석과 CQR-M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학업중단 단계별로 정책적 시사점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음.
- 학업중단 이전 단계의 유형별 서비스 수요

- 자발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능동형’은 학업중단이후의 진로목표가 명확함에 따라 대안교육 및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꿈길’과 같은 직업 체험, 진로탐색 서비스를 필요로 함.
- 심리적·신체적 외상,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등의 영향으로 학업을 중단한 ‘불가피형’은 외상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속적인 지지·관리가 필요함.
- 특별한 동기나 원인 없이 학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도피형’은 비행또래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등을 통한 동기부여, 규범 내면화, 성취 기회 제공, 적성 발견 등의 개입이 요구됨.

● 학업중단 직후의 유형과 서비스 수요

- 학업형 중에서 자아성찰과 주변에 대한 관조 속에서 학업 복귀를 추구하는 ‘정지형’(정지×학업형)은 심리적 지지와 관심을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의미 없는 학교생활로부터 탈출 이후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배회형’(배회×학업형)은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도 정상에서의 이탈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검정고시 등을 모색하였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 밖 경로를 선택한 ‘주도형’(주도×학업형)은 자기만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 생활을 조직, 노력하므로 입시설명회, 멘토링 등에 적극 참여가 기대됨.
- 취업형 중 ‘정지형’(정지×취업형)은 장기적 전망 없이 단순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사용함에 따라 직업교육, 자격증 교육 등의 서비스가 요구되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원치 않는 직업을 전전하는 ‘배회형’(배회×취업형)은 인턴십, 자격증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 학령기 이후의 유형과 서비스 수요

- 성인기에 들어선 소수의 ‘정지형’들은 사회적 자원과 소속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존감, 동기, 의욕, 삶의 의미 모두 공허한 모습을 보였음.
- ‘배회형’은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진학 좌절(배회×학업형), 취업 좌절(배회×취업형) 등을 겪으며 목표의식 상실, 자신감 결핍 상태로서 진로·직업체험, 멘토링, 로드맵 코칭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음.

- ‘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이행하는 중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정보/조력을 제공할 지원 시스템을 필요로 하였음.

(2) 질적 종단자료의 심층분석 결과

-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대도시 거주자 11명의 지난 3년(2018~2020년) 동안의 면접결과를 귀납적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진로 경험, 도움 경험 및 도움 욕구(요청)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음.
-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은 이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기대(의미)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삶의 만족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음.
- 지난 3년간의 진로 관련 특징은 “일관된 흐름”이었음. 학업중단 초기에는 청소년으로 할 수 있는 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닦치는 대로 하며, ‘일하고 놀기,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하기’를 반복하는 모습이었으나 학업중단 후 5~7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유사 직종의 일을 지속하는 모습, 높은 학벌을 향해 공부하는 모습, 같은 꿈을 쫓는 모습 등을 보였다. 이제 20대 초반을 넘어가는 시점을 놓고 볼 때, 이들의 진로의 특징은 “뒤늦은 진로 선택”,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음.
- 도움 경험과 관련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을 잘 모르는 경우’, ‘학업중단 초기에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된다는 경우’, ‘막상 살아 보니,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분류되었음.
- 질적 종단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발견하였음.
- 학업중단 이전부터 학업중단 이후의 당면 문제(부모자녀관계, 시간관리, 금전관리, 경력관리 등)를 중심으로 조기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함.
- 불가피한 학업중단만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학업중단 사례들을 이해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됨.

- 꿈드림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남에 따라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4) 신규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1) 신규 패널 구축 및 1차년도 조사 결과

- 신규 패널 구축: 기존 패널이 학업을 중단한지 5~10년 가까이 경과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최근 실태와 정책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만15~19세의 학교 밖 청소년 33명을 신규 패널로 구축하여 면접조사하였음. 이들은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음.
- 학업중단 계기·과정과 변화, 현재생활 탐색, 자신에 대한 생각/진로계획, 학교 밖 이후 지원 경험과 지원 욕구, 지역사회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고, 면접결과는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질적자료 분석결과,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위해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으나, 학교 내에서의 또래관계,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이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이었고, 교사/학교의 무관심 속에서 결국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부분이 학업중단을 후회하지는 않았으나, 간혹 후회할 때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막막함과 또래관계나 단체생활에 대한 동경과 소속감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음. 올해는 COVID-19로 더욱 대면접촉이 위축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사례도 나타남.
- 현재 생활을 탐색한 결과, 청소년들은 검정고시/수능준비 등 진학을 준비하거나, 인턴십/작업장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였고, 또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음.
- 자신에 대한 인식의 경우 현재 주도적으로 자기관리를 하고 더욱 책임감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책임 없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음. 진로계획으로는 고등학교 입학 및 검정고시 준비, 대학진학 준비, 취업 준비 등을 생각하였고 장기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창업을 희망하기도 함.

- 학교 밖 이후 지원 경험과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지원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더욱 심층적인 대학진학 및 직업/취업관련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다양한 활동과 기회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도시/대도시 인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았으며, 읍면지역은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였음.

(2) 신규 패널 생활시간 분석

- 생활시간 분석: 웨다이어리 방식으로 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조사하였고 현재 생활 탐색에 대한 면접조사결과와 함께 분석하였음.
- 청소년들은 검정고시/수능 준비, 인턴십/작업장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취득 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수행하는 평일 낮 시간 생활과 활동이 없는 주말·야간 시간의 생활 패턴의 차이가 컸음.
- 낮에 주요 일과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PC를 하면서 보냈고, 수면시간, 특히 운동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5)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조사결과

(1) 3개 대도시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 광주광역시: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으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자체임에도 학교 밖 청소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광주 북구는 2019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

는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이 우수한 사례로 판단됨.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제6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 내용을 적극 포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부산시 동래구 꿈드림은 위탁법인이 폭력상담센터임에 따라 성폭력·성문제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강점이 있음.
- 서울특별시: 서울 꿈드림 시·도센터는 25개 자치구 기초 센터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원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나,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꿈드림에서 여러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인 '와라' 등과 연계·협력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2) 3개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지역사회 지원, 실무자의 적극적인 의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속감 증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이벤트 마련, 프로그램 기획 시 청소년의 욕구 및 의견 반영 등이었고, 대도시에서 위치한 센터들은 다양한 인프라와 대중교통을 통한 기관 접근성 용이, 지자체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원활한 연계와 같은 장점이 있었음.
- 보완사항으로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의 꿈드림 역할 부여,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장 대상 인센티브 강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필요성을 언급함. 또한 성과위주의 평가체제로 인한 업무 부담과 실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강조되었음.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지원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의 분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예산지원 확충,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이 제시되었음.

(3)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75개 꿈드림 중 56개 센터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자치구에서 설립, 운영하는 꿈드림은 6개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비율은 각각 약 40% 정도였음.
- 만 15~19세 청소년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 20~24세, 만 15세 미만 순이었음. 꿈드림의 주요 이용 경로는 청소년의 자발적 이용, 가족/친구/선후배 소개, 학교/교육청 연계를 통한 사례가 가장 많았음.
- 지원서비스로 조사에 참여한 대도시지역 90% 이상의 센터에서 심리, 신체적 건강지원(건강검진은 100% 센터에서 지원), 검정고시 및 대입지원, 직업훈련 및 진로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인터넷 중독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는 55.4%, 자산관리 등 경제교육은 69.6%, 취업정보 제공 등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제공수준을 보였음.
- 3/4의 센터들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2/3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방임 및 가족 갈등 등 문제가 많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80%, 90%의 종사자가 예산이 부족하고 종사자 처우가 낮다고 생각하였고, 대도시 지역임에도 약 40%의 종사자가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음. 대도시 지역에서의 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전용공간의 부족함과 낙후된 시설,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인근 읍면지역과 다를 바 없는 교통편 부족을 언급하였음. 무엇보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사회 내 유사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시설이 많음에 따른 대상자 중복과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꿈드림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지자체/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 꿈드림 간의 서비스 격차가 컸으며, 대도시지역 꿈드림 차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내용에 있어서의 차별화’, ‘특성화와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핵심 기능 담당’의 필요성이 도출됨. 향후 꿈드림의 발전 방향성으로서 지역/대상/시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특성화, 경계성 지능 청소년 등 지원대상의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개별 센터로서의 독립성 보장과 실적 중심 평가방식 변경 등이 제시되었고 지역사회 내 인턴십 기회와 취업처와의 연계를 위한 지자체 노력이 강조되었음.

5. 정책제언

선행연구 고찰과 국내·외 정책사례 검토, 기존 패널 대상의 질적 자료 분석,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조사 및 생활시간 조사결과 분석,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분석과 면접/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기초하여 6개 방향성과 15개 정책과제, 34개 세부 정책과제(일부는 정책과제와 중복)를 제안하였음.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 청소년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원 마련,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강화, ③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및 홍보,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개선, ⑤ 지역사회 및 환경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⑥ 대도시 꿈드림의 차별화 전략 구축을 제시함.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제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접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패러다임의 전환: 비대면 사업 개발 및 대면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확대, 청소년 욕구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공간 지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확대와 같은 정책과제와 관련된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안함.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내용
1-1. 패러다임의 전환: 비대면 사업 개발 및 대면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확대	만 19~24세 연령 청소년
	장기결석학생
	경계선 지능 학교 밖 청소년
1-3. 청소년 요구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공간 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적 외상 치료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진로지도
	수능, 대입지원 확대
	청소년 요구 및 지역특성 고려한 인턴십 기회 및 청소년작업장 개발
	문화체험, 야외/신체활동 기회 확대
	청소년 자치기구, 위원회 사업 활성화
	사회성, 업무역량 개발 필요
	통합지원 필요한 사례들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휴식/놀이 공간 필요
1-4. 미래 설계 기초를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4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
2-1. 지자체, 지역사회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
2-2. 지자체/기초지자체 내 종사자 처우 및 시설 인프라 지원 노력
2-3. 지역사회 내 괜찮은 일자리 개발 및 지원 환경 구축
2-4. 행정체계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도시 지역의 꿈드림 차별화 전략,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재구조화, 대도시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내용
3-1. 대도시 지역에서의 꿈드림 차별화 전략	꿈드림 정체성 재정비
	진로관련 사업 특성화
	휴식 공간/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차별화
3-2.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재구조화	대도시 내 인근센터와의 통합 모델 운영
	꿈드림 연합사업운영체(가칭) 설립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 지정·운영
3-3. 대도시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 중앙부처 차원으로는 법·제도적 측면, 인식 개선 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교육부의 꿈드림 인식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내용
4-1.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관련 법·제도적 측면 개선	청소년정보 연계관련 법령 개선
	꿈드림 운영의 향후 방향성 설정 필요
	사업실적 평가체계 개선
4-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가적 차원의 꿈드림 홍보	
4-3. 현장실무자 처우와 전용공간 마련 등 인프라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
	독립된 전용공간 확대
4-4. 교육부/교육청의 꿈드림 인식 개선과 비학생 대상 공평한 기회 제공	꿈드림에 대한 인식 제고
	조기 개입 시 꿈드림과 연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20-R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10
3. 연구내용	13
1)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원관련 선행연구 고찰 ...	13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3
3)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추적 조사 및 결과 분석 ...	13
4)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구축 및 조사, 결과 분석 ...	13
5)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대도시) 지원체계 조사 ...	14
6)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제언	14
4. 연구방법	15
1) 문헌연구	15
2)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15
3) 질적 연구	15
4) 양적 연구	19

5) 기타 연구방법	19
6) 2020년 연구 수행 체계	20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1. 학교 밖 청소년 정의 및 현황	23
1)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및 유형	23
2)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5
2. 학교 밖 청소년 연구 개관(NYPI 연구)	33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	33
2)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연구(2018~현재)	36
3) 2020년 3차년도 연구	38
3.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필요성	39
1) 지역사회 내 지원 필요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9
2) 지역사회 지원관련 선행연구 개관	42

III. 국내·외 정책현황 및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자원 정책 .. 47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중앙지원 정책	49
1)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역사	49
2)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	50
3) 교육부의 지원 사업	59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도시 지자체 정책 사례	63
1) 서울특별시	63
2) 대전광역시	71
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외국 지원 사례(대도시 중심)	76
1) 아일랜드(더블린 시)	76
2) 스웨덴(스톡홀름 시)	81
3) 일본(요코하마 시)	86
4. 요약 및 시사점	91

IV.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 연구: 기존 패널 95

1. 기존 패널 현황 및 자료 수집	97
1) 기존 패널 조사 및 조사방법	97
2) 조사내용 및 결과 활용	100
3) 기존 패널(타 지역규모의 거주자) 관리조사	103

4)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자료 DB 구축	106
2. 대도시 지역 기존 패널 면접결과 분석	108
1) 자료수집 및 분석개요	108
2) 분석결과	116
3)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지원욕구 분석	161
3. 기존 패널 질적종단자료(2018~2020) 심층 분석	177
1) 분석개요	177
2) 분석결과	179
4. 요약 및 시사점	207
1) 기존 패널 관리 및 DB 구축	207
2) 대도시지역 기존 패널 면접조사	207
3) 기존 패널 질적종단자료 심층 분석	214

V.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구축 및 질적 연구 217

1.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구축	219
1) 신규 패널 구축의 배경 및 과정	219
2) 신규 패널 구축 현황	222
2. 1차 조사 내용 및 자료수집	224
1) 조사내용	224
2) 1차 면접조사 자료수집 및 자료 관리	227
3. 질적연구 분석 결과	229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및 분석 방법	229
2) 분석결과: 학업중단 계기 및 학업중단 과정	234
3) 분석결과: 학업중단 이후 변화	265
4) 분석결과: 현재 생활 탐색 및 생활시간 분석	278
5) 분석결과: 자신에 대한 생각과 진로계획	295
6) 분석결과: 지원 경험과 지원 욕구, 지역사회 인식	309
4. 요약 및 시사점	342
1) 신규 패널 구축 및 1차 조사 실시	342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342

VI.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대도시) 지원체계 조사 .. 349

1. 조사개요	351
1) 조사방법 개요	351

2) 조사대상 지역 및 센터 선정	352
3)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	354
4) 현장종사자 대상 질적·양적 조사	355
2. 3개 대도시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과 지원 현황 ..	356
1) 광주광역시	356
2) 부산광역시	374
3) 서울특별시	392
3. 3개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407
1) 조사개요	407
2) 면접결과	409
4.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445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445
2) 설문조사 결과	447
5. 요약 및 논의	467
1) 3개 대도시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과 지원 현황 ..	467
2) 3개 대도시 지역 꿈드림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468
3) 대도시 지역 꿈드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470
Ⅶ.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473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475
1) 선행연구 고찰	475
2) 국내·외 정책 사례	476
3) 기존 패널 면접조사 결과	477
4) 신규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479
5) 대도시 지원현황 및 현장실무자 조사결과	480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지역사회 지원을 중심으로 ..	483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	483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제	487
참고문헌	513
부 록	533
ABSTRACT	541

표 목차

표 II-1.	학교 밖 청소년 유형 ①	24
표 II-2.	학교 밖 청소년 유형 ②	25
표 II-3.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초등학생·중학생	27
표 II-4.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고등학생	28
표 II-5.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추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	30
표 II-6.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간접추정방법: 부분집합방식 (주민등록인구현황 사용))	32
표 II-7.	지역별 차이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지원 개선 방안	44
표 II-8.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45
표 III-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	53
표 III-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과 현황	53
표 III-3.	내일이룸학교 운영 현황	56
표 III-4.	2020년 내일이룸학교 현황	56
표 III-5.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	57
표 III-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	58
표 III-7.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현황	61
표 III-8.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현황	62
표 III-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용	65
표 III-10.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개요	67
표 III-11.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 내용	68
표 III-1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주요 내용	70
표 III-13.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현황: 초·중·고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72
표 III-14.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학생 수 및 학업중단자 수	72
표 IV-1.	기존 패널(2018~2020년) 연도별 조사 패널 수	98
표 IV-2.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관리 결과/현황	99

표 IV-3. 기존 패널 면접조사 내용	101
표 IV-4. (2020년 조사대상자 제외) 기존 패널 일반적 현황	103
표 IV-5. 기존 패널의 현거주지로의 이사 여부와 사유	104
표 IV-6. 현재 주로 하는 일과 최근 고민사항	105
표 IV-7. 기존 패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0
표 IV-8. 기존 패널 조사참여자별 특성 및 현황	111
표 IV-9. 기존 패널 분석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유형 구분	115
표 IV-10. 적극적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학업을 중단한 능동형	120
표 IV-11. 내·외적 원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불가피형	123
표 IV-12. 학교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중단한 도피형	128
표 IV-13. 학업중단 직후 ~ 고등학교 학령기 시기의 정지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133
표 IV-14. 학업중단 직후 ~ 고등학교 학령기 시기의 배회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136
표 IV-15. 학업중단 직후 ~ 고등학교 학령기 시기의 주도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143
표 IV-16. 학령기 이후 성인이 된 정지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	146
표 IV-17. 학령기 이후 성인이 된 배회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	147
표 IV-18. 학령기 이후 성인이 된 주도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	153
표 IV-19. 학업중단 시기별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특징	163
표 IV-20. 학업중단 시기별 과거 지원 내역과 향후 지원 욕구	167
표 IV-21.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향후 지원 필요 영역	170
표 IV-22. 학업중단관련 단계별 정책적 시사점: 학업중단 이전	174
표 IV-23. 학업중단관련 단계별 정책적 시사점: 학업중단 직후~ 고등학교 학령기	175
표 IV-24. 학업중단관련 단계별 정책 제언: 학령기 이후	176
표 IV-25. 질적중단자료 분석대상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178
표 IV-26. 2018~2020년 연구참여자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187
표 IV-27. 2018~2020년 연구참여자의 주요활동(진로 활동 중심) ·	197
표 IV-28. 2018~2020년 연구참여자의 지원 관련 경험	205
표 V-1.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 및 조사 완료자 현황	222
표 V-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현황	223
표 V-3.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면접조사 내용	224
표 V-4. 생활시간별 활동내용 작성 예시표	226

표 V-5.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 특성	230
표 V-6. 학업중단 계기	235
표 V-7.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이유	253
표 V-8. 학교의 의미	257
표 V-9. 학업중단과정에서의 학교에서의 경험	260
표 V-10. 학업중단에 대한 주변의 반응	264
표 V-11.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268
표 V-12.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 변화	274
표 V-13. 학업중단으로 인한 차별 경험	278
표 V-14.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 생활 탐색과 고민	281
표 V-15.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 걱정거리	284
표 V-16.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하루일과(수면시간, 자유시간 등)	288
표 V-17. 평일기준: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290
표 V-18. 주말기준: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293
표 V-19.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 자신에 대한 생각	299
표 V-20. 희망진로 및 미래계획: 단기목표	304
표 V-21. 희망진로 및 미래계획: 장기목표	308
표 V-2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지원 내용	315
표 V-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용 계기	318
표 V-2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외 지원	322
표 V-25.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330
표 V-26.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 전달에 대한 인식	335
표 V-27. 지역사회 지원과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341
표 VI-1.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관계 종사자 대상 조사개요 ..	355
표 VI-2. 광주광역시: 자치구 면적 및 인구 현황	357
표 VI-3.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 최근 5년 재정자립도	358
표 VI-4.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최근 5년 재정자립도	359
표 VI-5. 광주광역시: 지역내총생산	360
표 VI-6. 광주광역시: 초·중·고·특수 학생 수	361
표 VI-7. 광주광역시: 초·중·고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362
표 VI-8. 광주광역시: 학업중단숙려제 미참여 이유 및 학교 중단 시 학교의 안내	364
표 VI-9.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기관(2018년)	366
표 VI-10. 광주광역시: 청소년 보호기관/활동시설 현황	367
표 VI-11. 광주광역시: 학업중단 사유_자치구별 현황	369

표 VI-12. 광주 북구: 학업중단 사유_학교급별 차이	370
표 VI-13. 광주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내용	371
표 VI-14. 광주 북구: 청소년 시설 현황	371
표 VI-15. 광주 북구: 꿈드림 우수 프로그램(센터특성화사업) 내용	373
표 VI-16. 부산광역시: 자치구 면적 및 인구 현황(청소년 인구 포함)	375
표 VI-17. 부산광역시: 자치구별 최근 5년 재정자립도	376
표 VI-18. 부산광역시: 초·중·고·특수 학생 수	377
표 VI-19.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378
표 VI-20. 부산광역시: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될 당시 학교에서 제공받은 정보(복수응답)	379
표 VI-21. 부산광역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지원 기관이나 프로그램(복수응답)	379
표 VI-22.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380
표 VI-23.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내용	381
표 VI-24. 부산광역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내용	382
표 VI-25. 부산광역시: 청소년 보호기관/활동시설 현황	383
표 VI-26. 부산 2020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84
표 VI-27. 부산 2020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교육청)	385
표 VI-28.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관련 사업	387
표 VI-29.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원센터(꿈드림) 2020 사업계획(진로역량강화)	387
표 VI-30. 부산 동래구: 학업중단 사유_학교급별 추이	388
표 VI-31. 부산 동래구: 꿈드림 서비스 지원	390
표 VI-32. 부산 동래구: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및 현황	390
표 VI-33. 서울특별시: 자치구 면적 및 인구 현황	393
표 VI-34.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최근 5년 재정자립도	394
표 VI-35. 서울특별시: 초·중·고·특수 학생 수	395
표 VI-36. 서울특별시: 학업중단 현황_초·중·고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395
표 VI-37. 서울특별시: 학교 중단 후 주로 한 일	397
표 VI-38. 서울특별시: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받은 정보(복수응답)	398
표 VI-39. 서울특별시: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경험	398
표 VI-40.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용	400

표 VI-41. 서울특별시: 청소년 보호기관/활동시설 현황	401
표 VI-42. 서울 노원구: 학업중단 사유_학교급별 차이	402
표 VI-43. 서울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내용	403
표 VI-44. 서울 노원구: 꿈드림 지원 서비스의 목표 및 주요 사업	404
표 VI-45. 서울 노원구: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및 현황	405
표 VI-46.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지원센터 실무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	409
표 VI-47.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심층면접 내용 및 범주	410
표 VI-48. 대도시 E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 프로그램	421
표 VI-49. 대도시 F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 프로그램	422
표 VI-50. 대도시 G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 프로그램	423
표 VI-5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성공요인	428
표 VI-52.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체계 발전방안	442
표 VI-53.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및 지원체계 발전방안	443
표 VI-54.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및 지원체계 발전방안	443
표 VI-55. 교육청의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444
표 VI-56.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	446
표 VI-57. 현장종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47
표 VI-5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주체	448
표 VI-59.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령대별 평균 꿈드림 이용자 수: 전체 이용자수 기준	448
표 VI-60.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령대별 평균 꿈드림 이용자 수: 연령별 구분	448
표 VI-61. 특수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이용자 수	449
표 VI-62.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1순위)	449
표 VI-63. 꿈드림 공간 사용 현황	450
표 VI-64. 꿈드림의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에 대한 생각	451
표 VI-6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항목(지원하는 센터수와 비율)	452
표 VI-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454
표 VI-6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 기관 관련	455
표 VI-6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및 정부 정책관련	457
표 VI-69. 대도시 꿈드림으로서의 장점에 대한 인식	458
표 VI-70. 대도시위치 센터 운영의 애로사항	460
표 VI-71. 대도시 꿈드림 간 격차에 대한 인식	461
표 VI-72. 지역규모를 고려한 차별화 필요 여부	461

표 VI-73. 대도시 꿈드림 간 격차 원인 및 세부 내용	462
표 VI-74. 대도시 내 꿈드림 운영의 차별화 방안	463
표 VI-7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성	464
표 VI-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의 필요 정책 및 서비스	466
표 VI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총괄표	487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8~2022년)	12
그림 Ⅰ-2.	협동연구추진체계	12
그림 Ⅰ-3.	생활시간 조사를 위한 웹다이어리 화면 예시	18
그림 Ⅰ-4.	2020년 연구의 수행 체계	20
그림 Ⅱ-1.	학교급별 학업중단 연도별 추이	26
그림 Ⅱ-2.	학교를 그만둔 이유(복수응답)	29
그림 Ⅱ-3.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	31
그림 Ⅲ-1.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52
그림 Ⅲ-2.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과정 개요	54
그림 Ⅲ-3.	교육부 학습지원 사업 홈페이지의 소개화면	60
그림 Ⅲ-4.	서울시 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구조	66
그림 Ⅲ-5.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턴십 사업 진행과정 개요	69
그림 Ⅲ-6.	유스리치 센터의 인성교육 지향점을 보여주는 LIFT (Leading Ireland Future Together)의 하위 목표들	81
그림 Ⅲ-7.	스웨덴의 학교 밖 청소년 전달체계	83
그림 Ⅲ-8.	스톡홀름 시 취업센터(Jobbtorg Stockholm)의 홈페이지	84
그림 Ⅲ-9.	요코하마 시 3개 기관 연계 모델	86
그림 Ⅲ-10.	요코하마 동부유스플라자의 홈페이지와 안내화면	88
그림 Ⅲ-11.	K2 인터내셔널의 사업 소개	90
그림 Ⅳ-1.	2020년 기존 패널 조사 절차	101
그림 Ⅳ-2.	2020년 기존 패널 면접조사결과 활용·분석 방법	103
그림 Ⅳ-3.	학교 밖 청소년 질적자료 DB 구축·정리 체계(안)	106
그림 Ⅳ-4.	기존 패널 질적자료의 NVivo 입력화면 예시	108
그림 Ⅳ-5.	2018~2020년간의 학업①, 학업② 참여자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의 변화	182
그림 Ⅳ-6.	3년간의 진로관련 특징: 일관된 흐름	190

그림 V-1.	신규 패널 구축 및 1차 면접조사(생활시간 조사 포함) 실시 과정	221
그림 V-2.	복합적 사유에 따른 학업중단 예시	239
그림 V-3.	청소년의 구술대로 구성한 학업중단의 배경과 계기	249
그림 V-4.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계기	252
그림 V-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자유시간 주 활동	287
그림 V-6.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꿈드림 지원 내용	309
그림 V-7.	꿈드림 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경험	319
그림 V-8.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욕구와 홍보 필요성	324
그림 VI-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도시 지역사회 지원 조사 방법 ..	352
그림 VI-2.	대도시 조사대상 지역과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선정 과정	353
그림 VI-3.	행정·통계자료 활용 내용 및 조사 내용	354
그림 VI-4.	광주광역시: 지도 및 인구 현황	356
그림 VI-5.	특별시 및 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최근 3년 추이 ..	359
그림 VI-6.	광주광역시: 학교중단 계기(복수응답)	362
그림 VI-7.	광주광역시: 학교 중단 과정/절차	363
그림 VI-8.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구조도 및 사업내용 개요	365
그림 VI-9.	부산광역시: 지도 및 인구 현황	374
그림 VI-10.	부산광역시: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	380
그림 VI-11.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구조도	382
그림 VI-12.	서울특별시: 청소년 인구 추이	392
그림 VI-13.	서울특별시: 학교를 그만둔 이유(복수응답)	396
그림 VI-1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내용 및 과정	399
그림 VI-15.	대도시 꿈드림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수행 절차	445
그림 VI-16.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	450
그림 VI-17.	대도시 꿈드림의 환경 및 실태에 대한 인식	458
그림 VI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	483
그림 VII-2.	대도시 내 인근 센터와의 통합 모델(안)	502
그림 VII-3.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지정·운영(안)	503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금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나중에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한...”

위 인용문은 2018년 본 연구과제의 1차 년도 연구에 참여했던, 김정고시 후
취업을 희망하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인터뷰 내용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보고하고 있는 학교 울타리를 나온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 등(김상현, 양정
호, 2013; 박병금, 노필순, 2016; 백혜정, 송미경, 2015;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조아미, 이진숙, 2014; 최지연, 김현철, 2016)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²⁾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학업중단 학생 규모(2018년
3월~2019년 2월말 조사)는 2018년 말 기준 초등학생 17,797명, 중학생 9,764
명, 고등학생 24,978명으로 총 52,539명이다³⁾. 누적인원을 모두 포함한 학령기

1) 제1장 서론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2) 선행 질적 연구들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후 초기에는 자유롭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박병금, 노필순, 2016;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b; 최지연, 김현철, 2016).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
&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
0104&flag=B](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추정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24만명(하형석, 2020)에서 31만명(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a)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정확한 추정치 파악이 어렵다고 해도 재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15년에 47,070명에서 2018년 52,539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볼 때(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5~2019), 그리고 상기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5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2019년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21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26개), 부산(16개), 대구(9개), 인천(9개), 광주(6개)와 같은 대도시 뿐 아니라 그 외의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운영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20).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중앙부처의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각적인 욕구에 모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일례로, 꿈드림에 연계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본인들에게 필요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학업을 중단한지 4년차 된 청소년들을 꿈드림센터에 연계, 시도한 결과 약 18.1%만이 연계되었으며, 연계 이후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성운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2017).

학교 밖 청소년들 중 학업중단 5년 후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81.4%로(윤철경 외, 2017),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후 물리적인 큰 이동 없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 단위의 일관성있는 정책적 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다 현실

적인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지역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 활동무대가 되었다. 이는 그동안 가정 다음으로 가까운 체계였던 학교가 지역사회로 대체되면서 그동안 다소 거리가 있던 지역사회가 이제는 가깝게 상호작용하는 밀접한 환경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역은 단순히 누군가가 거주하는 장소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편의시설, 사회서비스 시설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김경애 외, 2016: 21).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간 격차는 사회적 기회와 자원, 권력 등이 지역마다 균등하게 분포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균형의 차이로 볼 수 있다(조명래, 2011).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 지역 규모에 따른 특성과 지원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빈곤지역 결손가정에서 위기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중소도시는 지역 네트워크는 활발한 반면, 저소득층 및 특성화고 학생의 학업중단이 많았고, 읍면지역에서는 교통시설과 인프라 및 경제활동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8a)⁴⁾.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인프라와 지역 특성의 장·단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성인기로의 이행경로와 특성들에 근거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 2019).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결되는 지원체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해당 지역규모와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 지역사회 특징 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는 그동안

4) 심지어 같은 서울에서도 자치구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치구 예산 투입 여부 및 정도,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 외 내일아름학교, 취업성공패키지, 평생교육시설 등 관련 인프라에 차이가 크다(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9).

학교 밖 청소년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도움을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받아왔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애주기나 발달단계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은 이들의 욕구에 기반해야 함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한 질적종단자료 수집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이들 청소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이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한 지원방안과 관련한 연구들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연구방법이 단년도 조사에 그치고 있다⁵⁾. 이에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의 후기 청소년의 복잡한 경험들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원 역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추적하여 심층 조사하는 질적 패널 조사가 필요하다⁶⁾.

본 연구의 1~2차년도 연구 역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수행되었다. 2018년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60명을 질적 패널⁷⁾로 구축하여 현재의 생활

-
- 5) 학업중단/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1992~2011년까지 총 62개의 연구 중 질적 연구는 64.5%, 양적 연구는 32.2%였으며(김영희, 허철수, 2012), 이후 2012~2018년까지의 총 135개 논문 중에서는 양적 연구 비중이 49.6%, 질적 연구 50.4%의 분포를 보였다(조혜영, 2019: 491). 연구주제별 분포에서는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4.2%, 진로/자립관련 연구 10.6%였으며, 이외 학업중단 예방이나 학업중단 관련 요인과 청소년 특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담/멘토링 같은 세부적인 프로그램 관련 주제기 14.3%,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연구는 10.1%로 나타났다(조혜영, 2019: 491~494).
- 6) 이전 연구결과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났다는 것 말고는 전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보다는 질적 조사가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경로는 다양할 뿐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였고(예, 학업형→직업형, 무업형→학업형 등), 이들 중 일부는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등 생활환경이 변하기도 했기 때문이다(윤철경 외, 2018a; 장근영 외, 2019).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성인기 이행으로의 과정은 양적 데이터를 통해 일정한 패턴을 찾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찰과 조사를 통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심층적인 질적 자료로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16~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를 통해 구축, 조사된 청소년 패널이다.

세계 및 학교 밖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 수행된 2차년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48명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변화 내용, 자아·가족·또래·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주제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중 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와의 심층면접조사와 지역사회 특성 및 배경, 자원 분포 등을 조사하여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파악하였다.

이에 올해 수행하는 3차년도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패널들을 추적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전년도의 중소도시 지원체계 연구에 이어 올해에는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5년 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머무르는 비율이 대도시의 경우 86.8%로 매우 높은 편임을 볼 때(윤철경 외, 2017),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과 현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들을 위한 지역 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올해에는 최근 학교를 떠난 만 15세~20세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규 질적 패널을 구축,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기존 질적 패널은 20대 초·중반의 청년들로 이들에 대한 질적 조사는 청소년기에 학교를 떠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인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도권 학교 밖에서

8)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역시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수월한 대도시를 우선 조사하고 차년도에 연구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읍면지역을 연구할 예정이다.

9) 당초 만 15세 내외를 목표로 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려 하였으나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과정에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컨택이 가능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쉼터 이용 청소년들 대부분이 만 15~1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확인함에 따라 가능한 어린 연령대의 청소년을 조사에 포함시키되 연령기준은 다소 유연하게 활용하였다.

성장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의미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 환경 변화¹⁰⁾에도, 최근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바,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구축, 질적 조사를 수행하여 시의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 이용대상은 17~22세로 19세 미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조아미, 임정아, 김남은, 2019), 고등학교 시기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규 질적 패널 구축 및 조사는 최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과 새로운 욕구 파악 등을 통해 이 시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풍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역사회 내 역할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청년패널의 경우 전년 대비 변화 내용과 현재 생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신규 학교 밖 청소년패널의 경우는 학업중단의 계기와 이후 생활의 변화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의 지원 내용(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포함)과 욕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은 2015년 이후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기존 패널과 큰 차이점이 있으며 유관 정책 사업에 또 다른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3차년도 연구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10) 제도권 이탈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현재보다 더 부정적이었으며,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도 미흡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 운영되는 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책 환경과 인식이 다소 변화하였다. 현재 질적 조사 자료는 2013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를 위해 구축된 패널로서 청년시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도 필요하나 더불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의적절한 다각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22일에 개최된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학교 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의 토론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후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 경험, 진로 지원 등과 관련된 현재 상태와 욕구를 심층적으로 면접조사하며, 둘째, 대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의 지원과 자원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 상황 및 욕구와 필요에 충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도시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 문제가 더 많고, 또 신체적인 한계와 안전 등의 문제로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학교 밖 여자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후 남자 청소년들과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자립 및 지역사회 내 지원에 대해서도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생애과정(life course) 접근¹¹⁾에 기반한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청소년기 시절 제도권 학교생활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하는지 확인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 및 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학교 밖 여자 청소년을 포함한) 지원 방안 및 정책 대응을 위한 시의성있는 풍부한 심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질적 자료는

11) 생애과정(life course)은 우선적으로 연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역사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로 볼 수 있다(Mortimer & Shanahan, 2007). 생애과정 접근(life course perspective)은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그리고 지역사회와 가족 맥락이 생애동안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관점(Bronfenbrenner's ecological perspective)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생애과정 접근은 시간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변화 뿐 아니라 변화의 시점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고려한다(White & Wu, 2014). 이에 생애과정 연구는 변화과정, 특히 변화를 촉진한 전환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 종단적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Howes & Goodman-Delahunty, 2014), 학교 밖 청소년의 질적 종단 자료 분석을 통해 이들의 삶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살펴보면서 경험했던 과정과 사건, 특히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함께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차후 질적종단자료 DB구축에 활용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향후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의미있는 2차 자료 분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서비스에 더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성인기 자립에 기여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 연구 중 3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질적 패널을 구축, 조사하고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질적 패널들을 추적, 조사하고 중소도시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모델을 모색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기존의 질적 패널을 추적, 조사할 뿐 아니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을 구축, 면접조사를 수행하며, 대도시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수월한 대도시를 우선 조사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기초로 차년도에 연구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읍면지역을 연구할 예정이다.

1차년도 (2018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 패널 구축 및 학업중단 이후 경험 및 변화 등 면접 조사 실시, 지역사회 지원 모델 도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내용	• 학교 밖 질적 조사 패널 구축(60명):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이행경로(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성별 고려 • 면접질문지 개발 (주제: 생활세계, 학교중단 후 학교 밖 경험 등)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심층면접조사, FGI, 해외출장
▼		
2차년도 (2019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대상으로 자신 및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면접 조사 실시, 중소도시에서의 지역사회 지원방안 질적 조사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 조사(2차 조사 48명 참여) •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주제: 자아·가족·또래·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질적 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심층면접조사, FGI
▼		
3차년도 (2020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대상 면접조사 및 신규 패널 구축·면접조사 실시, 대도시 지역에서의 지원방안 도출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청년) 조사(3차 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구축 및 조사(1차) (최근 1년 학교를 떠난 만 15~20세 청소년) •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주제: 진로정체감, 지역사회 활동 및 지원 등)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대도시 지역사회 지원체계 질적 조사, 현장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학교 밖 여성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및 결과분석(협동연구) • 질적자료 DB구축 구상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심층면접조사
▼		
4차년도 (2021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실시, 읍면지역에서의 지원방안 도출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 조사(기존패널 4차 조사, 신규패널 2차 조사) •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주제: 진로·직업 등)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읍면지역 지역사회 지원체계 질적 조사 • 질적자료 DB구축(안) 마련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심층면접조사, FGI 등

5차년도 (2022년)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실시, 지역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체계 도출
	연구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 조사(기존패널 5차 조사, 신규패널 대상 3차 조사) • 면접질문지 수정·보완(주제: 자립, 결혼 등)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 방안 도출 • 질적자료 DB활용 지침(안) 마련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심층면접조사, FGI 등

그림 1-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8~2022년)

본 연구는 협동연구로서 아래와 같은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된다. 협동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학교 밖 여성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통계조사 2차 자료 분석 및 면접조사를 통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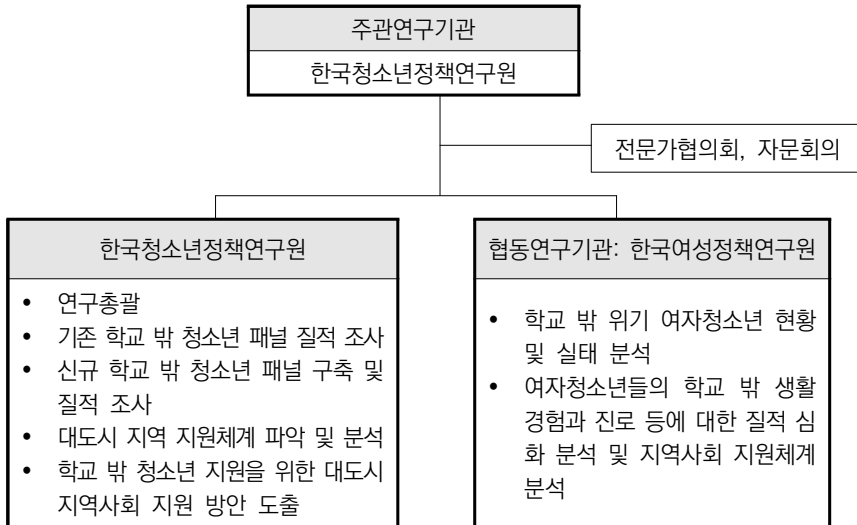


그림 1-2. 협동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1)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원관련 선행연구 고찰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유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특히 대규모 양적, 질적 연구를 수행해 온 본원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연구들을 개관, 검토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 필요성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정책,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교육부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또 대도시 지자체 수준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아일랜드, 스웨덴, 일본의 대도시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활용하였다.

3)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추적 조사 및 결과 분석

전년도 조사에 참여하여 명단을 전달받는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48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학업중단 시기와 발단단계를 고려한 진로관련 준비와 이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2018~2020년의 3년 동안 축적된 전사자료 일부를 활용한 심층 질적 종단자료 분석도 시도하였다.

4)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구축 및 조사, 결과 분석

최근 학교를 떠난 만 15~20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 패널을 구축하고 학교를 떠난 이유, 학교 밖 생활 경험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

진로 계획,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사업 경험과 욕구 등에 초점을 두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신규 패널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사유 등 최근 실태 파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2015년 이후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경험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사업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해주며,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또한 신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과 시간 사용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 조사를 수행하였다(면접 자료와 함께 분석)

※ 협동연구에서는 이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중 일부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하였음.

5)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대도시) 지원체계 조사

대도시 지역사회 환경 및 특성(인구 사회학적 배경, 관계기관 분포 등)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관련 인프라 등을 파악,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3개 특별시·광역시(광주, 부산, 서울)를 선정하여 이들 지자체의 인구특성,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 수, 지원 사업과 재정지원 내역, 꿈드림 사업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욕구 및 관련 문제점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제언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사례 검토, 기존 패널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조사 결과, 대도시 지역 꿈드림 지원 내용과 현장종사자 대상의 면접·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과 대도시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내·외 정책 사례 자료 수집 및 내용 분석을 위해 관련 국내·외 문헌과 관련 웹페이지를 고찰하였다. 대도시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분석을 위하여 조사대상 3개 대도시 지자체의 행정자료(지역사회 특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내역 관련 사업 현황 분석자료)와 통계자료(청소년 수, 학업중단발생 학생 수, 재정자립도,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를 검토,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에 활용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개최시기
1차	연구 내용 및 조사영역 검토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관련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학계 전문가	2/4
2차	기존 및 신규 청소년 패널 대상 면접조사, 종사자 면접/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서면 자문 실시	학계, 정책전문가	4/8~20
3차	청소년쉼터 이용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면접조사 관련	현장전문가	6/15
4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숍	학계, 정책전문가	11/11

3) 질적 연구

2018년 1차 조사 때부터 조사에 참여한 기존 패널에 대해 3차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신규 학교 밖 패널을 구축하여 1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존 패널은 면접조사에 22명, 패널관리 모바일조사에 20명이 참여하였고, 신규 패널은 패널로 구축된 33명 모두 1차 조사에 참여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기존

및 신규 패널 모두 조사참여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특히 신규 패널의 경우 미성년임에 따라 보호자 동의절차를 완료한 후 면접조사에 착수하였다.

연도별 학교 밖 질적 패널 구축 및 조사(안)					
패널구분	2018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기존 청년패널 (20대 초·중반)	62명 면접조사	48명 면접조사	22명 면접조사, 20명 패널관리조사		
신규 청소년패널 (10대 중·후반)			33명 면접조사		

○ 기존 패널 면접조사 및 패널관리조사

기존 패널 48명을 추적하여 이들의 근황과 함께 올해 조사 참여 여부 등을 우선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대도시지역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다른 지역 20명에 대해서는 패널관리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요소	기존 질적 패널 조사
면담참여자	전년도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48명 대상으로 접촉
면담참여자 특성 및 수	현재 대도시 거주 기준 22명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개별 온라인 화상 면담 (지속적으로 대면 면접을 요청한 3명 제외)
면담 시간 및 횟수	각 60분 내외/ 1회
면담자료 기록/녹취 여부	녹취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면접조사에 훈련된 상담심리 석박사 대학원생
면접내용	전년대비 변화내용과 진로관련 준비 및 자립 여부, 지원육구 등 (면접지 기관 IRB 승인받음. 승인번호: 202007-HR-고유-015)

※ 올해 연구에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구축 및 조사가 추가됨에 따라 연구일정 및 연구범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패널에 대해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제한된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다른 패널들의 경우 패널관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차년도에는 올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기존 패널은 최대한 면접조사에 포함시키고 패널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 및 면접 조사, 생활시간 조사

COVID-19의 확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면서 접촉시도부터 패널 구축까지 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대한 지역 및 유형별 할당을 고려하여 표본을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33명을 패널로 구축하였으며, 1차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요소	신규 질적 패널 구축 및 조사
면담참여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을 시작으로 눈덩이 표집방식
패널 구성 기준	성별(남, 여),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교 밖 유형(학업, 취업, 무업)을 고려한 면접대상자 수를 할당하여 표본 구성 계획(36명) ※ COVID-19으로 인한 대면접촉 및 외부인 접촉의 불편함으로 당초 계획대로(표본구성 과 수 등) 진행되지 않음(패널 구축 상세 내용은 5장 1절 참조).
면담참여자 수	33명
참여자 특성 개요	최근 2년 이내 정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전원 온라인 화상 면담 실시
면담 시간 및 횟수	각 60분 내외
면담자료 기록/녹취	녹취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면접조사에 훈련된 면접조사원
면접내용	학업중단 이유, 학교 밖 생활 경험, 생활시간, 진로계획, 지원받은 경험, 지원욕구 등 중심으로 기존 면접지 보완·수정(기관 IRB번호: 202007-HR-고유-015)

※ 조사협조가 가능했던 꿈드림의 경우 이용 청소년 대부분이 만15~19세 사이로 나타남에 따라, 당초 학교 밖 청소년의 저 연령화를 고려한 패널 연령기준(만 15세 내외)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학업중단자를 패널로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대상자 섭외의 어려움으로 가능한 2년 이내로 기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중 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시간 파악을 위해 그림 I-3과 같은 방식의 웹다이어리*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진로목표에 따른 생활시간, 수면시간, 주요 활동시간과 장소, 동반인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 본인의 일상을 시간대별로 정해진 항목에 따라 입력하고, 추가적인 구성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웹조사 방식

〈첫째 날〉 월 일 요일 새벽 0시 ~ 새벽 3시

	위와 동일	1. 주로 한 행동	2. 행위장소/이동수단	3. 함께 한 사람	4. 동시에 한 행동
새벽 0시		sleeping	본인 집	가족 전체 -	nothing
10분	☒	sleeping	본인 집	가족 전체 -	nothing
20분	☒	LoL playing	본인 집	혼자 -	eating
30분					

그림 1 -3. 생활시간 조사를 위한 웹다이어리 화면 예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종사자 면접조사¹²⁾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역사회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당초에는 FGI를 계획하였으나 역시 COVID-19로 인해 개별 면접으로 방식을 전환하였다. 3개 대도시 지자체 시·군·구센터의 팀장급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였다.

주요 요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종사자 면접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지자체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면담참여자 수	3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팀장급 종사자
면담방식	1명은 센터에서 대면면접, 2명은 온라인 화상면접
면담 시간 및 횟수	90분 내외
면담자료 기록/녹취 여부	녹취 후 전사
면담자	연구진
면접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중앙부처·지자체와의 관계, 개선 방안 등 (면접지는 기관 IRB 승인받음. 승인번호: 202007-HR-고유-015)

12) 일부 제한적으로 수행된 개별 대면 면접 시에는(기존 패널 3명, 현장종사자 1명)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등을 사용하였고, 현장종사자의 경우는 아크릴판으로 구획이 나뉜 공간에서, 기존 패널 조사도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최대한 안전을 기하여 면접을 수행하였다.

4) 양적 연구

○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서울특별시와 전국의 광역시 소재 시·도 및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75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센터 당 1인 실무자 참여). 최종적으로 56개 센터의 종사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소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표집틀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소재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표본수	• 1개 센터 당 팀장급 종사자 1명, 총 75명 중 56명 조사완료
표집방법	• 전수조사
조사시기	• 2020년 10월
조사방법	• 웹/모바일 링크를 활용한 설문조사
조사내용	기관현황, 이용자 수 및 이용 경로, 시설/공간 인식, 지원내역, 지원관련 쟁점(발굴 경로, 서비스 접근성, 예산문제, 종사자 처우, 정부의 관심)에 대한 인식, 대도시 센터로서의 장점·단점 등(조사지는 기관 IRB 승인받음. 승인번호: 202007-HR-고유-015)

5) 기타 연구방법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	연구 내용 및 면접조사 내용 전반에 대한 서면 자문	여성가족부	4/8~20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관련 정책적 합의 도출	여성가족부	11/2

○ 정책포럼 개최

- 학교 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 정책포럼 개최(1/22)
- 2019년 조사결과를 기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2020년 연구방향성에 대한 합의 도출

6) 2020년 연구 수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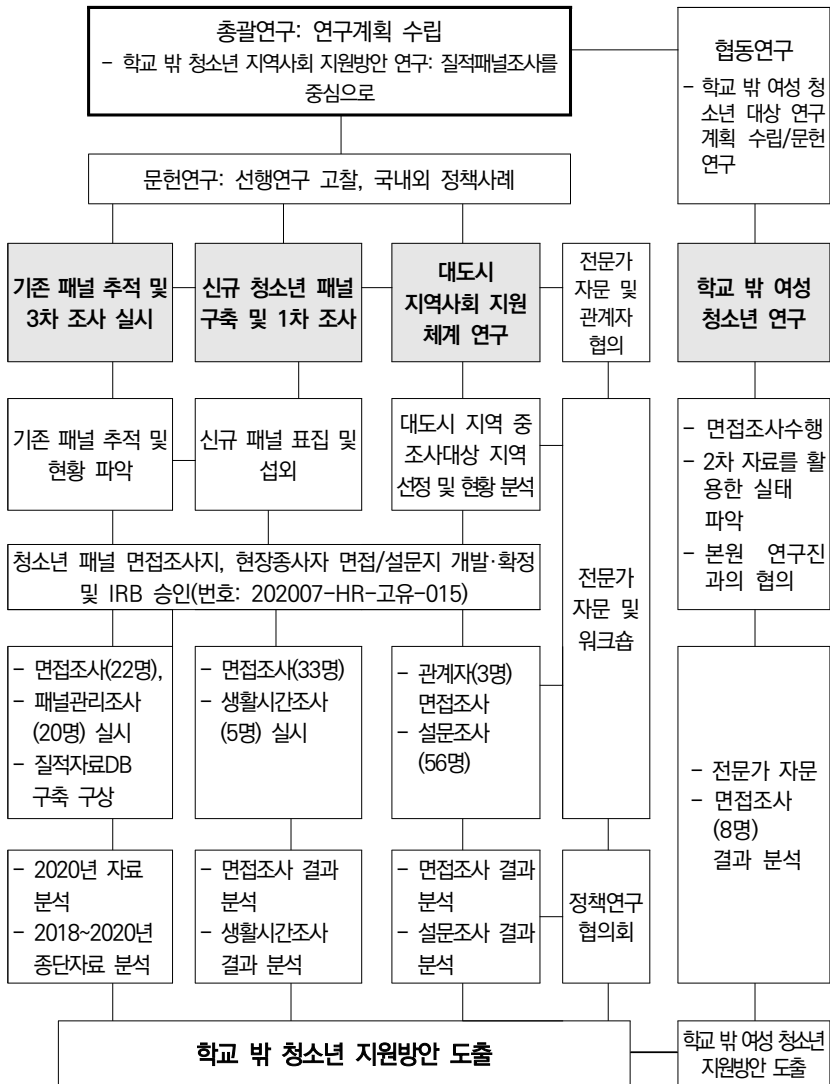


그림 1-4. 2020년 연구의 수행 체계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학교 밖 청소년 정의 및 현황
- 2. 학교 밖 청소년 연구 개관(NYPI 연구)
- 3.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필요성

1. 학교 밖 청소년 정의 및 현황

1)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 및 유형

제도권 교육을 떠난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자, 중퇴자, 등교 거부자, 중도탈락학생 등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는 이름으로 불려오면서 마치 모두 정규 교육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일탈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정규 학교를 떠난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비춰졌다¹⁴⁾.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고, 비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전반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항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명칭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정리가

13) 제2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14) 특히 중도탈락자나 중퇴자라는 명칭은 청소년을 일탈자나 패배자로 암시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간과한 용어라는 문제제기도 있다(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전히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조혜영, 2019).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떤 대상을 지칭해 왔는지는 선행연구들의 학교 밖 청소년 유형 분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정착되기 전인 이숙영, 남상인과 이재규의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사회적응 연구(1997)에서 이들을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하고 정착형은 진학형, 직장취업형, 취업준비형 등으로, 비정착형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등에 속해있거나 여기에 속하지 않은 방치/방임된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이경상과 조혜영의 연구(2005)에서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순수진학형, 취업형, 아르바이트형, 진로미결정형, 기타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김범구와 조아미의 연구(2013)에서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미결정중심형,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으로 유형화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한 윤철경 외(2013)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경로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 경로에 따른 유형으로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니트형), 비행형으로 구분하였으며(표 II-1), 백혜정과 송미경의 연구(2015)에서는 진로 결정형과 진로 미결정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진로 결정형으로 학업형과 근로형을, 진로 미결정형은 유예형과 비행형으로 구분하였다(표 II-2).

표 II-1. 학교 밖 청소년 유형 ①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니트형(NEET)	비행형
복학, 대안학교 재학,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	직업훈련이나 아르바이트/취업하여 일하는 유형	아무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지내는 무업형	가출하여 보호시설에서 지내거나 보호관찰 등을 받는 비행에 노출된 유형

* 출처: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자원방안 연구 I. p.204~206, 270 내용 발췌, 정리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과 김강호(2015)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이행경로 분석을 통해 학업복귀형, 비행경험형, 학업지속형, 학업-직업 전환형, 직업형, 무업형의 6개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윤철경 외의 연구(2017)에서

는 이를 직업형(학업-직업전환형, 직업형), 학업형(학업복귀형, 학업지속형), 무업형으로 유형을 더 크게 범주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I-2. 학교 밖 청소년 유형 ②

진로 결정형		진로 미결정형	
학업형	근로형	유예형	비행형
학력 취득을 주목적으로 대안학교, 학원 등과 같은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는 청소년	근로 및 취업을 주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거나 근로(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일상을 보내는 청소년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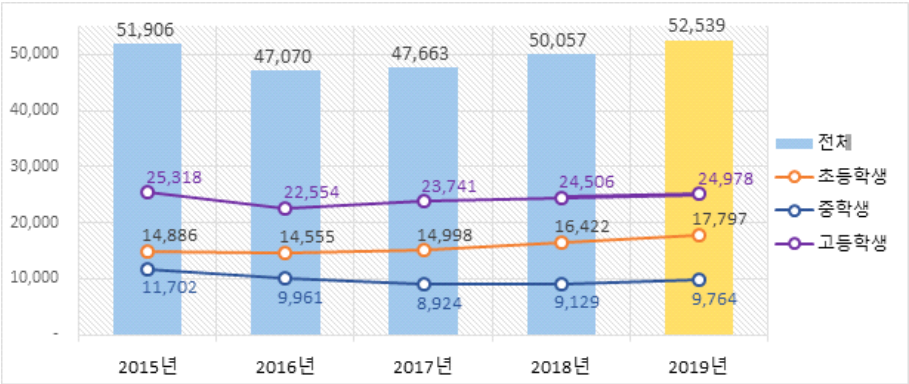
* 출처: 백혜정, 송미경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p.29

관련 법률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에 더해 이러한 유형 구분은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성인기로 이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24세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사유에서든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정규학교를 떠났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학교 밖 청소년 유형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의 기준(윤철경 외, 2017)을 활용하여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가장 최근 통계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II-1), 2019년 기준 전체 52,539명으로 초등학생은 17,797명, 중학생은 9,764명, 고등학생은 24,978명으로 고등학생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전체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2016년에 이후 학업중단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그림 II-1), 2016년 이후 학업중단 학생 수가 증가하였는데,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5,469명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학업중단 초등학생은 전년대비 천명 이상 더 증가하였다. 중학생은 2015년 일만 명 수준에서 2017년 8천 9백명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일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하였다(9,764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19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2015~2018년도 통계는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

그림 II-1. 학교급별 학업중단 연도별 추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2019년 2월 말 기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유학이나 해외 출국 등에 따른 학업중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질병, 해외출국, 가사, 학교 부적응, 기타 사유에 따른 자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표 II-3). 학업중단 사유를 교급에 따라 연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019년 기준 질병이 0.7%, 미인정유학 및 해외출국 79.3%, 기타사유 19.9%로 유학/해외출국 비율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며, 2015년 이후 유학/해외출국은 미세하게 감소한 것에 비해 기타

비율은 약간 증가하였다. 중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유학/해외출국 비율이 53.1%, 기타 비율이 43.5%로 초등학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도 초등학생보다 많은 3.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유학 및 해외출국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II-3.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초등학생·중학생(‘19.2월말 기준, 교육부)

교급	연도	합 계	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장기결석	기타
초등학생	2015	14,886명 (100%)	154명 (1.0%)	11,955명 (80.3%)	106명 (0.7%)	2,671명 (17.9%)
	2016	14,555명 (100%)	156명 (1.1%)	11,666명 (80.2%)	87명 (0.6%)	2,646명 (18.2%)
	2017	14,998명 (100%)	137명 (0.9%)	11,967명 (79.8%)	11명 (0.1%)	2,883명 (19.2%)
	2018	16,422명 (100%)	137명 (0.8%)	12,941명 (78.8)	10명 (0.1%)	3,334명 (20.3%)
	2019	17,797명 (100%)	131명 (0.7%)	14,118명 (79.3%)	5명 (0.0%)	3,543명 (19.9%)
중학생	2015	11,702명 (100%)	446명 (3.8%)	5,780명 (49.4%)	152명 (1.3%)	5,324명 (45.5%)
	2016	9,961명 (100%)	401명 (4.0%)	5,184명 (52.0%)	116명 (1.2%)	4,260명 (42.8%)
	2017	8,924명 (100%)	355명 (4.0%)	4,818명 (54.0%)	64명 (0.7%)	3,687명 (41.3%)
	2018	9,129명 (100%)	339명 (3.7%)	5,024명 (55.0%)	41명 (0.4%)	3,725명 (40.8%)
	2019	9,764명 (100%)	385명 (3.9%)	5,090명 (52.1%)	37명 (0.4%)	4,252명 (43.5%)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19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2015~2018년도 통계는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중단 사유는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 데(표 II-5), 2019년 2월말 기준 대다수인 95.1%는 여러 사유로 학교를 자퇴하였으며, 이외에 퇴학은 2.9%, 제적유예면제는 0.6%였다. 퇴학과 제적유예면제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는 2015년 이후 미세하게나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업중단 사유 중 자퇴는 질병, 해외출국, 가사, 부적응, 기타로 구분되는데, 2019년 기준 기타의 비중이 과반수에 가까운 48.6%로,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보인 학교부적응은 2019년에는 27.9%였는데 2015년 38.6%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질병은 4.7%, 해외출국 14.3%, 가사 1.0%였는데, 2015년 이후 질병 사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해외출국과 가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고등학생(19.2월말 기준, 교육부)

구분	합계	자퇴					퇴학	제적·유예 ·면제
		질병	해외출국	가사	부적응	기타 ^{*)}		
2015	25,318명 (100%)	1,006명 (4.0%)	3,939명 (15.6%)	624명 (2.5%)	9,781명 (38.6%)	8,739명 (34.5%)	858명 (3.4%)	371명 (1.5%)
2016	22,554명 (100%)	882명 (3.9%)	3,693명 (16.4%)	503명 (2.2%)	7,963명 (35.5%)	8,386명 (37.2%)	790명 (3.5%)	337명 (1.5%)
2017	23,741명 (100%)	993명 (4.2%)	3,938명 (16.6%)	346명 (1.5%)	7,208명 (30.4%)	10,227명 (43.1%)	777명 (3.3%)	252명 (1.1%)
2018	24,506명 (100%)	997명 (4.1%)	3,629명 (14.8%)	280명 (1.1%)	7,042명 (28.7%)	11,558명 (47.2%)	780명 (3.2%)	220명 (0.9%)
2019	24,978명 (100%)	1,176명 (4.7%)	3,567명 (14.3%)	262명 (1.0%)	6,968명 (27.9%)	12,128명 (48.6%)	721명 (2.9%)	156명 (0.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19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2015~2018년도 통계는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

주: '기타'는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의미

학업중단 사유와 관련하여 2018년에 수행된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¹⁵⁾ 결과를 통해 좀 더 살펴보면(복수응답 기준)(그림 II-2), ‘학교에 다니는데

15) 이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보호관찰소, 대안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검정고사장)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섭외, 조사한 것으로 총 3,185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의미가 없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 분위기가 자신과 맞지 않아서’, ‘학교 친구들과의 문제로 인해’ 등 학교와 관련된 사유가 많았으며, ‘심리·정서적 문제’, ‘검정고시 준비’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상당수였다(그림 II-2). 이 외에도 교사와의 갈등, 건강상의 이유, 이민 또는 해외유학, 부모님과의 갈등·불화, 경제사정 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복수응답기준 10% 미만의 적은 비율을 보였다(윤철경 외, 2018b: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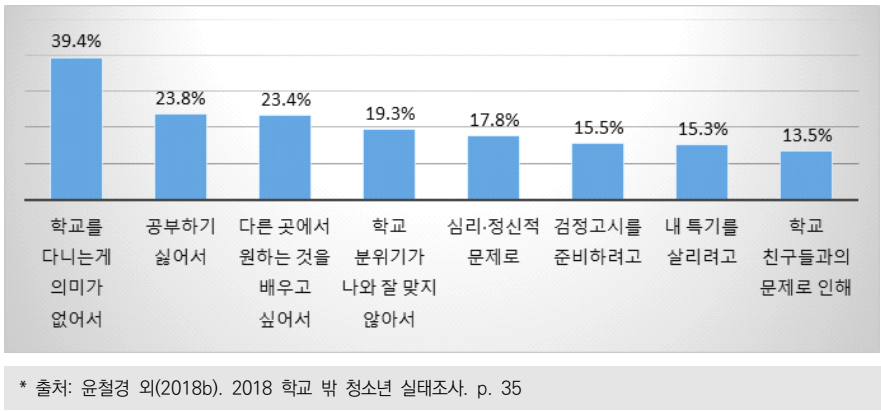


그림 II-2. 학교를 그만둔 이유(복수응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워낙 다양한 이유와 경로로 교육체계를 떠나고 있고, 또 유학이나 이민 등의 사례와도 구분하기 어려워 우리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령기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여러 통계자료를 종합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방식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추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추산 방법 및 규모를 살펴보면 표 II-6과 같다. 각 선행연구들의 경우 활용한 통계들이 상이

하여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산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대체로 25만~30만명 내외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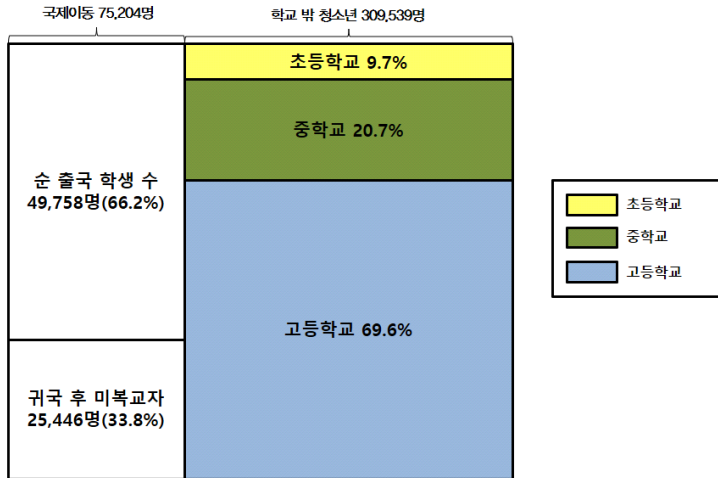
표 II-5.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추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

연구	추산방법	추산규모
윤철경 외(2013)	- 전체 학령 인구 중 실제 학생 수와 외부 유입인구 수 및 기타 학제 학생 수 제외	28만명
오병돈, 김기현 (2013)	- 인구추계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연령 인구에서 학생 수 제외 - 가구표집을 활용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바탕으로 전체 규모 추정	36만명
백해정, 송미경 (2015)	- 만9~24세 청소년 수에서 초·중·고 재학생 수와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수(추정치)를 제외한 수로 추정	27만명
윤철경 외 (2018a)	- 주민등록상 학령 인구 수에서 학생인구와 순 학업중단자 수와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 수를 제외한 수에서 순 출국자와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 제외	31만명
하형석(2020)	- 간접추정방법(교육기본통계 등 간접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집단 규모에 대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부분집합방식(주민등록인구현황 사용) [*]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추정	24만명

* 출처: 백해정, 송미경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p.18의 표에 윤철경 외(2013)연구의 pp.29-30의 내용과 윤철경 외(2018a)연구의 pp.268-270, 하형석(2020) 연구의 내용을 추가하여 표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주: 모든 사람이 학교에 입학한다는 전제를 만족시켜야 하나 이 경우 학생 수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교육기본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비교적 최근 추정치인 윤철경 외(2018a)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만 7-18세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약 39만 명으로 해외 유학 등을 포함하는 출국자를 제외하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약 34만 명으로 보았고, 여기에 내국인 순 출국 학생 수와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약 31만명으로 추산했다(윤철경 외, 2018a: 270). 이 연구에서는 해외로 출국한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국내에 남아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 연령대 9.7%, 중학교 연령대 20.7%, 고등학교 연령대 69.6%로 추산하였다(그림 II-3).



* 출처: 윤철경 외 (2018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p.273

그림 II-3. 학령기(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

가장 최근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치는 하형석, 이종원과 이정민의 연구 (2019)와 하형석(2020)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추정과 간접추정 방식 등 각각의 방식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직접추정방식을 위해 직접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동/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과소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송인덕, 조성겸, 2013). 즉, 또 우리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임을 밝히는 데 있어 과소응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오병돈, 김기현, 2013).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가 과소 추정될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자료들이 연령 기준을 모두 포괄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하형석, 2020: 4). 이에 따라 하형석 외(2019)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구수에서 학생 수를 제외하는 방식의 간접추정방식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산출하였다.

간접추정방법은 청소년인구수에서 학생 수를 빼는 방식인 부분집합 방식과 누적된 학업중단 청소년 수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 청소년 수를 빼는 코호트 추적 방식이 있으나, 코호트 추정방식은 학교급에 따른 진학률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과소추정이 우려가 있다(하형석,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사람이 학교에 입학한다는 전제하에 교육기본통계라는 대표성 있는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간접추정방식(부분집합 방식)이 상대적으로 제한점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표 II-6은 학령기 연령기준에 있어 장래인구추계보다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활용한 방식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이다.

표 II-6.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간접추정방법: 부분집합방식/주민등록인구현황 사용)

(단위: 명)

구분	청소년인구(6-17세)		학생 수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주민등록 인구현황 (전년12/31)	외국인 순입국 (전년12월)	교육기본통계 (4/1 기준 학생수, 연령: 전년12/31기준)	학교 밖 청소년 규모 (A+B-C)	내국인 순출국 (전년 12월)	국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
	A	B	C	D	E	D-E
2019	5,760,986	51,061	5,407,971	404,076	159,885	244,191
2018	5,911,831	46,401	5,542,543	415,789	163,793	251,996
2017	6,055,963	41,870	5,691,694	406,139	161,522	244,617
2016	6,221,904	35,790	5,849,197	408,497	161,803	246,694
2015	6,445,006	30,699	6,061,868	413,837	161,337	252,500

출처: 하형석(2020). NYPI 블루노트 통계, 50,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p.11에서 2015년 이후 추정치 발췌

이 방식을 통한 추정치는 기존의 31만(윤철경 외, 2018a) 추정치보다 약 7만명 정도 적게 추산된 숫자이다. 그러나 활용 가능한 인구 및 교육관련 통계마다의 모집단 기준 및 기준 시점의 차이, 포함된 연령범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상당 수 있을 수 있으며(하형석, 2020), 상대적으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소년인구 수는 계속 감소함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2. 학교 밖 청소년 연구 개관(NYPI 연구)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중 첫 주자 성격의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은 2006년에 대안학교 청소년 23명,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21명, 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 18명, 거리 청소년 10명으로 총 72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규정 및 유형을 파악하였으며, 생활영역별로 구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6).

2013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3~2015년에 수행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I」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횡단조사를 통한 단년도 연구가 아닌 종단연구로서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일반 학교 밖 청소년 776명, 보호관찰 학교 밖 청소년 220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 1차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생활과 문제행동 경험, 이행경로를 살펴보았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윤철경 외, 2013). 종단연구 2차년도인 2014년에는 1차년도에 구축된 학교 밖 청소년 조사패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1차, 2차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재추정하고 국내외 관련 정책 현황 분석 및 함의를 도출하였다(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2015년의 3차년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추적 조사하여 3개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학업중단 후 이행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윤철경 외, 2015). 동시에 2013~2015년 동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비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패널을 구축하여 사회적응 및 이탈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2015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도 별도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만 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4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하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백혜정, 송미경, 2015).

2016~2017년의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II」는 2013~2015년에 수행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I」의 연속선상에 있는 연구로 2013년 연구에서 구축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종단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정 및 이행경로(학업형, 직업형, 무업형)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7년의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지원 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연계한 청소년들의 경과를 분석하여 정책효과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꿈드림은 학업형 청소년이 계속 학업형으로 유지될 확률을 높이고, 직업형이나 무업형으로 전환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7).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해 본 연구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방식으로 수행한 과제들로, 여성가족부의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특별시의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2015년과 2018년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최인재, 이정상, 김정숙, 장근영, 2015; 윤철경 외, 2018b; 윤철경 외, 2019)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수행된 것으로,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3~4천여명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사유 및 가족관계,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실태(학업, 아르바이트, 진로, 심리·정서적 측면 포함), 정책적 필요 지원 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를 통해 보정을 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상 모집단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대안학교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이러한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조사에 포함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렵고 또 조사협조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각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파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함에 따라 이들 지원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성(만족도)을 3년 주기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윤철경 외, 2019)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로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고, 교육청 협조를 통해 보다 정확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자료를 확보하였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 및 생활실태와 정책 지원 수요 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및 지원기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지역 간 차이에 주목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단 년도 양적조사를 통해 수집된 횡단데이터를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을 제안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들은 종단연구 수행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를 살펴보고 관련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제외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일차적인 생활환경인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은 없었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한 많은 정보를 내포하지 못한 한계들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패널 연구, 특히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차별화되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친밀한 생활환경인 지역사회에서의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연구(2018~현재)¹⁶⁾

2018년에 1차년도 연구가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연구는 2022년까지 5개년 연속연구로 계획되었으며, 1차와 2차년도 연구를 거쳐 2020년도에는 3차년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3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학교밖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윤철경 외, 2013)에서 구축된 학교밖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조사가 수행되었는데, 2018년 연구에서는 2017년 조사에 참여한 217명을 대상으로 60명을 질적 패널로 선정, 구축하였다. 학교밖 청소년 대상 질적 패널 연구는 그동안의 양적 패널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학교밖 청소년 유형(학업형, 취업형, 무업형)을 토대로, 성별과 연령, 지역을 고려하였으며,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할당하여 패널을 구성하여 향후 5년간 청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추적, 조사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들, 지역사회, 새로운 집단과의 관계 형성 방식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성인이 이행과정에서의 학교밖 청소년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2018년에 수행된 1차 질적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진로, 취업, 자립 등에 대한 고민으로 본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표한 사례가 많았으며, 낙인에 따른 심리적 위축과 실질적인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 지역사회에서 검정고시, 멘토링,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을 일부 제공받았으나, 한편으로는 한정된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있었으며, 조사 참여자들은 보다 다각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자격증 취득이나 외국어 공부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일자리 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지원 등을 필요로 했다.

2019년에 수행된 2차 연구(장근영 외, 2019)에서는 전년도 조사대상인 60명의

16) 이 부분은 윤철경 외(2018a).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연구 I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장근영 외(2019).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의 연구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패널들 중 군입대, 연락두절 등으로 중도탈락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4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을 기초로 전년 대비 변화 내용, 개인적 특성과 가족 및 또래,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를 학업중단 이전과 그 직후, 현재의 3개 단계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족 및 친구 등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지원, 체험기회 제공 등의 실질적인, 가시적 지원뿐 아니라 관계 회복 및 또래문화 공유에 초점을 맞춘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역시 학령기 전후로 변화가 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및 자립지원 정책이 학령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실제 지원정책의 수요는 학령기 이후 청소년들에게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외, 2019). 즉, 현재 진행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개입들은 학령기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래들의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을 지켜보면서 지원에 대한 요구는 만19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발달단계, 또는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지원 연령범위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2018년과 2019년도 연구는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협동연구 방식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1차년도 협동연구에서는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각각 한 곳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관련 기관 종사자와 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2차년도에는 중소 도시를 선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중소도시에서의 지원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지원모형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¹⁷⁾.

17)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 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3) 2020년 3차년도 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_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올해 3차년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연구 제목이 다소 변경되었다. 당초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연구’였으나 좀 더 포괄적인 연구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외 의견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로 변경하였다. 이에 지원모델 개발보다는 전반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되, 올해 연구 내용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지원방안 및 일부 지원모형들도 탐색하여 정책제안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올해 연구의 가장 큰 차별성은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구축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존 패널 모두를 심층면접하지 못하고 일부는 패널관리조사만 수행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본 연구에 대한 기대와 요구(예,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현황, 지원요구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등), 또 제한된 일정과 연구범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이에 대한 상세 과정과 결과는 기존 패널은 4장, 신규 패널은 5장의 앞부분 참조), 이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 패널 역시 예산범위에서 최대치로 면접조사하고 엄격히 패널관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두 집단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DB구축을 염두에 두었으며, 기존 패널의 경우 3개년도 종단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질적종단분석을 시도하였다.

네트워크 확산형으로 구분하였다(조아미, 임정아, 김남은, 2019).

3.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필요성

1) 지역사회 내 지원 필요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지역사회는 학교를 떠난 이유와 관계없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정 다음의 가장 가까운 체계이다. 그동안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정규교육과정의 학교에서 보냈다면, 이제는 그 시간동안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더 오래 머무르게 되며, 이전보다 더욱 밀접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 집행 및 서비스 전달은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자체 내의 또 다른 별도 지원과 함께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의 장(場)이 된다.

지역사회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Hillery(1955)는 지역사회를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지리적 공간,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공동체 의식)를 포함하였으며, Fellin(1995)은 지역사회의 유형으로 장소적 지역사회, 비장소적 지역사회(정체성 또는 이해관계 지역사회),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 개인적 지역사회로, 또 Rubin과 Rubin(1986)은 연대적 지역사회, 근린지역사회(neighborhood), 네트워크, 사회계층, 이익추구형 지역사회(Rubin & Rubin, 1986, 1992)로 지역사회를 구분하였다(함철호, 2019: 48, 51, 56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지역사회는 일정 지역을 거주 공간으로 하여(시설·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 그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유대감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장소로 지칭되며(천정웅, 2011),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며 지역에 대한 공동의식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표하는 용어”(송혜승, 이명훈, 2017: 195)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구성 요소들은 대체로 지역성, 공동체성, 유기체성으로 정리된다(문창용, 나주몽, 2013).

이렇게 공간적, 비공간적 개념, 또 심리, 문화, 사회적 유대감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 지역사회 개념 중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로, 본 연구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후 주 생활환경이 되는 물리적 지역사회에 일차적으로 주목하였다. 특히 지역규모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지역규모는 바로 특정 지원 및 서비스의 인프라 수준과 분포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 개입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McLeod, 2010: 6),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다양하고 다면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할 때(한동우, 2013: 289), 결국 지역사회 내 인프라 및 서비스 수준 격차는 해당 지역사회 서비스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지방분권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공공 및 민간이 연계하여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한동우, 2013: 290). 특히 지역사회 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김용득, 2019; 한동우, 2013)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네트워크(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와 같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류기형, 류영미, 박병형, 2009; 이주현, 박치성, 2010; 함철호, 2015)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활동 및 참여, 지원 영역에서도 지역사회의 기능 및 역할에 주목하였다.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연계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지역사회 운영모형 연구(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황여정, 2017), 지역사회 내 자원과 정책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연구(최인재, 이윤주, 송민경, 조윤정, 2019),

그리고 특수한 상황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모델의 예시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 기관들의 연계·종합지원 모델을 개발한 연구들도 수행된 바 있다(연보라, 이윤주, 김현철, 2019). 이들 연구들 역시 중앙차원 뿐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청소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 가용 자원 간 네트워크와 민간협력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우선적으로 물리적 공간, 즉 행정구역상 지역사회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례연구들을 수행한 바 있다(예, 최인재 외, 2019 연구). 이에 본 연구는 대도시라는 특정 규모의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내용과 역할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정 다음으로 밀접한 환경이 되었으며, 이들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분포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부터 지역민간협력네트워크나 지역자원연계망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0). 그러나 지역규모 및 인프라 격차와 같은 지역적 특성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별적 요구를 함께 반영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다시금 그 역할과 기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해당 지역사회 수준에서 가용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최대한의 유용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근거와 같은 제도적 보완과 현장 기관의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에 대한 보상과 같은 외부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연보라 외, 2019)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지원관련 선행연구 개관¹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본 연구의 2018년 협동연구로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와 2019년에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를 개관하고자 한다. 이 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와 자립 관련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어려움, 성공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지원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8년 연구에서는 기초조사 성격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지역규모 특성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공요인과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규모별로 각 1개씩의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대도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아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관련 인프라 및 교통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정 내 갈등 및 부모 방임 등의 문제와 일탈, 문제행동을 경험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대도시 지역에서는 교통비와 식비 지원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을, 중소도시에서는 대학진학 및 취업준비를, 그리고 읍면지역은 자립훈련 지원과 이후 취업연계까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 전용공간의 필

18) 이 부분은 조아미, 임정아(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조아미, 임정아, 김남은(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의 연구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요성이, 중소도시에서는 기관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도시에서는 지역사회 기관 및 미인가 대안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및 실습, 인턴십 기회 등이 제공되었으며, 중소도시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지역규모별 애로사항으로 대도시에서는 현장종사자 처우와 연계기관과의 협조 문제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관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 및 관리(중소도시), 관련 인프라 부족과 취업으로의 연계 부족(읍면지역)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과 관련된 보완사항으로서 공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자립준비를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급식 지원과 기초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소도시에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의 재정적 후원 및 취업 연계,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등이 보완사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성공모델 요인은 공통적으로 기관종사자의 사명감과 적극적인 태도였고, 대도시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 중소도시에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 읍면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휴식 공간 마련, 비행 예방 대책 마련 및 진로 지도 등을, 각 지역별로는 표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2019년도의 중소도시 지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에서는 전년도 of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인프라 및 자원수준이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중간 정도인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원 및 기회의 분포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방법으로 3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소씩을 대상으로 이용 청소년의 참여도와 특성, 요구, 서비스 운영

현황과 필요 지원 및 애로사항, 성공모델과 성공요인, 지자체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의지 및 지원 사업에 대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연계기관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연계, 관련 서비스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사업성과 및 개선점, 발전방향 등을 중심으로 역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

표 II-7. 지역별 차이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지원 개선 방안

개선 방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기관 이용률 증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굴과 기관이용률 증가 방안 모색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모색	지역사회 내에 자립을 돕기 위한 전문 공간설치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치구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검정고시 대비 집중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학교 밖 청소년-지역주민 간 교류(공동사업)를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	
지역별 차별화된 학교 밖 청소년관련기관 성공요인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 도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반영

* 출처: 조아미, 임정아(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의 보고서 맨 앞 요약 부분 발췌·표로 정리

이 연구에서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모델 개발의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및 전문 인력·예산 확보,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중소도시 지원모델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로써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연계기관 확산형’ 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지원모델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면 표 II-8과 같다.

표 II-8.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구분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특징	주로 학교 밖 청소년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 기관의 기반 강화 목적으로 이루어짐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서 지역사회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짐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로 사업이 안정된 이후 지역 네트워크의 확산 및 활성화 도모
장점	지역사회 연계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유형으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함	처음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본연의 기능 이외에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	지역사회 연계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능, 추후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단점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큼, 인력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의지와 관련성이 적음	사업 초기에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클 수 있음

* 출처: 조아미, 임정아, 김남은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p.116에서 발췌

지역 인프라에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이러한 연구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이 지원모델 유형들의 경우 청소년 인구 수, 학교 밖 청소년 수, 청소년 시설 수, 지역의 경제수준 등과 같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해당 지역규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지원체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따라 해당 지역규모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



제3장 국내·외 정책현황 및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중앙지원 정책
-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도시 지자체 정책 사례
- 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외국 지원 사례 (대도시 중심)
- 4. 요약 및 시사점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중앙지원 정책²⁰⁾

1)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역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은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1996년 12월에 수립한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및 복교대책’ 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탈학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운영체제 방안, 그리고 특성화 학교를 포함한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탈학교 청소년이 정규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이승현, 박학모, 김성기, 2014: 36). 이후 2012년 6월부터 시범 운영하여 201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학업중단숙려제’ 역시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이승현 외, 2014: 42).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학업 중단을 지연시키거나 최소화하는 것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학업중단’ 혹은 ‘공교육으로부터의 낙오나 이탈’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는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기

- 19) 제3장의 1절과 2절, 4절 소결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이, 3절은 윤철경 명예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 20)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사업은 적어도 3개 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 10여개 이상이다(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청소년동반자, 교육부: Wee project, 학업중단숙려제, 대안학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본 장에서는 중앙부처 정책으로 학교를 이미 나온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내일이룸학교, 건강검진사업에, 그리고 교육부 관련 사업으로는 학습지원사업에 초점을 두었다.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미 정책당국에서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개발부를 중심으로 7개 정부부처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협업하여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이승현 외, 2014; 윤철경 외, 2018a에서 재인용). 2013년에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작했다(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11.2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학업복귀지원 사업인 ‘두드림·해밀’을 진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제시한 것도 이 시점이며, 이러한 변화는 마침내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²¹⁾. 이 법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교육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학교 밖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정책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본 절에서는 두 부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2)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

(1) 법률적 근거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²²⁾에 근거한다. 이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제3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수행하도록 했다(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정과 설치(제12조, 제13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해당 법률 제15조는 학교장 및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 꿈드림 홈페이지. 걸어온 길. http://www.kdream.or.kr/user/sub01_3.asp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2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0년 2월 1일 인출.

(2) 정책 내용

2020년 현재 여성가족부가 직접 시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크게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내일이룸학교’ 사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이 있다.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인 ‘두드림존 프로젝트’와 2009년 시작한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학업복귀 서비스 지원사업인 ‘해밀’ 사업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²³⁾. 여성가족부는 또한 2013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준비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2014년에 제정되자 그 다음 해인 2015년에 전국 지자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드림 센터’를 199개를 지정하여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이처럼 단기간에 전국에 조직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과 인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며, 2019년 현재 꿈드림 센터는 16개 시·도와 198개 시·군·구에서 총 214개소가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19).

그림 III-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사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예산 지원 및 사업의 성과평가를 총괄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중앙실행기관으로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산하의 214개 지역 꿈드림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며 인력을 관리하고 DB 구축과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를 담당한다(여성가족부, 2019). 시·도 지자체와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계획수립과 꿈드림 센터의 예산 지원과 관리를 담당하며, 각

23) 꿈드림 홈페이지. 걸어온 길(http://www.kdream.or.kr/user/sub01_3.asp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지역의 꿈드림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들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그림 III-1). 학업형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²⁴⁾. 직업형 청소년에게는 ‘직업역량강화사업’,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장 체험’ 등의 체험을 통해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직업훈련기관인 ‘내일이룸학교’에 연계하거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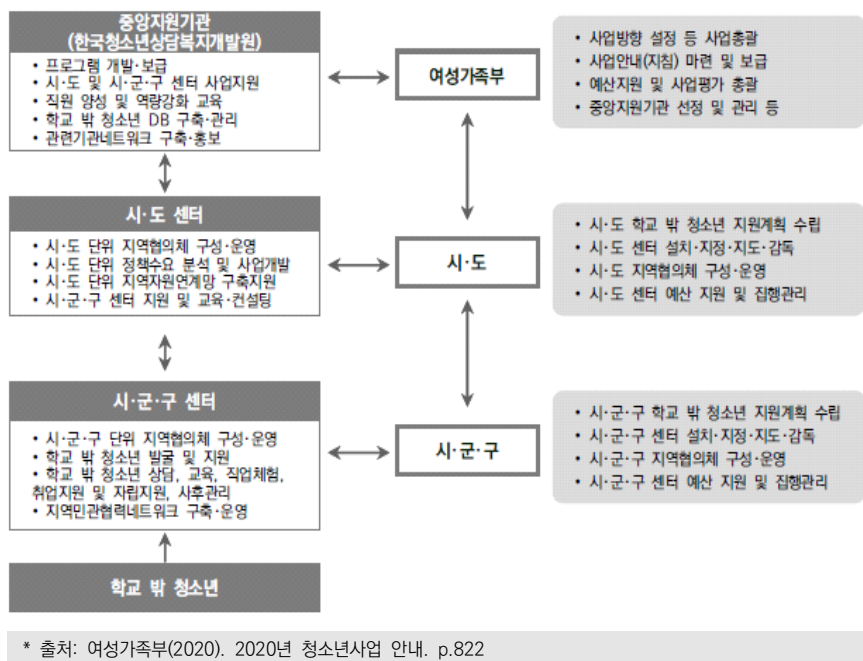


그림 III-1.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24)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2016.11.24.).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센터’에서 미래를 찾다.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0869516461>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아래 표 Ⅲ-1은 2015년 꿈드림 센터 운영 이후 19년까지의 운영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원수가 2015년의 33,718명에서 2019년의 48,250명으로 35.6%가 증가했다(표 Ⅲ-1). 단, 시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이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는 2017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Ⅲ-1의 통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통계를 센터나 프로그램을 청소년 한 명이 여러 번 이용한 경우 이들을 각각 1건으로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인 ‘연인원 통계’다. 반면에 표 Ⅲ-2와 같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센터 이용을 종료한 청소년만을 기준으로 센터의 운영 성과를 산정하는 ‘실제 성과 인원’ 기준 통계에 따르면 꿈드림 센터의 운영 성과는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허민숙, 2020).

표 Ⅲ-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센터 수	199	202	202	206	214
이용청소년 수	33,718	50,506	56,684	53,616	48,250
사업비 총액	1,116,700	1,469,200	1,704,600	1,784,200	1,895,400
1인당 예산	33.12	29.09	30.07	33.28	39.28

* 출처: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p.4에서 발췌

표 Ⅲ-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과 현황

(단위: 년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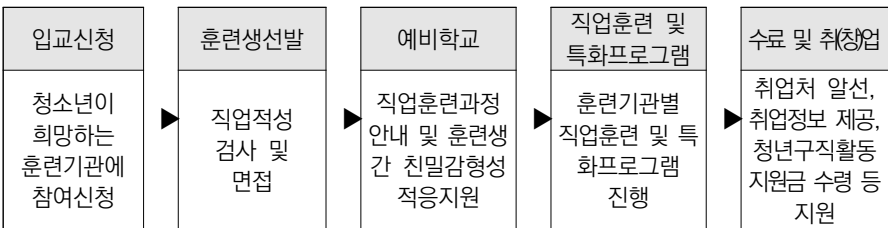
구분	실제 성과 인원	학업복귀				사회진입				
		소계	학교 복귀	검정 고시	대학 진학	소계	취업	직업 훈련	자격 취득	자기 계발
'15	5,606	4,147	448	3,669	227	1,875	371	409	871	396
'16	9,554	7,161	697	6,645	270	3,121	489	440	1,342	1,149
'17	12,196	9,000	638	8,250	548	4,667	852	520	2,298	1,775
'18	15,207	11,080	693	10,260	726	6,126	1,372	668	2,641	2,689
'19	17,170	13,434	1,592	11,372	1,004	5,751	1,301	544	2,508	2,485

* 출처: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p.4에서 발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 중에서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에 진입한 청소년들의 인원은 5,606명에서 17,17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증가폭 32.6%)(표 III-2).

② 내일이룸학교 운영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여성가족부·한국생산성본부, 2020).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을 공모선정절차를 거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²⁵⁾. 구체적으로는 만15~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가출청소년 중에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훈련기관의 상황에 따라 단기(3~6개월) 및 장기(6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허민숙, 2020:4).



* 출처: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user/sub05_3_1.asp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그림 III-2.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과정 개요

그림 III-2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자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적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선발해 크게 3단계의 훈련을 실시한다. 첫 단계는 예비학교 교육으로 직업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과정을 안내해주고 훈련생 간의 친밀감 형성 등을

25) 꿈드림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user/sub05_3_1.asp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통해 훈련생의 적응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다음 단계는 실제 직업훈련으로서 각 기관마다 특정 직업능력에 대해 훈련생 개인의 학습능력과 여건 등을 고려한 수준별 훈련이 진행되며, 훈련생이 지망하는 일터나 진로에 맞춰서 그에 필요한 검정고시 지원을 통한 학력취득, 직종 관련 자격증(기능사)취득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²⁶⁾. 이 3개 단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료하면 취업처 알선, 취업정보의 제공,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령 등을 지원한다(그림 III-2).

훈련 과정 동안 출석률에 따라서 최대 월 3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자립장려금을 지급하고, 훈련기관에 따라 무료 기숙사를 제공하거나(허민숙, 2020), 통학할 경우에는 월 10만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한다²⁷⁾. 이 외에 ‘자유공간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봉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조규필, 김기현, 김수진, 윤제현, 2018). 내일이룸학교의 홍보와 참여 신청은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아동보육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지역 내 유관기관을 통해 연계되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의 내일이룸학교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허민숙, 2020:4).

표 III-3에서 보듯이 내일이룸학교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017년의 218명에서 2019년의 320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2020년 현재 총 16개 기관에서 모두 합해 300명의 학교 밖 청소년(다문화, 한부모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내일이룸학교 과정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허민숙, 2020). 이 중 기숙사까지를 제공하는 기관은 5곳이었다(표 III-4). 내일이룸학교의 실적을 살펴보면, 실제 훈련이 종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의 54%에서 2019년에는 42%선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

26) 복지r.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내일이룸학교 운영.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WellInfoDetail.do?wellInfSno=121>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27) 한국생산성본부(2020.01.03.) ‘2020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공고’<https://www.kpc.or.kr/Customer/NoticeView.asp?seq=54480>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표 Ⅲ-3. 내일이룸학교 운영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운영기관수 (개소)	9	16	17
지원인원수 (명)	218	319	320
취업률 (%)	54	37	42

* 출처: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p.5

주: 훈련종료 후 6개월 간 수료생 취업을 지원하므로 '19년도 취업실적은 집계 중

표 Ⅲ-4. 2020년 내일이룸학교 현황

	지역	훈련기관	훈련과정(기간)	인원	기숙사
1	서울	(주)하나투어 평생교육원	문화관광전문가과정(3월~9월)	20	무
2		한국능력개발 직업전문학교	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과정(3월~10월)	20	유
3		재)서울현대교육재단	플라워디자인&상품기획사과정(3월~10월)	20	유
4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조립전문가과정(3월~12월)	30	유
5	인천	인천실용 전문학교	네일미용사과정(3월~11월)	16	무
6		HS평생교육원	애견미용사&펫헬퍼과정(3월~11월)	18	무
7	경기	한주요리제과커피 직업전문학교	커피바리스타&제과기능사과정(3월~7월)	16	무
8	부산	부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리사과정(3월~7월)	15	무
9			커피전문가과정(3월~11월)	20	무
10	대구	대구청소년창업센터	드론운용전문가과정(3월~10월)	15	무
11	대전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로봇코딩지도사과정(3월~10월)	15	무
12	광주	한국능력개발원 호남직업전문학교	조리실무사(3월~10월)	20	무
13	경북	영천제일직업전문학교	웹편집디자인과정(3월~10월)	15	무
14	경남	감미화미용학원	헤어미용사과정(3월~11월)	20	무
15	충남	동천안직업전문학교	헤어미용사과정(3월~11월)	20	유
16	전북	원광보건대 글로벌다문화교육원	헤어미용사과정(3월~11월)	20	유

* 출처: 꿈드림센터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user/sub05_3_1.asp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③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및 확진 지원 사업’은 학교를 통해서만 실행되던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영·유아, 일반, 생애, 암 검진 등) 체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구체적으로는 9~18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정해진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필요한 연령별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 19세인 학교 밖 청소년도 국가검진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신청 후 지원 받을 수 있다²⁸⁾.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 시스템으로 연결된 전국의 882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19.12월 현재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허민숙, 2020). 검진은 연중무휴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HIV와 같은 STD, 혈액검사, 간염검사(B형 및 C형), 결핵 및 잠복결핵검사, 구강검사 등으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에 확진검사도 지원한다(표 III-5).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발견되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보훈병원과 연계해서 치과질환(치아우식, 치주질환) 치료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²⁹⁾. 검진기관과 거주지의 거리가 멀어 찾아오기 힘든 청소년들을 위한 출장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꿈드림 센터를 통해서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건강보건교육교실도 최대 반기별로 2회씩 개최하고 있다³⁰⁾.

표 III-5.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

구분	검사항목							
기본	건강상담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구강검진	흉부 방사선촬영
선택	건강상담	매독			HIV		클라미디아, 임질(STD)	
확진	건강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안내 p. 918 발췌, 정리

건강검진 서비스의 신청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꿈드림 센터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건강검진 신청서와 자신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2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0.do, (2020.11.25)
 29)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9.5.7.) 학교밖청소년, 올해도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세요.<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242>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30) 출처 상동

함께 제출하며, 꿈드림 센터에서는 신청자가 검진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검진표와 함께 검진 기관을 통보하게 되고,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는 검진결과가 통보된다(여성가족부, 2020).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검진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을 늘리기 위해서 언론 홍보와 검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편의점 1만원 기프티콘’ 등의 인센티브³¹⁾까지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여율은 6천명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표 III-6). 청소년기의 적절한 건강 검진과 관리가 이후 성인기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 대상 청소년들의 발굴과 참여율 확대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표 III-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수검인원	6,986	5,019	5,134	6,063
1인당 평균 검진비용	48,920	57,048	60,330	60,807

* 출처: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p.5

요약하면,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학업을 이미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앙지원기관으로 하여 운영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통해 전달된다. 꿈드림은 전국의 거의 모든 시·군·구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건강검진, 내일이룸학교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팝업 <http://www.mogef.go.kr/html/popup/gifticon.html>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3) 교육부의 지원 사업

교육부는 1996년부터 탈학교 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및 복교대책’을 시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학생들이 학업 중단 전 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 중단을 재고하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하여, 전국 학교를 통해 시행해 왔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현재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수행하는 대표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는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사업’과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두 사업은 모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경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허민숙, 2020:5~6).

(1) 법률적 근거

교육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 2항을 근거로 한다(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이 법의 제29조는 장기결석 학생, 취학의무 유예 학생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 96조와 97조는 검정고시 및 대안학교를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규교육과정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제98조 2항은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정책 내용

①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³²⁾

정식 명칭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하거나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의무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습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 기준 전라지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법이 정한 사유로 중졸이하의 학력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이 사업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출처: 교육부 학습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educerti.or.kr/>에서
 2020.12.2.인출.

그림 III-3. 교육부 학습지원
사업 홈페이지의 소개화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기관에서 ‘교육, 상담, 직업체험·교육, 자립’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방송통신 중학교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정, 그리고 EBS의 초등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청소년들의 탈학교 현상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

32)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https://www.educerti.or.kr/intro/intro.do>에서 발췌, 정리(2020.12.2.인출)

던 교육부가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을 목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래 전부터 공교육 시스템 밖에 있는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학력인증의 기회를 열어주는 국가시험제도인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의 학습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학력 취득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백혜정, 송미경, 2015).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지원 인원이 42명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662명으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 예산도 사업 1년차에는 10억 원에서 2019년에는 18억 원으로 80%p 늘어났다(표 III-7).

표 III-7.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지원 인원수	42	242	662
예산액	1,000	1,000	1,800
집행액	631	831	1,673

* 출처: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p.6

②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위의 학습 지원 사업이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에 편입되지 못한 청소년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이 교육지원 사업은 대안학교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탈북,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일제 미인가 교육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이다³³⁾. 매년 4월 경에 대안교육 기관들의 응모를 받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당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에

33) 미취학·취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홈페이지. <https://www.educerti.or.kr/intro/intro.do>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준한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20).

심사 대상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 및 체험 위주 프로그램 또는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들로, 교육부는 예산을 배정하는 역할을 하고, 시·도 교육청이 관내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과 실제 지원을 담당한다(허민숙, 2020).

표 Ⅲ-8.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지원 인원수	57	87	118
예산액	1,000	1,000	1,000
집행액	943	982	996

* 출처: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p.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학업중단 학생들의 교육여건 보장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³⁴⁾.

교육부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와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교육 지원제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정책의 초점인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50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검정고시 제도를 운영해 온 부처이기도 하며, 이런 이유로 교육부의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얼마나 적절히 연계되느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34) 출처 상동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도시 지자체 정책 사례

서울특별시시는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집약된 지자체로 중앙부처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과 서울시교육청을 통한 시 자체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인 곳이기도 하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자치구 단위의 꿈드림 센터가 절반 밖에 설치되지 않은 곳이다. 그에 따라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총괄, 지원해야 할 시·도 센터가 시·군·구센터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대도시별 여건 차이에 따른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1) 서울특별시

2019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추정한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은 11,34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21%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윤철경 외, 2019). 이 조사에서 학업중단 학생의 숫자는 2016년의 10,950명에서 2017년 11,527명, 2018년 11,8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들 중에서 기존의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3년간 12,57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9). 자치구별로는 서초구(8,213명), 노원구(6,383명), 송파구(6,324명), 강서구(5,34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학교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노원구가 제일 높고, 성북, 서초, 강서, 종로구 순인 반면, 해외 출국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강남구와 서초구가 제일 높았다(윤철경 외, 2019). 자치구 단위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는 2012년 강동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 전체 25개 자치구 중 84%인 21개 자치구에서 제정된 상태로 서울시와 이들 21개 자치구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9).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는 두 주체를 중심으로 이원화 되어있다(서울시 교육청 친구랑 사업을 제외하고도). 첫 번째는 여성가족부를 주관부처로 해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앙지원기관으로 하는 꿈드림 시·도센터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다.

(1) 서울시 꿈드림 센터

서울시 꿈드림은 시·도센터외에 25개 자치구 소재 꿈드림센터까지 총 26개소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 꿈드림 시·도센터는 전국의 다른 시·도센터와 동일하게 시·도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분석·사업을 개발하며, 지역사회연계망을 구축하여 서울시내 기초센터(시·군·구센터)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 등 허브기능을 담당한다(여성가족부, 2020: 822, 842).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시·도 내 인적·물적자원을 개발하여 시·군·구센터와 연계하는 것으로(여성가족부, 2020), 서울시의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센터이기도 한다.

서울시 시·도 꿈드림 역시 주요 서비스 대상은 만 9~24세 청소년으로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등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센터의 진로교육, 직업체험 및 실습, 사회진출 지원, 학업동기 강화, 문화체험, 학습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한다³⁵⁾.

35)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teen1318.or.kr>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표 III-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용

영역	내용
진로교육	진로 목표 설정 및 일상생활 훈련을 위한 기초 역량 학습
직업체험 및 실습	실문결제체험 운영, 진로동아리 운영
사회진출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구직활동 지원
학업동기 강화	학업복귀 강화프로그램, 맞춤형 학습클리닉, 진로상담, 학업중단숙려 상담 운영, 문화체험
문화체험	진로캠프, 또래지지모임, 문화활동 지원
학습지원	스마트교실(검정고시 준비반, 기초학습대비반) 운영 검정고시 지원(교재비, 학원비 일부), 멘토-멘티제 운영

* 출처: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teen1318.or.kr/>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그러나 서울시 꿈드림의 경우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시·군·구센터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아래에서 다루게 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다소 혼동이 되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그 역할과 위상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³⁶⁾. 서울시 꿈드림의 경우 독립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보다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여러 청소년관련 사업(서울시 청소년안전망,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동반자 사업, 일시보호소 등)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축소된 형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꿈드림에 대한 소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안에 다른 사업과 같이 나열되어 있어, 서울시 꿈드림 시·도센터로서의 업무 부담과는 별개로 개별 독립 센터로서 위상이 적절할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한다. 서울시 꿈드림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6장에서도 제시되는 바,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대신 지자체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사례로서 서울시 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36) 실제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일반검색포털에 검색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링크가 가장 상단에 올라오며, 여성가족부 산하 서울 꿈드림 시·도센터는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안에 ‘꿈드림’사업으로 링크되어 있어 적어도 웹상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실제 홈페이지의 꿈드림 사업소개도 매우 간단한 수준이다.

(2)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2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기반 하여 동일 시기 개소했고, 이후부터 재단법인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서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³⁷⁾. 당초 대안교육지원을 위한 기관이었으나 명칭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³⁸⁾



그림 III-4. 서울시 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구조

센터 홈페이지의 정보³⁹⁾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인력은 센터장과 부센터장 각 1명, 운영지원팀 3명, 기획 사업팀 4명, 그리고 교육연구팀 4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운영지원사업, 기획

37)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allnet.org/sub/05_05.php에서 2020년 9월 14일 인출.

38) 출처 상동

39) 출처 상동

사업, 교육연구사업, 홍보사업, 상담사업, 특화사업의 6개 영역으로 나뉜다(표 III-10). 내용을 살펴보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사업과 급식비 지원 사업,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사업, 징검다리 거점 공간 특성화 사업 및 길잡이교사 지원, 상담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사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과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사업 등이다.⁴⁰⁾

표 III-10.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개요

사업항목	주요 내용
운영지원사업	-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 교사 2인 인건비, 사업비 지원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도시형 대안학교/징검다리 거점공간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기획사업	- 대안교육기관 평가 및 컨설팅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학교 밖 공동체 (유관기관, 배움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학교 밖 배움터 현황과 실태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커뮤니티 발굴, 지원활동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교육연구사업	- 징검다리 거점공간 특성화 및 지원(길잡이교사 자조모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길잡이교사 성장지원, 예비 길잡이교사 양성교육 - 대안적 교육과정 매뉴얼 제정 및 보급
홍보사업	- 센터 홍보물 제작 -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뉴스레터 발송 - 센터 방문의 날, 언론보도, 문화예술 관람지원 등
상담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상담(내방상담, 찾아가는 상담, 전화/이메일 상담, 집단상담) - 검찰청, 법원 등 위탁청소년 연계 및 발굴
특화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일/배움과정을 통한 진로설계 및 자립강화 지원) -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 (대안교육기관 재학중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수업료 전액 지원)

* 출처: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http://seoulallnet.org/sub/05_01.php.)를 기초로 작성 (2020년 9월 14일 인출)

이중 특화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과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았다.

40)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allnet.org/sub/05_01.php에서 2020년 9월 14일 인출.

①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⁴¹⁾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인턴십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면서 배움을 얻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에 근거한 학습목표를 세우며 현장배움터 멘토와 소통하면서 프로젝트를 실현하게 된다. 2018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현장 배움터는 총 50개소이고 활동분야는 23개로 2018년 기준 108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턴십 활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1).

표 III-11.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 내용 (2018년 기준)

분야(인원)
바리스타(43), 유치원 및 대안학교 교사(9), 전공매듭공예 등 공방(3), 목공(7), 매장관리 및 판매(4), 패션(2), 메이크업 보조(3), 제과제빵 보조(5), 디자인/웹툰/일러스트 보조(7), 사서, 서점 등에서의 사서 업무(4), 동물관련 전시회 진행(1), 푸드트럭(3), 자전거수리(1), 떡제조(3), 음식 조리 및 판매(2), 어르신 프로그램 문화컨텐츠 기획(4), 축구코치보조(1), 영상제작 및 편집(2), 적정기술(1), 헤어디자이너 보조(1), 동물병원 업무 보조(1), 음악 카페 진행(1)

* 출처: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allnet.org/sub/01_06.php에서 2020년 9월 14일 인출).

이 사업은 매년 2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며 연중모집이지만 10월에 모집이 종료된다. 인턴십에 참여 대상자는 만15세 이상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활동비는 월 활동시간 35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십 활동비는 활동시간 35시간을 채운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활동비 신청서는 매월 2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 달 5일에 활동비가 지급된다. 인턴십 활동비는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매월 최대 30만원) 이외에도 인턴십 기간 동안 교육 프로그램 관련 비용(기술교육, 여가활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인턴십 교육

41) 본 내용은 서울시에서 공개한 '2020년 인턴십프로젝트지원사업 참가자 모집공고문'과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seoulallnet.org)의 관련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다.

에 필요한 직접 경비도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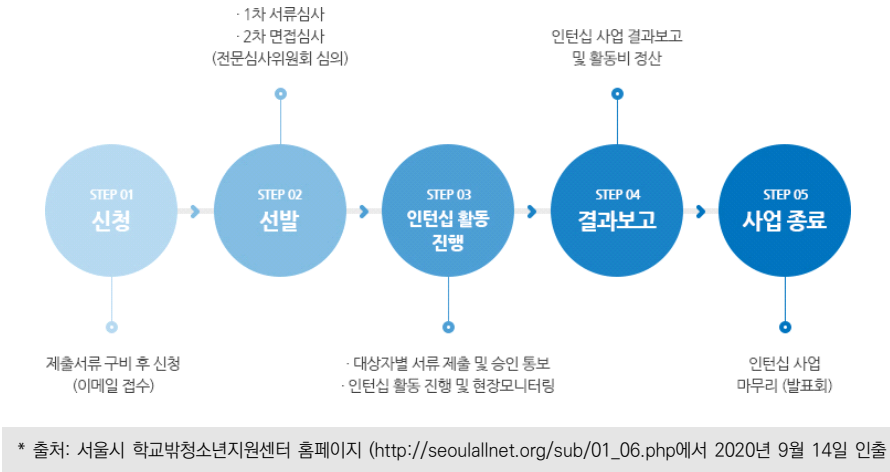


그림 III-5.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턴십 사업 진행과정 개요

②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⁴²⁾

대안교육기관은 그 정의가 공교육제도권에서 벗어난 교육기관이지만, 그 중에도 교육부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교육기관’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 관할하며 지원과 관리를 수행하지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교육부로부터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자체로부터 받는 최소한의 운영 지원예산을 제외하고는 교육청의 관리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71개로,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절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서울형 대안교육 기관 지원’은 2020년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으로, 2019년에

4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게시일: 2020.3.25.)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 첫 지정... 재정지원.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6329>에서 2020년 12월 5일 인출한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다.

실시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안교육 기관들의 지원에 있어서 규모의 영세함과 재정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을 근거로 한다(이혜숙, 조운정, 2019). 구체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공교육에 준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 이 사업 지원을 신청한 총 35개 대안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0곳의 대안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작했으며, 상근 교사 인건비 보조,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교육 공간 임차료 지원,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12 참조).

표 III-1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주요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상근 교사 인건비 보조 확대	기존에 학교당 교사 3인(1인당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수에 따라 최대 5인까지 지원(교사 1인당 인건비는 월 250만 원까지 보조)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교재비, 전문강사비, 재료 구입비 등에 연 3,600만원~5,400만원 지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계속사업)	'19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는 올해도 공교육과 동일하게 100% 지원
교육 공간 임차료 보조(신설)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해 기관 당 실제 임대료의 70%(연 상한 2,400만 원) 지원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지원(신설)	제도권 학교와 동일하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단체가입 지원

*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6329>)에서 2020년 12월 5일 인출한 내용을 일부 발췌, 표로 구성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지원의 원칙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컨설팅을 통해 기관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커리큘럼 설계를 지원하고, 국내외 선진학교나 기관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 시스템과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서울 시내 25개 시립청소년센터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교육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 사업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들 사업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지원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앙부처의 사업과 중첩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은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격증 취득 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꿈드림 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는 ‘내일이룸학교’와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서 유사하다. 서울시의 내일이룸학교 사업과(Ⅲ-3. 2020년 내일이룸학교 현황자료 참조), 서울시 자체 인턴십 사업과 연계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직업훈련과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전광역시

(1) 대전광역시 현황

교육부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전광역시의 재학생은 13만 9천850명으로⁴³⁾, 2019년 한 해 동안 대전광역시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1,597명이다(표 Ⅲ-13). 이 숫자는 같은 해 전국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청소년 5만2천2백여 명의 약 3%에 해당한다. 교급별로 보면(2019년 기준),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747명이 학업을 중단했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575명, 중학교 275명 순이다. 중단 사유는 고등학교 기준, 질병 51명, 부적응 209명, 유학/출국이 498명, 자퇴/퇴학/제적이 17명, 면제 439명, 기타 383명이었다(표 Ⅲ-13).

자치구별로 보면((표 Ⅲ-14), 2019년 기준으로 학생 수는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으로 많았으나, 학업중단 학생 수는 유성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교의 학업중

43) 출처: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행정구역별 설립별 학생 수(2020.12.1.인출)

단자수는 유성구 다음으로 중구가 많았으며, 서구가 그 다음 순이었다.

표 III-13.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현황: 초·중·고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연도	합계	교급	소계	질병	부적응	유학·출국 ¹⁾	자퇴/퇴학/제적	면제	기타
2017	1,592	초	555	-	-	250	-	305	-
		중	288	-	-	202	-	86	-
		고	749	58	187	565	51	391	340
2018	1,632	초	553	-	-	232	-	321	232
		중	304	-	-	239	-	65	-
		고	775	68	161	574	23	386	420
2019	1,597	초	575	-	-	221	-	354	-
		중	275	-	-	190	-	85	-
		고	747	51	209	498	17	439	38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사유별 학업중단자 연도 및 지역 통계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036&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주: 2020년 기준으로 학업중단 사유를 크게 유예, 면제, 부적응, 품행, 가사, 해외출국, 기타 기준으로 작성된 교육통계 중 '유예'를 유학/출국으로, '품행'을 '자퇴/퇴학/제적'으로 '가사'를 기타로 분류함. 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유구분은 2003년 이후 유예/면제만 분류되어 있어 이에 준해 표기함.

표 III-14.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학생 수 및 학업중단자 수(2019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교급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학생수	계	21,478	16,363	53,636	44,029	27,483
	초등학교	10,740	8,277	26,179	22,814	11,797
	중학교	4,782	4,672	14,955	10,544	5,741
	고등학교	5,956	3,414	12,502	10,671	9,945
학업중단 학생 수	계	138	95	433	693	238
	초등학교	41	26	190	280	38
	중학교	18	13	93	128	23
	고등학교	79	56	150	285	177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한 행정구역별 학생 수 및 학업중단자 수 출력결과

주: 유치원생 통계는 제외함.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의 합계임.

(2) 대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대전광역시는 2015년 6월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⁴⁴⁾. 5개 자치구 중에서 서구(2017년 제정), 유성구(2019년 제정), 대덕구(2019년 제정)의 3개 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시·도센터와 일부 자치구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지자체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도 단위 꿈드림 센터는 지자체 전체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요 분석 및 사업 개발, 자원연계 등을 통해 시·군·구 센터를 지원한다. 그리고 각 자치구의 시·군·구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다수의 지자체 상황과는 달리, 대전광역시의 시·도 꿈드림센터는 시·군·구센터가 없는 자치구인 중구와 동구, 대덕구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군·구 센터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2월에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지정 운영되었으며⁴⁵⁾, 대전 서구 역시 2015년에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에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⁴⁶⁾. 유성구 꿈드림은 2015년 5월부터 대전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꿈드림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탐색을 위해 상담 및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과 함께 급식 서비스와 댄스·문화·봉사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⁴⁷⁾. 대덕구는 2021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 후 순위가 되면서 2년 정도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⁴⁸⁾. 반면에 나머지 2개 자치구인 중구와 동구에는

4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45)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dj1388.or.kr/html/dh/about04>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46) 대전광역시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gy1388.or.kr/>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47)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udream1388/>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자체 센터가 없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따라서 대전광역시 시·도 꿈드림에서 대덕구를 포함한 3개 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전시 시·도센터는 시·군·구센터를 지원하는 시·도센터의 역할과 직접 지원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시·군·구 센터가 없는 자치구의 경우 서비스 공백 우려가 있다. 비록 2019년 기준 학업중단자 수가 유성구와 서구가 가장 많기는 하나 중구와 동구는 대덕구보다 학업중단자 수가 더 많았고,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수가 유성구 다음으로 중구가 서구보다 더 많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다른 자치구에도 시·군·구 센터의 설치·운영이 시급해 보인다.

(3) 꿈키움수당⁴⁹⁾

대전시의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수당’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당은 청소년증에 탑재된 교통카드를 통해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며, 이 포인트를 교통비 결제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과정이나 진로탐색 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 꿈 키움 수당의 지급 조건은 엄격한 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인 만 9세에서 17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대전 시내 꿈드림 센터에 등록하여 1개 이상의 꿈드림 센터 프로그램을 매주 2회 이상 이용한 지 1개월 이상이 되는 청소년들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다. 이 자격을 갖춘 청소년 중에서 자신이 등록한 꿈드림 센터를 통해 수당을 신청하고 일대일 사례관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수당이 지급된다.

48) 대전광역시 내 시·군·구센터는 서구, 유성구가 운영 중이며, 대덕구는 2021년부터 운영 예정이었으나, 다른 육아센터 공간 활용이 우선되면서 시설·공간문제로 2년이상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다(충청투데이, 2020.8.6. “대전 대덕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맘센터에 밀려 무산”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382>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

49) 본 내용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청소년과(게시일: 2020.5.8.)의 꿈키움 수당 지원 보도자료(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336981750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및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소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djonggu>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의 자료를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지원금액은 청소년증(교통카드가 탑재된 캐시비카드) 포인트로 매월 지급되며, 금액의 규모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만9세에서 12세까지는 월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만13세에서 만17세까지는 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비록 이와 같이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제한된 조건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만 제공되지만 꿈드림 센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꿈드림 센터가 거리상 너무 멀거나 불편한 교통편등 접근성의 문제가 있거나 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교통비와 통학시간)도 부담스러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소액이지만 교통비 지원에 중점을 둔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크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꿈드림 센터로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비 지원을 꿈드림 센터의 기존 지원 서비스 참여에 연동시킴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전체의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통비 지원 서비스는 광주광역시의 '세상배움카드'처럼 다른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에서도 타 지자체의 사례와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이 사업을 도입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 내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 청소년의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관련 예산과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외국 지원 사례(대도시 중심)⁵⁰⁾

해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스템 사례로서 학교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는 전국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등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아일랜드(더블린 시)의 사례와 청년보장제도를 바탕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스웨덴(스톡홀름 시)의 사례를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요코하마 시는 성인 은둔형 외톨이 혹은 니트(NEET)에게 개인에 적절한 수준의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았다.

1) 아일랜드(더블린 시)

(1) 아일랜드 국가역량체계(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NFQ)⁵¹⁾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 교육체계는 연령이나 교육기관에 따른 학위취득, 자격, 훈련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용하는 아일랜드 국가역량체계(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NFQ)에 기반한다. 정규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에서 받은 훈련과 학위를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1단계부터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10단계까지의 총 10개 단계⁵²⁾로 통합하여 인정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학교 안이나 학교 밖에서 받는 교육이 모두 호환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50) 본 절은 윤철경 외(2016)의 pp.261~180, 윤철경 외(2017)의 pp.415~435, 윤철경 외(2018a)의 pp.324~360의 내용에 기초하되, 본 연구 내용에 해당하는 대도시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어 요약, 정리하고, 관련 해외 자료와 해당 웹사이트 업데이트 내용 등을 확인, 보완하였다.

51) 윤철경 외(2018a)연구의 pp. 324~334의 내용과 아일랜드 NFQ 홈페이지 <http://www.nfq-qqi.com/>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2020.11.21.인출)

52) 이 10단계를 이해가 쉽도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 단계는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 과정, 3단계는 완료시 중학교 졸업자격 취득, 4단계는 기초적인 직업수준의 학습 인정, 5단계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수준, 수료 시 중등학교 시스템 최종과정(Leaving Certificate) 취득, 6단계는 고급 직업 기술과정, 2년 프로그램 이수 시 Higher Certificate(우리 기준 전문학사) 취득, 7단계는 일반학사학위 수준으로 3년간의 프로그램, 8단계는 3~4년간의 프로그램으로 우등학사학위(Higher Diploma) 취득, 9단계는 석사과정, 10단계는 박사학위(Doctoral degree)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윤철경 외, 2018a: 325~326).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국가역량체계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학습을 하면 일정 수준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국가역량체계의 교육 내용은 2012년까지는 평생교육 훈련 포상 위원회(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Awards Council, FETAC)에서 담당했으나 현재는 이 업무가 아일랜드 품질 및 자격인증 관리청(QQI: Quality & Qualification Ireland))으로 통합되어 국가학력평가기관(State Examinations Commission: SEC), 평생교육청 (SOLAS)과의 협업을 통해 감독 및 관리하면서 그 질적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더블린 시의 NFQ의 전달체계⁵³⁾

NFQ제도는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교육훈련위원회(ETB)와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청(SOLAS)의 두 기관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이는 아일랜드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① 교육훈련위원회(Education and Training Boards, 이하 ETB)

아일랜드에는 자치구별로 모두 16개의 ETB가 있다. 이 중 더블린 시 교육훈련 위원회(City of Dublin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CDETB)는 아일랜드 교육기술부 소속 의사결정기구로서 각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담당 관내의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 기관과 청소년 기관을 관할하고 예산을 배분한다. 관리 대상에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도 모두 포함된다.

② 평생교육청(SOLAS)

SOLAS는 2013년에 제정된 평생교육훈련법안(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Act)에 근거해 교육기술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이 법안의 실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5개년 계획(2014-2019)’의 실행을

53) 윤철경 외(2018a)연구 pp. 324-334의 내용과 아일랜드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education.ie/en/The-Department/Bodies-and-Committees/>) 및 교육부 SOLAS 관련 내용을 발췌, 요약·정리하였다(<https://www.education.ie/en/The-Department/Agencies/An-tSeirbh%C3%ADs-Oideachais-Lean%C3%BAnaigh-agus-Scileanna-SOLAS-.html>)에서 2020년 11월 18일 인출.

담당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일랜드의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이 기관의 설립목적이며, 21세기에 요구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이를 계획·조정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각 자치구의 ETB 및 이에 속한 평생교육기관들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보조금과 전문기술을 지원하는 것 역시 SOLAS의 역할이다. SOLAS는 이런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각 자치구별 ETB를 파트너로 하고 있다. SOLAS는 또한 각 ETB가 계약하거나 수행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질 관리, 대학 원격연수나 국가전습 시스템이 아일랜드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3) 교육 프로그램⁵⁴⁾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아일랜드 NFQ의 기본 취지는 연령이나 학교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이 아일랜드의 평생교육(Further Education & Training, 이하 FET)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NFQ의 1단계부터 6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상위단계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개인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졸 미만의 저학력자를 위한 유스리치(Youthreach), 지역훈련센터 등과 같은 청소년대상 교육 및 직업 기술훈련, 학교복귀프로그램에서부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준비단계의 기초교육, 재취업자를 위한 특수 기술교육이나 훈련, 노동경험이 없더라도 취업 혹은 재취업을 위해 기초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

54) 아일랜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www.fetchcourses.ie/courses/fulltime>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2020.11.21. 인출)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윤철경 외, 2018a: 329-330). 이들 프로그램은 더블린만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제공되며, 참여한 훈련과 교육의 성과는 전국단위로 통합 관리된다.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훈련센터(Community Training Centre, CTC)

대상자는 16~21세(취약계층은 25세까지)의 조기 학업 중단자이다. 프로그램은 NFQ의 3~4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통 1년 단위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에는 문해력 및 셈하기 능력 교육과 같은 개인 생활에 요구되는 기술, 의사소통 및 협업과 같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그리고 직업에 요구되는 구체적 기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CTC는 6개월 동안 추적하고 모니터링한다. CTC는 더블린을 포함해 아일랜드 전역에 35개의 센터가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다.

○ 지역사회 교육(Community Education)

한국이나 일본에서 NEET라고 할 수 있는, 오랫동안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지역 공동체 센터 혹은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되고 운영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역사회마다 다르지만 모두 NFQ의 3단계에서 8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프로그램 참여기간 역시 1년 동안의 전일제 프로그램에서부터 일시적인 단기코스 등 개인의 상황이나 수요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매우 다양하다.

② 견습 프로그램⁵⁵⁾

견습 프로그램은 SOLAS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SOLAS는 견습생과 견습기관의 자격 승인을 포함해 견습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아일랜드 견습 과정은

55) 아일랜드 견습과정 홈페이지 <http://www.apprenticeship.ie/en/employers/Pages/EmployerInfo.aspx>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2020.11.23 인출).

NFQ(국가자격체계)의 5~10단계 사이에 걸쳐 있으며 이를 수료하는 데는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견습생은 Junior Certificate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최소 16세 이상의 개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견습 과정의 50% 이상은 현장학습으로 실시되지만, 그 외에도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은 고용주와 정식으로 고용되며 급여를 받는다.

③ 유스리치(Youthreach)⁵⁶⁾

유스리치는 아일랜드 국가 교육기술부가 15~20세 사이의 학업 중단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라고 볼 수 있다. 유스리치를 이수한 청소년들은 취업을 하거나 견습 과정, 혹은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준비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이 시설은 더블린을 포함해 아일랜드 전국에 110개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유스리치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방법은 강제적인 규정과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센티브는 유스리치 프로그램에 일정 수준 이상의 출석률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일주일에 30유로 썬의 수당이 지급된다. 강제적인 규정은 부모에게 부여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가 자녀를 유스리치에 출석시키지 않는 것을 발견한 기관이나 개인이 시 복지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면 복지위원회에서는 그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녀를 출석시키도록 강제할 수 있다.

유스리치는 NFQ시스템의 3단계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교육 시설로서 중학교 졸업자격, 고등학교 졸업자격 프로그램과 같은 공교육에서 이수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을 보다 유연하고 개별화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여기서 청소년들은 사회성 훈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일종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과 직장경험, 여가활동, 다양한 직업 선택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56) 아일랜드 Youthreach 홈페이지 <http://www.ddletb.ie/youth/youthreach/>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2020.11.20. 인출).

유스리치에서는 매년 LIFT(아일랜드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자는 뜻)라는 명칭의 상을 모범적인 청소년 혹은 청년에게 수여하는데 이 상의 취지를 보면 유스리치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I-6).



그림 III-6. 유스리치 센터의 인성교육 지향점을 보여주는 LIFT (Leading Ireland Future Together)의 하위 목표들

2) 스웨덴(스톡홀름 시)

(1) 스웨덴의 청년고용보장제도(Youth Job Guarantee)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스웨덴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학교 법에 규정된 의무교육 기간은 7세부터 16세까지의 9년이며, 그 이후의 연령부터는 고등학교 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대상이다(손혜경, 2014; 윤철경 외, 2018a). 스웨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 9년간의 의무교육기

간 이후에 학업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은 청소년들, 일본에서 NEET로 분류하는 광범위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젊은 국외자(Young outsiders)’라는 명칭으로 부르면서 교육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지목해 왔으며, 이들은 특히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 집단에서 90년대부터 급속히 늘어났다(스웨덴 국가보고서SOU, 2003, 노기호, 2013: 77에서 재인용). 정부에서는 이들이 주로 저소득층, 저학력층 가정의 자녀이거나 이민자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법령화하기 시작했다(노기호, 2013). 그 대응은 스웨덴 청년고용보장제도(Youth Job Guarantee)를 기반으로 한다. 이 제도는 평생교육/훈련, 직장경험 및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시작 후 90일 간은 주로 구직 지원을 위한 탐색 및 평가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90일 이후 2단계에서는 구직활동을 위한 훈련이나 직장경험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철경 외, 2018a: 334).

(2) 스톡홀름 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스톡홀름 시는 스웨덴의 수도로 거주하는 인구는 약 96만 5천명이며, 시를 포함한 스톡홀름 주의 거주인구는 235만 2천여 명으로 스웨덴 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이다⁵⁷⁾. 아래 그림 III-7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톡홀름을 포함한 스웨덴의 사회시스템은 스웨덴의 지자체를 뜻하는 꼬뮌(Kommun)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2004년 입법된 ‘결정할 능력과 복지’라는 법안은 이 꼬뮌에게 20세 이하의, 의무교육을 받은 모든 청소년들의 고용 실태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윤철경 외, 2018a). 연령기준으로 19세 이하까지는 교육부에서, 이후의 연령에서는 고용부/평생교육부가 꼬뮌을 통해서 청년세대의 교육·훈련을 책임지며, 꼬뮌의 관할에 있는 학교

57) 스웨덴 인구통계 사이트. <https://www.scb.se/hitta-statistik/>에서 2020년 11월 27일 인출

와 직업센터(Jobbtorg), 그리고 한국의 대안학교와 비슷한 민중고등학교(folk highschoools)을 통해서 수행된다(노기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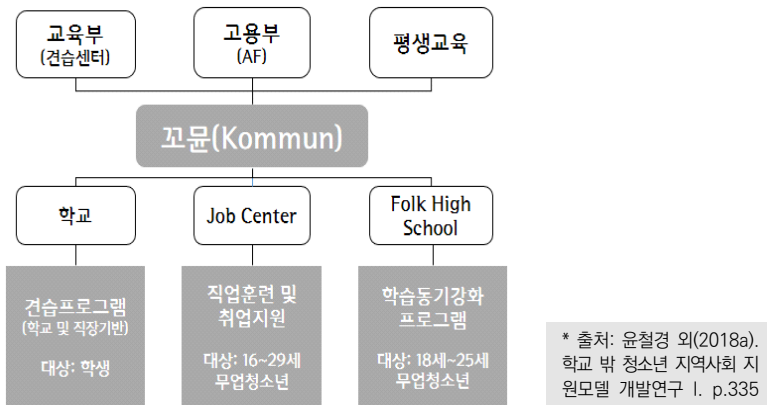


그림 III-7. 스웨덴의 학교 밖 청소년 전달체계

(3)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방법⁵⁸⁾

더블린과 마찬가지로, 스톡홀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수단 역시 크게 의무와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의무적인 요소로는 학교장의 신고에서 시작되는 기관 간 연계가 있다.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면 해당학교의 학교장은 즉시 시 지역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해당 자치구는 그 청소년의 정보를 공유하고 편지, 전화, 자택방문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과 연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스웨덴의 아동·청소년 데이터베이스(UEDB: Ungdomsoch elevdatabasen)에 등록된다. 따라서 관련 자치구에서는 이 자료를 기초로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센티브 요소는 사회복지수당으로 스웨덴에

58) Stockholm Stad (2018). Outreach activities in Stockholm와 스톡홀름 취업센터 홈페이지. <https://socialtstod.stockholm/vagen-till-jobb/ung-och-arbetslos/jobbtorg-stockholm-for-unga/> (2020.11.27. 인출)에서 발췌, 정리

서는 취업센터에 등록, 프로그램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수당을 지급한다.

Stockholms stad | Social and financial support

Search | Menu

Social and financial support / The road to work /
Young and unemployed / Jobbtorg Stockholm for young people

Jobbtorg Stockholm for young people

Jobbtorg Stockholm offers support and guidance to young people who neither study nor work.

Welcome to our job fairs to talk about your future. We help you with guidance towards work or studies.

We can receive you as

- is between 16 and 29 years old
- neither works nor is enrolled in school
- is registered in the city of Stockholm (being registered in the city of Stockholm means that you have your registered address in one of the districts within the city of Stockholm).

General contact information

CLOSED RIGHT NOW

Monday - Thursday 08:00-16:30
Friday 08:00-16:00

You can call, email or contact us via our social media.

Phone: 08-508 46 400
@ E-mail: jobbtorgunga@stockholm.se

Chat with a youth counselor

CLOSED RIGHT NOW

Monday - Thursday 13:00-15:00

[Go to chat>](#)

Talk to us on Facebook

[Jobbtorg young Stockholm on Facebook >](#)

* 출처: 스톡홀름 취업센터 홈페이지. <https://socialtstod.stockholm/vagen-till-jobb/ung-och-arbetslos/jobbtorg-stockholm-for-unga/>에서 2020년 11월 27일 인출)

그림 III-8. 스톡홀름 시 취업센터(Jobbtorg Stockholm)의 홈페이지

이 두 가지 핵심 요소 이외에 취업센터에서는 인터넷 혹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각 커뮤니티의 취업센터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신세대 SNS를 이용해 청소년들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이들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학교의 재학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 스톡홀름 시의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⁵⁹⁾

① 스톡홀름 시 직업센터(Jobbtorg)

스톡홀름 관내에는 모두 10개의 직업센터가 있으며 각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스톡홀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고 신청 가능하다. 이 중에서 청소년을 전담하는 스톡홀름 청년 직업센터(Jobbtorg Stockholm Unga)가 있고 그 산하에 4개의 청년 직업센터(Kista, Vallingby, Globen, Skarholmen)가 있다(윤철경 외, 2018a: 335). 직업센터의 운영인력은 스톡홀름에서 시청 공무원을 파견하고, 시 코문에서 실제 코치진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코치 1명이 30명 이하의 청소년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민자, 범죄, 마약, 정신과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의 발견과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윤철경 외, 2018a: 336에서 재인용).

② 민중학교(Folk Highschool)

민중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고유한 형식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로서 학생 수는 150명 내외이다. 이들 학생의 연령대는 다양하며, 그 중에서 19세 미만 학생의 교육 예산은 꼬뮨의 부담이다. 민중학교의 교육과정은 실습이나 체험 중심의 직업교육과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그리고 일반교육으로 나뉘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부의 공공고용서비스(PES)에 등록된 18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직업이 없고 교육 훈련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기본적으로 13주간의 고교과정 보충수업을 통해 고교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8a: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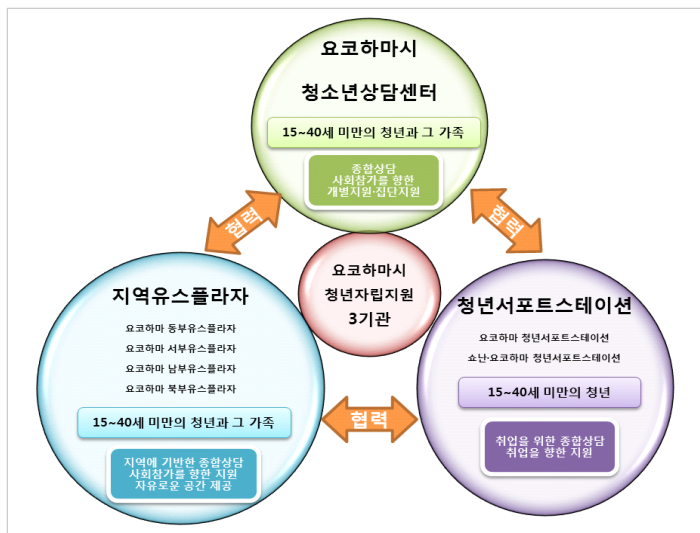
59) 윤철경 외(2018a)의 335~336, 342의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다.

3) 일본(요코하마 시)

일본의 요코하마 시는 2018년 기준 약 370만 명의 정령시(政令市: 한국의 특별자치시에 해당)로서⁶⁰⁾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대응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요코하마 시의 은둔형 외톨이 대응 정책 중 지역사회의 핵심 자원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윤철경 외, 2016).

(1) 요코하마 시 자립지원 3기관 연계모델

‘요코하마 시 청년자립지원 3기관 연계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협력관계의 3대 주체는 요코하마 청소년상담센터, 지역 유스플라자(Youth Plaza),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다(그림 III-9). 요코하마 시에서는 이를 ‘유스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른다(윤철경 외, 2016).



* 출처: 요코하마 시 청소년상담센터. 요코하마시 청년자립지원 3기관연계 팸플렛 번역. 윤철경 외(2016). p.279에서 재인용.

그림 III-9. 요코하마 시 3개 기관 연계 모델

60) 요코하마 시 공식 가이드 홈페이지 <https://www.yokohamajapan.com/kr/about/>에서 2020년 12월 5일 인출.

① 요코하마 시 청소년상담센터⁶¹⁾

1961년에 청소년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요코하마 시 청소년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는 요코하마 시 어린이·청소년국 소속 기관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상담센터는 앞서 기술한 유스 트라이앵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17명의 직원 중 12명이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자체 시설과 전문가들을 통한 상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후생노동성)에서 추진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자원봉사자 사업인 ‘유스서포터(Youth Supporter)’ 사업의 실무도 맡고 있다. 유스서포터는 센터의 홍보를 통해 자원한 요코하마 소재 대학의 상담이나 사회복지 관련 전공 재학생들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참여한 봉사자들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연수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실무에 투입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다면적인 지식, 선임 유스서포터 들의 사례체험을 통한 습득, 비밀유지의 의무, 신용유지의 의무 등과 같은 유스서포터의 의무교육을 포함한다(윤철경 외, 2016: 280).

② 유스플라자⁶²⁾

유스플라자는 요코하마 시 청소년상담센터 및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의 출장소 성격을 가지는 곳이다. 요코하마 청소년상담센터의 지부와 같은 곳으로 요코하마 시에 모두 4개소가 있으며, 서포트 스테이션과 마찬가지로 NPO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유스플라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상담 서비스 혹은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서 회복 중인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NPO 법인 등과의 제휴를 통해 지역 밀착형 활동을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은 15~40세 사이의 청소년 혹은 청년이다. NPO법인인 소다테아게넷에서

61) 윤철경 외(2016: 279~280)의 내용과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62) 윤철경 외(2016: 279~280)의 내용과 요코하마시 동부유스플라자 홈페이지 <http://www.sodateage.net/ypt/yokohama/>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한 내용을 함께 요약·정리하였다.

운영하는 동부 유스플라자의 경우, 모두 9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이들은 진로상담사, 정신보건복지사, 임상심리사 분야의 국가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둔형 외톨이 본인 혹은 가족 상담을 제공하며, 이 시간에 청소년들은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독서, 운동, 친구들과 노는 등 집 밖의 생활에 익숙해질 기회를 얻는다. 이 단계를 마치면 직장 견학, 지역 청소봉사, 사회성 훈련 등에 참여하게 한다. 특히 최소한의 타인과 교류하며 수행할 수 있어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선호하는 조리사, 청소부와 같은 직업체험이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벤트 등을 제공한다.



* 출처: 요코하마시 동부유스플라자 홈페이지. <http://www.sodateage.net/ypt/yokohama/>에서 2020.12.1. 인출.

그림 Ⅲ-10. 요코하마 동부유스플라자의 홈페이지와 안내화면

③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63)

요코하마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이하 사포스테)은 청년 니트들의 취업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연계서비스를 맡고 있

63) 윤철경 외(2016: 268~269)의 내용과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이란?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shokugyounouyoku/for_worker/ys-station/ind-ex.html에서 2020년 12월 22일 인출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다. 서비스의 대상은 15~49세의 직업이 없는 개인들과 그들의 보호자이다⁶⁴⁾. 중앙정부의 후생노동성에서 청년지원 실적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NPO 법인이나 주식회사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177개소를 운영 중이며 요코하마 시에는 3개의 지소가 운영 중으로, 두 곳은 한 비영리법인에서, 한 곳은 이후에 제시할 법인 'K2 인터내셔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상담을 통한 지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상담,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커리어 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가 상담, 기타 청년지원기관과 연계한 활동 참여 지원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소위 '스텝업(Step up)' 지원으로서 서포트스테이션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장에 잘 적응하고 보다 안정된 고용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추가 훈련, 졸업자 간담회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집중훈련 프로그램으로 교육 시설에서 일정기간 합숙을 하며 취직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실제 직장체험 실습까지 제공한다. 스테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다. 서포트스테이션은 지역 사회의 고등학교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잡카페 같은 취업지원단체, 정신보건복지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보호·복지시설, 자치회나 NPO법인, 그리고 지자체의 청년자립지원 담당부서 등과 연결되어 있어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도 담당한다.

(2) 사회적 기업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⁶⁵⁾

은둔형 외톨이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요코하마 시에서는 특히 사회적 기업인 K2 인터내셔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K2 인터내셔널에서는 청년 니트,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취업

64) 이전까지는 15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했으나 2020년 4월부터 49세까지로 연령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를 '사보스테 플러스'라고 부른다.

65) 윤철경 외(2016: 275-276)의 내용, K2인터내셔널 <http://k2-inter.com/> (2020.11.28) 내용을 함께 요약·정리하였다.

지원의 일환으로 Y-MAC 요코하마 견습센터, 쇼난·요코하마 청년사포스테, Youth Work 후지사와 등을 통해 직업체험과 실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Y-MAC에서는 합숙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사회성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진로 컨설팅 등 다양한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봉사활동, 직장체험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내적·외적 성장을 돕는다. K2-인터내셔널의 과정을 이수한 청소년들은 K2에서 운영하는 요식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정직원의 80% 이상을 K2 프로그램 이수자로 채용하는데, 이렇게 채용된 직원들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지점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K2 인터내셔널 재팬은 네트워크의 힘으로 젊은이들에게 활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고 다양한 사업과 일하는 장소, 거주지를 만들어 지역과 연계하여 일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K2 인터내셔널 재팬의 상세](#)

청소년 취업 지원 사업

● Y-MAC 요코하마 견습생 자격 센터

니트 나 히키코모리의 젊은이들에 대한 취업 지원 대책 사업.
합숙 생활을 주제로 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Y-MAC의 상세](#)



● 쇼난 요코하마 젊은이 서포트 스테이션

후생 노동성 인증 사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이를 위한 상담 기관입니다.

▶ [쇼난 요코하마 사뵘스테 공식 사이트](#)



● 젊은이 일 응원 학원 유스 워크 후지사와

후지사와시의 위탁 사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이를 위한 상담 기관입니다.

▶ [청소년 지원 청소년 워크 후지사와 공식 사이트](#)



대안 유학 사업

● K2 인터내셔널 AUS / NZ / KOREA

대안 학습 프로그램 해외 취업 체험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현지 직원, 공동 생활 기숙사, 일하는 장소 등 세부적인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출처: K2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https://k2-inter.com/summary/>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그림 III-11. K2 인터내셔널의 사업 소개

4. 요약 및 시사점

1) 국내정책 사례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성과와 개선방안

여성가족부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 218개 시·군·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드림 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는 기존에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인프라와 2007년부터 꾸준히 축적해 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노하우를 적절히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이들 꿈드림 센터의 시설과 인력 상황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센터별 지원 예산은 시·도센터는 2억3천8백만 원, 시·군·구센터는 유형에 따라 8천3백만 원에서 1억 6천4백만 원이며, 2~4명의 인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823, 833). 이제는 지역사회 꿈드림 센터의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할 단계라고 할 때 사업 예산 및 인력 확충, 더 나아가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이 더욱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대되는 정책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다.

(2) 부처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의 필요성

교육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이탈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고,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증 받아 다시 공교육 체계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의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에 맞는 성장과 보호의 권리를 누리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정책의 목표를 둔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과 꿈드림 센터의 내일이룸학교의 경우처럼 이 두 영역이 중첩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따라서 관련 부처 간의 중첩되는 영역을 최소화 하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를 해당 지역 꿈드림 센터로 이관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계 과정이다. 스웨덴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학업 중단 시점에서의 정보 제공과 연계의 의무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학교장에게 자기 학교 재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지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꿈드림으로 정보를 이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학교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법률」, 제15조). 그 결과 담당부처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고려하에 학령기 의무교육단계 청소년의 경우 당사자의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연계기관들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적극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의 현실적 제약요소 최소화

약 20~30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 국내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의 꿈드림센터의 이용 연인원인 48,250명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 비율은 12.3%이며, 연인원이 아닌 실제 성과인원인 17,170명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지원프로그램 참여 혹은 이용율은 5.0%에 불과하다(허민숙, 2020: 9). 더욱 큰 문제는 지원이 시급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꿈드림 센터가 거리상 너무 멀거나

교통편이 마땅하지 않는 등 접근성과 접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교통비와 통학 시간)이 없는 청소년들은 꿈드림 센터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교통비 지원사업인 ‘꿈키움 수당’ 사업과 같은 꿈드림 이용의 지리적인 장애를 최소화하려는 사업들은 그 성과를 기초로 보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해외정책사례

(1) 학교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는 교육/훈련 제도

아일랜드 더블린의 경우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 훈련의 질을 국가가 확인하고 NFQ라는 단일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이 재학 중이든 학교 밖에 있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동등한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민중학교가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며 서울형 대안학교처럼 학령기 청소년들에게는 정부나 시에서 학비를 부담하는 형식이다. 이처럼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단히 다양하고 유연한 참여 경로를 제공한다. 제도 신청 시 요구되는 절차나 문서도 별로 많지 않다. 학업 중단 시점에서 청소년의 정보가 평생학습관리 시스템으로 연계된다면 이런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와 같은 보다 유연한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그 영역은 학교 내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도입한 평생학습계좌제도 역시 초·중등학력 취득을 하면 검정고시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수준일 뿐 초·중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도 이미 국가역량체계는 NCS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평생 교육체계를 재정비하여 학교 밖 교육과 학교 내 교육의 차별을 최소화 하고 연계성과 통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블린이나 스톡홀름에서처럼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고, 학교와 직장 사이에서 취업과 복학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목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2) 인센티브 중심의 발굴체계

인센티브로서의 청년 수당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수당 지급은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에서처럼 청년수당을 몇 개월 단위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나 스웨덴처럼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에게는 모두 수령할 자격을 부여하되, 이들이 학교 혹은 직업센터 등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전문성 확보

아일랜드, 스웨덴,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담당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모두 청소년기관에서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전일제 학력 또는 자격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더블린시의 유스리치는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프로그램 외에도 사회성 교육, 현장 실습이나 멘토 교육과 같은 직업 교육을 제공하며, 이 교육의 이수여부에 따라 그 다음 단계의 교육이나 훈련의 신청이나 취업할 자격이 부여된다. 스웨덴의 학교 밖 청소년 기관 역시 전문적인 상담, 교육/훈련, 취업과 창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일본 역시 학업중단학생 지원 시설을 통해 제공된 학습경험을 공식적인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원 시설 종사자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준하는 전문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 인력에 의존해서는 불가능한 역할이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이에 준하는 역량개발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질적 연구: 기존 패널

- 1. 기존 패널 현황 및 자료 수집
- 2. 대도시 지역 기존 패널 면접결과 분석
- 3. 기존 패널 질적종단자료(2018~2020)
심층 분석
- 4. 요약 및 시사점

1. 기존 패널 현황 및 자료 수집

1) 기존 패널 조사 및 조사방법

(1) 기존 패널 조사 배경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은 2013년에 구축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776명 중 2017년 5차 조사에까지 모두 참여한 217명을 대상으로 학업, 직업, 무업 이행 경로 및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거주지와 성별을 안배하여 선정한 60명을 원표본으로 하고 있다. 2018년 본 연구의 1차 면접조사 시에는 60명이 모두 조사에 참여하였고, 2019년의 2차 조사에는 이들 중 48명만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패널관리 및 3차 조사 대상으로서 이들 48명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설계 당시부터 ①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구축과 ②지역규모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라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질적 패널 구축 및 조사,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까지 연구 범위가 방대하며, 협동연구 성격상 별도의 연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구축된 패널들이 대부분 2013년 이전에 학교를 그만둔 상황이어서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 제정되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현 시점

66) 제4장의 1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2절은 이동훈 교수(성균관대학교), 3절은 정선옥 교수(덕성여자대학교)가 집필하였고, 4절 요약 및 시사점은 상기 집필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함의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으며,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와 지원 경험을 파악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구축하게 된 바,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두 집단 모두를 전수 조사하기에는 연구인력 및 일정, 예산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도시 지원방안 도출이라는 올해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기존 패널의 경우 대도시 지역 거주자⁶⁷⁾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조사를, 그리고 다른 중소 도시나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패널관리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패널관리조사에만 참여한 패널들을 대상으로는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면접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2) 기존 패널 현황

기존 패널 48명을 대상으로 사전 연락을 시도한 결과 최종적으로 42명에 대해서 연락이 가능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패널 관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연도별 조사대상자 현황은 아래 표 IV-1과 같으며, 2020년 올해 패널관리를 통해 파악된 기존 패널 현황은 표 IV-2와 같다. 해가 거듭되면서 이탈한 패널들은 남성들은 군입대인 경우가 많았고, 이외에 단순 연락두절, 면접일정 연기 및 취소, 조사거절 등이 주된 이탈 사유였다.

표 IV-1. 기존 패널(2018~2020년) 연도별 조사 패널 수

구분	2018년(1차)	2019년(2차)	2020년(3차)
나이	만18~23세	만19세~24세	만20세~25세
조사완료 패널 수	면접조사: 60명	면접조사: 48명	42명 (면접: 22명, 패널관리 조사: 20명)

67) 예를 들어 인구 백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은 대도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연구의 중소도시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연구에 수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와 차별화하기 위해 올해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에 한정하였으며 따라서 면접조사대상자도 해당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IV-2.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관리 결과/현황

패널 관리 ID	1차조사 응답자 유형	성별	생년	만 나이	1차 조사 지역규모	연도별 조사 참여 여부	사전 접촉 결과	면접조사/ 패널관리 조사완료 여부	현재 주로 하는 일/ 기타
211	학업형	여자	96년	24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거절	거절	조사가거절
8207	학업형	여자	97년	23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거절	연락두절	연락두절
277	무업형	남자	95년	25	특별·광역시	2017년~2019년 모두 참여	결번	연락두절	없는 번호
42	직업형	남자	94년	26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하는 일 없음
110	직업형	남자	96년	24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사회복무
215	직업형	여자	97년	23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하는 일 없음
265	직업형	여자	96년	24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266	학업형	남자	96년	24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아르바이트
337	직업형	여자	96년	24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하는 일 없음
342	직업형	남자	94년	26	읍면지역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507	직업형	남자	97년	23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597	직업형	남자	97년	23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착신정지	군복무
600	무업형	여자	97년	23	중소도시	2017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학생
748	학업형	남자	97년	23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대학생
767	무업형	남자	97년	23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연락두절	쉬고 있음
786	학업형	남자	96년	24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군복무(공익)
787	학업형	여자	97년	23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취업 준비
790	학업형	여자	97년	23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대학생
840	학업형	여자	97년	23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848	직업형	남자	96년	24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하는 일 없음
896	학업형	여자	96년	24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공무원시험 준비
2008	학업형	여자	97년	23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2017	학업형	여자	96년	24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취업 준비
2019	무업형	남자	95년	23	중소도시	2017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학생
2050	학업형	남자	96년	24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2068	무업형	남자	95년	23	특별·광역시	2017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2069	무업형	남자	96년	24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5110	무업형	여자	97년	23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아르바이트
5126	무업형	남자	95년	25	읍면지역	2017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하는 일 없음
5165	학업형	여자	95년	25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5369	무업형	여자	95년	25	읍면지역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주부
5509	무업형	남자	95년	25	중소도시	2017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5614	무업형	남자	95년	25	특별·광역시	2017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실업급여

패널 관리 ID	1차조사 응답자 유형	성별	생년	만 나이	1차 조사 지역구도	연도별 조사 참여 여부	사전 접촉 결과	면접조사/ 패널관리 조사완료 여부	현재 주로 하는 일/ 기타
6002	학업형	남자	00년	20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쉬고 있음
6022	직업형	여자	97년	23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6029	직업형	남자	97년	23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6039	무업형	남자	98년	22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군복무
6044	직업형	남자	95년	25	읍면지역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6226	직업형	남자	96년	24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카페
6610	무업형	남자	96년	24	읍면지역	2017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하는 일 없음
6806	무업형	남자	95년	25	읍면지역	2017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아르바이트
6810	직업형	여자	95년	25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직장인
7001	학업형	남자	97년	23	중소도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착신정지	직장인
7013	직업형	남자	98년	22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9058	무업형	여자	96년	24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취업 준비
9220	학업형	여자	96년	24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직장인
9813	학업형	여자	97년	23	특별·광역시	2013년~2019년 모두 참여	성공	관리조사완료	취업 준비
9999	무업형	남자	99년	21	중소도시	2018년~2019년 면접 참여	성공	면접조사완료	부모님일 지원

2) 조사내용 및 결과 활용

(1) 조사내용

2018년 1차 조사 당시 조사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 이후 성인기 자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체계(개인, 가족), 중시체계(지역사회, 이웃, 또래 계, 학교, 학원, 직장 등), 거시체계(사회경제구조, 정책 등)적 요인을 두루 고려하여(윤철경 외, 2018a) 이러한 요인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올해 조사를 위해서 패널조사의 특성상 유의미한 조사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학업중단 의미의 시간적 변화 등), 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들은 첨삭하였다. 특히, 이전년도와의 변화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생활, 학업중단 경험과 이후 변화, 진로에 초점을 맞추되, 지원욕구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접지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서면자문을 받았으며, 기관 IRB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IV-1과 같으며, 최종 면접내용은 표 I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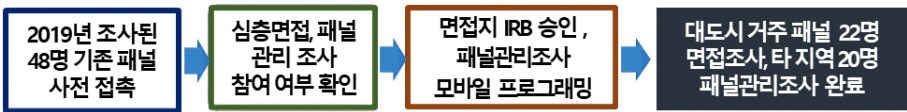


그림 IV-1. 2020년 기존 패널 조사 절차

면접 시에는 가능한 면접조사지의 내용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면접진행상황에 맞게 적절히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주로 온라인 화상면접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한된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IV-3. 기존 패널 면접조사 내용

구분	면접내용
기본정보	• 현재 살고 있는 곳(이사 등 확인): 거주형태(자취, 부모님 집, 친구 집 등) • 마지막 학교 그만둔 시기 재확인(고등, 대학교 복귀 여부) • 현재 주로 하는 일: 변화 여부 확인
현재생활	• 현재 생활 탐색: 학업, 취업 여부: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확인, 하루 일과 및 일정 • 최근 관심사나 고민(건강, 경제적 어려움, 거취나 생활문제 등) • 작년대비 변화 확인
학업중단 경험과 이후 변화 등	• 학업중단 경험이 (현재)삶에 미친 영향 • 학교교육에 대한 의미 부여(아쉬움, 긍정적 의미, 대안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 등) • 삶의 전환점으로서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과거의 학업중단에 대한 현재 생각) •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중단 경험관계 • 학교중단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 변화(트라우마 여부, 삶의 기능에 어려움),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
자신에 대한 생각 (정체감)	• 자신에 대한 인식(자존감 포함) • 현재 시기(성인기 이행 시기)에 대한 인식 • 성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정규교육을 벗어난)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 등 혼란스러운 자신의 위상에 대한 내려티브 수집
미래, 진로/	• 현재 경제 상태(주 수입원, 빚, 저축, 가족 부양 등)

구분	면접내용
자립 실태 및 준비	- 진로 결정 여부 및 결정 기준: 대학진학 사례 - 진로·직업·취업 준비 여부 및 내용, 학업중단으로 인한 어려움 여부(예, 구직 시) - 자립 여부 및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부족한 내용
관계 (지지체계)	- 지지체계 유무, 전반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지, 그 이유 등 - 현재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 가족 및 친구, 이성 관계, 개인적인 관계망(동호회 등) - 학업/취업 현장에서의 관계 등
지역사회와 사회일반에 대한 생각	-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중단 이후 현재까지 도움 경험과 내용(낙인/차별 경험 포함) - 지역사회 내 지지 체계 유무 및 내용 - 현재 지역(시·군·구)수준에서 만족하는 또는 아쉬운 지원 내역, 필요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개진 -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

(2) 기존 패널 질적자료의 활용

기존 패널의 경우 2018년에는 조사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러티브 분석이 수행되었고, 2019년에는 관계에 초점을 두어 내러티브 분석과 CQR-M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20년 조사를 통해 기존 패널의 경우 3차에 걸친 데이터가 축적이 된 바,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접근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올해 수집된 데이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도시 중심의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질적 중단자료가 향후 2차 자료 분석에 활용된다고 할 때, 그 예시로써, 2018~2019년도 데이터와 함께 과거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인식 및 경험의 변화에 초점을 둔 중단 분석에 활용되었다.

횡단 분석의 경우는 기존 패널의 학업중단 전후와 현재의 시기를 3단계(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이후~학령기, 학령기이후)로 구분하여 기존 패널을 유형화(능동형, 불가피형, 도피형/ 정지형, 배회형, 주도형)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할 수 있는 지원들을 탐색하였다. 질적 자료 중단 분석은 2018~2020년 동안 수집된 데이터 중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을 가능한 고루 할당하여 내러티브가 충실한 11명의 패널을 선정하여 이들의 학업중단의 의미, 진로경험과 지원 욕구 등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IV-2와 같다. 각각의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는 각 2절과 3절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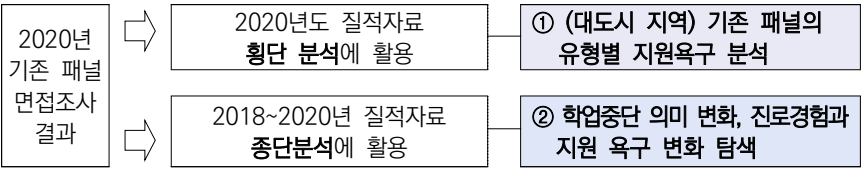


그림 IV-2. 2020년 기존 패널 면접조사결과 활용·분석 방법

3) 기존 패널(타 지역규모의 거주자) 관리조사

기존 패널 중 컨택이 가능했던 42명 중 대도시(특별시·광역시)거주 22명은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패널관리를 위해 모바일 링크를 통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패널관리에 필요한 몇 가지 조사 내용(현 거주지로의 이사 여부, 현재 주로 하는 일, 최근 고민 사항 등)을 구성하여 모바일 조사를 위한 프로그래밍 후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IV-4. (2020년 조사대상자 제외) 기존 패널 일반적 현황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	100.0
성별	남	9	45.0
	여	11	55.0
연령 (만나이)	만 20세	1	5.0
	만 23세	5	25.0
	만 24세	4	20.0
	만 25세	8	40.0
	만 26세	2	10.0
학교밖 유형 (2018년 1차 조사 기준)	학업형	5	25.0
	직업형	7	35.0
	무업형	8	40.0
현재 거주시·도	특별시·광역시	2	10.0
	경기도, 강원도	7	35.0

구분		사례수(명)	비율(%)
	충청도	4	20.0
	경상도	2	10.0
	전라도	3	15.0
	제주도	2	10.0
지역규모	대도시*	2	10.0
	중소도시	14	70.0
	읍면지역	4	20.0

* 올해 면접조사 거절 후 이후 패널관리조사에 응답한 사례

조사결과(표 IV-4), 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은 남자가 9명, 여자가 11명이었으며, 만 25세 이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23세가 5명, 만 24세가 4명 순이었다. 가장 나이가 어린 패널은 만 20세로 한명이었다. 2018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 구축 시의 학교 밖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학업형은 5명, 직업형은 7명, 무업형은 8명이었다. 현재 거주 시·도를 중심으로 보면, 경기도, 강원도가 7명이었고 충청도 4명, 경상도 2명, 전라도 3명, 제주도 2명 순이었다. 서울과 광주에 각각 1명씩 조사되었는데 올해 심층면접 조사에는 참여를 거절한 사례로서 향후 조사를 위한 패널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20명 중 4명이 현 거주지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IV-5), 각각 취업/직장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문제, 주택비용, 독립 등의 사유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기존 패널의 현거주지로의 이사 여부와 사유

구분		사례수(명)	비율(%)
이사 여부 (2019년 대비 거주지 변경)	전체	20	100.0
	예	4	20.0
	아니오	16	80.0
이사 사유	전체	4	100.0
	취업/직장 때문에	1	25.0
	가족(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	1	25.0
	주택비용 때문에(높은 월세 등)	1	25.0
	혼자살고 싶어서	1	25.0

이들이 현재 하는 일을 살펴본 결과(표 IV-6), 취업한 사례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취업준비중이 5명, 아르바이트가 5명으로 파악되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패널은 1명이었고 2명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021년도 면접 조사지 구성에 참고하기 위해 최근 고민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절반이 넘는 11명이 취업 및 이직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었고,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3명이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결국 20명 중 70%가 취업/진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부분이 2명, 건강, 결혼, 인간관계 등에 대한 고민은 1명씩으로 나타났다.

표 IV-6. 현재 주로 하는 일과 최근 고민사항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	100.0
현재 주로 하는 일	대학교 재학	1	5.0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5	25.0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	5	25.0
	취업하여 직장에 다님	7	35.0
	특별히 하는 일 없음	2	10.0
최근 고민사항	취업/이직 관련 고민	11	55.0
	나의 건강/친구 및 인간관계 고민	2	10.0
	결혼, 이성친구 교제 관련 고민	1	5.0
	집, 주택에 대한 고민	1	5.0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한 고민(주택문제 제외)	2	10.0
	향후 진로에 관한 고민	3	15.0

심층면접에 참여한 패널 뿐 아니라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을 대상으로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다시 접촉을 시도하여 연락처, 주거지 등의 변동을 확인하고, 현재 하는 일이 변화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4)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자료 DB 구축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2018년 1차 조사 시에는 60명, 2차 조사에서는 48명, 그리고 2020년 조사까지 매우 방대한 질적 자료가 생성되었다. 이 질적자료에는 심층 면접 음성 녹음 파일, 전사자료, 일부 현장 노트(field note 등⁶⁸⁾)이 포함된다. 이 데이터들은 연구진과 조사위탁기관의 하드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이중으로 저장, 보관되어 있다. 특히 2차 자료 분석을 위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전사자료의 경우 만약을 대비하여 제본하여 hard copy형태로도 보관하며, 2차 자료 분석시에는 현재 전사된 MS word파일로 제공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질적 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일이다. 2018~2020년 동안 3차례에 걸친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매우 많은 자료들은 자칫 정리가 안 될 경우 유실되기 쉬우며, 누구의 어느 년도의 전사 자료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는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상황에서 종단자료를 정리, DB화 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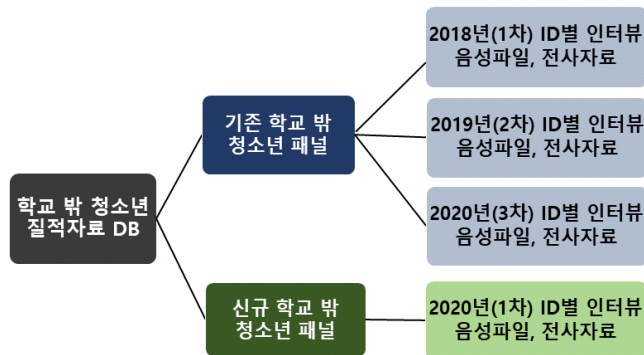


그림 IV-3. 학교 밖 청소년 질적자료 DB 구축·정리 체계(안)

68) 올해의 경우 COVID-19로 인해 대면 면접보다는 온라인 화상면접이 수행됨에 따라 현장 노트 작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징적인 부분은 전사자료에 메모하기도 하였으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현장 노트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DB 구축을 염두에 두고 그림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축적되는 자료들을 트리 구조로 체계화하여 정리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기존 및 신규 패널로 구분하고 연도별로 정리하되, 각 연도의 폴더 안에서는 전사 자료와 음성파일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ID별로 정렬하여 정리, 저장한다. 이와 더불어 각 패널의 ID별로 개인연락처 및 주소지, 특이 사항들은 별도로 정리하여 암호화 하여 해당 폴더에 포함시킨다.

이외에도 질적자료 분석 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NViv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질적 데이터 구축 역시 수행할 계획이다. 질적자료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를 위해, 그리고 NVivo프로그램에 대한 미숙련 등의 이유로 전사자료만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2차 자료 활용을 위한 질적자료 DB구축 역시 꼭 NVivo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⁶⁹⁾. 그러나 향후 2차 자료 분석 활용도를 고려하여⁷⁰⁾, NVivo 프로그램에 데이터 입력을 시작하였으며(그림 IV-4), 2019년 데이터 일부와 2020년 데이터는 조기에 입력을 완료할 예정이다. 활용도를 고려하여 MS word파일과 NVivo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향후 2차 자료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4차년도 연구가 수행되는 2021년에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질적 자료의 특성상 2차 자료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개는 양적조사 데이터처럼 연구원 홈페이지에 간단히 게시하기는 어렵다. 즉, 질적 자료의 경우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 불가피하게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어느 범위까지 2차 자료 분석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된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의 방법적인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보장, 연구윤리적 측면 그리고 관련 연구 활성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주도면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69) 영국의 사회과학 및 경제관련 데이터 아카이브인 영국의 UK Data Service의 경우에도 전사자료를 Excel이나 word파일 형식으로 제공한다(UK Data Service, 2020,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재인용).

70) 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질적패널조사 연구사업의 종료연도인 2022년도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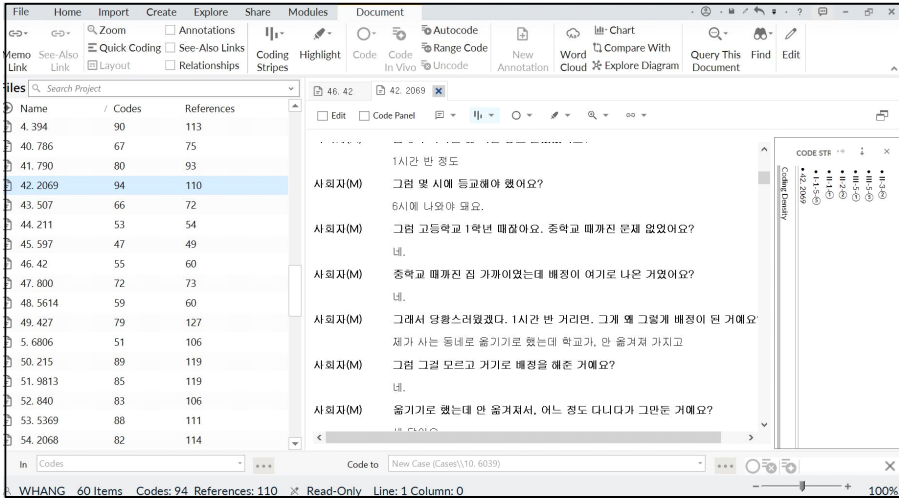


그림 IV-4. 기존 패널 질적자료의 NVivo 입력화면 예시

2. 대도시 지역 기존 패널 면접결과 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개요

(1) 자료수집

기존 패널들은 2018년과 2019년에도 동일한 면담에 참여함에 따라 본 면접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2년간 형성된 면담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라포(rapport)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이전년도 면담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행되었으며,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되었지만 화상면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패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희망하는 장소에서 방역조치 후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사전에 화상 프로그램(Zoom)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으며, 약속 된 시간에 화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면면접의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로 면접 시작 전에 발열상태나 기침, 인후통 증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였으며, 면접 진행자와 참가자 둘 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면접 장소는 외부 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실내에서 면접이 진행될 경우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공간을 확보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성인으로서의 삶과 대도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에 따라 면담자가 부가적인 질문을 덧붙이며 진행되었다. 면접 진행 전에 면담자는 3차년도 질문 가운데, 지난 2년간 면접조사에서 연구참여자(가)가 이미 구술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기존 면담자료를 숙지하여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앞서 연구 목적과 과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였다. 면담은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60~12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담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애매한 표현이나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확인하며 면담을 진행하였고 참여자가 질문에 대해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자는 연구참여자가 보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면담의 분위기 및 상황을 메모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여 5일 내 전사하여 문서자료화하였다. 면담 종료 후에는 연구참여자(가)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사례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두로 확인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은 3차년도에 진행된 면담자료만을 주로 활용하되, 1~2차년도에 이미 진술된 내용은 별도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가)들이 3차년도에 진술한 대도시 지원 방안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지난 면접 내용의 일부를 연구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성인이 이행과정에서 정체감 유형별 대도시 지원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1~2차년도 면접 전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2) 조사대상자

대도시(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1세에서 25세의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22명이 본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표 IV-7). 거주지 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9명, 부산광역시 7명, 광주광역시 2명,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가 각각 1명이었으며, 충청도에 거주하는 패널의 경우 군 입대 예정으로 다음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예외적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IV-7. 기존 패널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성별	남	15
	여	7
연령	만 25세	3
	만 24세	9
	만 23세	7
	만 22세	2
	만 21세	1
자퇴 시기	고등학교	18
	중학교	4
학교 밖 생활 기간	7년차	1
	8년차	8
	9년차	11
	10년차	2
거주지	서울	9
	인천	1
	충청	1
	대전	1
	광주	2
	대구	1
	부산	7
총 계		22

연구참여자들은 남자 15명, 여자 7명이었으며, 연령은 만 21세 1명, 22세 2명, 23세 7명, 24세 9명, 25세 3명으로 모두 20대 초·중반에 해당하였다. 학업중단

시기는 고등학교가 18명, 중학교가 4명으로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에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본 연구의 면접 시점은 학업중단 시점으로부터 7년차 1명, 8년차 8명, 9년차 11명, 10년차 2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IV-8. 기존 패널 조사참여자별 특성 및 현황

번호	성별	연령 (만)	1차 조사 시 (2018) 학교 밖 유형	학업중단 시기	학교 밖 생활기간 (연)	거주지	현재 하는 일
1	여	23	학업형	중3	9	서울	직장에 다님
2	남	24	직업형	고1	9	서울	특별히 하는 일 없음
3	남	25	무업형	고2	9	서울	학생
4	남	22	직업형	고1	7	서울	직장에 다님
5	여	24	무업형	고1	9	서울	취업준비
6	여	24	학업형	고1	9	서울	직장에 다님
7	남	23	직업형	고1	8	부산	직장에 다님
8	남	22	무업형	중3	8	광주	군복무
9	남	24	학업형	고2	8	부산	직장에 다님
10	여	23	학업형	고1	8	서울	취업준비
11	남	23	직업형	고1	8	인천	직장에 다님
12	남	24	직업형	고1	9	경북	카페(아버지 카페에서 일함)
13	남	24	학업형	고1	9	대전	아르바이트(야간)
14	여	24	학업형	고2	8	서울	공무원 시험 준비
15	여	23	학업형	고1	8	부산	대학생
16	남	25	무업형	고1	10	부산	쉬는 중
17	남	24	학업형	고1	9	부산	군복무(공익)
18	남	23	무업형	고1	10	대구	직장에 다님
19	여	23	직업형	중3	9	광주	특별히 하는 일 없음
20	남	24	직업형	고1	9	서울	특별히 하는 일 없음
21	남	21	무업형	중1	9	충청	부모님 일을 도와드립니다
22	남	23	학업형	고1	8	부산	대학생

2018년에 실시된 1차 면접 조사 시(표 IV-8) 구분한 학교 밖 유형별로는 학업형이 9명, 직업형이 7명, 무업형이 6명이었으나, 올해 3차 조사에서 현재 하는 일에

있어 다소 변화가 있었다. 학업형인 패널이 취업하여 직장 다니기도 하였으며, 무업형이었지만 현재 학생인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군복무,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 아직까지 진로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

(3) 3차년도 분석의 배경 및 방향성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 한 3차년도 면접조사 결과 분석은 이들의 학업중단 유형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2차년도의 분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에 진행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1차년도 연구(윤철경 외, 2018a)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 학교 밖을 나오고 있는가’, 둘째, ‘학업중단의 의미와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인간관계 양상 및 학업중단 이후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넷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만족도는 어떠한가’,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탐색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연구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하기 전후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컸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계 양상’에 집중하여 심층적인 탐색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시기를 구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어떤지 면밀히 탐색하고자 하였다(장근영 외, 2019).

3차년도의 연구 주제는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유형별로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4) 학교 밖 기존 패널에 대한 새로운 유형⁷¹⁾ 구분 및 자료 수집

① 새로운 학교 밖 유형 구분에 대한 논의

본 분석을 통해 대도시 거주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삶의 이행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탐색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과정을 시기별로 나눈 후, 학업중단 이전의 시기에서는 학업중단 결정의 동기를, 학업중단 이후의 시기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정체감 양상을 살펴보았다.

가. 학업중단 전후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시기별 특징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이라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에 속해있던 이전과는 다른 삶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삶에 있어 학업중단 결정은 하나의 변곡점으로 자리하며, 이를 전후로 삶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이때 학업중단 후의 시기는 성인으로 진입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다시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시기를 크게 ‘학업중단 전’, ‘학업중단 직후-고등학교 학령기’, ‘학령기 이후’로 구분하였으며, 이때의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한다. 각 시기 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 학업중단 이전 : 연구참여자들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 정규교육과정 내에 학생으로서 존재하였던 시기
- 학업중단 직후-고등학교 학령기 : 학업을 중단한 시점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고교시기까지 (이 시기의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위치를 경험하게 됨)
- 학령기 이후 :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고교시기 이후를 통칭하며, 청소년기를 벗어나 사회로 진출한 시기이자 성인기에 접어드는 시기

7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은 본 질적패널연구가 시작된 2018년도 기준으로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으로 구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유형이 패널들의 상황/환경에 따라 변하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들의 심리적 요인이 결국 학업이나 취업을 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연구결과를 기초로 이들의 진로나 삶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유형구분을 시도하였다.

나. 학업중단 이전 단계의 학업중단 동기별 유형 구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그 이유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양상과 요구되어지는 지원이 달라진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해함에 있어 학업중단을 결정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2019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 이전 시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업중단 결정의 동기와 원인을 고려하여 송광성, 구정화, 이영아, 그리고 김소희(1992)가 제안한 ‘능동형’, ‘불가피형’, ‘도피형’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동기는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도피형’과 ‘불가피형’이 ‘능동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능동형’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육성필 외, 2017). 각 유형 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 능동형 : 자발적인 의지와 목적에 따라 학업중단을 결정하고 실행한 유형
- 불가피형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리내적 및 외적 원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유형
- 도피형 : 학교생활 및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어 학교를 피하고자 학업중단을 결정한 유형

다. 학업중단 이후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자아정체감 양상에 따른 유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단발성 아르바이트만을 지속하며 취업이나 학업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무업형)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 학업에 집중하고(학업형), 취업을 하는(취업형) 등 사회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수행을 보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존적 의미 측면을 함께 강조하고자 연구참여자들의 정체감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위치를 경험하며 자아 탐색의 정도 및 삶의 목적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그에 따라 사회기능적인 측면의 수행도 달라졌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체감 양상을 '정지형', '배회형',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정지형 : 삶의 목적이나 의지가 부재하여 자아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
- 배회형 : 자아탐색에 대한 의지와 생각은 있지만 진전이 더디거나 없는 경우
- 주도형 : 자아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삶의 가치나 목적이 뚜렷한 경우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분석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는 후, 학업중단 이전의 시기에서는 학업중단 결정의 동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능동형', '불가피형', '도피형'으로 구분하였다. 학업중단 이후의 시기에서는 자아정체감 양상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을 '정지형', '배회형', '주도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 자아정체감 유형 내에서 '무업형', '학업형', '취업형'과 같이 사회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본 분석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9. 기존 패널 분석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유형 구분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의 미
학업중단 이전 (송광성 외, 1992)	능동형	자발적인 의지와 목적에 따라 학업중단을 결정하고 실행한 유형
	불가피형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리내적 및 외적 원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유형
	도피형	학교생활 및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어 학교를 피하고자 학업중단을 결정한 유형
학업중단 직후 ~ 학령기, 학령기 이후	정지형	삶의 목적이나 의지가 부재하여 자아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
	배회형	자아탐색에 대한 의지와 생각은 있지만 진전이 더디거나 없는 경우를 의미
	주도형	자아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삶의 가치나 목적이 뚜렷한 경우를 의미

2) 분석결과

기존 패널의 질적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2개의 연구 질문에 초점을 두어 분석방법을 달리하였다. 첫째로, 2020년 조사대상인 (대도시 거주)기존 패널의 학업중단 전후 시기에 따른 유형별 특성, 학교 밖 생활, 향후 지원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둘째로, 이들이 학업중단 전후 시기 유형별로 어떤 지원 방안을 원하는지에 대해 CQR-M 방법론을 적용하여 응답자의 빈도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1) 기존 패널의 학업중단 전후 시기 유형별 특성, 학교 밖 생활, 지원방안

① 분석방법: 내용분석

본 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 보기 위해서 성인이 된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및 정체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활용하였다. Krippendorff의 내용분석 방법은 연구자료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연구기법으로, 내용을 단순히 열거하지 않고 차원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다는 장점이 있다(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2016). 본 분석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체성과 삶의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다방면의 차원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기에 Krippendorff (2004)의 방법 절차를 따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Krippendorff(2004)의 내용분석은 다음의 4단계를 따라 이루어진다. 먼저, 전체 텍스트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과정 단계로, 연구참여자들의 보고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면담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체성 및 삶의 양상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s)을 찾는 단계로서, 면담 전사 자료에서 나타난 연구참여자의 구술 내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체성 및 삶의

양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발견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들을 의미단위로 구성하고 도출된 의미단위끼리 유관한 개념들을 묶어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한 후, 상위 범주들을 각 시기에 맞게 배치 및 배열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rigor)을 지킴으로서 연구 결과 및 합의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Lincoln & Guba, 1985). 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신뢰롭고 타당한 질적연구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및 중립성(confirmability) 측면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truth value)의 기준 충족을 위해 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개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 맥락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연락하여 분석 내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여 연구참여자들이 보고한 진술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적용성(applic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출간된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과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중단 경험 이후 성인기 이행과정의 전반적 경험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정체성 및 사회기능적 측면의 어려움을 예상 가능케 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적 개입에 대한 합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일관성(consistency)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수의 질적 연구 논문을 출간한 경험이 있는 연구진이 연구참여자들의 자료에서 추출한 의미단위가 범주에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상위 범주명이 의미단위를 포괄하도록 명명되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면서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면접 시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며 중립성(confirmability)을 지키고자 하였다. 면담질문지의 내용을 충분

히 숙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방적 질문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면담자료에 충실하되 관련 보고서 등을 활용한 삼각검증을 통해 중립적인 태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결과⁷²⁾

여기에서는 기존 패널의 사회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존적 의미 측면을 함께 강조하고자 연구참여자들의 정체감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8년 진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기별로 경험하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었으며, 2019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관계’를 중심으로 기존 패널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패널들이 학교를 그만둔 원인과 이유, 이후 삶의 모습에서 실존적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3차년도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왜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가와 같이 실존적 이유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며, 가정환경과 같은 주변 환경 또한 연구참여자의 실존적 의미와 연결되었다. 학업중단 이후, 기능적 측면에서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지만, 개인 내적으로는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멈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자아와 삶의 의미에 대한 탐색은 사회기능적인 측면과도 연결되었다. 자신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진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 및 학업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자신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탐색이 부재한 경우는 의미 없다고 여기는 일을 지속하거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모습은 기존 패널의 정체감 양상을 파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패널의 정체감 양상에 따른 대도시 중심의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72) 면접결과와 분량이 매우 방대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은 각 주제별 분석내용을 정리한 표에 ‘의미단위’로 최대한 포함시켰으며 직접인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인상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제시하였다.

① 〈학업중단 이전〉 연구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러 이유로 학업중단을 결정하며, 학업중단의 원인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지원 역시 상이하게 된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광성 외(1992)의 연구에 따라 학업중단 결정의 동기와 원인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능동형’, ‘불가피형’, ‘도피형’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연구참여자에 맞추어 보다 구체적을 기술하면, 첫 번째 유형인 ‘능동형’은 자발적인 의지와 목적에 따라 학업중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유형으로, 본 분석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일찍이 깨닫고 그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인 ‘불가피형’은 타의에 의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본 분석에서는 심리적 외상 및 신체적 외상, 경제적 어려움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리내적 원인 및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마지막 유형인 ‘도피형’은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고, 학교를 벗어나기 위해 별 다른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 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내에서 경험한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 자체를 피하고자 학업중단을 결정한 연구참여자들이 해당하였다.

가. 능동형

학업중단 이전 단계에서 능동형은 학업중단을 스스로 결정, 실행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태도가 강했다. 능동적인 생각·행동 속에서 개인적 요인으로 ‘원하는 진로를 더 효율적으로 찾아가기 위해 학업을 중단함’,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고자 학업을 중단함’, ‘입시위주 교육과 맞지 않는 성향’의 범주를 찾아볼 수 있었다.

표 IV-10. 적극적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학업을 중단한 능동형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원하는 진로를 더 효율적으 로 찾아가기 위해 학업을 중단함 (개인요인)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빨리 마치고 다른 진로를 찾고자 함	- 고등학교 학력을 검정고시로 빨리 취득 후 경찰공무원 시험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응시하고자 학업을 중단함(연구참여자 10) -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에 흥미가 있어서 스스로 찾아 공부하곤 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무 경험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자퇴를 결심함(연구참여자 12) -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 보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면 1년 빨리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검정고시 학원부터 알아보고 학업중단을 결심함(연구참여자 6)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학교를 다니며 사교육을 병행하는 것보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 계산함(연구참여자 10) - 고등학교 학비가 부담스럽고 아깝다고 느낌(연구참여자 11) -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일과가 너무 힘들었으며, 고등학교를 다니며 시간을 쓰는 것보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시간 투자에 있어 효율적이라 계산함(연구참여자 6)
	실무 기술에 초점을 둔 양질의 교육 지원이 요구됨	- 인문계에서는 고급수준의 학교가 존재하나 실업계에서는 고급수준의 학교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실업계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실제 역량있는 전문가들을 접할 수 있는 고급수준의 고등학교가 필요함(연구참여자 12) - 특정 분야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그 분야의 특기생은 기본 교과 성적이 낮더라도 특정분야의 실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면 좋겠음(연구참여자 12)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고자 학업을 중단함 (개인요인)	학교 밖 생활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의 시기에 후 다른 경로를 가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경험이라 생각했기에 학업을 중단함(연구참여자 10) -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이 수준급임을 자각하고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자퇴를 결정할 수 있었음(연구참여자 12)
	공부가 아닌 다양한 사회경험 을 통해 진로를 찾고자 함	학업에 흥미가 없어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았고,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음. 공부보다는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으며 여러가지 직업체험을 직접 해보고 진로를 탐색하고 싶었음(연구참여자 11)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진로설 계 프로그램과 그 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요구됨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당시, 학교생활이 자신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막상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미래나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10)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입시위주 교육과 맞지 않는 성향 (개인요인)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 고자 하는 성향 이 입시위주 교 육과 맞지 않음	입시위주의 관심보다는 또래들과 철학적 사고와 사유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소수의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됨.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 볼 때 또래와는 성향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밖 생활을 선택 함(연구참여자 10)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공간적 지원 이 요구됨	-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철학 교육을 보다 많이 포함시키고 학교에서도 또래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나눌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연구참여자 10) -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삶 전반에 관하여 토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 마련(연구참여자 10)

주: 하위범주에서 음영 처리한 부분은 기존 패널들의 지원요구, 또는 이들이 제안한 지원방안을 범주화한 것임(이하 동일)

○ 원하는 진로를 더 효율적으로 찾아가기 위함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전 원하는 진로를 고민하며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스스로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빨리 마치고 다른 진로를 찾고자 하였는데 ‘경찰 공무원 시험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응시하고자’하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무 경험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자퇴를 결심’ 하였으며, ‘검정고시를 보면 1년 빨리 대학교에 갈 수 있다고 계산하여 검정고시 학원부터 알아봤다’고 구술하였다.

한편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보고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사교육에 쓰는 비용보다 스스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공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였고, 고등학교 학비 자체가 아깝다고 진술하였다.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붙잡혀 공부하는 것보다 그만두고 그 시간에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특성화고 교육의 질적 제고(실제적 역량이 있는 교원, 학생선발기준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과정을 취득하는 이유가 특정 직업을 가지기 위한 건데 그러면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을 밟으면 되지 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게 필요한가. 이거에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12)

○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고자 함

학업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연구 참여자들도 보고되었다. 또한 학교 안 보다 학교 밖에서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찾고 드러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경험이라 생각하였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일찌감치 찾아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이 수준급임을 자각하여 자퇴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단순히 공부가 아닌 사회적 경험을 통해 진로를 찾아가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학업에 흥미가 없어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느껴졌으며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업 체험을 하고 싶어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진로 모색에 있어 학업중단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청소년들에게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입시위주 교육과 맞지 않는 성향

내적 요인인 개인의 성향을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 이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성향으로 현재의 입시위주 교육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학업중단을 선택하였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철학적 사고와 사유를 즐기는 편으로 또래들과는 성향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학업중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 밖에서도 지역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 전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생활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같이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것도 했었고 독서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연구참여자 10)

나. 불가피형

학업중단 이전 단계에서 불가피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외적 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학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경우나 신체적 외상을 입어 학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중단을 결정했다는 연구참여자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가정불화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 규칙 위반이 원인이 되어 학업을 중단했음을 보고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표 IV-11. 내·외적 원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불가피형

범주(예시)	하위범주	의미단위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업중단 (개인 요인)	가족 또는 지인의 사망을 경험함	-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고 1때 어머니가 갑자기 자살로 돌아가심(연구참여자 3) - 어릴 때부터 따르던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1달 뒤에 친했던 친구가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함(연구참여자 1)
	심리적 외상으로 학교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짐	-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심각한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은둔생활을 하다가 결국 학업을 중단함(연구참여자 3) - 할아버지와 친구의 죽음을 1달 간격으로 경험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경험을 하였으며 학교에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음(연구참여자 1) - 찾은 전학으로 인한 소외된 학교생활과 신체적/언어적 학교폭력의 피해, 보호막이 되어 주지 않은 담임교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퇴함(연구참여자 21)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경우, 신중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이 요구됨	-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여 학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상담실로 보내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해주면 좋겠음(연구참여자 1) - 너무 힘들 때는 선생님들의 지지조차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심리적 외상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3) - 심리적 외상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상담지원이 필요함(연구참여자 21)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운동선수라는 꿈을 포기함	중학교 때 어깨 탈골로 부상을 당하고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자, 어릴 때부터 꿈꿔온 꿈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경험함(연구참여자 1)

범주(예시)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 (개인 요인)		축구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까지 운동선수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뒀고, 그 이후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음(연구참여자 14)
	허리디스크로 인해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짐	학교 선생님 및 친구들과하고도 모두 원만하게 지내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해왔는데, 허리디스크가 악화되면서 학교 등하교가 어려워져 학업중단을 결정함(연구참여자 2)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상실감에 대한 상담 및 외상 후 생활 적응을 위한 체계가 요구됨	- 자신과 같이 부상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음. 이런 친구들에게는 단순한 부상이 아닌 미래가 사라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례에 맞는 심리상담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1) - 허리디스크로 인해 등하교가 어려웠지만, 그때 학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서 계속 학교를 다녔어야 했다는 후회를 함. 신체적으로 외상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2)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 (가족 요인)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의해 경제활동에 시달리는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함	- 부모이혼 후 편모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을 해왔는데, 가정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시달리시다 보니 어릴 때부터 스스로 끼니를 챙기며 형과 단둘이 돌봄 없이 생활함(연구참여자 11) - 부모이혼 후 편모가정에서 동생과 함께 세 가족이 살아왔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어머니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함(연구참여자 12) - 부모의 이혼으로 집안 환경이 어려워 가정의 안정감이 전혀 없었고, 학교 통학하면서 드는 비용도 아까웠으며 어머니는 거의 집에 없으셔서 볼 기회도 별로 없었음(연구참여자 22)
	학업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럽고 아깝다는 생각이 듦	- 가정형편이 어렵고, 어머니 혼자 힘들게 돈을 벌고 계시는 데 본인에게 의미 없는 학업에 드는 비용이 쓸모없는 낭비로 여겨짐(연구참여자 11) - 거주지에서 왕복 2시간여의 거리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었는데,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함(연구참여자 12)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및 생활비 지원이 요구됨	-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고등학교 학비 대신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거주지에서 근접한 고등학교로 진학할 필요(연구참여자 12) - 다양한 전문분야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수 설립 또는 기숙형 운영, 셔틀버스 지원(연구참여자 12) - 기본생활비 지원금 제공(연구참여자 12)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공감위주의 상담도 필요함(연구참여자 11)

범주(예시)	하위범주	의미단위
		•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연구참여자 22)
가정불화로 인한 학업중단 (가족 요인)	아버지 또는 형의 가정폭력이 가정불화를 유발하여 학교 생활 유지가 어려워짐	•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머니와 단둘이 나와 살았으나, 어머니가 이후 알콜중독으로 정서적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였으며, 결국 자살을 함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학업중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연구참여자 3) • 유아시절 부모님 이혼 후 편모가정에서 생활해 왔는데, 어머니가 경제활동으로 인해 형과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 형과 주로 생활함. 그러나, 형의 잦은 폭행으로 가출을 했으며 이는 학업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됨(연구참여자 11) •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친아버지를 떠나 중학교 3학년때부터 친어머니와 살게 되었으나 어머니와도 갈등이 많았음. 학창시절에는 독서실을 다니는 등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지만 어머니와 싸운 후 독서실을 그만두라는 얘기를 듣고 학업동기가 떨어져 공부를 아예 하지 않게 됨(연구참여자 7)
	가족상담과 같은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 학업중단 당시 겪는 가정불화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족상담을 통해 지원해주면 좋겠음(연구참여자 10)
학교 규칙 위반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교 요인)	잦은 지각으로 인해 출석일수가 부족하게 됨	• 15분 거리에 학교가 위치했으나 늦잠으로 제 시간에 등교하지 못함(연구참여자 19) • 지각으로 인한 출석 불인정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해짐(연구참여자 12)
	무단결석으로 인해 출석일수가 부족하게 됨	• 어머니와 갈등이 많았고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한 번 한 이후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생활하곤 했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잦은 무단결석으로 인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자퇴를 권고받음 (연구참여자 7) • 친형의 잦은 폭행을 참지 못하고 가출하여 며칠 무단결석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됨(연구참여자 11)

○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업중단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고 하였다. 먼저 가족과 지인의 사망에 대한 심리적 외상을 언급하였는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다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자살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고, 어릴 때부터 따르던 친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친했던 친구가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광경을 목격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은 가족과 지인의 사망 사건 충격으로 일상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학교생활은 더욱 지속하기 어려웠으며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이렇게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례는 단순히 교사선에서 학교 상담실로 보내는 등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에게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교사의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생님들이 애들을 너무 금방 포기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위클래스를 갔다가 그만둔 애들이 있어요.<중략> 위클래스가 상담소가 아니라 정신과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연구참여자 1)

○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학업중단

신체적 외상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연구참여자들도 보고되었다. 운동선수로 학교생활을 하는 중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상실감을 경험하며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운동선수가 아니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학교의 방침에 학업을 중단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 증상이 악화되면서 등하교조차 하기 힘들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였다.

“저는 사실 대학을 축구로 갈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중략> 운동을 그만 두면서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전학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둔 거 거든요.” (연구참여자 14)

운동선수의 부상과 또 이은 학업중단은 무엇보다 미래가 사라지는 상실감을 수반하므로 이에 초점이 맞춰진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신체적 외상이 있더라도 그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면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 신체적 외상을 보완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

한편, 가족 요인으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편모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경제활동으로 힘든 어머니로부터 정상적인 돌봄을 받기 힘들어 스스로 끼니를 챙기면서 형제끼리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술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학업에 드는 비용이 쓸모없게 느껴졌으며 등하굣길이 너무 멀어 교통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 굳이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 학업중단을 결정한 연구참여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교육비, 교통비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상담지원의 필요성도 보여준다.

“등교 시간까지 가려면 적어도 6시 반에 버스를 타야 해요. <중략> 6시에 일어나서 3200원 쓰면서 배우고 싶지 않은 공부를 배우러 학교를 가는 게 불만이 많았어요.” (연구참여자 12)

○ 가정불화로 인한 학업중단

가정불화가 원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며 어머니의 자살까지 경험하게 된 연구참여자와 부모님의 이혼 후 편모가정 환경 속에서 형의 상속적 폭력에 견디기 힘들어 가출을 한 연구참여자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알코올 중독에 더하여 가정폭력을 휘두른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지만, 어머니와의 갈등 또한 심하여 학업 동기 자체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가정불화의 대부분이 가정폭력에서 시작하여 가족 해체의 결과로 이어지면서 결국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다. 도피형

학업중단 이전 단계에서 도피형은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필요성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 나머지 비행과 일탈을 하기도 하고 정규 학교 교육과정 원치 않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학교 내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떠나는 결정을 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표 IV-12. 학교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중단한 도피형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공부의 필요성과 흥미를 느끼지 못함 (개인요인)	학업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함	• 학교 자체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학교에 매일 등교하여 앉아 있는 것이 싫었음(연구참여자 13) •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학업성적이 부진했지만 입시위주의 공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학업을 중단함(연구참여자 12) • 중학교와 사뭇 다른 고등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업 내용이 어려워 수업에 따라가기 벅차고 힘든 부분이 많아 학교에 가기 싫어 그만둠(연구참여자 5) • 학교에서 제일 의지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갑자기 유행처럼 많이 학교를 그만두었기에 그 이후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서 그 친구들 따라 학교를 그만둠(연구참여자 8)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낌	• 인문계고 수업내용이 어렵고 자신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11) • 기술전문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실무적인 기술이 아닌 이론만을 교육하여 실망함(연구참여자 18) • 입학한 고등학교가 진로와 적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었고, 먼저 자퇴를 한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도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따야겠다고 결심함(연구참여자 16) • 컴퓨터공학분야에 대해 이론적 내용보다 실무적 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론적 내용에 치중해있어 학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았음(연구참여자 12) • 직업탐색과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기대하며 실업계고 진학하였지만 면학 조성이 안 되는 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학교 밖을 선택함(연구참여자 15)
	학업중단 후의 삶에 대한 정보 및 멘토링 시스템과 일자리 지원 필요	• 애초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국가, 학교 혹은 정부에서 학교 중단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적극 홍보 필요(연구참여자 8) • 기본적으로 검정고시에 대한 교육을 해주면서 그 외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당시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중간 용돈벌이 일자리 지원 필요(연구참여자 8)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일탈을 일삼음 (개인요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저지름	• 중학교 시절, 가출 등의 일탈행동으로 어머니와 갈등이 많았고 출석일수 미달로 학교에서 자퇴권고를 받았을 때, 아무 동요 없이 자퇴신청을 함(연구참여자 7) • 중학교 때부터 친구를 괴롭히거나 담배, 술, 가출 등 일탈행위를 일삼아 학교, 부모와 잦은 갈등이 있었음(연구참여자 9) •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에 거의 등교하지 않았으며, 학교 앞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러 다니며 지냄(연구참여자 9) • 매일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을 저지름(연구참여자 12)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원치 않았던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움 (학교 요인)	학업중단 당시 하락한 진로 및 자아 탐색 욕구 증진위한 지원이 요구됨	• 학교 중단할 당시에 여러 지원이 있었어도 해보고 싶은 의욕이나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 같음(연구참여자 7) • 학교 중단 당시에 학교나 그 외의 기관에서 정보나 지원을 받지 않았고, 스스로도 알아보려는 생각도 하지 않음(연구참여자 9) • 학교 중단과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음(연구참여자 9)
	기대와는 다른 학교 분위기에 실망함	• 학생들의 흡연장면이 자주 목격되는 등 이러한 학교 문화 속에서 연구참여자 본인도 비행을 저지릴까 두려워짐(연구참여자 15) • 교사의 신체적 체벌이 교내의 공개된 장소에서 보란 듯이 행해지고 무관심하고 애정없는 교사의 태도로 교내 믿고 의지할 만한 선생님이 없었음(연구참여자 15) • 정당하지 않은 학교시스템 및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 제도와 부족한 자질의 교사에 대한 반감이 들었으며 엄격한 학교 규율에 적응하지 못함(연구참여자 15)
	틀에 박힌 학교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짐	• 오랜 시간 학교에 앉아있어야 하는 생활이 마치 자유를 박탈당한 채 학교에 붙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으며, 주변 친구들이 자퇴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보며 부러움을 느낌(연구참여자 17) • 아침 일찍 시작하는 규칙적인 학교생활이 자신의 생활리듬과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해져 학교가기 싫어짐. 학교의 정해진 규범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게 어렵고 힘들(연구참여자 19, 8)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 학교생활이 힘들게 느껴짐	• 중학교와 다른 고등학교 체계에 적응하기 어려웠으며 학교가 멀어 체력적으로 힘들어 학업중단을 결심함. 자퇴를 결심한 후에는 출석 및 시험과 같은 학교생활에 불성실하게 임함. 부모님께 검정고시를 약속하고 학업을 중단함(연구참여자 17)
학교 내에서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함 (대인관계 요인)	학교 교사의 체벌 및 갈등으로 인해 학교 적응이 어려움	• 고등학교 진학 후, 교사의 이유 없는 폭행과 체벌로 인해 학교가 싫어지고 교사의 이유 없는 체벌로 불만이 쌓여 자퇴를 결심함(연구참여자 18) • 교사와 애착관계가 없고 친구와도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연구참여자 5) • 국어선생님과 맞지 않아 갈등을 겪음(연구참여자 6)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연구대상자에게 보호가 아닌 질책을 하여 신뢰감이 부서짐(연구참여자 21)
	학교에 친구가 없거나, 어울리기 힘들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무단결석과 흡연 등 학교별점이 초과되어 희망하지 않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됨. 전학 간 학교에 친구가 없어 예전 학교를 그리워함. 결국 전학 간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자퇴하고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20) • 조별 과제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은 애랑 같이 있기가 정말 싫었음(연구참여자 6) • 잦은 전학으로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로 이방인 취급을 당해 잘 적응하지 못함(연구참여자 21)
	학교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 초등학교 6학년 서울로 이사 왔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교포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으며, 따돌림이 중학교까지 이어짐(연구참여자 4)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스트레스가 심해짐	- 남학생들이 등을 때리거나 물건을 가져가고 책상/의자에 분침을 해놓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음. 친구들의 계속되는 심한 장난과 놀림 때문에 짜증이 났고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학업중단을 생각함(연구참여자 5) - 친한 친구 무리에서 제외당할 때 소외감이 크게 났음(연구참여자 19) - 여고에서 친구들이 뒤에서 욕하며 뒷담화를 많이 함. 여자들의 뒷담화가 싫고 스트레스를 받음(연구참여자 6) - 가해자와 방관자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함(연구참여자 21)
	학업보다는 실무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책이 요구됨	- 지역사회나 관련 기관의 지원을 거부함(연구참여자 18) -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재적응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1:1 상담과 함께 학교 내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져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1) - 학교 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실 내 갈등 있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주의 집중하여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 지원체계가 필요함 - 자퇴 학생에 대해 우편 등을 통해 검정고시 준비 등 가능한 지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음(연구참여자 9) - 학교를 중단한 사람은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복고 보다는 차라리 학교 밖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음(연구참여자 9) - 직업학교처럼, 수료하면 취업도 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금전적인 지원을 원하는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이 선호할 것 같음(연구참여자 9)

○ 학교 공부의 필요성과 흥미를 느끼지 못함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학교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 자체 및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조차 무의미하다 생각했고 교실에 앉아 있는 것도 싫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입시위주의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가졌고, 학업에 원래 흥미가 없는데다가 고등학교 교육 내용이 너무 어려워 수업에 따라갈 수 없어 학교에 나가기 싫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음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대학입시를 위주로 공부하는 인문계고 수업 내용은 자신에게 맞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실업계 고등학교(현 특성화고)가 진로와 적성면에서 본인과 전혀 맞지 않다고 생

각되어 학업중단을 결정한 연구참여자도 보고되었다. 특히 한 연구참여자는 특정 분야인 컴퓨터공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실무적 기술을 배우고 싶었으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조차 이론적 내용에 치중한 교육 과정을 보고 기대를 갖기 어려웠음을 진술하였다. 처음에 실업계고 진학을 하며 직업 탐색과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기대하였으나 면학 분위기가 기대와 너무나 달라 학교를 떠나는 것이 낯졌다고 판단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랑 학교 공부랑 거리가 멀었어요.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고 컴퓨터공학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어요.” (연구참여자 12)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일탈을 일삼음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보다 학교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비행 및 일탈 행위를 하다가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 시기부터 가출 등의 일탈 행동으로 학교에 잘 나가지 않아 출석일수 미달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를 권고하자 아무 동요 없이 자퇴를 신청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에 거의 나가지 않았으며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 놀러 다니기만 했다고 표현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당시에 학교나 그 외 기관에서 정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전혀 없거나 스스로 알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굳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없고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가족 내 갈등 및 심리적 어려움의 경우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원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학교에서나 지역사회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려고도 안 했고 그때는, 없어요. 국가에서 도와준다 이런 것도 몰랐고” (연구참여자 9)

○ 원치 않았던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움

기대와 다른 학교 분위기에 적응이 어려워 학업 유지하기 힘들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교내 학생들의 흡연이 공공연하게 목격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교사의 체벌적 교육 방식과 애정 없는 태도, 정당하지 않은 학교 시스템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 제도와 분위기에 크게 실망했다고 진술하였다.

틀에 박힌 규율을 강조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모습도 나타났는데, 오랜 시간 학교 교실에 갇혀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고 심지어 밤 늦게까지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모두가 하고 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등교하는 규칙적인 학교생활이 자신의 생활리듬과는 맞지 않아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결국 학교에 나가기 싫어졌음을 지적하였다.

“일단 일어나는 시간,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인데 되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때는 그게 힘들어 했었고, 뭐 야자도 10시, 9시 이 때까지 하고.” (연구참여자 17)

○ 학교 내에서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

대인관계 갈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 교사의 이유 없는 폭행에 가까운 체벌을 경험하고 학교가 싫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로 인해 결국 자퇴를 결정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연구참여자는 무단결석과 흡연 등 벌점 초과로 인해 원하지 않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으나, 그 학교에 친구가 없어 결국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퇴를 결정하였다.

한편, 학교에서 또래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학교생활이 어렵게 된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초등학교부터 이어온 왕따와 따돌림이 중학교까지 이어지기도 하였고, 여럿이 집단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행사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에 학업중단을 생각하였으며, 여고에서 심한 뒷담화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제외당해 소외감을 크게 느끼는 등의 내용들이 나타났다.

“중 2때 남자애들이 같은 반인데 괴롭혀가지고. <중략>언제는 책상이나 의자에 분칠을 해놓은 거예요. <중략>상당히 충격이 컸어요.” (연구참여자 5)

② 〈학업중단 직후~고등학교〉 학령기 연구결과

본 분석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업중단 이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의 목적이나 의지의 유무에 따라 정지형, 배회형,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정지형

정지형-학업형의 특성은 ‘일상이 정지된 시간을 보냄’, ‘학업으로 복귀함’으로 범주화하였고, 이에 대한 지원요구는 ‘실존적 문제 탐색을 위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정지형-취업형은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시간을 보냄’과 ‘학업중단 이후 관심사에 대한 지원’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IV-13. 학업중단 직후 ~ 고등학교 학령기 시기의 정지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 업 형	일상이 정지된 시간을 보냄	학업뿐 아니라 일상이 무너짐을 느낌	- 중학교 때 친구와 할아버지를 잃고 나서, 자퇴를 한 이후 고등학교에 재진학하였으나, 고3이 될 때까지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마음을 잡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냄(연구참여자 1) - 학업중단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유산 문제로 배다른 형제와 분쟁이 있어 혼자 행정처리를 하느라 어려움을 겪음(연구참여자 3)
		혼자만의 시간을 보냄	-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은 자신에게 친구들이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꾸준히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거절함(연구참여자 3) - 자신의 우울한 모습을 보면 지인들까지 힘들게 할 것 같아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웠음. 학업중단 이후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연구참여자 1) - 괴롭힘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후 대인기피 증상이 나타나 의도치 않게 야외활동을 하지 못함(연구대상자 21)
	학업으로 복귀함	부모님 및 지인의 심리적 지지로 조금씩 다시 일어나고자함	- 돌아가신 어머니는 학력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었는데, 그 뜻을 받들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검정고시 준비를 했고, 이후에는 대학도 진학함(연구참여자 3) - 부상으로 운동선수의 꿈도 잃고, 친구와 할아버지를 잃어 어머니는 자신에 대해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방황을 했는데 부모님은 자신이 마음을 잡고 뭔가 하고 싶은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심(연구참여자 1) -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거절했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준 친구들이 곁에 있게 느껴졌음(연구참여자 3)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항상 지지해 주었던 부모와 가족 덕분에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됨(연구대상자 21)
		다시 학업에 집중하고자 함	- 중3때 심리적 외상으로 잠시 학교생활을 쉬었지만, 학교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다시 고등학교에 진학함(연구참여자 1) - 돌아가신 어머니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진학을 준비함(연구참여자 3)
	실존적 문제탐색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수행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실존적 시간이 필요함	-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당시에는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다 거절했을 것임. 하지만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에게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1) - 심리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혼자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학교에서 제공해주면 좋겠음(연구참여자 1)
취업형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시간을 보냄	자퇴 이후 특별 계획 없이 놀면서 시간 보냄	중, 고등학교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서 놀면서 시간을 보냄(연구참여자 7)
		학업중단 이후 계획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냄	- 주변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치르고 미용업, 조선포, 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함(연구참여자 7) - 학업중단 이후 가끔 들어오는 컴퓨터 프로그램관련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함(연구참여자 12) - 대부분 아르바이트 일로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음. 일 자체에 대한 흥미나 의욕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 용돈 벌이로 돈을 벌면서 주로 친구들과 술 마시는데 사용함(연구참여자 20)
	학업중단 이후, 관심사에 맞는 지원이 요구됨	학업뿐 아니라 취미 등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맞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개인적으로 삶에 있어 검정고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지원체계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20) -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경험하도록 적극적인 학원비 무료 지원 혹은 학원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길 희망함(연구참여자 20)

정지형-학업형의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학업중단 직후 일상이 정지된 듯한 시간을 보냈다고 보고하였다. 친구나 가족을 잃은 고통과 그 이후에 벌어진 힘든 사건들로 인해 단지 학업뿐만이 아닌 온 삶이 붕괴되는 혼란을 겪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은 연구참여자는 친구들과조차 만나고 싶지 않아 타인과 단절된 갇힌 세상 속에서 지냈고 자신의 우울한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구술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반면, 학업중단 이후 부모 또는 지인의 심리적 지지에 힘입어 다시 학업으로 복귀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학력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을 받들기 위해 검정고시와 대학입학 준비를 꾸준히 하거나 뿌리뽑힌 나무처럼 심하게 방황하였지만 묵묵히 지켜봐 주신 부모님과 계속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만나자고 연락해 준 친구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다시 힘을 내 학업으로 돌아갔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중학교 시절 심리적 외상으로 잠시 학교를 등졌지만 학교 생활 자체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다시 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에 몰입하고자 노력했다고 진술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과업 수행보다는 보다 심층적으로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실존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참여도 있었다. 심리적으로 힘들고 불안한 학생들을 위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실존적 자아를 찾기 위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정지형-취업형의 경우, 학업중단 이후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학업중단 후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놀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자퇴 후 첫 몇 달간은 놀기만 하였지만 이내 무료해지자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소개 받아 일을 시작했다. 대학진학이나 특정 분야의 실무경력을 위한 포부 없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 자체에 대한 흥미나 관심보다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보고하였다.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과정 중 정지형-취업형의 연구참여자들을 위해서는 학업 외의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관심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되거나 현재의 꿈드림 연계를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작업장과 같이 여러 분야의 실무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뭔가 제가 배운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위로 같은 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제일 실질적인 도움. <중략> 아무래도 학원비가 부담되는 애들도 있고, 그것만 좀 도와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20)

나. 배회형

배회형 역시 과업에 따라 학업형, 취업형으로 세분화되는데, 배회형-학업형의 면접 내용을 범주화하면 ‘무의미한 학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낌’, ‘목표없는 학업중단으로 타인의 시선에 의해 정체감이 흔들림’, ‘가족의 심리적 물리적 지원으로 미래를 준비해 감’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한 지원은 ‘학업중단 이후 진로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으로 범주화하였다. 배회형-취업형은 ‘하고 싶은 일은 있으나 외부 요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 ‘뚜렷한 목표는 없어도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나감’, ‘경제적 자립을 하면서 뿌듯함을 경험함’과 이에 대한 ‘진로탐색을 위한 안정적 환경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표 IV-14. 학업중단 직후 ~ 고등학교 학령기 시기의 배회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 업 형	무의미한 학업에 회의감을 느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학교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움	• 좋아하는 게임에 몰입하고 부족했던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등 희망하던 자유를 즐김. 틀에 박힌 학교에서 벗어나 희망하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함(연구참여자 17) • 공부가 하기 싫어 자퇴를 결정했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1년 동안 그냥 놀기만 함(연구참여자 13) • 학교를 그만둔 후, 정말 자퇴를 해도 되는 건지 겁이 났지만, 자퇴 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음(연구참여자 9) • 학업중단 후 어머니의 권유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게 되었지만 3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고졸학력을 취득함. 검정고시를 매우 쉽게 취득해 의무적인 일반 학교를 무의미하게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좋았음(연구참여자 5)
		부모님의 권유로 검정 고시/복교를 시도했지만, 학업에 동기가 없어 집중하기 어려움	• 부모님과 검정고시를 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8살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함(연구참여자 17) • 아버지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준비하였으나, 고졸학력의 필요성이나 의미를 찾지 못해 검정고시 준비에 몰입하지 않음(연구참여자 12) • 자퇴 후 부모님이 등록해주신 검정고시 학원은 다니지 않고 친구들과 PC방에서 시간을 보냄(연구참여자 9) •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라는 부모님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복학했다가 학교에 갇혀 있는게 너무 힘들어 방통고로 옮김(연구참여자 13)
	목표 없는 학업중단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 학교를 중퇴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인생이 끝난 것 같았음. ‘모든 걸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 낙담하고 좌절했지만, 주변에 학교를 중단한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타인의 사전에 정체감이 흔들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불안함을 겪음	친구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았음(연구참여자 9) • 학교를 그만둘 때는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만두니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혼란스럽기도 하였음(연구참여자 9) • 고졸하고 대졸은 사회에서 보는 눈이 다르고 방통고 나오고 대학까지 만나왔으면 창피하고 불편할 것 같아 고등학교 졸업 후 내신에 맞춰 대학에 진학함(연구참여자 13) • 좋은 취지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남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도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8)
	가족의 심리적 물리적 지원으로 미래를 준비해 감	가족의 심리적 금전적 지원으로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을 하게 됨 가족의 지지와 도움으로 역량을 향상시켜 감	•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진학을 권유한 부모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여자친구의 응원으로 시험직전 매진함(연구참여자 9) • 부모님이 검정고시 학원을 지원해 주고, 수학과외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금전적으로 지원을 잘 해주셨음(연구참여자 9) • 대학 진학 시 흥미나 재미를 느낀 전공이 아니라 형이 다니던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였으며, 운 좋게 검정고시 전형으로 합격함(연구참여자 9) • 검정고시 합격 직후 대학진학에 실패해 크게 낙심하였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다시 직업전문 대학진학을 준비하여 2년 만에 수료함(연구참여자 8) • 대인기피증 증상이 있었으나 가족의 굳건한 지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점차 극복해나감(연구대상자 21)
	학업중단 이후 진로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함	학교생활, 학업중단에 대한 의미설정이 필요함 대학 입시에 대한	• 주변에 지원기관이 있음을 알았지만 이용에 큰 의의가 없어 방문하지 않았으며,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기관에 방문하거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동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17) • 큰 의미 없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제도나 서비스를 알더라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학업중단숙려제 단계에서 학업중단의 의미를 미리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학업중단 이유에 따라 적절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해주는 것이 필요함(연구참여자 17)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흥미 및 적성검사를 통해 본인에 대한 탐색을 도와준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연구참여자 17) • 학업 외 특수분야의 영재를 발굴하여 전문성에 대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외 전문기관 연계 필요(연구참여자 12) • 대학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친구들이랑 검정고시 학원의 선생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음(연구참여자 9)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지원이 필요함	•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 담임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 한정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형제가 진학한 대학/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음(연구참여자 9) • 학교를 그만두면, 대학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알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담사 등이 매칭되어 진학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음(연구참여자 9)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에 공개하여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음(연구참여자 10) •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입학 관련 서비스(상담 등)가 있음을 알았다면 이용했을 것 같음(연구참여자 17) •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꿈드림센터)에서 공부하고,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보다 적성에 맞는 진학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함(연구참여자 9) • 자격증 교육 같은 것보다 검정고시 교과목별 지도 교육 방법들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함(연구참여자 8) • 지인 친구 소개로 1388 한국청소년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검정고시 교육 및 방법에 대해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음으로써 순조롭게 중고등 검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8) • 학업중단청소년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내에서 진행되는 입시설명회가 개최되면 효용성이 높아질 것임(연구대상자 21)
		검정고시 준비 학생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필요	• 학업중단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강의 수강료, 교재를 지원해주는 것인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함(연구참여자 10) • 학업중단 직후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관심 있는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희망함(연구참여자 2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지원과정 개선 필요	• 지원을 받기 위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많음. 실질적으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대해 다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5)
취업형	하고 싶은 일은 있으나 외부요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됨	• 녀석하지 않은 집안 형편으로 자신의 생활비는 스스로 마련했어야함(연구참여자 4) • 어머니와 지인 소개로 공단에서 3-4개월 일을 했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식당 보조나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지냄. 검정고시와 취업을 고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소득을 위해 힘든 공단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게 비교적 만족스럽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19) • 애견미용사 자격증에 관심은 있으나 생계유지를 위해 여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음. 진로 탐색보다는 경제적 소득이 우선되는 기준이라 단기적 아르바이트에 집중함(연구참여자 19) • 일자리를 정함에 있어 급여를 중시하였음(연구참여자 18) • 바리스타 일을 하고 싶어서 일본에 건너가 공부를 하고 싶지만 돈이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 없어서 행정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음(연구참여자 2) •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 졸업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연구참여자 19)
		건강문제로 원하던 꿈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	• 꿈드림센터 뉴스스탠드 활동을 하면서 조리사 겸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함. 그런데 손목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손목이 계속 안좋아지면 바리스타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함(연구참여자 2)
	뚜렷한 목표는 없어도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나감	자신에게 맞는 직업탐색을 위해 다양한 사회경험을 해 보고자 함	• 다양한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연구참여자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함(연구참여자 11) • 부모와 자인의 소개로 학교박청소년자원센터에 다니게 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진로탐색을 시작함(연구참여자 11) • 학업을 중단할 당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중단 이후 서비스업, 제조업 등 여러 영역에서 일을 하며 본인에게 맞는 직종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짐(연구참여자 18) • 학업중단 이후 검정고시를 보고 꿈드림센터라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뉴스 스탠드 활동을 하면서 바리스타 일을 하기 시작함(연구참여자 2)
		다양한 경험 통해 사회의 규칙 깨우침	• 관심사에 따라 직업을 경험하거나 친구의 소개로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짐. 다양한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학업을 그만두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음(연구참여자 18) • 이른 사회 진입으로 사회생활의 규칙을 빠르게 깨우침(연구참여자 18, 21)
	경제적 자립을 하면서 부딪힘을 경험함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어 만족감 느낌	•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며 토래에 비해 이른 나이에 수입을 얻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유로운 소비생활에 만족함(연구참여자 16) • 학업중단 이후, 공부기 아닌 기술을 배움으로써 빠르게 사회에 진입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키움(연구참여자 18)
	진로탐색을 위한 안정적 환경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자격증 취득에 대한 심리 경제적 지원	• 자격증 취득에 관심은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커 빨리 포기하게 됨. 자격증 수강비 무료 지원과 함께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 책임감 있게 관리해주는 지도자가 있길 희망함(연구참여자 19)
		주체적 진로 설정을 위한 진로경험 지원	• 학업중단 직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진로와 직업탐색을 경험하게 하여 자발적으로 취업 정보를 관련해 검색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5)
		직업학교를 통한 진로 설정의 한계	• 취업을 위해 직업학교를 다니며 취업준비를 하였으며,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적성에 맞아 3년 동안 성실하게 공장에서 일했지만 어린나이의 학력문제로 그만두게 됨(연구참여자 4)

배회형-학업형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학교 재학 당시 의미 없는 학업에 회의를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학업중단 이후 무의미한 학교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의미도 없는 틀에 박힌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거나, 학업에 흥미가 없어 학교를 그만둔 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 것이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후 부모님의 권유로 검정고시나 복교를 시도하였으나 학업 자체에 대한 동기가 부족해 학업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구술하였다. 학업중단 후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검정고시에 응시한 연구참여자도 있었지만, 부모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준비하였으나 학력의 필요성을 찾지 못해 학업에 몰입하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최소 고졸학력은 취득해야 한다는 부모의 설득으로 복교를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방송통 신고등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목표 없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주변인들의 시선때문에 정체감에 혼란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퇴한 당시에 삶이 끝난 듯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학교를 나왔지만 정작 이후에는 또래청소년과 본인의 처지가 다르다는 생각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고졸학력 미취득으로 인해 사회에서 수치심과 불편감이 있을 것을 걱정해 고졸학력을 취득하고 대학진학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학업중단할 때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벗어나고 싶다 그런. 그런데 벗어나고 나니까 남들하고 다르잖아요.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정신적으로.”(연구참여자 9)

한편으로, 가족의 심리적/물리적 지원으로 장래를 준비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검정고시나 대학진학을 준비할 때 가족이나 이성친구의 적극적인 지지와 세심한 관심 등의 심리적 지원을 통해 학업에 몰입할 수 있었고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원이나 과외수강 비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다. 대학진학에 관심도 없었고 서울권 대학에 진학할 자신도 없어 포기하였으나 어머니의

지지로 학원을 다니며 역량을 쌓아 나가거나 동생의 도움을 받아 대입을 준비한 경우도 있었다.

학업중단 직후~학령기의 배회형-학업형을 위한 지원으로는 ‘학교생활 또는 학업중단의 의미가 필요함’,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학 입시를 위한 정보 등 지원이 필요함’,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지원받는 과정의 개선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뚜렷한 사유나 목표 없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학업중단 후 청소년을 위한 지원제도를 알고 있어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학업중단숙려제 동안 학업중단의 당위성을 고민해보거나 학업중단 후 진로설계를 수립해 보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학교 시스템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특수한 역량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학교생활에 의미나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하므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흥미나 학습 의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학교생활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정고시 대비 인터넷 강의 수강권, 검정고시 수험서 등의 교재를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양한 경제적 지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관심있는 분야를 경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선택하고 학업을 유지하는 친구들에게는 인터넷 강의 지원이 좋을 거 같아요. 비용지원. 교재 같은 거. 교재 인강을 같이 지원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10)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대학입학을 위한 정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진학을 꿈꾸어도 이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 예를 들면, 대학원서 접수와 같은 기본 절차, 진학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등을 접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제공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멘토 또는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시 설명회 등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입시 원서를 제가 놓어야 되잖아요. 그 때 제가 아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중략> 담임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어도 대학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도해 줄 수 있는 상담사라든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9)

배회형-취업형의 연구참여자들은 하고 싶은 일은 있었으나 외부요인, 즉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희망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진로포부와는 상관없이 당장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되는데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구술하였다.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소망하던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한때 조리사를 꿈꾸었으나 허리가 아파 꿈을 포기하고 바리스타로 진로를 전향했지만, 손목이 건강하지 못해 바리스타를 직업으로 갖기에는 무리라는 의사의 조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회고하였다.

반면에 뚜렷한 목표는 없었지만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나갔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중단 후 다양한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거나 청소년 진로지원 기관의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진로/직업탐색을 하였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퇴 이후 다양한 일을 경험하였기에 학업중퇴에 대한 불안감은 느끼지 못했고 또래보다 이른 사회진입으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규율을 빠르게 익힐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긍심을 경험했다고 보고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자립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데 만족감을 느꼈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학업 외의 전문적 기술을 익혀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하게 느꼈다고 회고하였다.

학업중단 직후~학령기의 배회형-취업형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준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및 취업 정보제공’,

‘직업학교를 통한 진로설정의 한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는 희망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자격증 취득 과정을 위한 수강료 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며 자격증 취득과정 동안 청소년을 책임있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및 취업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였다.

“취업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해주면 좋겠는데... 취업 어플리케이션 이용해보니까 대충 정보를 입력해두면 본인이 관심 가질만한 회사알림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에서 밀어주는 그런 직업정보를 계속 알려주면 좋겠는데.”(연구참여자 5)

반면에 직업전문학교 이수를 통한 진로 준비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이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직업전문학교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낮은 학력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다. 주도형

주도형에서는 학업형만 나타났는데, 주도형-학업형의 특성은 ‘자퇴의 목표가 분명하여 뜻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함’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대학 입시 정보 제공’, ‘개인차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IV-15. 학업중단 직후 ~ 고등학교 학령기 시기의 주도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범주(예시)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 업 형	자퇴의 목표가 분명하여 뜻을	뚜렷한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함	• 뚜렷한 목표와 계획하에 자퇴를 선택한 후 바로 계획을 실천함.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함(연구참여자 10)

범주(예시)	하위범주	의미단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함	스스로 학업의 필요성을 느껴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을 준비함	• 자퇴를 하기 전부터 검정고시 학원을 알아보았으며, 자퇴 후에 정해진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여 6개월 후 검정고시에 합격함(연구참여자 6) • 검정고시 합격 후 낯땀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이 경험이 대학 학과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침(연구참여자 6) • 검정고시 준비부터 대학 입시까지 진학정보는 스스로 찾아보고 준비하였음(연구참여자 14)) • 고등학교 졸업장은 어디서든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자퇴 직후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합격하였으며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잘 살기 위해 대학에 진학함(연구참여자 14) •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 지역 복지관을 찾아가 검정고시 공부를 위해 도움을 받았고 수시 전형에 지원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함(연구참여자 22)
개인차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됨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 위한 경제적 지원과 대학 입시 정보 제공	• 학업중단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강의 수강료 및 교재 지원 등이 효과적일 것임(연구참여자 10) • 대학교 입시 관련 정보를 혼자 힘으로 알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원하는 진로와 관련한 대학교 입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을 될 것임(연구참여자 14)
	개인차를 고려 한 개인적 및 층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개인 수준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개인적인 맞춤 지원이 필요함(연구참여자 6) • 학생 신분에 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연구참여자 22) •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집안에서 컴퓨터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규칙적 생활을 개선해줄 프로그램이 필요함(연구참여자 22)

주도적으로 진학을 한 주도형-학업형 연구참여자들은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자퇴를 하였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자퇴를 하였기에 학교를 떠난 후 곧바로 실행에 옮겼으며 본인의 포부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고졸학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검정고시와 대학입학을 준비하여 고졸학력 취득과 대학진학에 성공하였다. 이외에 검정고시 합격 후 경험한 아르바이트가 대학 전공 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경우도 있었고, 자퇴 전부터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하여 학교를 그만둔 직후 바로 학업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다.

학업중단 직후~학령기의 주도형-학업형을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대학입시 정보 제공’, ‘개인차를 고려한 개인적 맞춤형 지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학업중단 이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있어 경제적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입시를 위한 대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다른 측면에서 개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연구참여자는 각각의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왔고 개개인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친구들도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뭘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시간을 두고 개인 지도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인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6)

③ 〈학령기 이후〉 연구결과

〈학령기 이후〉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대학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여 성인기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령기 이후 시기 또한 성인기에 접어드는 기점에서 진학이나 취업 등 미래에 대해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정지형, 진로에 대한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나 선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배회형, 그리고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하여 나아가는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 정지형

학령기 이후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었으나 소수의 연구참여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지형의 모습을 나타냈다. 자기를 이해하거나 탐색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동기조차 없어 현재 위치에 머무르려는 모습이 두드러졌으며,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교류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로 및 구직에 대한 고민은 주변 친구

에만 한정된 취약한 인적자원 배경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6. 학령기 이후 성인이 된 정지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취업형	자기이해 및 탐색에 대한 동기 부족	진로 탐색 및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음
		• 지게차 직종은 처음이었지만 기계 운용이라 몸이 덜 힘들고 재미있었음. 직종과 관계없이 일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준을 가지고 일을 고르지 않음(연구참여자 7) •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꼭 막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익숙하게 살아온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음(연구참여자 7)
	취약한 인적 자원	급여를 많이 받는 일로 진로 결정
		• 전역 후 어머니가 새아버지랑 별거하게 되면서 본인이 생활비를 주고 있음. 최근 어머니의 화생산청으로 인해 생활비를 더 많이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현재 일을 그만두고 급여가 더 많은 일을 구함(연구참여자 7) • 지게차 일로 받는 급여는 어머니 생활비, 차량 할부금액 등을 제하면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 급여를 더 많이 주는 일을 하기 위해 그만둠. 새로 구한 일(골프장 캐디)은 타 지역으로 가야하지만, 급여가 더 많고, 지역 이동이 일을 선택할 때의 고려사항은 아님(연구참여자 7)
	안정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가족 구성원간 정서적 교류가 부재함
		• 새아버지나 친아버지 모두와 연락하지 않고 있음. 타지에 있는 누나와는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졌을 때만 연락을 하며, 자주 연락하거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음(연구참여자 7).
취업형	안정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구직 시 솔직한 고민은 주변 친구에 한정됨
		• 직업을 구하거나 당면한 고민이 있을 때는 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위로 받는 편임.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자주 만나는 편이며, 아주 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곤 함(연구참여자 7).
취업형	안정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거주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간마련을 위한 일정 비용 지원이 독립성, 책임감 함양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법임. • 월세, 전세 보증금 지원을 해주면서 이율을 낮게 해주거나 일자리를 가지면 몇 %를 이자로 납부하게 하는 지원방법 제안 •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청소년의 시기임으로 감안하여 개인공간을 마련해야 됨.

○ 자기이해 및 탐색에 대한 동기 부족

학령기 이후 뚜렷한 목표가 없어 무엇을 해야할지 모른 채 지내왔다는 한 연구 참여자는 직종과 관계없이 무슨 일이든 적당한 선에서 잘 해내는 편이지만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으며 좋아하는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를 답답해하며 고민하지 않고 흘러가는대로 살고 싶다고

표현하며 동기 부족의 면모를 보였다. 한편, 자기이해와 진로탐색과는 별개로 급여의 많고 적음이 취업의 기준이 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력 부재로 인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과 기존에 하던 일에 비해 급여가 많은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급여를 많이 준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 취약한 인적자원

정지형은 그 배경이 되는 인적자원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류가 부재하였는데, 어머니의 생활비를 보내주면서도 빛에 대한 정보는 궁금해하지 않았고 타지에 사는 형제와도 관계도 소원하여 소통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민을 주변 친구들에 한정하여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있었다.

나. 배회형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으나 뚜렷한 목표가 없거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배회형은 다시 학업형, 취업형, 무업형으로 분류하여 분석되었다. 배회형-학업형의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뚜렷한 목표 없이 학업을 이어가거나, 대학 입학 준비나 입학 후에 진로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V-17. 학령기 이후 성인이 된 배회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 업 형	뚜렷한 목표 없이 학업을 이어감	학업중단으로 인해 대학진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음	20살에 또래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보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함을 느낌(연구참여자 17) - 학업중단 후 자유로운 삶에 익숙해져있다 보니 재수학원에도 오래 머물기 힘들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끈기 있게 생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연구참여자 17)
		대학에 입학했으나	대학교는 ○○○○과를 선택해 진학했으나 원하는 전공도 아니었고 딱히 삶에 도움 되는 부분이 없음(연구참여자 13)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배회함	• 또래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보고 재수학원에 등록하여 약 2년간 대입을 준비하였으며, 대학입학 후 진로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함(연구참여자 17) •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진로와 관련한 길을 스스로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이 힘에 부쳤으며 그로인해 학업중단을 후회함(연구참여자 17)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함	• 즉흥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성인을 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연구참여자 17) • 지인이 진로를 위해 공부하는 것을 보며 무작정 따라함. 학교를 그만두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음. 공익근무 중 진로를 정하였으며, 여유시간에 주로 진로에 대한 공부를 하며 지냄(연구참여자 17) • 진로 관련 전공 직종을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전역(6개월가량 남음) 후 이에 관련한 취직을 위해 토익 준비하면서 한국어 및 컴퓨터활용 능력 1급 자격증 취득 목표를 두고 최대한의 경력을 쌓고자 노력하고 있음(연구참여자 8)
	진로관련 막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지원 요구	• 대학교 진학 과정에서 막막함을 경험하였기에, 관련한 서비스가 있음을 알았다면 찾아갔을 것임(연구참여자 17) • 직업을 체험하거나 양질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임(연구참여자 14)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나 경험자들 간 정보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연구대상자 21)
취 업 형	외부 요인으로 원하던 진로가 막힘	•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군입대를 하고 전역 후 정규직으로 취업을 함. 정규직에 취업하여 1년 간 일하며 안정을 찾아갔지만 회사가 해당 지역의 사업장을 접게되어 다른 일을 찾고 있음(연구참여자 16) • ‘청년내일채움’제도로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회사를 다녔으나 다시 취업준비생이 되어 허무함과 불안함을 지냄(연구참여자 16) • 20살이 넘어 특정 분야에 학문적 관심이 생겼으나 이를 바탕으로 직업을 갖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포기함.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본인의 욕구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하기로 생각이 변화됨(연구참여자 12)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유발한 개인 내적 요인들	• 적성에 맞지 않는 길임을 깨달음 • 미 미래에 대한 계획 및 준비의 부족 • 지인의 권유로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 취직함. 비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작비를 받음. 협업형태의 작업유형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오래 근무하지 않고 사직함(연구참여자 12) • 아버지의 프랜차이즈 카페 중 한 지점을 맡아 운영함.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비는 본인이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으나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에는 관심이 없음(연구참여자 12)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진로 설정 과정에 대한 실존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됨		• 편의점, PC방, 정육점, 의류도소매업 등 다방면의 직종에서 일함. 우연한 기회에 여러 분야의 체험을 하며 진로를 탐색 중이나 본인 스스로 한 가지 진로를 선택하여 전문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연구참여자 12) • 질병에 의한 의가사제대 이후 일자리를 찾다가 현재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중. 현재 일자리가 급여가 많지 않지만 조금씩 저축하고 있으며 만족하며 지내지만,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연구참여자 4)
	직장 내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함	• 직장 상사와 갈등을 자주 겪고 직장 내 규범을 따르는데 답답함을 느낌(연구참여자 12) •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함(연구참여자 12)
	진로 설정 및 구직 지원	• 성인기에 진입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적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필요(연구참여자 11) • 취업에 필요한 실무기술이나 기본 역량함양 등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연구참여자 10) •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으나 막상 직장취직까지 연계는 잘 되지 않음(연구참여자 11) • 실제 기업에서 역량있는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대회나 공모전을 추진하고 이에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음(연구참여자 12)
	진로 설정을 위한 실존적 시간의 중요성을 반영 한 교육	• 군대나 실직으로 인한 직장변화로 이직이 잦고, 직장도 하나의 목표와 진로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취업이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다양한 취업 정보도 좋지만 자신의 적성이나 미래의 목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학교 밖 청소년 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 기본적인 경제 상식과 재무설계 교육이 필요함(연구참여자 10) •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예, 코딩기술) (연구참여자 10)
무 업 형	목표를 찾지 못해 진로탐색 과정에서 방향함	•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다가 부동산 관련 일에 관심이 생겨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었음(연구참여자 13) • 공익근무로 입대 예정이었으나 면제가 되어서 현재 용돈벌이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연구참여자 13) • 현재 창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나 특별하게 정해진 진로는 없음(연구참여자 13)

○ 뚜렷한 목표 없이 학업을 이어감

20세 포래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모습들을 보고 학업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어쩔

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했고, 재수학원 등 입시 교육기관에 다녀봤지만 기존의 자유로운 삶의 패턴에 익숙해진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며 대학 진학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진술하였다. 한편으로는 대학에 입학은 했으나 뚜렷한 목표와 진로 고민 없이 배회하는 사례도 있었다. 원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계획하지 못해 힘들었던 점에 대해 호소하며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도 드러냈다.

“커리큘럼대로 딱딱 하라는 대로 하면 솔직히 하라는 대로 하면 쉽잖아요. 근데 저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일인데도 훨씬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혼자서 해야 하고.”(연구참여 17)

○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함

학령기 이후 초기에는 미래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였으나 점차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공부 방법을 터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즉흥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타인의 삶을 목격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인의 공부 방법을 모델링하며 새롭게 진로를 정하여 공부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배회형-학업형의 경우 대학 진학 및 진로 설정에 대한 도움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꼈다는 점에서 대학 진학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학업중단 청소년 시기에 진로진학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직업체험이나 양질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냥 여러 가지 일을 체험해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과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면 그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연구참여 13)

한편 배회형-취업형의 연구참여자들은 회사 생활을 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는다거나 가정 형편으로 인해 관심있던 진로를 포기하는 등의 외적 요인으로 배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거나 미래 계획에 대한 준비 부족 등 개인 내적 요인으로 배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회형-무업형의 연구참여자들은 아르바이트 정도는 하고 있으나 학업이나 취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외부요인으로 원하던 진로가 막힘

학업보다는 취업을 원하지만 아르바이트 수준에 그치고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진로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배회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힘들게 정규직에 취업하여 1년 동안 일하며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다시 실업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청년내일채용’ 제도의 국가 지원을 기대하며 세웠던 진로 계획이 무산된 사례에서 연구참여자는 다시 취업준비생이 됨에 따른 허무함과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으로 인해 원하던 진로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특정 분야의 학문과 직업에 관심이 생겼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중임을 진술하였다.

“성인이 되고 나서 법에 대한 흥미가 생겼지만 이제 와서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너무 늦은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2)

○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유발한 개인 내적 요인들

앞의 외적 요인과 다르게 개인의 내적 요인들로 인해 진로설계에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 먼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길임을 깨닫고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하거나 스스로 미래에 대한 계획/준비가 부족하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족의 카페 지점을 운영하면서 여전히 진로를 탐색중인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현재 직장에서 1년 동안 근무 중으로 많지 않은 급여에 저축까지 하면서 만족스럽게 지내지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였다. 이외에도 직장 내 대인관계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는 구체적으로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잦고 직장 내 여러 규범을 따르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위계적 상하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함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배회형-취업형의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되었는데 첫째로, 먼저 진로 설정 및 구직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성인기에 진입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필요로 하였고, 현재의 진로/직업 체험

은 취업까지 잘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로/직업 체험과 실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기업에서 다양한 대회나 공모전을 추진하여 능력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 수여나 직접 고용 등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플랫폼을 주로 다루는 기업이 많은데 이런 데서 청소년 대회도 열고 상금도 주고. …〈중략〉… 기업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판단하면 학생 스스로 자퇴하고 그 나이에 기업에 들어가는 일도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12)

다음으로 실존적 시간 활용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 지원 내용이 추출되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본인의 목표와 진로에 따라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취업이 가능한 직장을 우선적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한 취업정보보다는 스스로 적성과 미래의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주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웹진이나 앱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경제 상식과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사회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배회형-무업형 연구참여자자는 취업이나 학업에 관심은 있으나 선불리 행동하지 않고 단발성 아르바이트만을 하고 정식으로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일로 진로를 정했다가 현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며 창업을 고민하고 있으나 특별한 계획이나 정한 진로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을 위한 지원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제도가 더 홍보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실제 취업이나 창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인턴십이나 양질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를 원하였다.

다. 주도형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주도형의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의 자리에서 학업에 충실하게 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였고, 또 실제 취업을 하여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주도형-학업형의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을 중단했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고 성장하기 위해 긍정적 자원을 찾고 있었다.

표 IV-18. 학령기 이후 성인이 된 주도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양상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 업 형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했으나, 대학 진학 후 오히려 더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음	• ○○관련 학과 공부를 하며 진로를 탐색함. 인턴, 아르바이트, 사회활동을 하며 연구참여자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지식 확장함(연구참여자 10) • 대학 진학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전공을 찾다가 ○○학과를 선택함. 지금은 일에 더욱 전문성을 더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작년에 대학원에 진학함(연구참여자 6) • 부모님과 진로와 직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경찰이란 직업이 눈에 들어와 대학교 학과도 ○○과를 찾아 진학함. 대학을 졸업하면서 경찰이 되기로 결정하고 경찰 시험을 준비함(연구참여자 14) • 누나의 권유로 ○○학과로 대학교에 진학하였는데 원하는 다른 대학으로 편입함(연구참여자 22)
	학업중단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시간이 지날수록 학업을 중단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 학업 중단을 계기로 지역 내 학교안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틀을 벗어나 큰 시야를 갖게 됨.(연구참여자 3) • 4년제 대학, ○○학과 재학 중. 현재 자리에서 되돌아볼 때 본인에게 맞지 않던 실업계고에서 자퇴한 후 인문계고로 전향한 것은 바람직한 진로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15) • 목표가 뚜렷하다면 학업을 중단해도 괜찮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3)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위한 자원을 찾음	•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그만큼 경험도 많기 때문에 대처방법도 익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움. 편입 이후 대학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재미있고, 공무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음(연구참여자 3) •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자신이 대학교도 나오고 잘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신 것이 동기가 되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됨(연구참여자 3)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통해 대인관계 기술, 진로정보 얻음	• 공익근무를 통해 만난 지인의 조언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주변의 조언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됨(연구참여자 17) • 공익근무 중 만난 친구에게 사람 대하는 방법을 배움(연구참여자 17)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라면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생계에 쫓기며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장 지원 필요	-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된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커트라인이 많이 낮고 뽑는 인원도 많아 볼기가 수월해서 공무원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함. 대기업 취업은 자신이 없고, 중소기업은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됨. 이처럼 저소득층이 사회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음(연구참여자 3) - 복지시스템이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계층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최소한의 살 수 있는 한도만 유지시켜 주는 것 같아서 아쉬움(연구참여자 3)
	생계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대학생활 및 취업준비를 하면서 학업에 필요한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생활비 지원금은 변하지 않아 빠듯함. 일을 하면 하는 만큼 생계 급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임(연구참여자 3)
	경제적 어려움 으로 여가활동 을 할 수 없는 학생 지원	대학생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기본적인 생활과 학업 이외 다른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움(연구참여자 3)
학업/진로 관련 구체적인 지도가 요구됨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진로 지도가 필요함	-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해본 사람이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의 계획을 같이 짜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음(연구참여자 3) - 친구나 지인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얘기하기는 하지만, 진로 고민이 있을 때 의논하거나 도움을 구할 대상은 없음.(연구참여자 3)
지원을 위한 행정적 체계 개선이 요구됨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지원이 보다 체계화되고 홍 보되길 바람	- 어머니 사후 유산 문제, 경제적 어려움 문제 등을 겪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정확히 안내해 주시지 않아서 놓친 부분이 있었음. 관련한 지원사항을 담당자가 제대로 알고 알려주거나 지원해 주면 좋겠음(연구참여자 3) -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실제 현장에 자주 나와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 준다면 좋겠음(연구참여자 22)
취 업 형	일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함	- 학업중단 이후 꿈드림을 통해서 처음 바리스타일을 접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카페라는 공간, 그리고 내가 만들어 준 커피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이 일에 만족하게 됨(연구참여자 2) -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함. 갑을 관계로 인한 직장생활이 힘들지만 일이 적성과 흥미에 잘 맞아 만족함(연구참여자 11)
	향후 진로를 고려하여 현재	- 취업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연구참여자 본인이 금융, 경제면에 상식과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관심을 갖게 됨(연구참여자 10) - 대학교 학과전공, 인턴, 아르바이트, 사회활동 등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며 플랫폼 사업, 콘텐츠 기업의 출판업계에 취직하게 됨(연구참여자 10)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역량을 키워 감	갓취감	•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일은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였으며 급여가 좋아 지속하고 있음(연구참여자 18) •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1년 반 정도 일했는데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일도 힘들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함(연구참여자 6)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인지함	•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였음(연구참여자 1) • 현재는 카페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열심히 해서 향후에는 나만의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음(연구참여자 3)
학업중단과 동시에 대 인관계 폭이 좁아져 사회에서 만난 관계가 중요해 짐	군대 및 사회 에서 만난 지인이 중요한 인적 자원	• 군대 제대 후, 건설업에서 일을 지속하고 있음. 직장동료는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나를 이해해주기에 힘이 됨(연구참여자 18) •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만난 직장 상사,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어 큰 힘이 됨(연구참여자 2)
	빈약한 대인 관계에 대한 아쉬움으로 친구 만들고자 단독방에 참여	•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처음에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만족했다가 나중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남음(연구참여자 3) • 학업중단 이후 기회가 없어서 친구가 거의 없는데 친구를 만들고 싶어져서 또래들이 참여하는 단독방에 참여하여 대화를 나눔.(연구참여자 3)
경제적 자립 추구	경제적 자립을 추구함	• 현재 자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의 자립하였기에, 성인이라고 생각함(연구참여자 18) •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해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자 함(연구참여자 1)
사회적 관심으로 승화시킴	자신과 비슷한 학생들 지원해 주고 싶어 자원봉사활동	• 취업 한 이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물리적, 지적,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여 멘토링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음(연구참여자 1)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학교 의미의 회복이 필요함	• 멘토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도 모르는 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를 관두는 친구들이 많아짐. 예전에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잘하는 친구들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됨(연구참여자 1)
	복교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	•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가면 특별히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연구참여자 1)
학업중단 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학업중단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개발 필요	•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들어보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공감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주된 내용이 학교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 되서 와닿지 않음(연구참여자 1) •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강의는 학교의 필요성만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개발		강조하고 복고를 당연히 해야한다는 식의 관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 (연구참여자 1)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단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필요	•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멘토링해주는 일을 하고 있음. 이전에는 멘토가 3명정도였는데 다른 팀과 함께 합쳐서 현재는 멘토가 20명 정도. 멘티는 5~10명이었는데 현재는 60명으로 규모가 커짐(연구참여자 1) • 소규모 단체는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개인돈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음. 국가기관이 아닌 소규모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연구참여자 1)
	진로 및 취업 지원 대상의 확대	• 꿈드림을 통해 바리스타가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취업 연계 지원이 가장 절실했음(연구참여자 2) • 고등학교 졸업하면 진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성인 되기 전까지 24살까지는 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연구참여자 2)
	학업중단으로 대인관계 폭이 좁아진 경우 지원 필요	•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친구 사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쌓을 수 있는 모임 등을 마련해 주면 좋겠음(연구참여자 2)

○ 대학 진학 후 오히려 더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음

고등학교 시기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학업에 뜻을 두고 대학에 진학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본인의 관심사나 생계, 가족의 추천 등의 이유로 자기에게 맞는 전공과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심있는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였고,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학업중단이 계기가 되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연구참여자들도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중단을 통해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큰 시야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연구참여자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실업계고(현 특성화고)를 자퇴한 후 인문계고로 전향한 것은 바람직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학생이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다면 학업중단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자퇴를 한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중략>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수련을 준비한 시점부터 뭔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학교 등급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교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3)

○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찾음

연구참여자는 본인이 처한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주도적으로 찾아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역경이 닦혔을 때 오히려 교훈을 삼아 학업을 이어갔는데, 어머니 사후 역경에 대처하게 되었고, 편입을 하여 대학생활을 하며 공무원 준비까지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를 떠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긍정적인 도움과 배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익근무를 통해 만난 지인의 조언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연결되고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대인관계기술도 배울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 공부를 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친한 공무원 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말라고 길을 조금 알려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고.”(연구참여자 17)

주도형-학업형을 위한 지원으로 먼저 저소득층 학업중단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생계에 쫓겨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복지시스템이 계층 간 부의 이동이 어려우며 최소한의 기본 삶만 유지시켜 준다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복지 시스템이 못 사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계층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냥 최소한의 살 수 있는 한도만 유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왜냐하면 소득이 올라가면 이제 생계급여가 아예 안 나오게 해놨더라 고요. 구조상 보니까.” (연구참여자 3)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현재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으로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 뿐 아니라 학업 이외 다른 취미를 갖고 여가를 즐기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험생활에 있어서(공무원, 자격증 준비에서)의 노하우,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의논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중략> 두 번째는 저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학습비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연구참여자 3)

끝으로 행정적 체계 개선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는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진술하였다. 해당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지원들에 대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이 정확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길 기대하였다.

○ 향후 진로를 고려하여 현재 역량을 키움

현재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량을 키워가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자신의 진로와 현실 상황의 타협점을 잘 맞추며 현실적 안목을 갖춰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취업 준비 중 금융, 경제 상식의 필요성을 느껴 이에 관심을 갖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막대한 이상보다는 현실적 뒷받침과 소득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대학교 전공, 인턴, 아르바이트, 사회활동 등을 연결시켜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시험은 못 봤어요. 금전적으로 제가 감당하면서 생활비, 공부 다 하니까 돈이 빨리 떨어지고 그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시험이 지금 당장 어렵겠다 생각하고 일반 취업이 지금은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원래 서울에서 혼자 살 거라서 연봉 높은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데 흥미 쪽으로 직무를 정했어요. 다니다 괜찮으면 계속 다니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직할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10)

같은 맥락에서 연구참여자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 계속 노력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좋아하는 음악을 원하는대로 만들고 싶어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였고, 현재 직원으로 일하는 카페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중에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포부를 보였다.

○ 학업중단과 동시에 사회에서의 대인관계가 중요해 짐

학교를 떠나면서 또래 및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학교 밖의 사회에서 만난 대인관계가 긍정적 인적자원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군 제대 후 건설업계에 취업하여 일하는 중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직장동료를 만나 힘을 얻기도 했고, 바리스타 일을 하며 만난 직장상사나 군대에서 인연이 된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어 큰 힘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친구 만들기에 나선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학교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어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SNS 단체 대화방 등의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힘이 되는 관계죠) 술 마시고 서로 힘든 이야기 나누니까요. 일에 대해서(이야기 해요). 일하면 힘드니까. 서로 힘든 이야기 하면서 겪는 거죠.”(연구참여자 18)

○ 경제적 자립을 추구함

주도형-취업형은 다른 유형과 다르게 경제적 자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거의 자립했다고 자부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머니께 용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정배경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부모의 요청으로 또 경제적 자립을 위해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 온 사례도 있었다.

“(집이 경제적으로)들 다 돈 잘 버시고요. <중략> 근데 그냥 네가 쓰는 돈은 네가 내라는 거라서 제 많지 않은 월급에서 떼가는 분들이라.” (연구참여자 1)

○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과거 상황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부담을 감수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취업을 한 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물리적, 지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오픈채팅방을 열어 멘티를 모집하였고, 시간과 경제적 비용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2~3일에 한 번씩 멘티들을 만나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주도형-취업형 패널을 위한 지원 중에는 첫 번째로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 의미를 느끼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공동체의 의미가 부각되어 학교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과거 고등학교에서 힘든 학생들의 마음이 제대로 공감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 학교를 그만둔 선례를 봤을 때, Wee클래스 등 상담실 연계 등에 세심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선생님들이 애들을 너무 금방 포기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위클래스를 갔다가 그만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은 많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애가 방향을 하면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 번 짚은 들어줘야 하는데, 안 들어주고 너 위클래스 가, 이런 식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연구참여자 1)

두 번째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보고되었다. 기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현실과 괴리가 크고 눈높이에 맞지 않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맞춤형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교육청 산하의 대부분의 기관은 학교 교육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복교의 필요성을 중점으로 강의식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원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찾기 힘들고 공감대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다 다른 이유로 그만 뒀는데, 너네들은 학교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연구참여자 1)

진로와 취업 연계에 대한 지원도 제시되었다. 꿈드림 센터에서의 바리스타 교육 등이 취업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진로지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엔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적어도 24살까지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이 24살까지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성인이 돼서 그런 시스템을 못 받더라고요. 24살까지 받는 게 어떨까.” (연구참여자 2)

끝으로 대인관계 측면의 지원을 제안하였는데, 학업중단으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해 또래를 만날 수 없는 현실에서 긍정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대인관계를 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지원 요구도 있었다.

3)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지원욕구 분석

(1) 연구방법: CQR-M

연구참여자들이 학교 중단 당시와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필요로 했던(또는 현재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도출하기 위해 CQR-M(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CQR-M은 합의적 질적연구방법(CQR)을 수정한 것으로(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연구참여자들의 심층적인 경험 및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때 용이한 연구 방법이다(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 Ladany, 2005). 특히 선행연구가 부족하거나 예상하기 힘든 현상에 대한 탐구에 적합하고, 표본수가 비교적 많을 때 유용하기 때문에(임윤서, 안윤정, 2016), 성인이 된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정체감 유형과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판단되었다. CQR-M은 다수의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연구자들 간 합의를 거쳐 범주를 만들고 자료를 코딩하며, 각 범주의 반응수를 헤아려 여러 범주들이 포함된 한 영역의 총 반응수로 나눈 비율을 빈도로

표시하게 된다(Hill, 2012). 이때, 범주별 빈도 차이가 30%이상일 경우 하위 범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설명한다(Hill, 2012). 이러한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시기(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및 정체성 특성에 따른 연구참여자들의 보고를 범주 및 영역별 비율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CQR-M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자료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자문과 검토를 위해(Hill 외, 199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분야 전공 박사와 대학원생들이 상호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상담분야 대학교원이 감수하였다. 연구자들 간 자료에 대한 일치된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후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자료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나누고 초기 자료를 검증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최선의 설명이라고 동의하는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Hill et al., 2005; Schielke, Fishman, Osatuke, & Stiles, 2009). 이를 통해 연구자의 독단적이거나 주관적 해석의 오류를 막고, 자문과 감수를 통해 집단 사고가 연구결과에 미칠 집단 사고의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였다(Hill et al., 2005).

(2) 연구결과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특징

가. 학업중단 이전 시기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CQR-M 결과표는 표 IV-19와 같다. 먼저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삶의 모습을 살펴본 결과, 학업중단 이전에 능동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범주의 응답자 전체가 ‘원하는 진로를 더 효율적으로 찾아가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보고하였고, 75%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고자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구술하였다. 한편 응답자 중에는 ‘입시 위주 교육과 맞지 않는 성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불가피형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업중단’,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학업중단’,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 ‘가정불화로 인한 학업중단’, ‘학교 규칙 위반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해당 응답자 가운데 ‘가정불화로 인한 학업중단’, ‘학교 규칙 위반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했다고 보고한 연구참여자는 36.4%,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업중단’,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학업중단’,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각각 27.3%로 나타났다.

도피형의 경우에는 ‘학교 공부의 필요성과 흥미를 느끼지 못함’,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일탈을 일삼음’, ‘원치 않았던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움’, 학교 내에서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함’의 4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하위범주 가운데 ‘학교 공부의 필요성과 흥미를 느끼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비율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 내에서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여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나타났다.

표 IV-19. 학업중단 시기별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특징

범주		하위범주	빈도	CQR-M
학업 중단 이전	능동형	원하는 진로를 더 효율적으로 찾아가기 위해 학업을 중단함	4	100%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고자 학업을 중단함	3	75%
		입시위주 교육과 맞지 않는 성향	1	25%
	응답자 인원수/능동형 총 인원 수		4/4	100%
	불가피형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업중단	3	27.3%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학업중단	3	27.3%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	3	27.3%
		가정불화로 인한 학업중단	4	36.4%
		학교규칙 위반으로 인한 학업중단	4	36.4%
	응답자 인원수/불가피 형 총 인원 수		11/11	100%
	도피형	학교 공부의 필요성과 흥미를 느끼지 못함	8	50%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일탈을 일삼음	3	18.8%
		원치 않았던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움	3	18.8%
		학교 내에서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함	7	43.8%

범주		하위범주	빈도	CQR-M
학업중단 직후~ 고등학교 학령기	응답자 인원수/도피형 총 인원		16/16	100%
	정지형× 학업형	심리적 외상으로 일상이 정지된 시간을 보냄	3	100%
		학업으로 복귀함	3	100%
	응답자 인원수/능동형 총 인원		3/3	100%
	정지형× 취업형	미래에 대한 계획없이 시간을 보냄	3	100%
	응답자 인원수/정지형×취업형 총 인원		3/3	100%
	배회형× 학업형	무의미한 학업에 회의감을 느낌	4	57.1%
		목표 없는 학업중단으로 타인의 시선에 의해 정체감이 흔들림	3	42.9%
		가족의 심리적 물리적 지원으로 미래를 준비해 감	3	42.9%
	응답자 인원수/배회형×학업형 총 인원		7/9	100%
	배회형× 취업형	하고 싶은 일은 있으나 외부요인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	4	57.1%
		뚜렷한 목표는 없어도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나감	4	57.1%
		경제적 자립을 하면서 부딪힘을 경험함	2	28.6%
	응답자 인원수/배회형×취업형 총 인원		7/8	100%
	주도형× 학업형	자퇴의 목표가 분명하여 뜻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함	4	100%
	응답자 인원수/주도형×학업형 총 인원		4/4	100%
학업중단 이후	정지형× 취업형	자기이해 및 탐색에 대한 동기 부족	1	100%
		취약한 인적 자원	1	100%
	응답자 인원수/정지형×취업형 총 인원		1	100%
	배회형× 학업형	뚜렷한 목표 없이 학업을 이어감	2	66.7%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함	2	66.7%
	응답자 인원수/배회형×학업형 총 인원		3/5	100.0%
	배회형× 취업형	외부요인으로 원하던 진로가 막힘	2	66.7%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유발한 개인 내적 요인들	2	66.7%
	응답자 인원수/배회형×취업형 총 인원		3/5	100.0%
	주도형× 학업형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했으나, 대학 진학 후 오히려 더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음	6	85.7%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위한 자원을 찾음	2	28.6%
	응답자 인원수/주도형×학업형 총 인원		7/7	100.0%
	주도형× 취업형	일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함	2	28.6%
		향후 진로를 고려하여 현재 역량을 키워 감	5	71.4%
	학업중단과 동시에 대인관계 폭이 좁아져 사회에서 만난		2	28.6%

범주	하위범주	빈도	CQR-M
	관계가 중요해 짐		
	경제적 자립 추구	3	42.9%
	사회적 관심으로 승화시킴	1	14.3%
	응답자 인원수/주도형×취업형 총 인원	7/7	100.0%

주: CQR-M 비율은 (응답자 빈도/응답자 인원수)×100으로 계산되며, 범주별 빈도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하위 범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Hill, 2012).

나. 학업중단 직후~고등학교 학령기 시기

학업중단 직후부터 고등학교 학령기 시기의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삶의 모습을 살펴본 결과, 정지형-학업형의 경우, 심리적 외상으로 일상이 정지된 시간을 보내다가 학업으로 복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정지형-취업형의 경우에는 주로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 보냈다고 구술하였다. 배회형-학업형의 경우에는 학교 밖 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과반수 이상이 무의미한 학업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보고하였고, 42.9%는 목표 없는 학업중단으로 타인의 시선에 정체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 패널은 그 누구보다 가족의 심리적, 물리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한편, 배회형-취업형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하고 싶은 일은 있으나 외부요인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또한, 뚜렷한 목표는 없어도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한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 비율도 57.1%를 차지하였다. 주도형-학업형의 경우에는 응답자 전체가 자퇴의 목표가 분명하여 뜻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 학령기 이후

학령기 이후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지형-취업형의 경우 자기이해 및 탐색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경제

적 충족만을 위해 일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 배회형-학업형의 경우에는 학교 밖을 나온 이후에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뚜렷한 목표가 없어 방향을 찾고자 노력한다고 구술하였다.

주도형-학업형의 경우에는 85.7%가 고등학교 학업중단 이후 대학에 진학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진로를 찾았다고 구술하였고, 그 중에서 28.6%는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자원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도형-취업형의 경우에는 ‘일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함’, ‘향후 진로를 고려하여 현재 역량을 키워 감’, ‘학업중단과 동시에 대인관계 폭이 좁아져 사회에서 만난 관계가 중요해 짐’, ‘경제적 자립 추구’, ‘사회적 관심으로 승화시킴’의 5개 하위 범주가 나타났는데, ‘향후 진로를 고려하여 현재 역량을 키워 감’ 범주는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② 학업중단 시기별 기존 패널의 과거 지원내역과 향후 지원 필요 영역

가. 학업중단 이전

표 IV-20과 같이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과거 지원받은 내용 및 향후 지원 필요 영역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업중단 이전에는 실제 받은 지원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3명 가운데 2명은 가족/친구/지인의 지원을 받거나 혼자서 해결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필요한 지원에 대해 ‘학교 밖에서 활용가능한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적성에 맞는 학교 진학 지원’,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 결정 시 전문적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하위 범주가 각각 33.3%로 나타났고, 학업대신 취업 연계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구술한 연구참여자는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학업중단 시기별 과거 지원 내역과 향후 지원 욕구

시기	범주	하위범주	빈도	CQR-M
학업 중단 이전	실제 지원 여부	소속 학교의 지원	1	33.3%
		학교 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지원	0	0.0%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지원	0	0.0%
		검정고시 학원 등 사설 기관 이용	0	0.0%
		가족/친구/지인의 지원	2	66.7%
		혼자서 해결함	2	66.7%
		응답자 인원 수/연구참여자 전체 수	3/22	100.0%
	필요한 지원에 대한 보고	학교 밖에서 활용가능한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4	33.3%
		학업 대신 취업 연계 및 지원	2	16.7%
		적성에 맞는 학교 진학 지원	4	33.3%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 결정 시 학교의 물리적 지원 필요	1	8.3%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 결정 시 전문적 상담 지원 필요	4	33.3%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 필요	1	8.3%
		복교 시 낙인감 감소 및 지속적 관심 필요	1	8.3%
		응답자 인원 수/연구참여자 전체 수	12/22	100.0%
학업 중단 직후~ 학령기	실제 지원 여부	소속 학교의 지원	0	0.0%
		직업학교로의 진학	1	6.7%
		학교 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지원	2	13.3%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지원	0	0.0%
		검정고시 학원 등 사설 기관 이용	5	33.3%
		가족/친구/지인의 지원	10	66.7%
		혼자서 해결함	2	13.3%
		응답자 인원 수/연구참여자 전체 수	15/22	100.0%
	필요한 지원에 대한 보고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장소 제공	3	18.8%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의 다양화	6	37.5%
		관심분야 경험과 진로준비를 위한 금전적, 심리적 지원	9	56.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2	12.5%
		학업 이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관 연계	1	6.3%
		대학입학을 위한 구체적인 진학지도 필요	5	31.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요건의 완화	1	6.3%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	5	31.3%
		응답자 인원 수/연구참여자 전체 수	16/22	100.0%
학령기 이후 (성인기)	실제 지원 여부	소속 학교의 지원	0	0.0%
		학교 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지원	1	7.7%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지원	2	15.4%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이용하다가 중단함	1	7.7%

시기	범주	하위범주	빈도	CQR-M
		검정고시 학원 등 사설 기관 이용	1	7.7%
		가족/친구/지인의 지원	7	53.8%
		혼자서 해결함	7	53.8%
	응답자 인원 수/연구참여자 전체 수		13/22	100.0%
	필요한 지원에 대한 보고	대학진학 및 적성탐색에 대한 지원 필요	2	16.7%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직업체험 필요	5	41.7%
		진로지원의 연령 확대	1	8.3%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지원 확대	8	66.7%
		학교 밖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6	50.0%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대 필요	2	16.7%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1	8.3%
		응답자 인원 수/연구참여자 전체 수	12/22	100.0%

주: CQR-M 비율은 (응답자 빈도/응답자 인원수)×100으로 계산되며, 범주별 빈도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하위 범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Hill, 2012).

나. 학업중단 직후 ~ 고등학교 학령기

학업중단 직후 ~ 고등학교 학령기 이전까지 실제 지원 받은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족/친구/지인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 학원 등 사설 기관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례가 33.3%로 뒤를 이었다.

한편, 학업중단 직후부터 고등학교 학령기까지 필요한 지원으로는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장소 제공’,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의 다양화’, ‘관심분야 경험과 진로준비를 위한 금전적, 심리적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학업 이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관 연계’, ‘대학입학을 위한 구체적인 진학지도 필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요건의 완화’,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의 8개 하위 범주가 나타났다. 특히, 관심분야 경험과 진로 준비를 위한 금전적, 심리적 지원은 응답자의 56.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 다양화 37.5%, 대학입학을 위한 구체적인 진학지도와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가 31.3%로 그 뒤를 이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 학령기 이후

고등학교 학령기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가족/친구/지인의 지원과 혼자서 해결했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 수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하위범주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학령기 이후 지원을 실제로 받은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진학 및 적성탐색에 대한 지원 필요’,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직업체험 필요’, ‘진로지원의 연령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대 필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의 7개 하위 범주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학령기 시기 이후 자신들에게 멘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령기 이후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직업체험’을 지원받고 싶다는 응답이 41.7%로 나타났다.

③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기존 패널의 유형별 향후 지원 필요 영역

가. 학업중단 이전

표 IV-21은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유형별 향후 지원 필요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학업중단 시기별로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을 ‘능동형’, ‘불가피형’, ‘도피형’의 유형별 향후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학업중단 이전’ 시기 능동형의 경우 ‘실무 기술에 초점을 둔 양질의 교육’,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진로설계 프로그램과 그를 위한 경제적 지원’,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공간적 지원’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한편, 불가피형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경우, 신중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상실감에 대한 상담 및 외상 후 생활 적응을 위한 체계’,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및 생활비 지원’, ‘가족상담과 같은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4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이 50%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상담 및 지원은 30.3%로 나타났다.

표 IV-21.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향후 지원 필요 영역

범주		하위범주	빈도	CQR-M
학업 중단 이전	능동형	실무 기술에 초점을 둔 양질의 교육 지원이 요구됨	1	50.0%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진로설계 프로그램과 그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요구됨	1	50.0%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공간적 지원이 요구됨	1	50.0%
		응답자 인원수/능동형 총 인원	2/4	100.0%
	불가피형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경우, 신중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이 요구됨	3	50.0%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상실감에 대한 상담 및 외상 후 생활 적응을 위한 체계가 요구됨	2	33.3%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및 생활비 지원이 요구됨	1	16.7%
		가족상담과 같은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1	16.7%
		응답자 인원수/불가피형 총 인원	6/11	100.0%
	도피형	학업중단 후의 삶에 대한 정보 및 멘토링 시스템이 필요하며, 기존의 대도시 지원체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요구됨	1	33.3%
		학업중단 당시 저하된 진로 및 자아 탐색 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 및 프로그램이 요구됨	2	66.7%
		학업보다는 실무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책이 요구됨	2	66.7%
		응답자 인원수/도피형 총 인원	3/16	100.0%
학업중단 직후~ 학령기	정지형× 학업형	수행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실존적 시간이 필요함	1	100.0%
		응답자 인원수/정지형×학업형 총 인원	1/3	100.0%
	정지형× 취업형	학업 뿐 아니라 취미 등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맞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1	100.0%
		응답자 인원수/정지형×취업형 총 인원	1/3	100.0%
	배회형× 학업형	학교 생활 또는 학교생활 또는 학업중단에 대한 의미설정이 필요함	2	25.0%
		대학 입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전달 지원이 필요함	5	62.5%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	2	25.0%

범주	하위범주	빈도	CQR-M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지원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	12.5%
	응답자 인원수/배회형×학업형 총 인원	8/9	100.0%
	배회형×취업형		
	자격증 취득에 대한 심리경제적 지원	1	33.3%
	주체적 진로설정을 위한 진로경험 지원	1	33.3%
	직업학교를 통한 진로 설정의 한계	1	33.3%
	응답자 인원수/배회형×취업형 총 인원	3/8	33.3%
	주도형×학업형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대학 입시 정보 제공	2	50.0%
	개인차를 고려한 개인적 맞춤형 지원	2	50.0%
	응답자 인원수/주도형×학업형 총 인원	4/4	100.0%
학령기 이후 (성인기)	배회형×학업형		
	대학 진학에 대한 체계적 정보전달 및 양질의 직업체험 등 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3	100.0%
	응답자 인원수/배회형×학업형 총 인원	3/5	100.0%
	배회형×취업형		
	진로 설정 및 구직 지원이 필요함	3	100.0%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필요	1	33.3%
	응답자 인원수/배회형×취업형 총 인원	3/5	100.0%
	배회형×무업형		
	인턴 또는 양질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필요함	1	100.0%
	응답자 인원수/배회형×무업형 총 인원	1/1	100.0%
	주도형×학업형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생계에 쫓기며 불안하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장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함	1	50.0%
	생계비 지원의 확대 방안 마련(일한 만큼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1	50.0%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진로 지도가 필요함	2	100.0%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행정지원이 보다 체계화되고 홍보되길 바램	2	100.0%
	응답자 인원수/주도형×학업형 총 인원	2/7	100.0%
	주도형×취업형		
	학교 의미의 회복이 필요함	1	50.0%
	복교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	1	50.0%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보다 눈높이에 맞는 공감적인 콘텐츠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1	50.0%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단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1	50.0%
	진로 및 취업지원 대상의 확대	1	50.0%
	응답자 인원수/주도형×취업형 총 인원	2/6	100.0%

주: CQR-M 비율은 (응답자 빈도/응답자 인원수)×100으로 계산되며, 범주별 빈도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하위 범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Hill, 2012).

도피형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후의 삶에 대한 정보 및 멘토링 시스템’이 필요하며, ‘기존의 대도시 지원체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요구됨’, ‘학업중단 당시 저하된 진로 및 자아 탐색 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 및 프로그램이 요구됨’, ‘학업보다는 실무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책이 요구됨’의 3가지 하위 범주가 나타났는데, 도피형 응답자 3명 중 2명(66.7%)은 진로 및 자아탐색 프로그램과 실무 위주의 지원 및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나. 학업중단 직후~고등학교 학령기까지

‘학업중단 직후부터 고등학교 학령기 시기’의 경우 ‘정지형-학업형’은 ‘수행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실존적 시간이 필요’에 대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고, 정지형-취업형은 ‘학업 뿐 아니라 취미 등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맞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배회형-학업형’은 ‘학교생활 또는 학업중단에 대한 의미설정이 필요함’, ‘대학 입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전달 지원이 필요함’,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지원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의 4개 하위범주가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62.5%가 대학입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전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배회형-취업형’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에 대한 심리·경제적 지원’, ‘주체적 진로설정을 위한 진로경험 지원’, ‘직업학교를 통한 진로 설정의 한계’의 3개 하위 범주가 도출되어 취업 이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의 ‘주도형-학업형’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대학 입시 정보 제공’, ‘개인차를 고려한 개인적 맞춤형 지원’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다. 학령기 이후

이 시기의 ‘배회형-학업형’의 경우에는 응답자 모두가 ‘대학 진학에 대한 체계적 정보전달 및 양질의 직업체험 등 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에 대하여 언급함에

따라, 이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자 하는 유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배회형-취업형’의 경우에는 ‘진로 설정 및 구직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 되었다. 한편, ‘배회형-무업형’의 경우에는 ‘인턴 또는 양질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필요하다는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주도형-학업형’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생계에 쫓기며 불안하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장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함’, ‘생계비 지원의 확대 방안 마련(일한 만큼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진로 지도가 필요함’,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행정지원이 보다 체계화되고 홍보되길 바람’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주도형-취업형’의 경우에는 ‘학교 의미의 회복이 필요함’, ‘복교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보다 눈높이에 맞는 공감적인 콘텐츠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단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진로 및 취업지원 대상의 확대’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④ 학업중단관련 단계별 정책적 시사점

가. 〈학업중단 이전〉 지원 방안 논의

이러한 자료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고등학교 학령기’, ‘학령기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들을 정리하여 각 단계별로 또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로 관련된 지원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학업중단 이전단계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능동형, 불가피형, 도피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표 IV-22).

표 IV-22. 학업중단관련 단계별 정책적 시사점: 학업중단 이전

유형	필요 지원 내용
① 능동형 (자발적인 의지와 목적에 따라 학업중단을 결정한 유형)	· 학교 밖 청소년들 간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화 - 검정고시 준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별 특강, 독서토론, 전문분야 강의 등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로드맵을 함께 고민, 탐색, 수립해 줄 수 있는 기관 또는 서비스 필요 · 흥미, 적성 탐색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 - 종합적 진로체험 자원망인 '꿈길'의 활용 :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처 조치는 가능하나, 개인별 신청 후 체험을 불가능하므로 이를 확대 진행할 필요 - 흥미, 적성 탐색을 위한 교육, 체험 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금전적, 제도적 지원의 확충 필요 · 특성화 고등학교의 각 과별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제고가 요구됨 · 산업현장의 수요와 훈련생의 욕구에 부합된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필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취업지원 관련 자격취득 지원,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직업훈련 연계 등의 측면에서 연계 직업군의 확대 및 진로정보의 다양 성과 전달성에 대한 제고 필요
② 불가피형 (타의에 의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 심리적/신체적 외상을 경험한 학생에 대한 전문적 상담 지원 필요 - 단위학교-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Wee클래스 및 Wee센터의 상담자원 활용 - 위기학생 개입을 위한 위기대응팀 구성 및 활용 (예: 부산광역시교육청 '스쿨119') · 학교 및 학교 외 청소년 지원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 외상경험 이해 및 지원방안 교육 확대 · 교내 학업중단숙려제의 역할 확대 : 학업중단 당시에 경험하는 심리적 혼란감, 가정 내 불화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 · 여성가족부 산하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정망)'의 활성화와 효과적 운용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심화된 보호, 자립, 물리적, 경제적 지원 등 필요
③ 도피형 (학교생활을 싫어하거나 단순히 벗어나기 위해 목적없이 학업을 중단한 유형)	· 내실 있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필요 - 학교 중단의 동기와 이유 탐색 명료히 하도록 돕기 - 학교 중단 결정 이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과 자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이고 상세한 정보 제공 필요(우편 등) · 학업 대신 취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 직업학교, 취업사관학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적극적 연계 ·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진로체험 정보 안내 및 지지 제공 · 학업중단숙려제 또는 교내 Wee클래스 적극 활용 하기 -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 학교 중단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 진로 탐색에 대한 동기 촉진

나. <학업중단 직후~고등학교 학령기> 지원방안 논의

학업중단 직후~고등학교 학령기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정지형, 배회형, 주도형, 또 여기에 학업형과 취업형을 조합한 각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정리하였다.

표 IV-23. 학업중단관련 단계별 정책적 시사점: 학업중단 직후~고등학교 학령기

유형	필요 지원 내용
[정지형] 정지형X학업형	• 외상사건 경험으로부터의 회복과 성장 지원 -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기 외상경험 이해 및 지원방안 확대 - 학교 차원에서는 Wee클래스-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통한 심리지원 활성화
정지형X취업형	• 학업 외 희망 진로/취업과 관련한 지원 안내 및 연계 필요 - 직업학교, 취업지원시스템(취업사관학교), 꿈드림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온라인 청년센터 등
[배회형] 배회형X학업형	• 학교생활 적응 및 학생별 흥미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내외 프로그램 경험 제공 - 학업중단속려제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진로진학상담 등을 통한 진로 탐색과 학교의 의미 찾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지자체 등의 통합적지지 필요 - 학교 중단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상담 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활 지원, 진로상담 등의 통합적 지원 필요 •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인터넷 강의 수강료나 교재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 - 학업지속 의지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원신청 및 수혜에 대한 자격안화에 대한 요구 - 교육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등 정규교육과정/검정고시 외 학력취득 방법에 대한 홍보, 안내 필요 • 주변 인적자원 및 사회적지지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진로지도 서비스 확충 - 진로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진로흥미, 적성검사, 상담 등을 통한 진로 로드맵을 함께 고민해 줄 멘토링 서비스 제공
배회형X취업형	• 자신의 흥미/적성을 고려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식주 보장, 금전적 지원 등) 확충 필요 • 진로탐색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의 프로그램 확충 및 수요자 확대 - 인턴십, 청소년작업장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방안 마련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비 지원 교육 및 관련 취업 연계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낙인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적, 사회적 지원 - 캠페인이나 공익광고 등을 활용해 어린 나이와 학력 등의 문제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도형] 주도형X학업형	• 학교 밖 청소년이 목표한 학업적 목표를 이루도록 지원 필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시 검정고시 준비 및 개인의 적성/흥미 탐색을 위한 심리검사, 상담 제공으로 진로결정 지원 - 지자체 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참여수당 제공 확대 (예: 경상북도 '동행카드', 서울특별시 '현금 지급', 광주광역시 '세상배움카드' 등) - 대학 진학 정보 수집 및 준비를 위한 멘토링, 온라인 입시설명회 확대 및 안내

다. <학령기 이후> 지원방안 논의

학령기 이후 패널들의 학교를 그만둔 이후 삶의 경로를 구분한 정지형, 배회형, 주도형의 유형과 그 안에서 취업형과 학업형을 조합한 각 사례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IV-24와 같다.

표 IV-24. 학업중단관련 단계별 정책 제언: 학령기 이후

유형	필요 지원 내용
[정지형] 정지형X취업형	- 자아정체감 형성 및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개입 필요 - 흥미/적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및 경제적 안정과 거주공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 - 내일이룸학교,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비스 내용 확대 - 서울시형 청년 주거안정 정책의 전국 확산 및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사업 진행)
[배회형] 배회형X학업형	- 대학 진학을 위한 온라인 입시설명회, 온라인 진학설명회 등 확대 - 진로탐색, 결정 동기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진로 관련 경험 기회 지속 제공 - 기존의 진로 관련 경험들을 개인의 커리어에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 멘토링이나 로드맵을 함께 설정해가는 시스템이나 지원 필요 - 진로체험지원 공급 전산망의 개인 단위 진로체험 지원 서비스 시범운영 확대
배회형X취업형	- 성인기에 진입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직무 전문성 함양 훈련 필요 - 취업에 필요한 실무기술이나 기본 역량함양 등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기본적인 경제 상식과 재무 설계에 대한 교육 필요 - 빠르게 변하는 기술(코딩기술 등)에 대한 연수 지원 요구 -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진로목표 실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확충 - 꿈드림에서의 진로/직업체험의 취업 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웹진/앱 발간
배회형X무업형	- 자기탐색(욕구/동기) 및 진로방향(진학/취업)의 결정 지원 필요 -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하여 개인의 욕구/동기를 확인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진학 또는 취업이라는 방향 설정 지원 - 실질적인 직무훈련 및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결정 지원 - 정지형X취업형과 유사한 내일이룸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 확대 - 진로프로그램, 진로체험의 실제 구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노력 필요
[주도형] 주도형X학업형	- 진로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뚜렷한 목표와 동기 실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 확대 -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원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국민체육공단 스포츠투게터 캠프 등 (스포츠 관련 자격증 취득을 돕고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 기회 제공) 지원 확대
주도형X취업형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의 홍보 대상 확대(주민자치센터나 아파트 부녀회 등 대상) - 직업훈련 장면에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교육하고 맞춤형 훈련 과정을 설계하는 등 교육과 산업현장과의 긴밀한 연계 필요 - 학업중단의 경험이 있는 멘토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충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년 공간의 확충 필요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온라인 청년센터' 홍보 필요) - 청년 공간 및 서비스의 지자체 격차 최소화

3. 기존 패널 질적종단자료(2018~2020) 심층 분석

1) 분석개요

이 절에서는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대도시 거주 연구참여자들의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2018년~2020년 3년에 걸친 1) 학업 중단에 대한 생각, 2) 진로 경험, 3) 외부 도움 경험 및 도움 욕구(요청) 등을 탐구하였다. 질적 종단자료 분석은 횡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질적연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맥락을 살필 수 있어 유용하다(조준용, 2013). 지난 3년간의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학업중단을 뒤(과거의 사건)로 한 채, 현재를 살며 미래를 살아갈 학업중단 청소년을 보다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지원하는 실질적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바로 이점이 종단적 질적 자료 분석의 의미이다.

이 장에서 분석한 연구참여자는 총 11명이며, 이들의 3개년 자료를 귀납적 주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귀납적 주제 분석 방법은 일반적 질적연구를 위한 분석 도구로서 자료를 해체, 분류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비교하고 질문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패턴과 주제를 찾는 방법이다(김인숙, 2016). 이렇게 개별 연구참여자 사례 별로 그들의 내러티브를 연도별로 따라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식 및 환경, 상황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11명의 사례별로 3년간 면접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료에 질문(“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례별로 3개년도 면접 자료에 대해 줄 단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줄 단위 분석을 통해 의미단위를 도출하였고 의미단위가 실제 자료의 진실을 드러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 자료로 돌아가 그 의미를 재확인하고 의미단위를 재개념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질적연구에서 내적 타당성은 ‘수집된 자료 속 실재가 연구 결과로 정확히 표현되었는가?’를 통해 확보된다(김인숙, 2016).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연구자의 내러티브를 입증할 인용문을 적절히 활용하고 연구참여자 중 특정인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김인숙, 2016)을 통해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자료 분석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감사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김인숙, 2016). 2018년부터 구축된 질적 패널조사 대상 중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총19명이었다. 이 장에서는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를 골고루 고려하면서 내러티브의 충실도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장의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에 걸쳐 참여한 대도시 거주자이면서 응답의 충실도가 높았던 11명의 이야기이다. 이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IV-25. 질적종단자료 분석대상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1차조사 (2018)시 학교 밖 유형	이름	성별	만 나이	주된 활동		
				2018	2019	2020
학업형	학업①	남자	24	대학(2년제) 졸업/ 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사회복무 예정	사회복무면제/ 아르바이트
	학업②	남자	25	대학(4년제) 입학	재학	편입/재학
	학업③	여자	23	대학(4년제)휴학/ 취업	복학/취업준비	대학졸업/취업
	학업④	여자	24	대학(4년제)재학	대학 졸업/공무원 시험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직업형	직업①	남자	24	취업	사회복무	아르바이트
	직업②	여자	23	취업	취업	휴식
	직업③	남자	23	상근예비역	취업	취업예정
	직업④	남자	24	사회복무	사회복무	취업
	직업⑤	남자	23	취업	취업	부상으로 쉬고 있음/ 복직 예정
무업형	무업①	남자	25	취업준비	취업	실업급여/취업준비
	무업②	여자	24	취업준비	취업준비	취업준비

2) 분석결과

(1) 학업중단⁷³⁾에 대한 생각

연구참여자의 학업중단 시기는 중3~고2까지로, 2018년 첫 면접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학업중단 이후 5~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5~7년이 흐른 후에, 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둔 당시를 어떻게 회고하는지 살펴보았다. 시간 흐름을 고려하여,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짐

3년 동안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생각의 변화가 감지된 참여자는 학업 ①번, 학업 ②번이다. 학업 ①번 참여자의 경우, 아쉬움을 느끼는 정도에서 학업중단을 후회하는 것으로 변화를 보였고, 학업 ②번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학업중단도 괜찮다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생각의 변화를 보인 연구참여자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았다. 학업 ①참여자에게 학교는 친구를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학업 ①은 학업중단으로 고등학교 때의 추억 부족,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한 것을 지속적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에는 아쉬움 정도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 부분에서 좀 더 강한 후회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학교 중단 이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자신에 대해 그래도 잘 살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쉬운데 후회는 안 합니다(학업①, 2018)

고등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친구를 좀 더 만들어 놓을 걸 그런 생각(학업①, 2019)

(만약에 0점부터 50, 100점 나눠서 100점은 후회다라면?) 100점. 그냥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수련회도 가고 그런 걸 못해 봐서 아쉽죠(학업①, 2019)

고등학교 때 추억이 없는거(학업①, 2020)

73) 여기에서 '학업중단'은 모든 학업관련 활동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제도권 정규교육을 그만둔 것(자퇴, 중퇴 등 포함)을 의미한다.

학업 ①번 참여자가 2018년 면접 당시와 달리, 2019년, 2020년에 후회의 감정을 좀 더 드러낸 것은 학업 ①번의 상황과 관련된다. 2018년에는 “꿈을 찾았다”는 표현에서처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계획을 갖고 실천의 의지를 보였던 시기였다. 2019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관련 아르바이트를 잠깐씩 하던 시기였는데, 2020년 면접에서는 진로 관련한 고민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로 관련 상황이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알바 하면서, 2년 정도 부동산 관련 알바를 하면서 하고 싶다고 느꼈죠 (중략) (학업중단 후) 꿈을 못 찾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꿈을 찾았죠(학업①, 2018)

(부동산 관련 일) 제가 하고 싶었죠. 아르바이트는 부모님이 권유를 해주셨는데 거기 흥미를 느껴서. 공인중개사를 못 뒀으면 더 공부를 해야 하는거고, 따고 갔으면 바로 일을 시작할 것 같고(학업①, 2018)

(현재 하는 일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학업①, 2019)

일단 창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어서 하고 있는(학업①, 2020)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르겠어요. 일단 편의점 좀 해보고, 고민해보려고요(학업①, 2020)

다음으로, 생각의 변화가 감지된 두 번째 참여자는 학업 ②번이다. 학업 ②번 참여자는 2018년 면접에서는 학업중단을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했으나, 2020년 면접에서는 굳이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는 식으로 변화를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끝까지 마치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글썄요. 전 일단 정상적인 졸업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성급했었던 거죠(학업②, 2018)

저처럼 뭔가 가고 싶은 일이 확고하면 해도 괜찮아요(학업②, 2019)

굳이 권장을 하진 않는데, 만약에 본인이 목표로 하는 바가 명확하고 뚜렷하면 해도 무방하니까, (학업중단) 하라고, 하고 싶으면(학업②, 2020)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의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학업 ②번 참여자는 학업중단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군대도 다녀왔

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벌이 필요하다는 생각, 대학을 나와야 인정받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학 진학을 선택하였다.

(학업중단 당시에는) 저 또한 그런 생각(부정적 생각)이 있었어요. 패배자의 낙인이다. 지금 20대 중반에 대학교 2학년, 공익도 다 끝낸 상황에서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학업②, 2019)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못 나온 애라는 인식이 사회에선 되게 안 좋잖아요. 검정고시 봤다고 하면 문제이라고 인식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후회감도 있긴 했었고. 지금도 살짝 느끼긴 해요. 느끼긴 하는데(학업②, 2020)

대학 입학 이후에는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편입 공부를 하고 2020년에는 편입에도 합격한 상황이었다. 2020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목표, 공무원 합격을 위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학업 ②번 참여자의 경우 부모의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업 ②번 참여자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사망했고 가정폭력의 경험으로 아버지를 몹시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업 ②번 참여자의 경우 학교 등 외부 기관의 도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외부 도움의 영향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 당시(어머니 사망), 가장 필요했던 건 정서적 지지, 옛날에는 그런게 가족이 아닌 남이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물론 도움을 주겠다는 의향은 고맙지만 다 거절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다(학업②, 2019)

결국, 학업중단과 관련한 학업 ②번 참여자의 생각 변화는 계속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학업 ②번 참여자는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나 사회복지 중, 사람들이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럴 때는 학업중단이 후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경험이며, 이 시기를 지나 현재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바라는 바대로 편입에 성공한 상태이기에, 더이상 학업중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학업 ②번 참여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지금은 살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학업중단이) 크게 실감되지도 않고(학업②, 2020)

자신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주요 단어 위주로 간략히 표현하면 아래 그림 IV-5와 같다. 2018년 면접조사에서는 자신의 학업중단 결정에 대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크게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생각이 다소 바뀌었고 학업중단을 권장하고 싶지 않다거나, 또는 학업중단 대신 휴학과 같은 다른 옵션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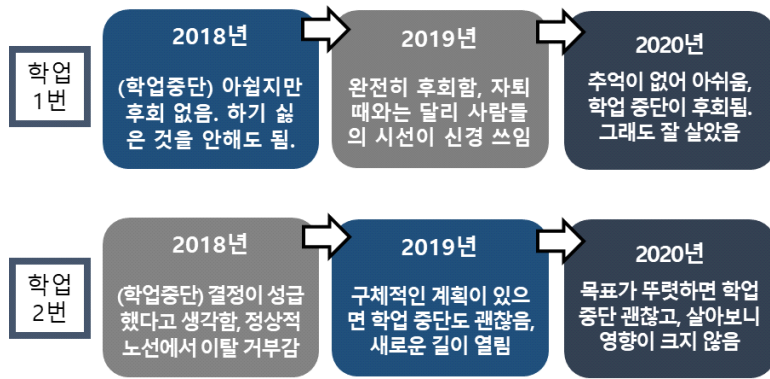


그림 IV-5. 2018~2020년간의 학업 ①, 학업 ② 연구참여자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의 변화

② 학업중단을 비교적 일관되게 후회함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에서 변화를 보인 두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는 학업중단에 대해 일관되게 후회하는 경우, 일관되게 후회를 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학업중단에 대해 일관되게 후회를 보인 참여자는 학업 ③번, 무업 ①번, 직업 ④번, 그리고 직업 ②번이다.

우선, 학업 ③번 참여자와 무업 ①번 참여자의 공통점은 일관된 후회와 친구의 학업중단이다. 학업 ③번 참여자의 경우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학업중

단이라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었고, 무업 ①번 참여자의 경우에도 친구가 검정고시를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간 사례이다.

(학업을 그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처음 든 때는?) 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자퇴를 한 사람을 실물로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보고 나서 저런 길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니까,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나하면 저는 학교 가기 싫다의 그런 일반적인 말과 진짜 자퇴한 사람을 봤을 때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게 그때 생겼던 것 같고. 그때도 꿈은 계속 경찰이어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최연소로 경찰이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처음에 진학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학업③, 2019)

네 그냥 (학교) 안 하고 친구 중에도 저랑 비슷하게 자퇴한 친구가 있었는데 검정고시 한 다길래 저도 처음에는 부모님은 계속 학교 다니면서 졸업장 따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도 검정고시 따다고 말씀드렸어요(무업①, 2018)

학업 ③번 참여자는 홈스쿨링하는 친구를 본 후,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학업중단(계획적인 학업중단)을 선택한 경우이지만, 선택 이후 가족으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한 가족해체에 대한 책임이 자신의 학업중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마음을 내비쳤다. 학업 ③번 참여자는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실패하면 안된다는 강박적 생각도 있어 심리적인 어려움이 큰 상태이다. 즉, 학업 ③번은 학업중단을 하지 않았으면 가족이 해체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학업중단을 후회하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저는 근데 되게 잘한 선택이기도 한데 너무 별로였던 선택이었다고도 생각을 했던 게 가정 내에서 지지가 없어가지고 좀 심리적 타격감이 컸어요. 저는. 그래서 자퇴하고 그 해 년도가 가장 힘들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얘기를 한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중단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가정의 일이라 많이 맞물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굶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큰 문제덩어리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학업③, 2019)

물론 내가 거기 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그냥 그대로 했어도 달라지는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달랐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했는데 요즘에는 아 졸업을 해도 뭔가 돌아갈 그런게(가족) 없어서. 그래서 좀 아 그때 많이 안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은 조금해요(학업③, 2019)

이와 달리, 무업 ①번 참여자는 특성화고의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석이 많았던 차에 검정고시를 선택한 친구를 따라 아무 계획 없이 막연하게 학업을 중단한 사례이다. 학업중단 후 잠시 부모와의 갈등을 제외하고 부모와 높은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어 앞의 사례와 차이를 보였다. 학업중단 이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학력 차별을 심하게 느끼지는 않지만 결혼할 때 학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채용에서 탈락한 이후 학업중단의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는 정도에서 다시 돌아가면 학업중단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지금은 졸업할 걸 싶었고. 그때는 잠깐 한 번 혹 했다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선불리 판단한게 아닌가?(무업①, 2020)

주변 분들이, 결혼하면 물어보면,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왔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무업①, 2020)

00전기 제조직으로 최종 면접까지 갔다 떨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런(학업중단) 영향이 있었나? 혼자 생각했어요(무업①, 2020)

가족이 제일 우선이에요. (중략)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으면 제가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는 절 너무 좋아해서가지고 제가 귀찮은. 이런 말하면, 매일 전화 오시고 언제 들어오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전화를 엄청 자주 하세요. 엄마는 뭐, 엄청 친하게 지내요(무업①, 2018)

결국, 2018~2020년 면접 동안, 학업중단을 두고 일관되게 후회를 표현했던 두 참여자의 이야기로부터 가족의 반응과 사회의 반응(결혼할 때 학력이 걸림돌)이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업 ①번의 경우 검정고시를 본 자신이나 대학을 나온 주변 친구들의 현재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기면서도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를 드러낸 것을 보면,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4년제 다니거나 2년제 졸업해서 일하거나 저처럼 검정고시로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은 비슷하게 생각해요. 2년제 나온 친구도 월급 180~190 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4년제 나온 친구들도 뭐 할거냐? 하니까 과 살려서 일하는게 아니라 카페에서 알바 하면서 학교 다니는데, 카페 쪽으로 해볼까? 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무업①, 2020)

다시 돌아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갔을 것 같아요(무업①, 2018)

일관된 후회를 보이는 또 다른 참여자는 직업 ④번 참여자이다. 직업 ④번은 학업중단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서, 학업중단으로 많이 놀게 된 것, 원래도 낮가림이 있는데 친구 사귀기가 더 어려워진 것 등으로 학업중단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땐(학업중단 당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직업④, 2018).

지금은 좀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졸업장 문제도 있고. 학교랑 멀어지니까 애들이랑 멀어지는 것도. 아무래도 그게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직업④, 2018)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고 추억 같은 게 없는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직업④, 2019)

일관된 후회를 보이는 마지막 참여자는 직업 ②번이다. 다른 참여자보다 이른 중학교 3학년 2학기때 학업을 중단하였다. 직업 ②번 참여자는 학업 ③번 참여자, 무업 ①번 참여자, 직업 ④번 참여자와 비슷하게 학업중단에 대해 일관된 후회(아쉬움)를 보이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 ②번 참여자는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3학년 때 학업중단을 한 사례로 학교를 그만둔 표면적 이유는 늦잠으로 인한 출석 일수 부족, 학교 폭력 경험이었으며, “돈만 일찍 벌자”라는 생각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19세까지 놀기와 아르바이트를 반복하였고 20세 때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엄마 소개로 공장에 취업하였다. 직업 ②번 참여자가 돈을 버는데 학교 졸업장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친구 관계가 제한되고 고등학교 동창이 없는 것 등의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하진 않겠다고 말한다.

계속 늦잠을 자고 잠이 많아서, 많이 빠져서 출석일수 부족으로”(직업 ②, 2018)

사실 친구랑 싸웠다는 것도 이제 인터뷰 때 말을 한거거든요. 여태 그 얘기는 피하고 싶었어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직업②, 2019)

(학업중단 당시의 생각) 돈만 일찍 벌자. 돈만 일찍 벌자 라는 정도의 생각(직업②, 2018)

(학업중단 이후의 시간이 만족스러웠는지?) 아니요. 학교 그만두면 졸업을 해야 되니까 검정고시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와서 미루다 미루다 보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일 다니느라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조금만 버텨서 졸업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후회가 좀 있어요(직업②, 2018)

작년(2018)까지는 절대 후회는 없었거든요. 제가 뭐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검정고시를 보려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냥 거의 한 3~4개월 남았을 거예요, 졸업까지. 그냥 그 3~4개월만 어떻게 참고 잘 다녔으면 하는데 이제 지금 와서야 후회를 하는데. 다시 돌아간 다해도 또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아요(직업③, 2020)

후회는 안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쉬움. 후회까지는 아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직업②, 2020)

직업 ②번 참여자에게 후회는 ‘졸업장’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직업 ②번 참여자는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이 모두 없는 상태이다. 직업 ②번 참여자는 앞서 무업 ①번처럼 졸업장이 없어서 결혼에서 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현실적인거? 저는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 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졸업장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말해 줄 것 같아요(직업 ②, 2020)

(졸업장이 필요한 데?) 나중에 결혼을. 남자 친구는 괜찮아도 또 이렇게 부모님이나~. 그 것이 흠이 될 수 있으니까(직업 ②, 2019)

③ 학업중단에 대해 일관성 있게 후회하지 않음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에서 일관되게 후회를 드러내지 않은 참여자는 대표적으로 직업 ⑤번 참여자이다. 직업 ⑤번 참여자는 선생님의 체벌 등으로 학교 가는 게 싫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로, 사는 데 있어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기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학교, 학생을 무시하는 학교에 다닐 이유가 없다고 여긴다. 2020년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 ⑤번 참여자는 취업의

어려움으로 현장을 찾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역시 기술이 최고이며,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로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말한다.

전 솔직히 공부보다 기술 쪽을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공부해서 잘된 애들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만 공무원 됐고 나머지는 다 대학 다시 다니고 그런 거 보기 싫어서, 차라리 돈이나 벌자(직업⑤, 2018).

솔직히 학교에서 기계과였는데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직업⑤, 2018)

학교에서 기술이나 가르쳐줄 것이지 공부로, 솔직히 공부 누가 하겠어요. 기술 알려주고 배우고 그쪽으로 일을 하는게 차라리 낫죠. 절대 안 돌아갈 건데요(직업⑤, 2018)

학교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 돈을 벌고 나니까(직업⑤, 2019)

학교는 솔직히 잘 된 사람을 못 봐서. 주위에 잘 된 사람은 한 명 정도. 지금 공무원 친구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진짜 이 친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학교 자퇴하고 친구 한 명은 시장 일을 일하는데 연봉이 장난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더 늦게 했지만. 부모님 거를 물려받은 거지만 이 친구가 열심히 해서 알리기도 하고 해서 돈을 진짜 어마하게 벌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학교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직업⑤, 2019)

(검정고시) 한 적 없어요. 기술 배웠어요.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기술 하나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요새 대학 나온 친구들도 제 밑으로 오고 있어요. 돈 벌고 싶다고. 돈 벌이가 안 된다고. 취업도 안 돼서. 다 노가다 판이예요(직업⑤, 2020)

표 IV-26. 2018~2020년 연구참여자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참여자	성별	자퇴 시기	자퇴 이유	학교 의미	2018		2019		2020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학업중단의 영향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학업중단의 영향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학업중단의 영향
학업 ①	남자	고1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쓸모가 없음	• 학교 다니는 의미가 없음. 시간이 아까움 • 학교는 친구만 내려 가는 곳. 인맥관계를 배우는데 도움 됨	• 아쉬운데 후회없음 • 친구랑 같이 학교를 못 다니게 아쉬움	• 하기 싫은 것들 안해도 됨 • 덕분에 꿈을 찾음	• 친구를 많이 만 들지 못한 것이 아쉬움 • 100점 후회함	• 자퇴 당시에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경 쓰임	• 고등학교 추석이 많이 없어 아쉬움 • 학업중단 후 회됨	• 중단 이후 그대로 잘 살았음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졸업)
학업 ②	남자	고2	모자 가정. 엄마 사망으로 혼자 남겨짐	• 대인관계를 배우는 유일한 장소	• 정상적인 졸업이 좋다고 생각함 •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함	• 정상적인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거부감 생김 • 연락이 끊어짐	• (외부도움이 있었어도) 학업중단했을 것 같음 •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학업중단도 괜찮음	• 새로운 길이 열림	• 목표가 뚜렷하면 학업중단 관철함 • 굳이 권장하고 싶지 않음	• 살아보니까 학교 중단의 영향은 크지 않음

참여자	성별	자퇴 시기	자퇴이유	학교 의미	2018		2019		2020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학업중단의 영향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학업중단의 영향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학업중단의 영향
학업 ③	여자	고1	되고 싶은 것을 더 빨리 이루는 길은 검정고시라고 생각	• 또래친구들이 가장 많은 곳 • 학교 ≠ 공부 (학교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학업중단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식의 후회 자주 함	• 대학전학 면접에 유리하게 작용한 면이 있음	• 학업중단이 가족해체를 촉발한 것은 아닌가 생각함 • 학업중단 후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선택	• 가족의 이해와 지지없이 혼자 버텨냄 •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 덕에 개방적, 수용적 태도 갖게 됨 • 자아성찰하는 소중한 시간 • 학업중단 후 원가를 이뤘다는 압박	•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음 •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기에 더 열심히 함	
학업 ④	여자	고2	전학이 안돼서 아떨 수 없게 된 학업중단하게 됨	• 학교는 학생을 지켜주는 보호막 • 전학이 안돼서 그만둠	•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음 • 전학이 안돼서 그만둠	• 새로운 도전, 타님 포인트 • 검정고시가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됨	• 학업중단을 해봤기에 학교생활도 해보고 싶음	• 인생의 전환점, 꿈을 찾아 미래 설계 • 인생의 전환점, 꿈을 찾아 미래 설계	• 전학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됨 • 당시에는 자퇴가 최선 • 계획/꿈은 학업중단은 나쁘지 않음	
직업 ①	남자	고1	건강상의 이유로 먼거리 통학 어려워서 1차 자퇴, 1학년의 괴롭힘으로 2차 자퇴	• 꿈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곳	• 1차 자퇴 막고 싶었음 • 2차 자퇴 잘했다고 생각	• 1차 자퇴 후 방향, 우울증 • 자퇴로 검정고시라는 목표가 생김 • 1차 자퇴 후, 꿈을 혼자서 찾아야 하는 어려움 겪음	• 영파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듯	• 고복 입지 못함 • 고등학생 시절의 추억에 공감 못함 • 알짜 사회생활 경험, 경력 쌓기 가능	• 고1 이후 학교 다녔지만 적어 없어 학교 생활 그리움 • 고복 못 입은 것 아쉬움 • 1차 자퇴 안하고 휴학 했을 듯함	
직업 ②	여자	중3	잠이 많고 귀찮아서 학업중단(정원 외 관리자), 친구와 싸움(학교 폭력, 왕따 경험)	• 의무가 가득한 공간 • 그냥 친구랑 노는 곳	• 좀 버티다 졸업을 했으면 하는 후회 있음, 가벼운 후회 • 후회해도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	• 어느 학교 나왔다고 할 때 떨떠름함 • 친구 관계 제한, 고등학교 동창이 없음	• 버티다 졸업을 했으면 하는 후회 있음, 가벼운 후회 • 후회는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	• 졸업장은 아쉬움 • 학업중단 후 회하지 않음 •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임		
직업 ③	남자	고1	친구와 노는 것이 좋고 사춘기 시절 부모와 갈등, 충동적으로 학업중단함, 학교에서 자퇴서를 건넸	• 잘 모르겠음	• 학교를 왜 그만 뒀는지 모르겠음(기억이 안남) • 사춘기여서 그런 듯함	• 학업중단 후 조울증 경험 • 처음에는 즐거웠음, 지금 와서 생각하니 너무 늦었다는 생각 들	• 학교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는 곳 • 다시 돌아가도 안 다를 것	• 주변인 사산이 스트레스	• 아쉬움 없음 • 학교 다닌 친구들과 차이 없음	

참여자	성별	자퇴 시기	자퇴 이유	학교 의미	2018		2019		2020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학업중단의 영향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학업중단의 영향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학업중단의 영향
직업 ④	남자	고1	무단결석, 휴연 등으로 별 점이 생겨 전학 전학 간 학교에서 학업중단	• 생활을 잡아주는 곳 자퇴할 마음이 없었는데 전학 후 자퇴	• 이래저래 후회가 됨. 별 점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음	• 학업중단 이후 너무 많이 놀았음 • 친구 사귀기 어려움	-	-	• 학교 생활 학교 친구 경험 이 없는 것이 아쉬움	• 학업중단 후 너무 많이 놀아서(취업 등) 준비 늦어짐
직업 ⑤	남자	고1	원거리 학교(1시간 20분) 교사 폭행, 학교 가기 싫다고 반항에서 학업중단. 놀고 싶었음	• 별 의미 없음 • 자유가 없는 곳	• 절대 (학교로) 안 돌아갈 것 • 학교 공부에 별 의미 없음 • 기술을 가르쳐야 함	• 공부해서 잘 된 애들 한 명도 못 봄	• 학교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함. 취업도 안 되는데 일찍 일을 배운다고 생각함	• 사회생활의 규칙,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일찍 깨달음	• 절대 (학교로) 안 돌아갈 것 • 학업중단은 개인 선택, 누가 뭐라 할 수 없음	•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함 • 검정고시 안보고 기술 배움 • 대졸자와 차이 없음
무업 ①	남자	고2	적성에 맞지 않는 특성학교 진학, 학업중단하고 검정고시하겠다고는 친구영향	• 또래들 다 같이 다니는 곳	• 다시 돌아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갔을 것 같음	• 느슨해진 삶에 학업중단 당시, 허무했음 • 졸업장을 따서 나쁘게만은 보지 않음 • 학업중단 후 많은 것을 경험함	• 돌아간다면 학업중단 선택하지 않음 • 학업중단하지 않았으면 대학교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함	-	-	• 검정고시/대학 졸업자 사이에 아직까지 차이 없음 • 면접 탈락시 검정고시때문으로 생각
무업 ①	여자	고1	이른 등교, 늦은 하교시간, 따라가기 힘든 학교 수업, 남자아이들의 괴롭힘		•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	• 좋다는 것보다 처져지냄, 점수를 많이 줌	-	-	• 같은 조건이면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	• 학업중단 후 심심 편해짐 • 학교라는 이정표가 사라짐 (더 막 나가는 삶이 됨)

(2) 진로 경험

2018~2020년 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중 본 분석의 대상이 된 11명 가운데 5명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거나, 학업 중 혹은 자격증 공부 중이었다. 면접 당시 진로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던 5명 중 4명 즉, 회사의 폐업으로 희망 퇴직 후, 실업 급여 중인 무업 ①번 참여자, 이직 기간 동안 쉬고 있는 직업 ③번 참여자, 부상으로 잠시 쉬고 있다는 직업 ⑤번 참여자, 곧 다시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한다는 직업 ②번 참여자까지 취업 활동(예정)으로 포함할 경우, 무업 ②번 참여자를 제외하고 모두 진로 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발견되는 진로 관련 특징은 “일관된 흐름”이다. 일관된 흐름에는 1) 유사 직종에서 일을 지속하는 경우(직업 ④번 참여자/음식점, 직업 ⑤번 참여자/건설 현장), 2) 더 높은 학벌을 향해 공부하는 경우(학업 ②번 참여자), 3) 계속 같은 꿈을 쫓는 경우(직업 ①번 참여자, 학업 ④번 참여자), 4) 일관되게 구직 중인 경우(무업 ②번 참여자) 등이 있다. 일관성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한 가지를 쫓고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관성은 학업중단 이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며, 3년 동안의 면접에서 발견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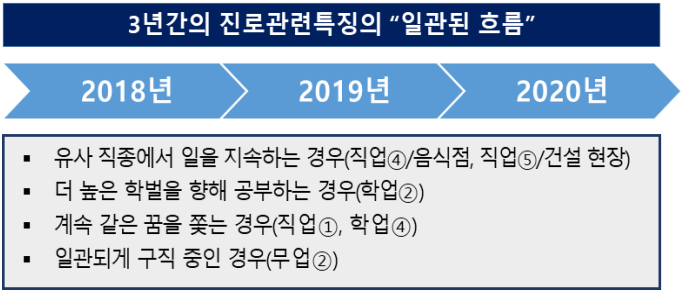


그림 IV-6. 3년간의 진로관련 특징: 일관된 흐름

2018~2020년간 3년 동안의 시간에서 드러난 진로활동의 특징이 “일관된 흐름”이라면, 학업중단으로부터 5~7년이 흐른 후의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관찰되는 진로 관련 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뒤늦은 진로 선택”이며, “여지가 없는 선택” 등이다. 지난 3년 동안에서 드러난 진로 관련 “일관된 흐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본 후에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활동 경험을 “뒤늦은 진로 선택”, “여지가 없는 선택”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① 진로 경험의 “일관된 흐름”

먼저, “일관된 흐름”의 첫 번째 유형은 유사 직종의 일을 지속하는 경우이다.

처음 시작한 음식점 일을 지속하는 직업 ④번 참여자, 기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건설 시스템 일을 하는 직업 ⑤번 참여자가 첫 번째 유형이다. 이들이 같은(혹은 유사한)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직업 ⑤번의 경우는 ‘기술자’로서 일하고 돈을 잘 벌기 때문이며, 직업 ④번의 경우는 그냥 오래 하던 일이고 같이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재밌고 좋아서이다.

〈직업 ④번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처음 발 들인 일을 꼭 하는 사례⁷⁴⁾

(2012 학업중단 이후 한 일은?) 보통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했어요. 그냥 찜 만드는데서, 아니면 중식집에서도 잠깐 일했어요. 주방에서 면 만드는 일(2018)

요리 쪽으로, 그쪽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일 시작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편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해도 괜찮겠더라는 생각을 했어요(2018).

거기서부터(식당에서부터) 일을 오래하기 시작했어요. 잘 챙겨주시고 되게 좋았어요. 일하는 분위기나 재미도 있고(2018)

이제 (사회복무) 끝나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종락) 지금 사실 요리를 배워서. 이제 좀 저는 제 장사를 하고 싶어서. 그 꿈이 제일 커요(2020)

〈직업 ⑤번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기술이 최고라 여기는 사례

(건설) 시스템 그 일하고 있는거예요. 저희 아빠도 건설 쪽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면 좀 잘 그리면 아무래도 돈도 더 되고. 어린 나이에 건설 쪽으로 배우면 늙으면 더 이득 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해보려고. 아빠가 다 얘기해주시니까(2018)

건축일을 하고 있어요(2019)

발목 부상으로 일을 쉬고 있어요. 요새 집에 있구요. 다음 주부터 일(건설일) 나가요(2020)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사회생활 빨리 해라. 기술 빨리 배워라 그런 정도(2020)

직업 ⑤번 참여자와 직업 ④번 참여자가 관련 분야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직업 ⑤번의 경우, 진로와 관련한 정보, 지지,

74) 직업 ④번 참여자의 경우 2018~2019년 면접 당시에는 사회복무 중이었다. 면접 기간 중에 일한 경험은 2020년이 유일하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 음식점 일을 꾸준히 해왔고 사회복무를 마친 이후 요리 쪽 진로를 찾아 다시 주방 일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유사 직종의 일을 지속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인정 등 지원을 제공하는 존재가 있었다. 직업 ⑤번의 경우 건설 일을 하는 아버지, 자신을 인정한 이전 직장 팀장의 소개, 일에서의 인정 등이 유사 직종의 일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었다. 스스로 낮가림이 있다는 직업 ④번의 경우,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도움이 되었다.

이 건축도 그렇고 처음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완전 초보였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저는 어린데 하면 얼마나 하겠노. 이리다가 지금 이런 시기가 왔으니까. 인정을 받는 몸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그렇죠(직업⑤, 2019)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근무 시간이) 짧았거든요. 원래는 밤 11시 반부터 아침 5시 까지 했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하다 보니까 손님 보는 것도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직업④, 2019)

다음으로 “일관된 흐름”의 두 번째 유형은 더 높은 학벌을 찾아 이동한 학업 ②번 참여자이다. 학업 ②번 참여자는 “검정고시→대학 진학→편입 준비→편입→공무원 시험 준비” 등의 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높은 학벌을 추구하였다. 학업 ②번의 경우 열심히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학벌을 중시했기 때문이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지금은 학교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입 준비하고 있고(학업②, 2018)

학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도 있었고 여러 대학교가 있고 가려는 사람 많고. 다들 물어보면 좋은 대학교 가려는 이유가 확고하더라구요. 다들 인정받고 싶다.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도 그 중의 하나가 된거죠(학업②, 2018)

(편입)선택지가 처음 많았는데, 여기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편입)면접 봤어요(학업②, 2020)

어머니가 되게 학벌 같은 거에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머리에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학벌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학업②, 2018)

(대학 진학 이유?) 그냥 밖에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아무래도 검정고시만 딱 달고 있으면 시선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벌은 있어야겠다 싶은(학업②, 2018)

일관된 흐름의 세 번째 유형은 계속 같은 꿈을 쫓는 경우로 직업 ①번, 학업 ④번 참여자가 여기에 속한다. 직업 ①번 참여자의 경우, 2018년 면접 당시에는 사회복지무를 앞두고 있어 임시로 사무보조로 일했지만 조리사 겸 바리스타를 장래 희망으로 말했고 2019년 사회복지무를 거쳐 2020년 사회복지무를 마친 이후,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카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일단 제 목표가 바리스타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싶어요(직업①, 2018)
지금 바리스타로 계속 갈 생각이에요(직업①, 2020)

직업 ①번 참여자가 장래 직업에 대한 꿈을 꾸는 데 있어 꿈드림과의 인연이 도움이 되었다. 꿈드림센터는 검정고시 접수하러 간 곳에서 나눠진 팜플렛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곳을 통해 커피를 만들면서 느낀 재미와 인정이 바리스타를 꿈꾸게 하였다.

일단은 제가 검정고시하고 나서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주방 일을 하는 쪽으로 들어갔었다가 한 달 정도 일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만 뒀는데 그 회사 대표님이 주방이 안되면 마페로 한번 넘어가봐라. 거기서 해봐라. 거기는 허리를 안 쓰니까. 그래서 넘어갔는데 제가 그때 처음 커피 제조를 경험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그림 그리는 아트도 연습 하니까 되게 재미있고, 일하다가 거기 회사가 좀 컸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와서 커피 타주는 게 맛있다고 해서 되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직업①, 2018)

직업 ①번 참여자가 일관적 흐름을 보이는 다른 유형과 조금 다른 점은 바리스타에 대한 꿈을 쫓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 또한 크다는 점이다. 직업 ①번은 일본에서 바리스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해진 점,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신용불량 상황), 손목 부상 등의 장애로, 오래 꿈꾸던 바리스타를 못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전역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될까. 지금 제가 가고 싶은 게 바리스타 쪽인데 카페들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서 직원도 많이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갈 수 있는 게 정해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다가 그러면 직업 하나만 이걸로만 가면 이게 안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지죠. 힘들죠. 이걸 보고 계속 이걸로 갔는데 안된다고 하나까 이제 뭘 하지(직업①, 2019)

계속 꿈을 쫓는데 있어 여러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자원이 부족한 직업 ①번 참여자와 달리, 학업 ④번 참여자의 상황은 좀 더 안정적이다. 학업 ④번 참여자는 일찌감치 진로를 정했고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교에 진학, 졸업 후 관련 분야 공무원을 준비 중인 사례이다. 대학을 나왔고 가족의 지원도 받는 학업 ④번 참여자는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이 잘 안될 것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 두었다. 학업 ④번 참여자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설령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유형이다. 학업 ④번 참여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부모님의 전폭적 지원이다.

전 이제 막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한 새내기라서(학업④, 2018)
(시험) 공부를 매일 해요. 공부만 해요(학업④, 2019)
수험생이라서 공부하고 있어요(학업④, 2020)

부모님이 이제 공부는 시작하긴 했는데, 너 고등학교 졸업장 따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솔직히 제가 직업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직업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직업도 있어? 하는데, 딱 경찰이 눈에 띄고 그 다음부터 지나 갈 때마다 경찰서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학업④, 2020)
(부모님이)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주세요(학업④, 2020)

일반된 흐름의 마지막 유형은 2018~2020년 면접에서 계속 구직 중인 무업 ②번 참여자이다. 무업 ②번 참여자는 학업중단 이후 그래픽 학원을 다닌 것 외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활동을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자신감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여태까지 이력서 넣었던 데가 거의 애니메이션이랑 게임 쪽에. (이력서 넣은 곳) 열 두 개 넘은 것 같은데, 안 들어오네요. 이것저것 막 올리면 들어온다던데. 안 들어오네요(무업②, 2018)

집에서요? 너무 양심 없이 놀기만 하고 있는데. (중략) 인터넷 보고 그림 그리고 유튜브 보고 날 백수짓 하고(무업②, 2020)

너무 계획 없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본적인 고민이 안 사라져서.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냐? 먹고 살 실력은 되냐? 자신감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생각만 하지. 뭔가 실천하진 않네요(무업②, 2020)

②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활동 경험

학업중단 이후부터 질적패널 면접기간(2018~2020년) 동안, 비교적 긴 시간에서 발견되는 참여자의 진로활동 경험의 특징은 “뒤늦은 진로 선택”, “여지가 없는 선택” 등이다. 우선, “뒤늦은 진로 선택”은 학업중단 후 놀면서 시간을 흘려 보냈다고 말하는 참여자들로 주로 취업형, 무업형에서 발견된다. 특히 노는 것을 좋아해서 놀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참여자의 경우, 너무 많이 놀다 보니 학교에 다니는 또래에 비해 많다고 생각한 시간을 허비했고 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모습, 즉 ‘일하기 - 놀기⁷⁵⁾ - 일하기’를 반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찍 뭐라도 하나 해서 계속했으면 좋았을 걸. (어떤 것?) 기술 같은 거. 너무 흐지부지 지내온 것 같아서. 너무 흐지부지 지내온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그냥 일찍 뭐라도 배워 가지고 시작했으면 괜찮았을 걸. 그냥 계속 너무 흘러 보내왔다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아깝긴 아깝죠(직업③, 2019)

그냥 사고도 좀 많이 치기도 했고. 그러니까 보통 뭐 준비 같은게 없이 그냥 놀기만 했던 거? 그게 습관이 돼서 조금 오래 놀았던 것 같아요. 준비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75) 연구참여자 1은 일하지 않을 때를 “노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가끔 쉬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쉬다’와 ‘놀다’의 차이는 그 기간의 짧고 긴 것에 기인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곧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직업 ②번 참여자, 직업 ⑤번 참여자는 “쉬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계속 구직 중인 무업 ②번 참여자는 “너무 양심없이 놀기만 하고 있는데”, “날(날 것) 백수”로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텐데. 이런거. 거의 22세~23세까지는 계속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작년(2019)부터 조금. 그러니까 생각은 있었는데 바뀐거는 작년(2019)부터. 이제 어느 정도 직업을 찾아야 되는 나이가 확실히 다가오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직업을 구해야 된다는거. (25세인데 늦었다고 생각하는지?) 네. 좀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나머지 시간이 그냥 흘러간 거라서. 나이는 그렇게 많진 않아도 좀 다른 것 같아요(직업④, 2020)

또한 “여지가 없는 선택”은 대안이 없는 선택, 실패할 권리, 실패에서 회복할 기회가 제한된 선택을 뜻한다. 개인 혹은 가족 자원이 풍부한 경우 실패로부터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실패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참여자 개인의 몫이 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바리스타 일을 하고 싶은 직업 ①번 참여자의 경우, 신용불량 상태이며, 손목 통증으로 바리스타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보였다. 바리스타만을 바라고 쫓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바리스타) 하고 싶다고 그러면 직업 하나만 이걸로 가면 이게 안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지죠(직업③, 2019)
꿈을 폭넓게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직업①, 2019)

학업 ③번 참여자는 학업중단 상황에서 가족에게 기대했던 위로, 이해를 받지 못한 사례이다. “왜 나를 제3자처럼 대하는 거지?”라는 학업 ③번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학업중단한 이후, 책임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강요된 독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읽을 수 있다. 학업중단과 가족해체가 맞물리면서 가족해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학업 ③번 참여자의 경우, 가족의 지원도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가족의 지원 없이 혼자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학업 ③번 참여자는 언제 합격할지 알 수 없는 공무원 시험에 모든 것을 쏟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시험을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그런게 불안했어요.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준비할 때도 비슷하게 작용해서 내가 돈을 지금 다 쓰면 남아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꿈을 잃고 집도 잃어버린다는 생각과 갈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게 가장 컸어요(학업③, 2020)

그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도 바꿀 수도 있는거고 포기할 수도 있는거고 실패할 수도 있는건데. 계속 뭔가 꼭 이뤄야된다 이런 생각이 그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학업③, 2019)

표 IV-27. 2018~2020년 연구참여자의 주요활동(진로 활동 중심)

참여자	성별	학업중 단시기	검정고시 자격 취득	2018	2019	2020	특징
학업 ①	남자	고1	방통고 졸업	• 대학(2년제) 졸업 •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 신규 아파트 분양 홍보 • 사회복무 소집 예정	• 사회복무 면제 • 편의점 아르바이트 • 진로 관련 새로운 고민 시작	• 방통고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함 • 진로 선택에서 가족의 영향 있음 • 군대 문제가 진로준비행동의 강제 유예기를 만들 • 진로결정기준: 일·생활균형(일명 워라밸)
학업 ②	남자	고2	○	• 대학(4년제) 입학	• 대학교 2학년	• 다른 대학으로 3학년 편입 • 공무원 특별 채용 시험 준비	• 학벌이 중요한. 좋은 직업을 얻고 싶어서 대학 진학, 편입함
학업 ③	여자	고1	○	• 대학(4년제) 휴학 • 취업	•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	• 대학 졸업 • 취업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이 대학 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침 • 진로결정기준: 돈과 일·생활균형
학업 ④	여자	고2	○	• 대학(4년제) 재학	• 대학 졸업 • 공무원 시험 준비	• 공무원 시험 준비	• 전공 관련 취업 준비 중
직업 ①	남자	고1	○	• 사무보조 • 사회복무 소집 예정	• 사회복무 중	• 사회복무 소집 해제 • 카페 아르바이트 • 운전면허 시험 준비 중	• 꿈드림센터 경험이 꿈 찾는데 도움이 됨 • 일관된 꿈(바리스타)이 있음. 장애물도 함께 있음 • 군대 문제가 진로준비행동의 강제 유예기를 만들 • 진로결정기준: 흥미, 능력(타인의 인정)
직업 ②	여자	중3	×	• 공장(자동차 부품회사) 취업	• 불링장 취업	• 잠시 쉬고 있음. 불링장 재취업 계획	• 진로선택에서 가족의 영향 있음 • 하고 싶은 일(애견 미용)이 있음. 시간과 돈이 없어서, 생각만 할 뿐임 • 일의 의미는 돈벌이 • 진로결정기준: 일·생활균형
직업 ③	남자	고1	○	• 상근예비역 제대	• 뷔페 • 굴삭기, 지게차 자격증 취득	• 지게차 회사 취업/퇴사 • 골프캐디 취업 예정	• 자격증 취득에서 가족의 영향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단

참여자	성별	학업중단시기	검정고시 자격 취득	2018	2019	2020	특징
직업 ④	남자	고1	○	• 사회복무 • 검정고시 합격 (사회복무 중)	• 사회복무 중	• 사회복무소집해제 • 주방 취업(4대 보험 가입)	• 사회복무 중 검정고시 합격 • 진로결정기준: 일·생활균형 적성에 맞는 일
직업 ⑤	남자	고1	×	• 건설 시스템 일	• 건설 시스템	• 건설 시스템(부상으로 잠깐 쉬고 있음)	• 진로 선택에서 가족의 영향 받음 • 기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
무업 ①	남자	고2	○	• 취업 준비중	• 자동차 협력업체	• 다니던 회사 폐업으로 희망퇴직, 실업급여 중	• 군대에서 검정고시 합격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 ○○○○ 커리어 센터
무업 ①	여자	고1	○	• 취업 준비중	• 취업준비중	• 취업준비중	• 진로결정기준: 월급은 최저보다 더 주는 곳, 야근이 없거나 있으면 추가수당 주는 곳, 학력 경력 상관없는 곳, 서울, 4대보험, 정규직 등 희망

(3) 지원 경험 및 욕구

제도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보호자와 학교체계가 제공하는 보호로부터 배제되거나 이탈되어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혹은 보호자와 학교, 사회체계가 이들이 원하는 내용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해 보호 공백에 놓이기도 한다. 좋은 친구나 어른을 만나 보호(지원) 공백기를 잘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은 경제적, 심리적 위험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지원)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 혹은 보호 체계 속 사람들(예, 부모, 교사 등)의 도움 요청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도움 추구 행동⁷⁶⁾이 주로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강연미, 김희수, 2016)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주요 성인인 부모, 교사로부터 이탈된 학교 밖 청소년

76) 정신건강분야에서 도움추구 행동(help-seeking behavior)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의사소통하는 것이다(Hinson & Swanson, 1993; 강연미, 김희수, 2016: 239에서 재인용). 이 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도움 요청 행동을 정의하였다.

년이 도움 추구 행동을 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교사 등이 무지 혹은 무관심으로 도움 요청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상황은 “서비스 갭”을 낳고 그 피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2018~2020년 3년 동안의 면접 기간 동안, 도움 요청에서 변화(예: 미요청자에서 요청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의 도움 경험, 도움에 대한 태도가 도움 요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강연미, 김희수, 2016)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과거의 도움 경험 및 도움에 대한 태도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도움 제공이 도움 이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제에서 이들이 원하는 도움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① 학교 밖 청소년의 과거 도움 경험에서 발견되는 특징

대도시에 거주하는 11명의 연구참여자의 도움 관련 경험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첫째, 도움에 대해 몰랐음, 둘째, 학교를 그만둔 초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 ‘겪어 봐야 함’, 셋째, “살다 보니 도움이 필요함”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지원되는 도움을 몰랐다고 말했다. 혹은 ‘들어는 봤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런데 ‘들어는 봤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지원에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지원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로 보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가기 싫어서, 별점이 너무 많이 쌓여서, 결석이 너무 많아서, 말썽을 피워서 등의 이유로 학업중단을 한 경우, 이들은 다른 것, 예를 들어 ‘놀이’에 관심이 컸다. 그렇다보니 외부 지원을 들어봤어도 다른 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것에 동기화된 경우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에서, 이들이 동기화된 ‘놀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막상 학교 안 다니고 있을 때는 일단 그 때가 꿈드림 센터 말고 두드림 해일로 그냥 일반 상담복지센터의 사업만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땐 사실 아무 것도 몰랐어요.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검정고시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아예 몰랐기 때문에 아예 못 받았던 케이스였던게(학업③, 2020)

꿈드림센터는 들어봤어요. 그래도 조금 놀았을 것 같아요. 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아무래도(직업④, 2019).

둘째,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도움을 요청했을까? 이에 대해 일부 연구참여자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나 도움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주변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즉, 스스로 ‘겪어봐야 안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학업중단 초기, 즉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즉, 학교를 그만둘 것을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물었을 때 나온 반응이 ‘겪어봐야 안다’이다. 한편, 무업 ②번 참여자는 알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줄 수 없는 도움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저는 솔직히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아무리 제가 이런 속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생각이 없냐. 백 번 말해봤자 어쨌든 자기 자신대로 가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거잖아요. 그래서 겪어보고 후회를 해도 겪어보고 후회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직업②, 2019)

귀찮아서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막 이걸 한 번 해볼까 이런 동기가 있어야지 참여가 되는건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던 나이였어서(직업③, 2020)

(학업중단 당시) 도움을 준다 해도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됐을 것 같아요. 별 소용이 없었는데. (중략) 어른 한 명이 학교 가는 걸 늦춰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 못 따라가는 것도 내가 머리가 떨어져서 힘든건데 그것도 뭐 어떻게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 도움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무업②, 2020)

제공되는 도움을 알았으면 이용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참여자도 있다. 학업 ③번 참여자의 경우 학업중단숙려제를 받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저는 숙려제 안했어요. 있었는데 연결 안 해줬어요. 학교에서 안 해줬어요. 저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라 해서 나왔어요. 사립은 필수가 아닌가 봐요. 저도 숙려없이 끝나서. 나는 안 하나보다 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학업③, 2020)

한편,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검정고시 신청 장소를 통해 꿈드림센터를 알고 전화해서 직접 문의, 신청한 경우도 있다. 바로 직업 ①번 참여자이다. 직업 ①번 참여자는 건강상의 문제로 장거리 통학이 부담되어 첫 번째 고등학교를 그만 두었고 새로 전학 간 두 번째 고등학교에서 또래들의 괴롭힘으로 다시 학업을 중단한 경우이다.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지원을 통해 여러 기회를 접하고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유익했던 도움 경험이 꿈드림 센터 팜플렛을 본 후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두 번째 학교를 그만둔 후, 4~5개월이 지난 무렵으로 비교적 학업중단 후 초기에 가깝다. 직업 ①번 참여자의 상황을 보면, 과거의 도움 받은 좋은 경험이 이후 도움에 개방적 태도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고등학교 생활을 처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거를 학교에서 저한테 많이 해보라고 지원을 해주셨어요. 음악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료로 기타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직업①, 2018)

학교를 나오면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는 거잖아요. 혼자서 그걸(꿈을) 찾아가기까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직업①, 2018)

검정고시 신청하러 가서 거기서 나눠주는 (꿈드림센터) 팜플렛을 받고 읽어보는데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했죠. (중략) 그 센터 안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요리를 한다든지. 제가 그 당시는 요리사가 꿈이어서 요리를 한다든지, 문화생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게 좋았던 것 같아요(직업①, 2018)

셋째, 학교를 그만둔 직후나 초기에는 도움에 회의적이었지만, 살다 보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직업 ②번 참여자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직업 ②번은 학업중단 당시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겪어봐야 안다는 입장이었으나, 애견미용사라는 꿈과 관련한, 또 검정고시 지원과 관련한 도움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도움 요청은 못하는 상황 또한 보였다. 학업중단 초기를 지나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 꿈을 이야기는 것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인식도 보였다.

최근은 아니고 원래 장래희망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나는게 애견미용이었어요. 그걸 하고 싶는데 그러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잖아요. 그걸 하고 싶었는데 아쉬운, 현실은 일을 해야 하나까”(직업 ②, 2018)

어렸을 때나 한창 장래희망 뭐냐 물어봤을 때 하는데 지금은 딱히 나올 상황이 없잖아요 (직업②, 2018)

② 학업중단 청소년이 바라는 지원 내용

2018~2020년동안 3년간 면접에 참여했던 대도시 거주 학업중단 청소년이 바라는 도움을 정리하였다. 첫째, 꿈드림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이다. 꿈드림센터를 통해 바리스타의 꿈을 갖게 된 직업 ①번 참여자는 이렇게 좋은 곳을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꿈이) 없는 상태에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데 그만두면서 없어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뭔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꼭 그 꿈뿐 아니라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꿈드림센터 같은 경우도 만약 제가 거기서 팜플렛을 안 받았으면 아예 꿈드림이라는 자체를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꿈드림센터에 가면 시스템은 좋은데 사람들이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 또한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직업①, 2018)

둘째, 학업중단 직후의 초기 지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놀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졸업장이 필요함을 몰랐다는 직업 ②번 참여자는 검정고시에 합격할 때까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검정고시 볼 생각은 매번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 기초가 없으며, 일하면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상황이 공부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는 검정고시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하여 조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검정고시. 지금도 있지만 무료 검정고시 그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해서 졸업하게끔 만드는 그런거요(직업②, 2020)
(검정고시) 할 생각은 맨날 있어요. (중략) 제가 또 학교에서 공부를 안해서 기초가 없어

요(직업②, 2018).

겪어보니까, 시간, 학교 다니는 시간이 그냥 졸업장을 위해 그런 시간을 주어진 건 그 때 학창시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직업②, 2019)

셋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의 지원 없어 홀로 서야 하는 경우 혹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검정고시, 자격증(예, 요리사) 학원비 등의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다. 직업 ④번 참여자는 2020년 최근에 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어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도움보다는 그냥 제일 큰 건. 뭐든지 경제적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중략) 지원은 그런데 확실히, 그냥 뭔가 제가 배운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중략) 일하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원, 등록할 때 할인이나 이런거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지원을 이제 받아볼까도 해서. 경제적인거, 학원비(직업④, 2020)

저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학습비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거 딱 이정도(학업②, 2020)

넷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공감과 이해를 받지 못했던 학업 ①번 참여자는 심리적 지원, 가족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특히, 관련 전공을 통해 가족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학업 ①번 참여자는 가족해체의 원인이 자신의 학업중단이라는 생각으로부터 편안해졌고 그러면서 가족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 (학업중단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아 그때 조금 더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한 거를 뭔가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건데 잘 안 잡혀졌고 그렇게 계속 오랜 시간 누적이 됐었으니까(학업③, 2019)

가족 상담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으로 지원해주면 결과가 같아도 서로 그 과정에서 이해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학업③, 2020)

(학업중단은) 나의 선택이었고 제대로 된 가정이나 부모라면 자식이 한 명 그렇게 돼도 그걸로 깨지면 안될 것 같아요(학업③, 2020).

다섯째, 이들이 도와줄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언제든 연락하면 놀 수 있는 친구도 있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주변에 있지만, 삶, 진로와 관련하여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이들에게 필요하다. 이들의 이야기는 외부 환경에서 받는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강근모, 이준기, 2020)와 일치한다.

의욕 떨어지는건 아무래도 힘든거. 어려워니까 혼자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준비하면서 의욕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직업④, 2018)

지도해주는 사람. 아무래도 혼자 공부를 안한지 오래돼서 혼자 못 하겠어요(직업④, 2018)

의논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푸는 상대는 있어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는 형님이라든가. 뭐, 제가 뭐 볼 건데 어떡냐.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형들은 있는데, 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일단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막상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학업②, 2020)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되게 게을러져요. (중략) 인정받는다든 거하고 봐준다는거 (중요하죠)(학업②, 2018)

여섯째, 단계별, 진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요구되는 상황을 접하고 지원 요청을 그만두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경우 자격증 취득에 앞서, 우선 검정고시를 보도록 동기화시키는 단계별 접근이 요구된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격증 관련해서는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어서 그 때 검정고시를 생각했어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아빠가 갖다 주셔서 봤는데 거기 조건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이렇게 있어서(직업④, 2018)

취업 도와주는 관련된 건 듣긴 들었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졸업 이상만 지원해주는게 있더라고요(직업④, 2019)

말 그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게 제가 받았던 것도 내가 하고 싶은게 뭔지 물어보시고 이거라고 하면 그걸로만 해주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략) 꿈을 폭넓게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직업①, 2019)

일곱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와 청소년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는 수업 중에 상담(학업중단숙려제 과정 등에서)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 청소년이 있다. 무업 ②번 참여자가 바로 그랬다.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 진학 후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것이 학업중단의 여러 이유 중 하나였던 무업 ②번 참여자는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상담이 결과적으로 더 큰 수업 결손을 낳았다. 제대로 들어도 따라가기 힘든데, 상담으로 수업에서 빠지니 더욱 힘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학업중단 이전에) 학교에서 서너 차례 상담을 했어요. 상담실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수업 안 듣고 객기부리네. 이래서 몇 차례 들었는데 결국에는 관뒀죠. (중략) 상담 듣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그거만 들을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수업 빠져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략) 수업을 못 따라갔으니까. 한 번 빠지면 또 못 따라가고 안 그래도 못 따라가는데 수업 안 들어가니까 더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무업②, 2020)

표 IV-28. 2018~2020년 연구참여자의 지원 관련 경험

참여자	성별	학업중단시기	지원 경험	지원 요청	차별경험
학업 ①	남자	고1	•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에 꾸준히 참여 •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을 알고 있는데 이용 안함 • 상담	• 자격증 공부 • 대학생 멘토 • 일자리 지원이나 직업 훈련 • 학교 안 다닐 때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	• 학업중단에 관해 얘기하지 않음 • 학교 밖 청소년을 똑같은 사람으로 봐주면 좋겠음
학업 ②	남자	고2	• 사회복지사 상담, 도움이 안됨 • 복지단체의 식사 지원 • 모자가정, 엄마 사망 이후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려 했지만, 아무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거절함 • 학교 다닐 때 상담은 별 도움 안됐음	• 약기를 배우고 싶음 • 오토바이 면허 취득 지원 • 진로 설계를 함께 할 사람 • 스터디 그룹 • 경제적 지원, 생계급여 현실화	• 아르바이트 구할 때 검정고시 출신을 안 좋게 보다는 느낌 받음 • 사회복무 복무 중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 경험
학업 ③	여자	고1	• 제대로 지원받은 경험 없음 • 검정고시 보고 끝났을 때 꿈드림을 찾아감 • 두드림해밀(2015년 이전 꿈드림 센터)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 유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지원 • 꿈드림 캠프가 많아지길 희망 • 가족 상담 • 가정 불화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주거 지원	• 청소년증이 통하지 않는 경우 많음 •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편견 경험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

참가자	성별	학업중단시기	지원 경험	지원 요청	차별경험
학업 ④	여자	고2	• 없음	• 대학 입시 정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취업생으로 필요한 것들	• 전학 등 다른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학교를 다니고 싶는데 전학이 안돼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 상황) • 검정고시생은 지원할 수 없는 대학 있음
직업 ①	남자	고1	•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 큰 도움이 됨	• 외국어 공부 지원 • 자격증 취득 지원 • 진로 설계(폭넓은 지원) • 모임 지원 • 꿈드림센터 같은 도움제공 기관이 널리 알려졌으면 함	• 학업중단에 대한 고정관념 있음, 억울함 느낌
직업 ②	여자	중3	• 꿈드림센터는 들어봤음. 이용하지 않음 • 상담보다 실질적 교육(바리스타, 미용 교육) 희망 • 각자 겪어봐야 알 수 있음. 주변 지원에 회의적	• 취업 정보 제공 • 검정고시 지원(처음부터 끝까지 지원)	• 학업중단으로 무시당한 경험
직업 ③	남자	고1	• 어떤 지원이 있는지 모름 • 있었어도 이용하지 않았을 것 같음 • 도움받을 생각을 안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간에 포기.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고 알고 있음	-	• 주변의 사안이 스트레스가 됨
직업 ④	남자	고1	• 없음 • 꿈드림센터는 들어봤음	• 검정고시 공부를 혼자하는데 어려움, 혼자하니 의욕이 떨어짐 • 외부 도움에 대한 기대 낮음 • 학원비 등 경제적 지원	• 차별경험은 없지만, 차별받지 않기 위해 검정고시 준비함
직업 ⑤	남자	고1	• 외부 도움 진짜 싫음 • 자격증을 빨리 따는 것이 더 중요함	-	• 학력 차별 있음 • 학교에서 기술 교육을 시켜야 함
무업 ①	남자	고2	• 청년내일채움공제 • 취업성공패키지 • ○○○○ 커리어센터	• 검정고시 무료 지원 • 진로,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 결혼할 때 고등학교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음 •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회사의 경우, 학업중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함 • 서류 작성할 때 자퇴라고 쓰는데 눈치 보였음. 졸업장을 따고 당당해짐
무업 ①	여자	고1	• 학업중단 후 청소년심리상담센터 이용, 도움이 많이 됨	• 취업문제 해결(이상하지 않은 일자리) • 직접적인 취업 정보 제공	• (학업중단) 말 안하면 모름 • 특별한 차별경험 없음

4. 요약 및 시사점

1) 기존 패널 관리 및 DB 구축

올해 조사를 위해 2019년 조사에 참여한 48명의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 컨택하여 연락처 변경 및 조사 참여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 중 군입대, 조사거절,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이탈된 패널을 제외한 42명이 패널로 유지된 것을 확인하였다.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 및 조사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구범위 및 연구인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올해 연구주제 중 하나인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초점을 두고자 기존 패널들 중 대도시 거주 패널 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면접을 수행하였고, 타 지역 거주자 22명에 대해서는 패널관리조사(이사 여부, 주로 하는 일, 고민사항 등)를 수행하였다. 면접결과 전사자료는 올해 데이터를 한 분석과 2018~2020년동안 3개년간의 질적자료 종단분석에 활용되어 다양한 방식의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올해 전사자료는 2018~2019년도 전사자료와 함께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 DB로 관리된다.

2) 대도시지역 기존 패널 면접조사

(1) <학업중단 이전> 관련 요약 및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내렸던 원인에 따라 능동형, 불가피형, 도피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유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은 내적, 외적 경험과 지역사회 지원 양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능동형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또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맞지 않아 다양한 진로와 흥미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능동형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비교적 학업중단의 목적이 뚜렷하였고 이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적극성을 가지고

학교 밖 생활을 꾸려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능동형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체험, 흥미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경험과 지도 등 진로탐색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직업체험이나 관련 프로그램 수강 등 제반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을 위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꿈길’은 종합적 진로체험 지원망으로서 의의가 있다.⁷⁷⁾

두 번째로, 불가피형으로 분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 본인의 의사가 아닌 내적, 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학교 중단을 선택한 경우로서 심리적 또는 신체적 외상이나,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연구참여자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지원청 단위의 Wee센터와 교내의 Wee클래스가 연계하여 학급별, 개인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스쿨119’ 등의 서비스로 교사, 의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팀이 고위기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학교를 중단했다고 밝힌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가족상담 같은 심리적 지원 뿐 아니라 구청,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 물리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호소하는 청소년은 가정 내 불안정한 가족문화와 가족 간의 정서적 결핍을 경험할 수 있어 가족치료의 중요성(김선녀, 2019)과 외부의 사회적지지 제공의 필요성(강근모, 이준기, 2015)이 제기된 바 있다.

마지막 유형인 도피형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뚜렷한 목표나 계획 또는 불가피한

77) 교육부 보도자료(2018.10.31.).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꿈길’, 학교 밖까지 개방<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66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1&opType=N> 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외부요인이 없음에도, 현재 처한 ‘학교’라는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한 연구참여자들이었다. 이들 중 학교 중단 이후 취업을 위한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를 그만둔 당시에 직업학교나 취업지원시스템(취업사관학교 등)에 연계하는 등 개인의 적성에 맞고 동기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나 온라인 청년센터, 그리고 각 지역별 교육청 산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활용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밖에서도 또래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비행 또래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지지적 또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 필요가 있다(이지혜, 조은호, 박미연, 김현경, 2020).

(2) 〈학업중단 직후~고등학교 학령기〉 관련 요약 및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한 이후, 학령기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정체감과 사회기능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정지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상이 정지된 듯한 느낌’ 또는 ‘학업으로 다시 조금씩 복귀’하고자 하는 크게 두 갈래의 특성을 보였고 사회기능적으로는 학업형과 취업형으로 분류되었다. ‘정지형×학업형’의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적 수행보다는 외상사건 등 일련의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과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는 사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지형×취업형’에 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단한 이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령기 시절을 보냈다. 이들은 학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업 이외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관련 직업교육이나 자격증 관련 교육비 지원 등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두 번째로 ‘배회형’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무의미한 학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

낌’, ‘목표 없는 학업중단으로 타인의 시선에 의해 정체감이 흔들림’, ‘가족의 심리적 물리적 지원으로 미래를 준비해 감’ 등의 크게 세 가지 특성을 나타냈으며, ‘배회형×학업형’과 ‘배회형×취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배회형×학업형’의 경우, 무의미한 학업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학교생활이 무의미했었기 때문에 학교를 중단했으며, 이후 좋아하는 게임에 시간을 쓸 수 있고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 검정고시 취득을 하면 무의미한 학교생활을 의무적으로 지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 등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한편, ‘배회형×학업형’의 청소년들은 목표 없는 학업중단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학교를 중단한 것이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이 걱정되어 대학진학을 결심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획일화되고 의무적인 과정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으로 학교 중단을 결정하였으나, 검정고시를 통한 졸업장 취득이나 대학진학에 대한 의지는 있음을 시사한다. ‘배회형×취업형’ 유형으로 분류된 연구참여자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하거나 금전적 부족함으로 인해 자신의 흥미, 적성을 고려하거나 원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급여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나 진로가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로 이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해당 참여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일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현재 국비 등으로 지원되는 자격증 수강비 무료 지원 뿐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책임지고 자격증을 취득, 추후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로 했다.

세 번째 유형은 ‘주도형’으로, 학교 중단의 목표가 분명하여 뜻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특성을 나타낸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하였고, 세부적으로 ‘주도형×학업형’ 유형으로 연구참여자들을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단한 목표가 뚜렷하였으며, 자신이 가진 나만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 생활을 조직화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학교를 중단하고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시험 준비에 몰두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검정고시 학원을 알아보고 미리 등록하여 공부계획을 세웠으며, 대학입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에게는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 진로 및 진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동기가 있는 ‘주도형×학업형’ 연구참여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이다.

(3) 〈학령기 이후〉 관련 요약 및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된 이후 어떠한 삶과 경험을 보고하였는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먼저 ‘정지형’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이 소수 있었는데 이들은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나 이후의 삶에 대한 탐색의 동기나 의욕이 현저히 낮았으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주변의 인적 자원 또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이 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진로를 밟아가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그 중 ‘정지형×취업형’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는 여러 직업을 거쳐 갔으나 일관된 진로 목표를 가지거나 자신의 적성, 흥미를 바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해 급여 수준만을 기준으로 직업을 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한 목돈 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더불어 주거문제와 경제문제를 일정부분 안정화시켜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진로탐색을 도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배회형’ 유형으로 분류된 성인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으나, 명확한 목표가 없어 갈팡질팡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배회형×학업형’의 경우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고민하는 시기를

보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뚜렷하게 목표를 세우거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배회형×학업형’에 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진로를 설계하거나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가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직업체험 등의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경험을 개인의 진로발달에 연결하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멘토링이나 로드맵을 함께 설정해가는 시스템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배회형×취업형’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자 하나, 외적 또는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진로가 좌절되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던 도중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실업자가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구직을 하며 배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였거나, 직장 내에서 겪는 대인관계 갈등으로 일을 계속할지 고민하였다. 이는 진로에 대한 좌절과 어려움이 개인 내적인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과업의 수행 역시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배회형×무업형’의 성인기의 연구참여자들은 진로를 탐색하려는 동기는 있으나 실제로 정보수집 등 진로 탐색과 관련한 행동은 실행하지 않는 유형으로, 진로와 목표 수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회형 참여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성인기에 진입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진로 설정 및 구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의 개인별 역량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단계별,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심리검사와 집중상담을 시작으로 청년의 구직 의욕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훈련 참여수당이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진로설계 및 구직과정을 필요로 하는 ‘배회형×취업형’이나 ‘배회형×무업형’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배회형’의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웹진 발간, 어플 등을 활용하여 경제 상식,

재무설계 등의 정보와 코딩기술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주도형’은 성인기로 이행한 연구참여자 중 대부분이 속한 유형으로, 학업 또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중 ‘주도형×학업형’의 참여자들은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여 대학을 진학하였는데,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사 또는 가족의 추천 등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고 관련 진로를 찾아 매진하였다. ‘주도형×학업형’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목표가 뚜렷하고 내외적 동기가 있으므로 이를 실현해 나가게끔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의 확대 등을 요구하였고, 기본적 생계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도 나타났다. 또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의논하거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는 답답함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 등을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도형×취업형’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업을 가진 후 일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위한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룬 연구참여자들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 때문인지 다른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의 과거 상황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멘터를 모집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등 성숙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학교를 그만둔 후, 적극적으로 진로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를 통해 심리적 지원 및 사회적 지지를 얻었으며, 나아가 관심분야 탐색 등 진로와 관련된 도움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연구결과(조혜영, 김영란, 2018)와 일치한다.

3) 기존 패널 질적종단자료 심층 분석

이 장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대도시 거주 패널의 지난 3년(2018~2020년)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1)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2) 진로 경험, 3) 도움 경험 및 도움 욕구(요청)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3년 동안을 기준으로,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은 이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기대(의미)에 따라서, 현재 삶의 만족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학교를 친구 사귀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경우 학업중단은 지속적으로 후회되는 일이었으며, 덧붙여 현재 삶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후회가 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현재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 가족과 유대감이 높은 경우는 후회가 적거나 지속적으로 후회하지는 않았다. 지속적인 일관된 후회는 학업중단으로 가족의 이해를 받지 못한 경우, 학업중단으로 결혼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경우에서 발견되었다.

지난 3년간의 진로 경험에서 발견되는 진로 관련 특징은 “일관된 흐름”이었다. 학업중단 초기에는 청소년으로 할 수 있는 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닦는 대로 하며, ‘일하고 놀기,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하기’를 반복하는 모습이어서 진로에 “일관된 흐름”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업중단 후 5~7년이 흐른 시점에서 유사 직종의 일을 지속하는 모습, 높은 학벌을 향해 공부하는 모습, 같은 꿈을 쫓는 모습 등이 나타났다. 학업중단 직후(초기)부터 20대 초반을 넘어가는 시점을 놓고 볼 때, 이들의 진로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뒤늦은 진로 선택”,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움 경험 및 도움 욕구(요청)와 관련해서, 도움 경험은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을 잘 모르는 경우’, ‘학업중단 초기에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막상 살아 보니,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분류되었다. 필요한 도움과 관련해서는 꿈드림센터 홍보,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원하는 것,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옆에서 도와줄 인적자원 지원, 단계별 지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이제 학업중단 청소년이 아니며, 취업준비생으로, 취업자로 현재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청년 정책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고민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의 경험은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학업중단 초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3년간의 질적중단조사에서 발견한 의미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지원의 필요성이다. 특히 취업형, 무업형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많이 놀았다는 표현을 하였고, 그래서 진로를 충실히 탐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보였다. 학업중단 이전부터, 학업중단 이후의 당면 문제(부모자녀관계, 시간관리, 금전관리, 경력관리 등)를 중심으로 조기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조기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학업중단에 대한 개방적 접근, 새롭게 동기화 시킬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학업중단숙려제라는 이름에서 보듯, 학업중단을 막는다는 차원의 접근보다는 나름의 생각과 이유가 있는, 학업중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생설계숙고제(가칭)와 같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과 함께 중단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방적 접근이 요구된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많은 생각은 이들이 학업이나 학교에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것, 학업이 아닌 다른 것에 동기화되어 있다. 이들이 즐겁게 생활하며, 잘 성장하는 것을 부모, 학교, 청소년 간의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이들이 동기화되어 있는 장점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의 이유와 맥락은 다양하다. 그렇기에 각자의 사정에 맞춰 맞춤형 지원, 통합적 지원(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기존 정책 정책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꿈드림센터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검정고시를 접수하러 가서 접한 꿈드림센터의 팸플렛이 꿈을 갖는 첫 출발점이 된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공간에서 꿈드림센터와 같은 지원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5~7년 흐른 2018년을 시작으로 수집된 3년 간의 질적 면접 자료에 대해 종단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연구참여자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기에는 3년이 다소 짧아 변화의 경향이나 내용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제5장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구축 및 질적 연구

- 1.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구축
- 2. 1차 조사 내용 및 자료수집
- 3. 질적연구 분석 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1.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구축

1) 신규 패널 구축의 배경 및 과정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의 필요성은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이 오래 전 학교를 그만두었고, 현재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청년이 되면서 현재 시점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태와 지원욕구를 파악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청년기에 접어든 기존 패널들의 면접자료는 향후 2차 자료분석 등을 통해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조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시점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태와 이들의 지원욕구, 특히 2015년 이후에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경험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중심으로 한 지원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중단조사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장기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역시 연구자들 뿐 아니라 정책담당자에게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 즉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존 패널과는 달리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중앙정

78) 제5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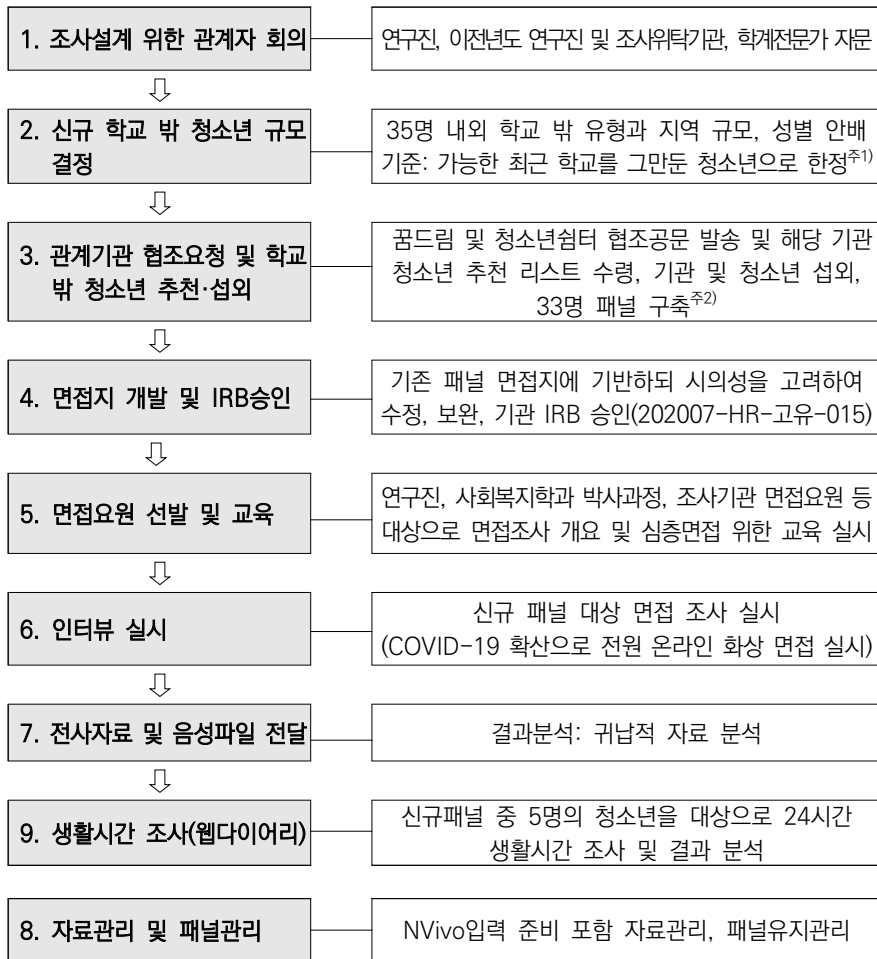
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경험했다는데 차별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범위와 연구기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패널 면접조사와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 및 면접조사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COVID-19로 인해 연구 및 실사 일정이 연기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접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와 같은 기관들이 이 전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운영과 폐쇄를 번갈아 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구에서는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을 위해 성별, 학교 밖 유형, 지역규모를 안배하여 35명 내외⁷⁹⁾를 조사표본으로 결정하여 조사설계를 수행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저연령화를 고려하여 당초 만 15세 내외로 설정하였으나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둘 뿐 아니라, 현장 접촉 시 대부분의 이용 청소년들이 만 15~19세에서 가능한 저연령 청소년을 패널에 포함시키되, 섭외 일정 상 부득이한 경우 연령 기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당초 조사방법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시작으로 이들의 친구나 또래 등을 눈덩이 표집방식을 통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 주변이나 검정고시장 등 아웃리치 방법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접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COVID-19의 확산으로 대면접촉 및 외부인 연락이 불편한 상황이 됨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지역규모를 고려한 섭외 역시 학교 밖 청소년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지역에서는 패널 구축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패널을 구축하고 1차 조사를 수행한 전 과정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V-1과 같다.

79) 성별(남, 여)×학교 밖 유형(학업, 취업, 무업)×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2명=36명으로 산출



주1: 당초에는 최근 1년 이내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COVID-19로 청소년들이 주로 집안에만 머물게 됨에 따라 더욱 컨택, 섭외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2년 이내로 기준을 완화하였음.

주2: COVID-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한 센터/쉼터들이 많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청소년들과 센터/쉼터 담당자간의 연락이 어려워 실사일정이 약 3개월로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음.

그림 V-1. 신규 패널 구축 및 1차 면접조사(생활시간 조사 포함) 실시 과정

2) 신규 패널 구축 현황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의 규모를 확정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섭외 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관 기관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 내일이룸학교 등에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고 여러 차례 유·무선으로 협조를 독려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또 이들 기관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을 매개로 한 눈덩이 표집 역시 소수의 청소년에게만 해당되었다. 결과적으로 최종 패널로 구축된 청소년의 성별과 지역규모,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특성과 개별 패널별 주요 특성 및 현황은 표 V-1, 표 V-2와 같다.

신규 패널로 구축된 청소년 중 남자가 12명, 여자가 21명이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17명, 중소도시 12명, 읍면지역 4명으로, 여자 청소년과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훨씬 많았다(표 V-1). 기존 패널의 1차 조사 시에도 군입대 등을 고려하여 여자, 남자 비율을 6:4로 조정한 바 있으나, 이번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이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로 여자청소년이 포함되었다. 학교 밖 유형별로는 학업형이 19명, 직업형이 6명, 무업형이 8명으로 학업형이 많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진로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일단 검정고시와 대학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1.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 및 조사 완료자 현황

유형분류 ⁸⁰⁾	지역 규모									합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학업형	8	3	5	8	2	6	3	1	2	19	6	13
직업형	3	2	1	3	1	2	0	0	0	6	3	3
무업형	6	3	3	1	0	1	1	0	1	8	3	5
합계	17	8	9	12	3	9	4	1	3	33	12	21

80) 유형 분류는 인터뷰 전 기관 담당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주관적인 판단기준으로 판별하였으며, 각 유형별 기준은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유형 기준을 참고하였다.

- 학업형 :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이거나 또는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청소년

표 V-2.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현황⁸¹⁾

ID	시·도	성별	만 나이	응답자 유형	지역 규모
연구참여자 1	특별시	남	17	무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2	광역시	남	19	직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3	전라도	여	19	직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4	광역시	남	18	학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5	광역시	여	18	직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6	광역시	여	18	학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7	광역시	여	18	학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8	경기도	남	17	학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9	제주도	여	19	무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10	경상도	여	18	학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11	경기도	여	16	학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12	특별시	여	17	무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13	충청도	남	15	직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14	특별시	남	18	직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15	충청도	여	18	학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16	특별시	남	17	무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17	특별시	남	18	학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18	특별시	남	17	무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19	특별시	여	18	무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20	특별시	남	18	학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21	특별시	여	18	학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22	경기도	여	18	직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23	특별시	여	15	무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24	전라도	여	16	학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25	광역시	여	19	학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26	전라도	여	17	학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27	광역시	여	18	학업형	대도시
연구참여자 28	경기도	여	17	학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29	경기도	남	17	학업형	중소도시
연구참여자 30	전라도	여	16	학업형	읍면지역
연구참여자 31	전라도	남	18	학업형	읍면지역
연구참여자 32	충청도	여	19	무업형	읍면지역
연구참여자 33	전라도	여	18	학업형	읍면지역

- 직업형 : 직업(단순 아르바이트 제외)을 가지려는 계획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현재 받고 있거나 계획 중인 청소년
 - 무업형 : 간단한 아르바이트 등은 할 수 있지만, 학업이나 취업 관련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81) 여자청소년 중 8명은 본 과제의 협동연구인 학교 밖 여성청소년의 생활환경 지원연구를 위해 2차 면접에 참여하였다.

2. 1차 조사 내용 및 자료수집

1) 조사내용

면접조사 내용은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의 면접조사지를 기초로 하였다. 조사내용으로 학업중단 이유, 최근 학교 밖 생활 경험, 생활시간 및 공간, 미래에 대한 생각, 지역사회에서의 경험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와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되, 지원욕구에 대해서도 상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1차로 조사지 구성을 마친 후 학교 밖 청소년 학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공무원이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기관 IRB심의를 통해 청소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추천 및 섭외과정에서 꿈드림이나 청소년쉼터의 현장종사자들 중 조사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조사내용의 적절성 여부나 민감 정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면접내용은 표 V-3과 같으며, 실제 면접진행 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질문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V-3.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상 면접조사 내용

구분	면접내용
기본정보	- 성,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교를 그만 둔 시기 - 부모 및 가정 배경 확인 - 현재 주로 하는 일
현재생활	- 현재 하고 있는 일: 학업, 취·창업 준비, 일·아르바이트 경험, 무업 시 일정 - 현재의 하루 일과: 자유 시간(수강, 근무 등 외 시간), 기상/취침시간, 오전/오후 일정, 자취시간 등 - 학교를 그만 둔 당시의 계획 및 현재 하고 싶은 일과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 현재의 주요 관심사나 고민(진로, 가족, 친구, 경제적 어려움, 건강, 거취나 생활 문제 등)
학업중단 경험과 이후 변화 등	- 학업중단 사유 및 결정 과정(부모 포함 주변인 반응) - 학업중단 후회 경험,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동안의 경험 포함 -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영향: 학업, 취업 준비, 일 경험 및 기간 등 - 학업중단 변화의 의미(긍정적, 부정적 변화 모두) - 학교중단에 따른 어려움과 만족/불만족 내용

구분	면접내용
자신에 대한 생각(정체감)	• 자신에 대한 생각: 자존감, 정체성, 스스로 만족/불만족 여부, 자신의 문제점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의 역할 혼란 등) • 의욕/동기 수준: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 무기력 이유
미래/진로	• 앞으로의 계획 및 희망하는 직업과 이를 위한 준비 여부와 그 이유 - 진로준비에 관한 사항 구체화(진로 준비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자신이 희망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등) •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 5년후, 10년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 진로 결정 여부/기준, 희망하는 직업 및 준비 여부
관계 (지지체계)	• 부모(갈등), 교사, 또래와의 관계 • 소중한 사람, 영향을 끼친 사람 등 • 이외에 중요한 관계: 지원기관의 종사자, 사회복지사, 교사 등 • 학업중단 이후 인간관계의 변화 유무 및 이유, 만족/불만족
지역사회와 사회일반에 대한 생각	• 지역사회의 공간적 범위(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에서의 주요 경험과 인식 • 지역사회에서의 도움 경험: 학교 중단 후 지원요청 여부, 도움경험 여부 및 내용, 도움필요 내용(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모두 포함) - 현재 지역(시·군·구)수준에서 만족하는 또는 아쉬운 지원 내역, 필요 내용 • 지역사회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와 내용: 이용기간, 만족/불만족 여부 • 도움을 받고 싶었으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은 경험 유무, 만족도 • 사회에 대한 인식: 학생이 아닌 이유로 받은 차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자발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면접조사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중 5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유형(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에 따른 시간대별 생활시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에서의 시간 활용 경향을 파악하고, 필요 시 지원/개입 지점을 도출하는데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생활시간 조사는 웹다이어리 방식을 통해 시간대별 구체적인 활동과 장소, 동반자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웹다이어리는 해당 시간대별로 본인의 일상을 정해진 항목에 따라 입력하고, 추가적인 내용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웹조사 방식으로, 이를 통해 평일(월~금)

중 1일과 토, 일요일 중 1일, 총 2일에 대해 시간대별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에는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청소년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5명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24시간 동안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장소, 동반인들을 모두 기입하였다 이러한 웹다이어리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 장소, 행동 등에 대한 예시가 필요한데,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아래와 같은 상세 예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였다(표 V-4). 조사결과는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의 하루 일과 및 생활시간에 대한 면접자료 분석 시 제시하고 함께 분석하였다.

표 V-4. 생활시간별 활동내용 작성 예시표

활동영역		구체적인 활동 내용(예)	활동장소(예)	동행인(예)
학습/학업관련		수능준비, 검정고시 준비학원 수강	학원, 집, 꿈드림	혼자
		자습	집, 독서실(도서관)	혼자
		과외	집, 카페	혼자
일	인턴십	바리스타, 서빙	카페, 식당	동료
	아르바이트	바리스타,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아르바이트 등 구체적으로	카페, 식당 등 아르바이트 장소	혼자
	정규직	직종	장소	회사동료
취업/ 진로준비	취업준비	자격증(미용사 등) 준비, 네일아트, 제빵 등	학원	혼자
	진로준비	진로관련 검색, 진로탐색, 상담	집, 꿈드림 센터 등	
여가, 취미 활동, 운동 등	휴식	낮잠, 명상, 산책, 특별히 하는 일 없음 등	집, 카페, 공원	
	운동	축구, 헬스, 요가, 자전거타기 등	집, 헬스장, 동네 운동장	동호회
	PC, 스마트폰 (구분해서 작성)	게임(종류)	집, 카페, 친구집, PC방 등	PC방: 친구
		카카오톡, SNS(인스타그램, 트위터, facebook 등, TV(뉴스, 드라마 등)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내용: 음악, 드라마)		
		음악 듣기		
		인터넷 검색,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활동		
	영화관람	영화관 가기	영화관	영화관:친구
	모임	친구 만나기, 동호회활동(종류)	카페, 식당	친구
	취미활동	독서, 그림그리기, 악기연주, 사진 찍기, 레고 등	집, 화실	친구

건강	진료, 질병치료, 상담	치과, 한의원 내과 등	어머니
식사	한식, 햄버거, 라면, 짜장면 등	집, 버거킹, 식당	집: 부모님
기타	구체적으로 활동과 장소, 동행인 작성		

2) 1차 면접조사 자료수집 및 자료 관리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조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구참여 동의서를 해당 기관 담당자를 통해 수령하고 청소년의 조사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기관 IRB에서 요구하는 연구목적 및 비밀보장, 개인식별정보의 익명화 등의 내용 뿐 아니라 청소년이 패널로 구축되어 올해부터 향후 3년간⁸²⁾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외 조사 설명문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또 미성년자임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서 수령까지 일련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섭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중도 포기하였다.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이 구축되어 조사참여자가 정해지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원 선발 및 교육과정을 거쳤다. 현실적으로 연구자 1인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본 심층면접을 위해 질적 조사 경험 뿐 아니라 청소년 인터뷰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와 박사과정생을 질적연구 전문가를 통해 추천받았다. 이들과 본 연구의 연구자, 그리고 조사위탁기관이 훈련된 면접원이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조사내용 숙지, 그리고 면접조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심층면접 시에는 조사대상자의 언어적, 비언적 표현이나 태도, 면담시 분위기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현장노트(field note) 등을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조사의 경우 COVID-19로 인해 모두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진행하면

82) 본 연구는 2022년까지 수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은 향후 2회 정도 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서 이러한 관찰 및 현장노트 작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제한적 환경에서도 최대한 청소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하였다. 온라인상의 면접 진행은 학교 밖 청소년 섭외를 위한 유관기관 연락 시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대부분의 기관과 청소년이 대면면접을 기피하고 온라인 화상면접을 선호하였으며, 면접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한 청소년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본인 노출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면접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의사항들도 사전 고지하였으나 실제 면접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조사 초반 청소년이 면접에 참여하는 동안 가족이 청소년의 방문 뒤에서 듣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심지어 직접 개입하려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후 면접조사 시 이 부분에 대해 당부하고 청소년이 편하게 독립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간혹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거나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의 경우 장소를 이동하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 조사 참여 청소년에게 먼저 본 조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였으며, 언제든지 청소년이 원할 때 면접을 그만둘 수 있음도 안내하였다. 또한 면접조사 이후에 불확실한 내용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추후 연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면접은 최소 50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면접이 종료된 이후 음성파일은 전사 자료화되어 분석을 위해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사례로 지급되었다. 또한 기존 패널의 면접조사 결과물 관리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면접 음성파일과 전사자료들은 향후 신규 패널 질적자료 DB구축을 위해 별도로 관리될 예정이다.

3. 질적연구 분석 결과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및 분석 방법

(1) 연구참여자 특성

1차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33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V-5와 같다. 앞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구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33명 중 남자 청소년이 12명, 여자 청소년이 21명이었으며,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7명, 중소도시 12명, 읍면지역 4명이었다.⁸³⁾ 또한 꿈드림을 통해 섭외된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열심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연락처가 꿈드림에 있을 뿐 본 면접조사 참여 안내 카카오톡 공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조사에 응한 경우도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5~16세가 5명, 17~18세가 가장 많은 21명이었고, 19세인 청소년은 6명, 만 20세가 1명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한명,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2명이었으며, 대부분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사별, 이혼, 별거 등에 따른 한부모가정인 사례도 많았다. 학교 밖 유형별로는 학업형이 19명, 직업형이 6명, 무업형이 8명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할 때 학업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밝힌 청소년은 9명이었고, 이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었으며, 동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으로부터 생계비, 도시락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이미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고, 현재 꿈드림과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들도 여러 명 있었다.

83) 대도시와 달리 읍면지역 꿈드림의 청소년 이용자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으며,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이 더해져 섭외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읍면지역 청소년의 경우 차년도에 좀 더 패널에 포함시켜 적어도 2년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본 연구가 당초 계획대로 2022년까지 연속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거의 전부가 2019~2020년 상반기에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예외적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에 그만둔 사례가 각각 1건씩 있었고, 아예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었다. 한 청소년은 COVID-19로 인해 학교수업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고민하던 학업중단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중학교시절, 일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업중단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수년간 고민하고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입학 직후 또는 재학 중일 때 학교를 그만둘 것을 결정하였다.

표 V-5. 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번호	기본 현황					학교 밖 관련			현재생활
	연령 (만)	성별	거주지 규모	가족관계 (주관적) 경제상황	이용시설/ 지원기관	학교밖 유형	학교중 단시기	학교중단 주요사유	
연구 참여자 1	17	남	특별·광역시	한부모가정 (아버지)	-	꿈드림	무업형 중 1	집단따돌림, 교사와 갈등	바리스타, 검정고시 공부
연구 참여자 2	17	여	중소도시	한부모가정 (아버지), 여동생	어려움	청소년쉼터	학업형 2020년 3월	틀에 박힌 학교 생활, 집단따돌림	검정고시 공부
연구 참여자 3	15	남	중소도시	부모님, 여동생	-	꿈드림	무업형 중 1	운동실력 증진	검정고시, 영어 공부, 축구연습
연구 참여자 4	17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남동생	-	꿈드림	학업형 2019년 11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음	검정고시 응시 후 휴식
연구 참여자 5	18	여	중소도시	한부모가정 (아버지), 남동생 2명	-	꿈드림	직업형 2019년 5월	학교 부적응, 건강 문제	검정고시 응시
연구 참여자 6	19	여	중소도시	조부모님, 삼촌 2명	어려움	청소년쉼터	직업형 2018년 고 2	친구 관계, 경제적 어려움	네일아트 공부
연구 참여자 7	17	남	중소도시	고모, 할머니, 누나 1명 (다문화 가정)	-	청소년쉼터	학업형 중 2	학교부적응	고등학교 입학 준비
연구 참여자 8	18	남	특별·광역시	부모님 누나 2명 여동생 1명	-	청소년쉼터	직업형 2019년 8월	학교 복고 시 부적응	검정고시 응시 후 쉼(놀이),
연구 참여자 9	17	여	중소도시	부모님, 여동생 1명, 남동생 1명	-	꿈드림	학업형 2019년 4월	친구 관계, 빠른 대학 진학을 위해	인턴십 참여
연구 참여자 10	19	여	중소도시	부모님, 동생(가정폭)	-	청소년쉼터	무업형 2019년 고 2	틀에 박힌 학교 생활,	휴식과 운동

번호	기본 현황					이용시설/ 지원기관	학교 밖 관련			현재생활 현재하는 일
	연령 (만)	성별	거주지 규모	가족관계 (주관적) 경제상황			학교밖 유형	학교중 단시기	학교중단 주요사유	
				력 피해)					주입식 교육	
연구 참여자 11	18	남	특별·광역시	부모님	어려움	유사 지원기관	직업형	2019년 6월	학교에 대한 흥미 없음	인턴십 참여
연구 참여자 12	17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남동생	-	꿈드림	무업형	2020년 7월	학교 부적응, 공황장애	쉼(놀기)
연구 참여자 13	18	여	중소도시	한부모가정 (아버지), 언니 2명, 오빠 1명	-	꿈드림	학업형	2018년 1학기	친구 관계, 교사 무관심	검정고시 공부
연구 참여자 14	18	여	중소도시	부모님, 동생 1명	-	꿈드림	학업형	2019년 7월	학교폭력 피해	휴식 후 자격증 준비 예정
연구 참여자 15	16	남	특별·광역시	한부모가정 (어머니) 여동생 1명	-	꿈드림	무업형	2018년 10월	규칙적인 생활 어려움	학업
연구 참여자 16	18	남	특별·광역시	한부모가정 (어머니)	-	유사 지원기관	학업형	2019년 5월	본인 일과 학교생활 충돌	메이크업 관련 진 로/자격증 준비
연구 참여자 17	17	남	중소도시	부모님, 누나 3명	어려움	청소년쉼터	학업형	2019년 4월	교사와의 갈등	바리스타 공부
연구 참여자 18	18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남동생 1명	-	유사 지원기관	무업형	2019년 5월	친구 관계	-
연구 참여자 19	17	남	특별·광역시	어머니와 거주	-	유사 지원기관	무업형	2020년 (고등학교 미진학)	학교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토익 공부
연구 참여자 20	18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오빠 1명	-	꿈드림	학업형	2019년 4월	건강 문제, 친 구관계, 강압 적인 학교	수능 준비
연구 참여자 21	18	여	특별·광역시	한부모가정 (어머니) 자매 2명	-	꿈드림	학업형	2019년 8월	틀에 박힌 학교 생활	수능 준비
연구 참여자 22	18	여	중소도시	부모님 오빠 1명	-	꿈드림	학업형	2019년 11월	집단따돌림	수능 준비
연구 참여자 23	18	남	특별·광역시	한부모가정 (아버지)	어려움	꿈드림	학업형	2019년 10월	교사와의 갈등, 집단따돌림	대학 입시 준비
연구 참여자 24	15	여	특별·광역시	엄마, 여동생 1명	어려움	청소년쉼터	무업형	2019년 5월	틀에 박힌 학교 생활, 교사의 폭력	휴식, 인턴십
연구 참여자 25	19	남	특별·광역시	엄마, 여동생 2명	어려움	꿈드림	직업형	2018년 12월	틀에 박힌 학교 생활	취업 준비, 진로 탐색

번호	기본 현황					이용시설/ 지원기관	학교 밖 관련			현재생활
	연령 (만)	성별	거주지 규모	가족관계	(주관적) 경제상황		학교밖 유형	학교중 단시기	학교중단 주요사유	현재하는 일
연구 참여자 26	18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언니 1명, 남동생 1명	-	꿈드림	직업형	2019년 11월	집단따돌림, 교사 무관심	청소년작업장 출근
연구 참여자 27	19	여	특별·광역시	부모님, 언니1명	-	꿈드림	학업형	2019년 4월	친구 관계, 낮 은 성적	대학 진학 준비 (수능 준비)
연구 참여자 28	18	여	특별·광역시	한부모가정 (아버지), 남동생,고모	어려움	꿈드림	학업형	2019년 8월	집단따돌림	대학 진학 준비, 꿈드림 멘토링 참여
연구 참여자 29	16	여	중소도시	부모님, 오빠 1명	-	꿈드림	학업형	2019년 중1	친구의 따돌림 피해에 대한 죄책감	학업
연구 참여자 30	17	남	읍면지역	부모님, 누나 1명	-	꿈드림		2019년 7월	교환학생 가기 위해	꿈드림 참여, 스 페인어 공부
연구 참여자 31	16	여	읍면지역	부모님, 언니 1명	어려움	꿈드림		2019년 중 2	진로 결정 후 학업중단	바리스타 체험, 검정고시 준비
연구 참여자 32	19	여	읍면지역	한부모가정 (어머니), 오빠 1명	-	꿈드림		초 4	학교 부적응, 친구 관계	디자인 컴퓨터 등 관심 있는 것 배우기
연구 참여자 33	20	여	읍면지역	부모님, 자매2, 형제2	-	꿈드림		2016년 고 1	집단따돌림	검정고시 공부 (인터넷 강의)

(2) 분석 방법 및 연구의 엄격성

① 질적자료 분석

학교 밖 청소년 면접결과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Inductive analysis)을 수행하되,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⁸⁴⁾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귀납적 분석방법으로 개방코딩 이후 범주화와 범주 확인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읽고, 비교하면서 분류하는 작업이다(Patton, 2001;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324).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면접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단위들을 발견하고 이를 하위범주

84) 이는 근거이론의 주요 분석적 접근으로, 질적비교분석법(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또는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이라고도 불리며 비교분석을 통해 사례들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Patton, 2001).

→ 범주화하는 작업은 귀납적 특성을 갖지만, 이후 범주 확인 작업에서는 연역적 과정을 병행하였다. 범주 확인 작업이란 “범주화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범주가 연구의 질문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재확인하는 것”(유기웅 외, 2018: 337)으로,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의미 있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주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방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면접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메모하면서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점검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에 나타나는 여러 의미들을 개념화하고 이를 범주화하기 위해 반복적인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전사 자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개념이나 표현들에 주목하였고, 또 청소년들이 어떻게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예, 학교는 ‘감옥’,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쓰레기’ 등). 또한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놓친 의미들이 없는지 확인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자료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동일한 행동이나 동일한 상황에 대한 의미부여나 해석에 차이가 있는지도 탐색하였다(예,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특정 주제가 있는지, 또는 면접초기와 중기, 후기에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지는 않는지,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 → 후회하지 않음으로 다르게 진술하는지 여부, 학업중단의 결정적인 사유가 면접초기와 후반에 차이가 있는지 등).

범주화 작업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역적 과정을 통해 재확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석 초기에 수행된 의미단위의 도출과 범주화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전사 자료를 통해 재확인하고 필요시 범주를 재 수정하였고, 일부 상위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구성이 완료된 범주들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올해 면접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은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면접내용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모두 분석, 기술하고자 하였다. 차년도부터는 올해 조사결과를 통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나 기존 패널에서와 마찬가지로 발달단계나 시의성 등을 고려한 주제에

대하여 중단·횡단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범주 재확인 작업이외에도 분석 결과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엄격성을 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면담자료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삼각검증과정을 거쳤다. 또한 사회과학분야 질적연구 전문가 2인으로부터 의미단위 도출, 범주화의 작업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점검과 논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② 생활시간 분석

학교 밖 청소년 5인에 대한 생활시간 분석을 위해서 각 연구참여자들이 평일과 주말 각각 하루 24시간동안 각 시간대별로 입력한 주된 활동과 장소, 동반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들의 주된 일과가 무엇인지, 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을 하면서 여가/자유 시간을 보내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과 수면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연구참여자별로 수면시간, 학업/학원/꿈드림 이용 시간, 인턴십/아르바이트 시간, 여가시간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한 시간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생활시간 분석 결과는 현재 생활 및 일과 탐색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다.

2) 분석결과: 학업중단 계기 및 학업중단 과정

(1) 학업중단 계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응답한 학업중단 계기는 매우 다양하며 또 복합적이어서 단일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기보다는 불편한 또래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학업부진 등이 겹치면서 학교를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전체 사례 중 절반 가까이가 집단따돌림, 또래로부터의 폭력, 친구관계의

불편함 등을 학업중단 계기 중 하나로 언급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서는 결정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데 주요 역할을 한 계기들을 중심으로 의미들을 범주화하였으며, 이러한 의미들은 영역별로 크게 개인차원, 또래관계차원, 학교차원으로 구분하였다(표 V-6).

표 V-6. 학업중단 계기

영역	범주	하위범주
개인 차원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위해	원하는 진로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방해되는 학교생활
	의미 없고 도움 되지 않는 학교생활	엄매이는 학교생활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학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함
		부모 부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의미 없는 학교생활
	정신건강 문제와 스트레스	
또래 관계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피해	과거의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현재도 힘든 학교생활
		이전의 따돌림/괴롭힘 원인이 현재에도 폭력 피해의 원인이 됨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
	친구/대인 관계의 어려움	또래관계도, 사람 대하는 것도 다 힘들 관계의 어려움과 학업부진
교사/ 학교	교사의 무관심과 심한 갈등, 폭력	무관심한, 신뢰할 수 없는 교사 교사와의 심한 갈등, 교사의 폭력 행사로 학교를 떠남
	감옥 같은 학교, 안 좋은 분위기의 학교	감옥같은 학교
		안 좋은 분위기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
	학교생활 자체에 적응하지 못함	

가. 개인차원: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위해

① 원하는 진로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의 당초 진로계획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다른 관점에서는 결국 의미 없는 학교생활로 범주화 할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계획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유지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한

계기는 다양했으나,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진로를 탐색하거나 빠른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4번 청소년은 특성화고의 전공이 부적합하여 다른 진로를 탐색하고 이른 진로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9번 청소년은 비록 학업중단의 발단은 오래 기간 친구들과의 갈등과 따돌림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보다 대학을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계기로 보고하였다. 30번 청소년은 무용 쪽 진로를 준비 중에 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교환학생으로 가려면 어차피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으나 그 과정에서 학교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적응하기 힘들었다고도 이야기하였다

(친구들은 다 전공을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저는 굳이 ○○쪽으로 가야 되나 싶어서 그냥 나중에 내가 자퇴를 하고 다른 거를 더 공부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점점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져서, 그냥 자퇴하고 다른 거 하자**(중략)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전공이 있으니까 그게 배우기 조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빨리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빨리 쳐서 자격증도 따고.... (연구참여자 4)

일단은 대학을 일찍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그 때부터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보다 대학을 2년 정도 일찍 갈 수 있으니까. (연구참여자 9)

원래 옛날부터 제가 유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교환학생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중학교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선생님들이 너무 강압적이고,** 제가 남고를 또 들어갔거든요 (연구참여자 30)

② 원하는 진로와 맞지 않은 학교생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이미 어린 시기에 본인의 진로를 정하고 이와 맞지 않은 학교생활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는데, 주로 예체능 분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한 운동특기 청소년은 학교 수업시간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여,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였으며(연구참여자 3), 또 다른 청소년은 이미 고등학생 시기에 미용분야의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는 중에 학교생활과 충돌하면서 같이 병행하기 어려워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연구참여

자 16). 이 경우는 본인의 일로 인한 결석·지각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것에 부당함을 느껴 결국 학교를 그만둔 것인데, 이렇게 조기에 진로를 정한 청소년들에게는 현재와 같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이돌 오디션을 위해 연습이 더 필요하던 차에 친구와의 다툼과 겹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도 있었다(연구참여자 31). 그러나 결국은 가정 형편때문에 오디션에 합격했음에도 꿈을 이루지는 못해 안타까운 사례로 남았다.

(메이크업 일) 계속 평일에도 있는데, 어떻게 무단결석도 하게 되고, 지각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막상 한 것도 없는데 징계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놀러 다닌 건 아니잖아요.** (중략) 근데 제가 약간 부당한 일을 보면 못 참는? 내가 학교에 메이크업 하고 왔다고 해서 **내가 징계 받고 청소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들었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그만 뒀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6)

(부모님께) 자퇴하기 한 달 전쯤에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연습을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쯤에 제가 친구들이랑 크게 싸웠었어요.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힘들어서 (연구참여자 16)

나. 개인차원: 의미 없고 도움 되지 않는 학교생활

① 얽매이는 학교생활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의 정해진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싫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진로를 학교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21). 또 다른 청소년은 학교에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싫기도 했지만 스스로 공부해도 성적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워했다(연구참여자 2). 이 사례의 청소년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입학 시에도 학교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중학교 시기부터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했던 사례는 이후에도 여럿 나타나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교를 그만둔) 계기는 일단 너무 학교안에서 **정해진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냥 별로 하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공부 말고는 딱히, 그래서 결정하게 됐어요 (면접자: 정해진 대로만 하는게 힘들어서요? 네. (연구참여자 21)

제가 원래 시간을 딱딱 정해 놓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싫어해서, 스스로 해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는데 굳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서, 고등학교 때는 자퇴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2)

②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학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함

학업에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했으며, 잦은 결석으로 이어져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수순을 밟는 사례도 상당 수 있었다. 이런 사례 중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학교 시기부터 학업중단을 생각한 경우가 많았으며, 고등학교 시기에 결국 실행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11번 청소년은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결석하다가 결국 학교를 다닐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 사실 흥미가 없어서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중략)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솔직히 할 게 없는 거예요. 50분 동안 제가 수업을 집중해서 듣지도 않고, 그 려다고 핸드폰이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흥미, 재미가 아예 없어서 왜 다니지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는데** (학교를) 많이 빠지게 되니까 (연구참여자 11)

또 다른 청소년 역시 중학교 1~2학년 시기에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이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다(연구참여자 19번). 이 청소년의 경우처럼 대학진학을 희망함에도 정규교육인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선택한 사례는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면접자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처음 생각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청소년 **정확히 학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중략) 1~2학년, 그쯤에 (연구참여자 19)

③ 부모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의미 없는 학교생활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중 가정 및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호소한 몇몇 사례가 있었다. 그 중 연구참여자 6번 청소년의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가정형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했다. 학업에 흥미가 없어 학교에서 잠자는 시간에 차라리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도 이야기 했다.

저는 우선 학교를 자퇴한 이유가 원래 이제 알바를,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었고** 그 때 당시에 가정사정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차라리 그냥 학교에서 잠자는 시간보다 그 시간에 알바를 해서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퇴를 했어요(연구참여자 6)

이 청소년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의미 없는 학교생활이었기에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이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그림 V-2에서 보듯이 매우 복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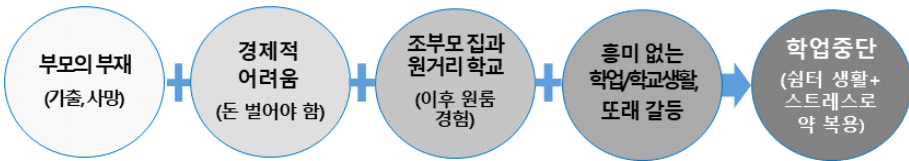


그림 V-2. 복합적 사유에 따른 학업중단 예시

부모의 부재(가출, 사망)로 조부모집에서 생활하였으나 학교가 멀었고, 결국 원룸에서 지내다가 현재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과거 학교 친구들과의 갈등도 경험한 상태에서 학업에 흥미도 없었고, 학교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약을 먹고 있었으며, 더불어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다각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태였다.

다. 개인차원: 정신건강 문제와 스트레스

심리정서적인 문제,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보고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중학교시절부터 공황장애로 자주 쓰러지는 증상을 보인 연구참여자 12명 청소년은 이 문제로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당부로 진학했고 동일 증상이 나타나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또 다른 청소년(연구참여자 20)은 중학교 시기부터 건강상태가 안 좋았으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이로 인해 결석이 잦았다고 구술하였다. 새로 학교에 진학하여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제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다니겠다. 시험보야 되는데 쓰러지고 학교도 못 가고 막 이래서, (중략) 쓰러져서 교무실 가고. 증상이 똑같아서, 일단 고등학생 되고 나서 처음 쓰러지고, 깨어났을 때 드는 생각이 아 이걸 3년 또 하라고 라는 생각이, 그래서 안 되겠다 (연구참여자 12)

공황장애와 같은 심각한 질병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낯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들 청소년들의 중학교시절을 거쳐, 고등학교 시기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고 결국 각자 예상했던 대로 학교를 그만둔 원인이 되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기에 낯선 환경과 사람들과의 대면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적응에도 영향을 끼친다. 더구나 연구참여자 20명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특히 12명 청소년과 같이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입학 후 더욱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학교급 전환 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면접자 아까 건강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중단을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청소년 일단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자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중략)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미 고등학교를 입학했고, 가서 밥도 못 먹고 건강 때문에 자주 빠져야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퇴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또 모르는 애들 사이에 있잖아요. 입학 중이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자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면접자 그러면 최종 결정, 4월, 그 4월에 이제는 중단해야겠다 라고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3월은 그냥 한 번 보내보시고

청소년 (고등학교는) **확실히 중학교랑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4월이 시험기간이잖아요. (중략) **그 압박감을 못 견디겠다?** 그때부터 확신이 든 거죠.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견디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더 안 좋아서 학교를 일주일도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 자퇴가 나올 것 같다, 항상 이럴 것 같으니까 자퇴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0)

라. 또래관계 차원: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피해

① 과거의 따돌림 피해경험으로 현재도 힘든 학교생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과거의 집단따돌림 경험이 학교를 그만두는 계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때의 경험으로 사회성이 결여되었고 관계 맺는 것에 서툴러 친구도 잘 사귀지 못했으며 학교부적응으로 결국 학교를 떠난 사례도 있었다. 14번 연구참여자자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의 학교 폭력 피해로 이후 친구를 못 사귀는 성격이 되었고, 이후 다니게 된 기숙학교에도 부적응하여 학교를 ‘탈출’하고자 했다.

제가 좀 친구를 못 사귀는 성격이었어요. 사교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제가 학교를 기숙으로 갔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성격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해봤자 나에게 좋은 점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1학년 때 빨리 자퇴하는 게 낫다고 (연구참여자 14)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 따돌림 경험을 보고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14번 청소년처럼 이후 심리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쳐 결정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과거의 따돌림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와 부모의 추가적인 관심과 개입, 그리고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쉬운 장면이다.

② 이전의 따돌림/괴롭힘 원인이 현재에도 폭력 피해의 원인이 됨

중학교시절,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의 또래들의 이간질과 따돌림, 괴롭힘이 이후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이어져 지속적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도 있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연구참여자 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로 진학하면서 다 같이 알게 된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과 따돌림을 당했고, 같은 동네에서 피해 다닐 정도로 심리적인 피해가 큰 상태였다.

청소년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친했던 친구가 저를 이간질하듯이 개네 들한테, 개네들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고, 저는 혼자고, 그쪽은 무리다 보니까 조금 왕따 시킨다던 지 무시를 한다던 지 (중략) 그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면접자 **그쵸. 그럼 그 학생들이랑 중학교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많이? 동네 친구들인건가?**
 청소년 **아예 같은 동네에다가** 학교들이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있는데 **같은 학교로 배치가 되어서**, 그래 가지고 되게 많이 엄청 마주치고, 그 무리들이 여러 명에서 저랑 같은 반을 배치 받은 적도 많이 있어서. (중략) 같은 동네다 보니까. 이사를 가지 않아서 계속 마주치는데, **저는 개네랑 마주치는 거부터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숨어서 피해 다닌다던 지 아직도 그런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연구참여자 9)

제가 중학교 때 좀 안 좋은 소문이 났었어요. 남자애 한 명 때문에, (중략) 중학교 때 3년 동안 잘 버티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새로 시작한 마음으로 다니려고 했는데, 그 안 좋은 소문을 났던 그 남자아이의 친구가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애들한테 (중략) (면접대상 청소년이) 좀 안 좋은 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서 그것 때문에 애들이 저를 피하고 친구들이랑 다 멀어지고, 계속 수군수군 대고 이런 게 **3년 동안 버텼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연구참여자 13)

또한 중학교 시기 안 좋은 소문 속에서 겨우 버텼으나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동일 사안의 소문과 이로 인한 따돌림 및 언어적 폭력으로 결국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3). 이렇게 동일 지역사회 내 교급 전환이후에도 또래들의 괴롭힘과 또래들의 계속되는 소문 유포 등으로 고통이 이어지면서 결국 청소년들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학업중단 이전 누적된 과거의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하는 부분이다.

③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

과거의 폭력 피해 경험과 관계없이 집단 따돌림이나 좋지 않은 소문으로 학교를 그만둔 사례들도 있었다. 욕설과 함께 학교에 헛소문을 내는 것 때문에 힘들어 했고(연구참여자 26), 초등학교 시기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고등학교 시기에는 성적정체성 아웃팅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소문과 폭력으로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연구참여자 22). 특히 학업중단 과정에서의 교사의 부정적 역할에 대해 이후에 상세히 다루겠지만 26번 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데 일정 부분 교사의 냉담한 태도가 기여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사건에 대해 **친구가 헛소문을 낸 거예요**. 제가 하지도 않은 거, 그리고 이제 온갖 욕을 다 섞어서 제 욕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애들이 저를 안 좋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저랑도 안 다니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선생님은 그런식으로 차갑게 대했고** (연구참여자 26)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2 때도 그렇고, 왕따 안 당한 시기를 고르는 게 손에 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는 좋은데 학교를 다니면서 애들은 별로죠. (중략) 제가 솔직히 약간 반 **왕따 당해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소문(성적정체성에 대한)이 퍼져서** 자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연구참여자 22)

연구참여자 32번 청소년은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정규학교로 오면서 적응이 어려웠고 결정적인 계기는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에서 걷도는 것이 불편했다고 회고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 역시 학교에서의 따돌림으로 인해 이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음에 따라 학교를 그만두었다(연구참여자 33). 이 청소년의 경우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었으며,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학교 안에서의 이러한 폭력 피해에 대한 학교체제와 조기 개입의 필요성, 또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꿈드림체계에서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결정적인 것은 거기 애들하고 사이가 좀 어색했어요. 나쁜 것은 아닌데, **은따** 같은 것 있잖아요? 왕따는 아닌데, 좀 **애매하게 걷도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2)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학교 폭력** 수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제가 그때는 속으로 너무 화가 났었고,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친구들을 보기만 하면 막 심장이 미어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연구참여자 33)

마. 또래관계 차원: 친구/대인 관계의 어려움

① 또래관계도, 사람 대하는 것도 다 힘들

집단따돌림이나 폭력 피해 외에도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은 많은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였다. 연구참여자 18번 사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따돌림 받는 친구를 돕기 위해 주변을 말리는 등 중간에서 친구관계를 중재하는 것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그 환경인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학교를 거부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 의도치 않게 친구를 따돌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29번). 이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 시기 친구와 갈등 중에 다른 또래들이 연구참여자의 편을 들면서 갈등의 상대방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는데, 청소년은 이러한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학업중단을 생각하다가 결국 중 3시기에 학교를 떠나게 되었

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기 특성상 그 어느 때보다 또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또래와의 갈등, 불편함이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애가 왕따 돼서 제가 그걸 돕다가 막 그렇게 막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관계에 너무 이른 나이에 상처를 받아서 안 간 것 같아요. (중략) **관계에 너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단체에 있는 거 자체가 그 때 너무 충격이 커서 학교를 약간 거부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연구참여자 18)

(중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친구 관계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중략) 친구 한명이랑 크게 싸웠는데, 다 제 편을 들어 가지고 개가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 잘 지낼 생각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개가 이제 싫은거죠. 근데 **저는 그때 좀 죄책감도 많이 느꼈고 저 때문인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29)

② 관계의 어려움과 학업부진

청소년들은 복합적인 사유로 학교를 떠나지만 가장 큰 변수는 또래관계와 학업 성적이었다. 선후관계와는 별개로 이 두 가지 이유가 합쳐질 때 많은 경우 청소년들은 학교를 계속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27번은 친구들에게 특별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잘 어울리지 못함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았고, 성적이 너무 낮아 검정고시를 목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청소년 **친구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도 않았고 성적이 너무 낮아가지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중략)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친구관계에서요
면접자 여러 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좀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청소년 괴롭힌 건 아니고 그냥 잘 어울리지를 못했다고 해야 하나 (연구참여자 27)

아래 28번 연구참여자 사례는 낮은 학업성적으로 은근히 따돌림을 받았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학교에서의 학업을 유지하는 것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고 학교를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 부진이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같은 반 된 친구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어서 저랑 좀 안 맞아서 **저를 은따같은 걸 시키더라고요** (중략)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가지고 공부 같은 것도 어차피 못하니까** 그냥 일찍 그만두고 나 혼자 다른 걸 찾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8)

바. 교사/학교차원: 교사의 무관심과 심한 갈등·폭력

① 무관심한, 신뢰할 수 없는 교사

앞에서 악성 소문과 집단따돌림으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사례에서 교사의 태도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 사례의 전반적인 면접 내용을 보면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로까지 이어진 악성 소문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13번 연구참여자자는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무관심했던 교사를 학업중단 사유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무관심한 태도 외에도 교사에 대한 불신을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14번 청소년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하면서 교사가 학교 폭력 사건을 덮고자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불신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학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런 소문이 나고,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냥 상담만 받아라 그러시고, 그냥 무관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학교 다녀도 **어차피 선생님들도 이렇게 무관심한데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연구참여자 13)

(저는) **학교 폭력 경험자**였어요. 중학교 때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는 곳 자체가 저에게 그다지 믿음직스러운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소설에나 나올 법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덮어 놓고 쉬쉬하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이거 이거 학폭위에 알리면 이게 퍼지고, 트라우마만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사과는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저는 좋은 대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 사라져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 (연구참여자 14)

② 교사와의 심한 갈등, 교사의 폭력 행사로 학교를 떠남.

교사와의 문제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사례는 상당 수 발견되었으며, 교사가 학생에게 크게 상처를 준 사례들도 있었고 교사와 학생 간 심각한 갈등을 발단으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1번 청소년의 사례는 교사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치명적인 잘못 때문으로, 청소년의 과거 집단따돌림 경험을 드러내놓고 말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자존감이 낮았던 청소년으로 하여금 낙인찍혔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또한 교사가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고 시도하는 등 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둘 결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청소년은 기숙학교의 엄격한 통제 뿐 아니라 교사의 폭력 행사,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상처, 무관심 등으로 우울감이 찾아 왔으며 이를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학교를 떠났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24)

왕따를 당하고 학폭위원회를 열어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되게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한 번 학폭을 열었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민감했었는데, 그때 이제 **체육 시간에 체육선생님이 너 왕따 당했잖아,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중략).

중학교 때, 그래서 체육선생님이 이제 큰일 날 줄 알았는지, 거기 불려서 내가 잘못 했으니까 그냥 받아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 하고, 그래서 그냥 진짜 여기서 학교 생활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나는 낙인 찍혔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서 그래서 그냥 그때 이후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안 다녔어요 (중략)

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내가 이걸 미안하니까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냥 덮으려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연구참여자 1)

선생님들이 **폭력을 행사를 한다던가, 저한테 말로 상처를 줬다던가**, 선생님들이 잘 챙겨 주지도 않고, 제가 놀러 나가고 뛰어 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게 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감이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계속 감당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집을 썰어서 뛰쳐 나왔어요 (연구참여자 24)

수업시간에 다른 급우들과 떠들었다가 선생님에게 연달아 지적을 받으면서 자신만 차별한다고 교사에게 과격히 대들거나(교사의 팔을 잡음), 청소년의 일탈과

관련하여 교사가 가정교육에 대해, 특히 어머니 탓을 함에 따라 학생-교사 간 심한 갈등을(쌍방 폭력 행사) 겪어 퇴학을 예상하여 학교를 그만 둔 사례들도 있었다(연구참여자, 23, 17).

저 말고 다른 애들이 다 떠돌고 있었거든요. 학교가 실업계여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떠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 저한테 오셔서 저를 직접 지목하시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략)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애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만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좀 대들었는데, 그러다가 선생님의 팔을 잡았는데 선생님이 뿌리치려고 흔드시다가(중략) 그러고 나서 퇴학 당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바로 자퇴했어요 (연구참여자 23)

중학교 2학년 중반부터 갑자기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욕하고 담배피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중략) 너 집안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어머니가 그만 식으로 가르쳤냐 이러면서 엄마를 자주 들먹이니까.** (중략) 이제 점점 선생님들이랑도 갈등이 계속 생기고 선생님들이랑 되게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7)

이 사례들은 오해가 있었다고 해도 청소년이 교사에게 심하게 대들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위의 교사의 결정적인 잘못과 통제, 폭력행사에서 청소년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는 교사로서 적절하게 대처했는지의 측면에서는 모두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17번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결정적인 계기는 학교에서의 교사·학교장과의 갈등과 다툼, 폭력행사였으나 그 전에 가정에서 폭력피해와 학대를, 그리고 집을 나온 후 일탈과 비행 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다. 청소년의 구술 내용을 거슬러 살펴보면, 청소년의 표현대로 ‘사고를 치면서’ 결국 학교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그 사고를 친 이유가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게 되어 집을 나가게 된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청소년은 이후 다른 일탈 청소년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사고를 치게 되어’ 학교에 나쁜 인상을 주게 된 것이 교사와의

갈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제 사고치는 이유도 솔직히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맨날 맞거나** 그래 가지고 나가면 서 형들 따라다니면서 사고를 되게 많이 친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되게 조용하게 지내고 말도 안하고 학교에서도 사고를 안치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중 반부터 갑자기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욕하고 담배피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좋게 봤는데 1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아졌다 (중략) 그 학교도 아파서 못 나간 날도 많고 좀 그런 게 많아서 안 나갔는데 유급 7일 전부터는 또 한 달 정도는 나가다가 아버지한테 맞다 보니까 또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유급시키겠다 하길래 그냥 아 시키세요 (연구참여자 17)

청소년이 구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V-3과 같다. 이 사례는 학업중단 현상 만으로도 필요한 지원들을 통해 개입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 놓여있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에 주목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개입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V-3. 청소년의 구술대로 구성한 학업중단의 배경과 계기

또한 이러한 사례는 가정폭력에 시달린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개입과 또래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학교에서의 불행한 경험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들이 먼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미래에 대한 설계와 구체적인 진로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현재 보호관찰 중인 이 청소년은 쉼터에서 지내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관리하는 법을 배우며 향후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 교사/학교차원: 감옥 같은 학교, 안 좋은 분위기의 학교

① 감옥 같은 학교

학교 밖 청소년과의 면접과정에서 학교는 감옥 같고, 학교생활은 시간낭비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학교는 하루 종일 갇혀있는 감옥 같은 곳이고, 그곳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회성의 쓸모없는 것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0), 앞서 교사의 폭력과 무관심에 대해 언급한 연구참여자 24번 청소년은 감옥 같은 학교의 통제 시스템 역시 학교를 떠난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에 학교의 의미에서도 좀 더 다루겠지만 학교를 감옥처럼 표현하면서 정규학교 교육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례는 상당수 있었다.

뭔가 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머리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는 일회성이라고, 뭔가 **머리에 집어넣는 게 일회용 쓰레기** 같았어요. (중략)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6년 동안,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게 과연 나만 하는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중략)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7시, 8시쯤부터 10시, 11시까지 학교에 계속 갇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감옥 시설처럼** (연구참여자 10)

일단 **감옥이었어요**. 그냥 감옥, 자유시간도 많이 없었고, 주말에 쉬려고 해도 스케줄이 있었고, 통금이 너무 엄했고 핸드폰도 일찍 걷는 게 있었고, 외출을 나가도 그 근처에만 있어야 했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됐어요. (중략) 엄마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황에 저는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서 (연구참여자 24)

② 안 좋은 분위기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공에 적응하기 어려운 와중에 학교 특유의 분위기와 그 안에서의 교사들의 교육방식으로 힘들어하다가 학교를 떠난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5). 이 사례에서 청소년은 완벽주의적인 교사로 부터의 인해 지속적인 간섭과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전공이 맞지 않아 힘든 와중에 학급 학생들의 잦은 흡연으로 천식이 발생하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가면 아침 조회 시간에도 담임 선생님이 완벽주의자셨거든요. (중략) 아침에 등교 하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오늘은 잘 하자고, 어제 너네들 가고 나서 다른 선생님한테 어떤 애가 지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중략) 그 소리를 계속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전공이 ○○○과였어요. 처음에 **좀 적응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중략) 그 반에 남학생들이 담배 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담배 연기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천식이 생겼었거든요** (연구참여자 5)

아. 학교생활 자체에 적응하지 못함

중국 배경의 다문화 청소년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친인척이 학교 입학 절차를 모르는 바람에 학교를 늦게 입학하면서 적응이 힘든 사례도 있었다. 이 청소년의 경우 두살 어린 아이들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 자체에 적응이 안됐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7). 또 다른 청소년은 규칙적인 생활을 힘들어 하는 가운데 틀에 박힌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웠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15). 특히 이 청소년은 대안학교에 진학했으나 종교 학교라는 이유 때문에 역시 적응이 어려워 그만둔 사례인데, 중졸 검정고시 취득 후 특성화고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고민이 많았다.

다문화배경으로 한국생활 뿐 아니라 2년 늦게 시작한 학교생활까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청소년,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계속적인 학교 적응이 힘든 청소년들의 사례로 다양한 상황과 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왔는데, 그러다가 고모가 저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하는 지 모르서 가지고 2년 늦게 학교에 등록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년 적은 애들하고 1학년때부터 같이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때 좀 가기가 귀찮아 가지고 그런 게 있죠.. (학업중단숙려제 기간동안) 살짝 흔들리기는 했었어요 (중략) **학교 그 자체에 잘 적응이 안됐어요** (연구참여자 7)

계기는 일단 좀 부모님이랑 안 맞는 애기가 총돌 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규칙적인 생활이 좀 안 돼서**, 그게 제일 가장 큰 것 같아요. (중략) 일반 학교랑 너무 안 맞아서, 일단 애기 나온 게 대안학교를 다니자 해서, 그 쪽을 다니게 됐는데 대안학교는 뭔가 말 그대로 기독교 학교라서, 그것도 안 맞아서 그냥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자 (연구참여자 15)

본 절에서 파악한 학교를 그만둔 계기를 크게 개인, 또래관계, 학교차원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V-4와 같다. 청소년들이 진술한 많은 이야기를 단순하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시간 낭비 같고 의미 없는 학교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없어서, 또는 개인적인 심리정서적, 정신건강 문제로 그만둔 부분을 한 축으로 학교를 떠난 계기를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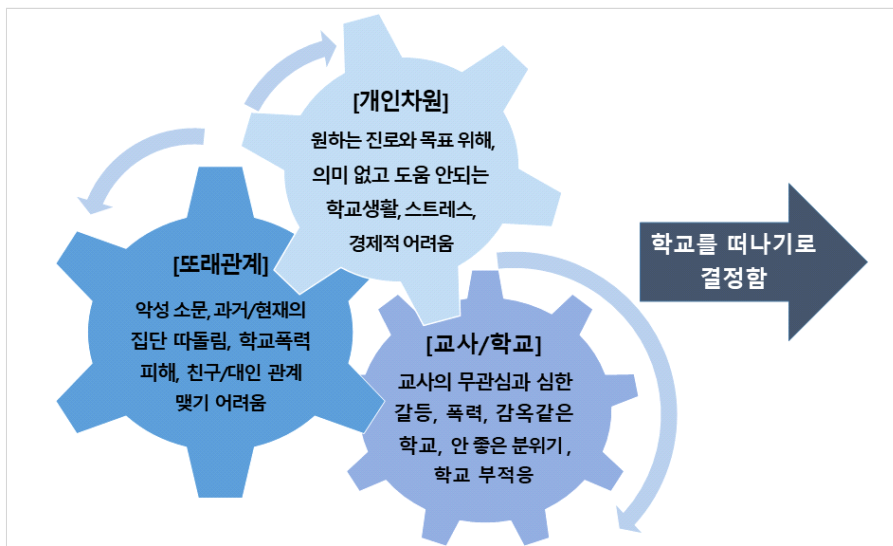


그림 V-4.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계기

또 다른 측면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과거와 현재의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 피해가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의 영향으로 개인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사의 무관심과 심한 갈등, 폭력,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감옥 같은 학교를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인차원, 또래관계, 교사 및 학교 차원의 여러 사유들은 상호연관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지역사회에서 중학교 때 부터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던 연구참여자 9번 청소년의 경우 학교 등교를 매우 힘들어하다가 결정적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본인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보다 일찍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또 다른 청소년은 경제적인 어려움, 학교에서의 또래 갈등과 학업에 흥미를 못 느껴 학교를 그만두었고(연구참여자 6번), 또래 갈등이나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과 부적절한 대처로 결국 학교를 떠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13, 14번).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둘러싼 상호 연관된 다양한 체계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또한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당장의 필요한 검정고시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경제적 문제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V-7.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이유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개인 차원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위해	원하는 진로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 특성화고 진학 후 전공에 맞지 않았고 다른 진로를 탐색하고 싶었음(4) - (친구들 간 문제가 있었지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면 대학을 일찍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함(9) - 유학(교환학생)을 위해 그만둠(30)
		원하는 진로와 맞지 않은 학교 생활	- 중학교를 중퇴하고 그 시간에 더 운동을 해서 축구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3) - 메이크업일로 생활때편이 안 맞아 결석일수가 너무 많았고 결국 자퇴함(16) - 아이돌 오디션 준비를 위한 연습을 진지하게 해보고 싶었음(31)
	의미 없고 도움 되지 않는 학교생활	엄매이는 학교생활	- 학교의 정해진 시간에 엄매이는 것이 싫고 학교에서 진로를 찾을 수 없었음(21) - 원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성적이 오를 수 있어 학교 다닐 이유가 없음(2)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학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함	-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맞지도 않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았음(8) -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 흥미가 없어서 결석을 많이 했었고, 왜 다니지라고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생각함(11) - 중1~2 시기부터 학교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고교 때 자퇴함(19) - 친구관계도 안 좋았지만 공부쪽으로는 흥미가 없었음(25).
		부모 부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의미 없는 학교생활	- 가정 사정도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자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의미가 없었음(6)
	정신건강 문제와 스트레스		- 원래 공황장애가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도 쓰러지면서 학교를 그만둠(12) -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고 고등학교 생활의 압박감에 더해 자퇴를 생각하게 됨(20)
또래 관계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 피해	과거의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현재도 힘든 학교생활	- 중학교 시기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고, 이후에도 영향을 끼침(14)
		이전의 따돌림/괴롭힘 원인이 현재에도 폭력 피해의 원인이 됨	- 어릴 때 또래들의 이간질과 따돌림 피해가 같은 동네의 학교에 진학하면서 계속 지속되어 트라우마가 생김(9) - 중학교 시기 악성 소문이 고등학교 진학 후에 알려져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음(13)
		좋지 않은 소문과 따돌림	- 욕설과 헛소문으로 학교 다니기 힘들었음(26) - 정체성이 아웃팅 되면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음(22) - 은근한 따돌림이 있었고 걸도는 게 있었음(32) - 집단따돌림을 당해서 선생님의 만류에도 그만둠(33)
	친구/대인 관계의 어려움	또래관계도, 사람 대하는 것도 다 힘들	-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돕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를 거부하게 됨(18) - 의도하지 않게 친구가 왕따를 당하게 된 죄책감으로 학교를 다니기 힘들었음(29)
		관계의 어려움과 학업부진	-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힘들었고 학업성적도 낮아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낯갼다 싶어서(27) -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둠(28)
	교사/학교	교사의 무관심과 심한 갈등, 폭력	무관심한, 신뢰할 수 없는 교사
교사와의 심한 갈등, 교사의 폭력 행사로 학교를 떠남			- 교사의 왕따 발언으로 낙인찍혔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함(1) - 교사들의 폭력 행사와 심한 통제로 우울했고 결국 뛰쳐나옴(24) - 교사의 억울한 지적에 대들다가 교사의 팔을 잡아 퇴학위에서 자퇴(23) - 교사가 가정교육, 엄마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교사와 싸움(17)
감육, 안 좋은 분위기의 학교		감육같은 학교	- 학교는 머릿속에 일회용 쓰레기를 집어넣는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감육(10) - 심한 통제가 있는 감육(24)
		안 좋은 분위기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	- 교사의 학급전체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과 남학생들의 흡연으로 천식이 생김(5)
학교생활 자체에 적응하지 못함			- 초등학교에 2년 늦게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가기 귀찮았고 적응이 안됐음(7) - 규칙적인 생활이 안돼 대안학교를 갔지만 여전히 적응이 힘들었음(15)

(2) 학교의 의미

도래관계가 매우 중요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듯,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해 친구를 만나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친구를 만나는 곳이라고 단답형으로 응답한 가운데 한 청소년은 거기에 더해 도덕을 배우는 곳이라고 하였다(연구참여자 8).

학교를 집단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응답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1번 청소년은 학교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학교가 공장 같았으나 생각이 바뀐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 곳, 친구를 사귀고 집단생활하는 곳으로 묘사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은 학교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이지만 사회생활을 일찍 배울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해줬던 곳이라는 회고하였다(연구참여자 9). 이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둘 때 아쉬움과 미련도 다소 있었다고 회고하였는데, 같은 동네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한 고통으로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음에도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일단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을 때는 그냥 공장 같았어요. 사회에 나가는 **새싹들을 사회 부품으로 갈아 놓는 공장** 같았고, 지금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곳? (중략) **친구 많이 사귀고, 집단생활**, 딱 그 정도 (연구참여자 1)

처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의 의미는 내가 꼭 가야하는 곳,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 내가 **사회생활을 좀 일찍 배울 수 있는 곳**. 지금 와서는 내가 꼭 가야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의 그거였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려는 사회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그런 걸 조금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이와는 달리, 학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들 청소년들은 학교는 감옥같고 무서운 곳이라고 다소 극단적으로 설명하였고, 또 다른 청소년들은 의미 없고 지루한 곳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들은 앞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계기와도 상당부분 반복되는 부분이어서, 학교에

대한 묘사가 부정적인 청소년들은 이러한 이유로 실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10번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등교하면 내내 햇빛도 볼 수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하였고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우울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학교는 감옥같은 존재로 강압적인 곳, 또는 출퇴근하는 감옥과 같이 표현되었고, 연구참여자 25번 청소년의 경우는 이러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후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꼈다고 회고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은 학교는 강한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먹이사슬이 있는 무서운 곳이라고 묘사하였으며(연구참여자 13),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나 교사들의 대처에 실망한 청소년은 교사와 학교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참여자 14).

아침 7시, 8시쯤부터 다음 10시, 11시까지 학교에 계속 갇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감옥 시설처럼, 우리나라 학교 건물들이 다 감옥 건물이라 너무 똑같아요. (중략) **햇빛도 한 번도 못 보고**, 햇빛 못 보고 등교 했다가 햇빛 못 보고 하교하고 (연구참여자 10)

학교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옥 같았어요. **약간 출퇴근하는 감옥** 같았어요. (중략) 자퇴하자마자 진짜, 엄청 자유로웠어요. 일단은 잠깐 다 내려놓고 즐길 수 있을 때여서, 그래도 그때 마음은 진짜 편했어요 (연구참여자 25)

(학교는) 약간 **먹이사슬**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을 건드리잖아요. 학교에서는 강한 애들이 약한 애를 건드리고 그 약한 애가 또 자기보다 약한 애를 건드리고, 계속 이래서 저는 그냥 먹이사슬 같은 것 같아요. (중략) 아직 학교가 저한테는 무서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3)

학교도 고등학교도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퇴생의 인식으로 본다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 때려 쳤을 것 같아요. **감옥이었어요. 맨날 괴롭히고**, (중략) (선생님들이) 덮어 놓고 쉬쉬하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이거 이거 학폭에다 알리면 이게 퍼지고, 트라우마만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연구참여자 14)

이외에도 학교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곳, 또는 학교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그저 가야 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의미 없이 학교를 다녔던 청소년들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21, 23).

(학교의 의미)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1).

(학교의 의미) 잘 모르겠어요. (중략) 뭔가 딱히 **의미를 두고 다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대해서 딱히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연구참여자 23)

표 V-8. 학교의 의미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의 의미	인간관계를 위한 곳	친구 만나는 곳	친구를 만나는 장소(7)(19) 친구들 만나고 도덕 배우는 곳(8)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곳	학교는 공장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공부하고 친구사귀는 곳으로 기억(1) 사회생활을 해 볼 수 있는 곳, 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9)
	감옥 같고 무서운 학교	감옥 같은 곳	햇빛도 못보고 감옥같은 곳(10)(14) 학교는 감옥같고, 강압적인 곳, 학교교육을 내가 왜 받는가(20) 학교는 감옥이고 공부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24) 출퇴근하는 감옥(25)
		무섭고 믿을 만한 곳이 아님	학교는 먹이사슬. 학교가 무서움(13) 학교폭력을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는 학교(교사)는 믿을만한 곳이 아니었음(14)
	의미 없고 지루한 곳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곳(21) 의미를 두고 다니지 않음,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23) 인문계 수업이 너무 흥미가 없었고, 지루했음(16)

(3) 학업중단 과정에서의 학교에서의 경험

① 학업중단 절차, 교사의 만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억하는 학교에서의 학업중단 과정은 크게 학업중단숙려제와 선생님의 만류 등이 있었고, 그 마저도 기억에 없거나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도 있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동안 학교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과 함께 그 기간 동안 더 힘들었으며, 이후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연구참여자 5, 10, 13, 14, 20).

담임 선생님이 한 달만 더 다녀 보고 그때도 아니면 결정해 주라고 그랬었거든요. **한 달 동안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숙려제라고, 학교를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자퇴를 정말 할 건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동안 학교가 너무 가기 싫었고** (연구참여자 13)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생각의 변화 유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학교는 정말 저랑 안 맞다.(중략)** 일단 선생님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리 하고 숙려기간 받고 숙려기간 끝나고 자퇴하겠습니다, 확신하고 기숙사에서 바로 짐 빼고 나갔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4)

(학업중단숙려제 동안) 이게 좋구나, 학교 안 다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연구참여자 19)

일부 청소년의 경우 선생님의 만류를 기억하였고, 또 도와주어서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으나, 본 조사에서 교사들의 노력은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재고하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다(연구참여자 6, 8, 18, 33).

선생님들이 **자퇴하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 자격증, 선생님이 컴퓨터 잘하니까 따라고 했는데, 제가 돈도 냈는데, 자퇴를 해버렸거든요 (연구참여자 6)

(학업중단숙려제) 14일 동안 그냥 이거 그만 두고 뭐하지 이 생각 했어요. (중략) **선생님이 말렸는데**, 바로 자퇴하겠다고 아버지 데려가서 싸인하고 자퇴 바로 했어요 (연구참여자 8)

선생님들도 그 때는 **많이 도와줬는데**, 제 편에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8)

선생님께서 우시면서 ○○이 어머님, ○○이 되게 착한데, 우리 반에서 상점 제일 많이 탄 아이인데, 잘 될 건데, 원가 **아쉬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3)

② 기억이 없거나 도움이 안됨

일부 청소년은 위클래스 상담이 실제로 별 도움이 안되었다고 회고하였으며, 한 청소년은 위클래스를 통해 꿈드림에 연결되었다(연구참여자 21, 22). 그 중 연구참여자 21번 청소년은 위클래스의 상담이 형식적이라고 느꼈으며, 현실적으로 향후 학교를 그만두면 뭘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를 필요로 하였다.

학업중단숙려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퇴를 한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이 숙려제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고, 없다고도 하였다(연구참여자 2, 24). 학업중단

숙려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고, 숙려제 없이 무단 결석하고 학교에 연락하지 않아 경찰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16, 24).

선생님들은 딱히, 일단 담임 선생님은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위클래스 쪽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중략) 일단 뭔가 학교 밖이랑 학교 안이랑 차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뭔가 형식적인 상담 같은 느낌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위클래스에서) 일단은 그냥 정말 뭔가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 해 줬으면** (중략) 내가 학교를 그만두면 그때는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고, 그런 거를 같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연구참여자 21)

(학업중단숙려제)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중략) **바로 (자퇴) 처리가 돼서** (연구참여자 2)

학교에서 숙려제도를 하는 건데, 저는 숙려제를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숙려제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 돌아올 거면 돌아와라 했는데 **숙려제를 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6)

청소년 (학업중단기간)이 없었어요. (중략) 그냥 연락을 아예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잠수를 탔어요.**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엄마랑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 경찰도 오고, 집에도 경찰이 왔었어요 (연구참여자 24)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게 한 많은 계기들이 학교와 관련되어 있었으며(학교 부적응, 친구관계 갈등, 교사의 무관심, 학교폭력 피해 등), 본 조사에서 많은 경우 중학교 시기 때부터 학교 등교를 힘들어 했었던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숙려제와 교사의 만류 등에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학교 중단 결심을 더 확고히 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위클래스 등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결심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기초로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이 없을 경우 학업중단을 막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학교 중단이 결정된 후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꿈드림 등의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의미한다.

표 V-9. 학업중단과정에서의 학교에서의 경험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 과정에서의 학교에서의 경험	학업중단 절차와 교사의 만류	학업중단숙려제 이후에도 확고해진 생각	학업중단숙려제 한달동안 더 힘들었고 학교가기 힘들었음(5)(13) 신중하게 한달 기간을 두었으나 자퇴 생각이 확고해짐(10)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동안 학교와 안맞는다는 생각이 확고해짐(14) 열번의 상담 후에 자퇴(20)
		교사의 지원을 경험함	선생님의 만류(6)(8)(33) 많이 도와주심(18)
	기억이 없거나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위클래스 상담이 별 도움 안됨(21)(23)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기억이 없음	바로 자퇴했고 학업중단숙려제 기억이 없음(2) 학업중단숙려제 거부하고 바로 자퇴(11, 16) 마음대로 그만두고 연락안함(24)

(4) 학업중단에 대한 주변의 반응

① 지지하거나 반대한 부모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향을 비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만류하거나 반대하였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그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먼저 학교를 그만둘 것을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9번 청소년은 같은 동네, 같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이후 트라우마까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와 원하는 고등학교로의 진학과 관련하여 부모님이 청소년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먼저 피력하기도 했다.

(학업중단 처음 생각하게 된 시기) 학교 나오기 5일 전인가? 그 때 부모님이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중략)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어 했었어요. 또 원하는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성격이어서 그런 거에도 고민이 제가 너무 많았고 (중략) 빨리 끝내서 네가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연구참여자 9)

상당수의 사례에서 부모님 중 한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중단 결정을 지지하고 조언해 주었으며, 학업중단 과정에 함께 하였다.

2번 연구참여자의 부모는 처음에는 학업중단을 만류했으나 이후 용감하고 대견하다고 지지해 주었으며, 14번 연구참여자 부모의 경우 학교 재학 시 때 보다 더 밝아진 청소년의 모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교를 안 나가게 됐을 때 부모님의 반응) 제 결정을 **다 존중해 주세요** (연구참여자 1)

(자퇴에 대한 엄마의 반응) 처음에는 너가 최소한 거기 있으면서 고등학교는 나오지 왜 나왔냐, 힘들어도 거기서 악착같이 버텨서 패스하지,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용감하고 대견하다고 위로해 주시죠**. 잘 하니까 (연구참여자 2)

엄마는 엄청 화났고요. 아빠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러면서 밀어줬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아빠는 처음에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처음부터 알겠다고, 서류 작성하고 온 것도 아빠고, 그래서 **아빠는 쿨하게 얘기하시고** (중략) 엄마한테는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막 편지도 쓰고 장문의 카톡도 보내고 계획표도 만들어서 보여 주고, PPT도 만들고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12).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집에 올 때마다 엄청 우울해 했거든요. 정말 개인적인 문제라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만 두니까 더 밝아졌다고,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잘 그만뒀다, 이러시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4)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부모님이 **지지해 주셔서** (연구참여자 30)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향을 보일 때는 만류하거나 또 반대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후에는 청소년의 설득과 깊은 대화를 통해 학업중단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동의해주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3, 13, 15, 16, 20, 31, 33). 연구참여자 20번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을 말리고 화까지 내던 부모가 이후에는 청소년이 (조건을 담은)각서를 작성하고 자퇴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냥 자퇴는 아닌 것 같아, **좀 참아 봐,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중략) 제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검정고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구참여자 13)

그게 **부모님이랑은 예전부터 계속 다니자 말자, 이렇게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한 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해서, 제 의견을 들어주셨거든요 (연구참여자 15)

처음에는 굉장히 말라셨죠. 다른 애들은 참고 다니는데 (중략) 그랬는데 제가 완고하게 하니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끝까지 말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자퇴하겠다고 하니 저를 못 이기시고, 각서를 작성하고 자퇴했어요 (연구참여자 20)

(학교 그만두겠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언다 대고!”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원래 아버지들은 그럴까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네가 힘들면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진짜 잘 해주셨어요 (연구참여자 33)

하지만 매우 심한 갈등을 보인 가정도 있었는데, 이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로 청소년의 표현대로 “난리”가 나기도 했으며, “미친 듯이 혼을 냈고”, 또 폭력을 행사한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0, 17, 24). 18번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가족들과의 심한 트러블 속에 아버지는 끝까지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26번 참여자의 부모는 심한 다툼과 청소년의 가출 이후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가족 간 갈등과 폭력, 방임 등의 문제가 학업중단으로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10번, 17번 청소년의 경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인 문제와 폭력행사 및 일탈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례들로서 이들에게 학업중단 문제는 그동안의 가정에서의 학대와 폭력이 더욱 심각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폭력 행사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었다.

(학업중단 이야기를 하고) 난리 났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분(부모)들도 **가해자니까,** 그게 정신 차리고 저를 위해서 걱정한 게 아니고, 좀 제정신이 아니라서 (연구참여자 10)

아빠가 그냥 오자 마자 때리더라고요 왜 학교에서 전화 오게 만드냐고 하면서 그래서 그냥 그때 집 나갈 각오로 대들었어요 내가 안 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연구참여자 17)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모님은 이거를 정확하게는 자세히 모르니까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그 때 가족들이랑도 많이 트러블 있었어요** (중략) 엄마는 이해하고, 아빠는 이해를 끝까지 못했죠. (중략) 배신감이 들었나봐요 (연구참여자 18)

엄마는 **미친 듯이 혼을 냈고,** 뭐 친구들은 잘 했다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24)

이제 또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갑자기 집 나갔으니까, 얘기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이제 화가 나고,** 저랑 연락도 할 생각이 없으니까 니 알아서 하라고 (연구참여자 26)

청소년자녀가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또 자녀의 설득에 결국 학업중단을 허락하는 부모들은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데도 대체로 지지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학업중단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 사례, 특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청소년들의 사례는 이 과정에서의 폭력피해에 대한 심각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의 청소년들은 학업중단과 가출, 폭력피해에 따른 정신적 충격, 비행/일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지원 체계인 꿈드림,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경정신과, 경찰서 등 지역사회 다체계의 협조를 통한 복합적, 통합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② 친구 및 주변의 반응

학업중단에 대해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처음에는 같이 학교 다니자며 학업중단을 말했으나 나중에는 친구의 의사를 존중하기도 하였고(연구참여자 13, 21),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거나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지해주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5, 6, 11).

친구는 **그냥 같이 학교 다니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략)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힘들다고, 여기까지 와서 또 3년을 버티는 게 힘들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럼 너가 결정했으니까 뭐라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13)

제가 힘들었던 것도 말하고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한 것도 말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힘든 거 알고 나서 제가 자퇴한다고 그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 **괜찮다고 그랬었어요** (연구참여자 5)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었고(연구참여자 2, 28, 30), 한편으로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소 불편한 상황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29). 학교 중단을 친구들이 부러워한 이유에 대해 연구참여자 2번의 친구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도 부모님의 허락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29번 청소년의 경우는 이른 시간 등교와 학업 부담으로 친구들이 자신을

부러워했던 것 같았다고 회고하였다.

(학업중단을) **애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중략) 차라리 너가 선택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친구들은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으니까요 (연구참여자 2)

애들은 아침 일찍 학교 가고 시험보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8)

그러나 29번 연구참여자의 경우 다소 다르게 친구들의 반응을 설명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친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으며,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지내면서 공부도 안하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 대해 씁쓸함을 표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친구들의 시선과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자세히 다룰 예정이나,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 상황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은 가족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며, 이들의 자신감과 이후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친구들의 시선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중략) 제가 학교를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제가 뭐 양아치처럼 좀 자유롭게 살고 공부도 안하고 시간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하는 애들도 있고 니가 시간이 많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워너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냐고 하죠. (중략) 조금 씁쓸하죠 (연구참여자 29)

표 V-10. 학업중단에 대한 주변의 반응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에 대한 주변의 반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부모님	부모님의 권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학업중단 권유(9)
		학업중단 결정을 지지	결정을 존중해주심(1)(30) 아빠는 후회하지 말라고 했고, 엄마는 대견하다고 하심(2) 엄마는 화냈지만 아빠가 밀어주심(4) 아빠는 처음부터 지지해 주셨고, 엄마는 힘들게 설득함(12) 더 밝아져서 다행이고 잘 그만뒀다고 해주심(14) 힘든 상황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학업중단 허락받음(21)
		설득을 통해 허락	처음에는 말렸지만 나중에는 설득되심(3)(13)(16)(20)(31)(33) 처음에는 갈등, 트러블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존중(11)(15) 학업중단을 만류하는 부모님께 각서쓰고 학업중단(20)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친구들의 반응	부모와의 심한 갈등	난리났었고, 그분들(부모)도 가해자(10)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때림(17) 트러블이 많았음(18) 미친 듯이 엄마가 화냄(24) 소리지르고 싸우고 던지고 했음(22) 싸우기도 했고 화가 나서 연락도 안 할 것이고(26)
		말렸던 친구들	버티느라 힘들었던 얘기에 뭐라하지 않는 친구(13) 놀라긴 했지만 존중해 줌(21)
		지지하는 친구들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11) 괜찮다. 아깝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5)(6)
		부러운 반응	청소년 선택이 맞는 것 같다고 부러워함(2) 아직도 부러워함(28) 학교 안 나가도 된다고 부러워함(30)
		친구의 달라진 시선	친구들이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하고 시간 많지 않느냐고 이야기해서 좀 씁쓸함(29)

3) 분석결과: 학업중단 이후 변화

(1) 학업중단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변화

① 후회하지 않으며, 만족스러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대부분 후회하지 않았으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진학이나 취업을 고려하거나 또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해도 학교를 떠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으며, 일부 학업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불만족스럽거나 또래 관계를 생각하면 아쉽고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학교를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는 사례들 중에는 성적정체성 아웃팅으로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회고한 극단적인 상황의 청소년도 있었다(연구참여자 22). 여러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로 돌아간다고 해도 역시 학교를 그만둘 것이라고 하였으며(연구참여자 24, 26, 27, 28),

연구참여자 25번 청소년은 검정고시에 빨리 응시하기 위해 학교를 더 빨리 그만두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다.

면접자: 그만두지 말 걸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청소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는 있었는데, 솔직히 그때 안 그만뒀으면 **지금 제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22)

(학교 그만 둘 당시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그 학교에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연구참여자 24)

(학업중단 후회한적 있는지) **한번도 없어요**. (검정고시를 빨리 보기 위해) 저는 좀 더 빨리 자퇴를 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5)

② 후회하지 않지만 아쉬운 점 있음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불만족스럽거나, 때때로 만족과 불만을 같이 경험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20번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대학진학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재학 중인 ‘학생’ 중심이어서 불만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은 아침에 등교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서 좋았지만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고 하였고, 자퇴에 대해 양가감정이 있었다(연구참여자 23번).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럽긴 한데, 확실히 아직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나 모든 부분에서도 **전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위주로 맞춰져 있어서**, 그게 제일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0).

(학교를 그만둔) 당시에는, 아침에 안 일어난다는 게 편했고, 안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편견과 차별이** 있죠. (중략) 얼마 전까지는 내가 자퇴를 안 했었을 때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자퇴를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23)

또 다른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와 수련회 같은 학교생활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연구참여자 2, 4, 5, 9, 19),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검정고시에 대해 걱정하였다(연구참여자 11, 18, 21). 구체적으로 5번 연구참여자는 또래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

만 기회가 없어서 아쉬워했고, 18번 연구참여자는 단체생활에 대한 동경과 친구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러움과 후회를 동시에 느꼈다고 회고하였다. 30번 청소년은 학교를 떠난 후 소속감이 없어 불안하고 외롭다고 하였다. 또한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에 대한 부러움 뿐 아니라 동시에 검정고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례들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1, 18).

후회한 적은 없고, 그냥 학교생활을 다른 친구들보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그런 거만 아쉬웠지 다른 거는 별로 후회되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5)

학교 애들은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안에서 얘기도 하고 학교에 그런 **단체 무리 생활**들이 좀 부러운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중략) 제 친구들은 다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얘기 할 때마다 그런 건 좀 부러운 거 같기도 해요 **후회되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18)

일단 확실히 학교라는 작은 사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소속감이 없으니까 뭔가 조금 **불안하고 외롭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30)

이러한 청소년들의 진술은 많은 경우 학교 중단을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래들과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러움으로 일시적으로 후회하거나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또 검정고시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들 청소년들에게 또래를 포함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검정고시 준비를 포함한 미래 설계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즘은 유튜브로도 남들의 학교 일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애들끼리 이렇게도 노는구나 생각이 들고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검정고시 따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주변 애들은 다 학교 가고 바쁘니까 좀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중략) 검정고시 따기 전에 많이 불안했죠. 제가 솔직히 **검정고시를 따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조금 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고, 걱정되기도 했고**, 그런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8)

(학교를 그만둔 직후에) 무섭다기보다는 일단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1)

③ 후회할 때가 있음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때때로 후회하거나 회의감을 느꼈고, 몇몇 청소년들은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거나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된다고도 하였다. 가끔 후회가 된다는 13번 연구참여자는 친구들이 교복을 입은 모습이 학생다워 보이지만 자신은 학생같지 않아 후회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청소년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근황을 들으면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고 후회가 되었다고 회고하였다(연구참여자 29). 다문화배경 청소년인 7번 연구참여자의 경우 학교에 늦게 입학하여 적응하지 못한 사례임에도 학교를 다닐 때가 좋은 것 같다고 회고하였고, 15번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뒤 시간이 많아졌지만 학교 다닐때의 바쁘게 지내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친구들이 학교 다니고 이제 애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다니고 그러는 거 보면요. 교복 입을 때가 제일 이쁘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학생다워 보여서, 저는 지금 자퇴를 했잖아요.** 그냥 교복 입고 가는 걸 보면요. **그냥 학생인데 뭔가 저는 학생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연구참여자 13)

몇 개월 전에 친했던 친구랑 연락이 났거든요 그 때 그 친구가 애들 근황 같은 걸 알려줬는데 학교 다닐 때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 때는 **후회가 좀 났었어요** (연구참여자 29)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7)

(학교를 그만둔 것) **뭔가 후회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빈 시간이 너무 많아 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건 너무 심심하기도 해서, 차라리 다녀서 바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중략) 후회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5)

표 V-11.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변화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변화 (만족/	후회 없고 만족스러움	절대 후회하지 않음	중퇴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서 후회 안함(22) 학교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후회한 적 없음(6) 만족스럽고 후회안함(8) 학업중단이 좋은 영향을 줌(10) 귀찮은 학교 안가도 됐고, 시간이 많아서 좋았음(17)
		다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음. 그때로 돌아가도 자퇴(24)(26)(27)(28)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불만족)		돌아가도 자퇴할 것	후회한적 한 번도 없고 좀 더 빨리 자퇴할 것(25)
	후회하지 않지만 아쉬운 적 있음	후회 없지만 불만족스러 울 때 있음	안 좋은 시선, 대학진학 등도 모두 학생위주라서 불만족(20) 처음에는 좋았으나 편견과 차별이 있고, 자퇴에 대해 만족/불만족 왔다갔다 함(23)
		도래관계 생각하면 아쉬움	도래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거나 어울리지 못해 아쉬움(2)(5) 만족하지만 수련회 못가는 것은 아쉬움(4) 중퇴직후 미련 있었으나 지금 후회 없음(9) 시간이 많은 것은 좋지만 사람들 못 만나는 것은 불만족스러움(19) 불안하고 외롭고 아쉬움(30)
		검정고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음	검정고시 전에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음(11) 학교 그만두고 막막해서 다시 학교 입학할 생각도 함(18) 자신에게만 시간 쏠게 되는 것이 만족스러움. 미래의 두려움이 있었 지만. 후회는 안함(21)
	후회할 때가 있음	친구들을 생각하면 후회됨	친구들이 교복입고 어울려 다니면 가끔 후회될 때 있음(13) 단체 생활 부럽고, 주변 친구들의 학교 가니까 회의감 들었음(18) 친구 근황 듣고 학교 다닐 때 생각나서 후회했음(29)
		학교 그만둔 것을 후회함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것 같음(7) 후회가 됨. 빈 시간이 너무 많아졌고. 차라리 학교 다니고 바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함(15)

(2)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변화

① 부정적 경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난 후 힘들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였는데, 학업중단 유형 중 대체로 직업형이나 무업형으로 구분되는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막막했고 아르바이트도 잘 구해지지 않았으며 또 얼마 되지 않아 해고되는 경험을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없었으며 향후 본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였다(연구참여자 6, 11, 18).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심리적으로 침체되는 부정적 경험과 막막함에 따른 불안감을 갖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학교를 그만둔 직후의 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솔직히 자퇴를 하고나서 솔직히 너무 막막했어요. 알바 같은 것도 구해지지도 않았고, 그래 가지고 한 두 번은 했긴 했었는데 잘 못 하다 보니까 잘리기도 해서, **자존감도 좀 낮아지고** 그랬거든요 (연구참여자 6)

자퇴를 하고 나서 솔직히 몇 개월 동안은 **되게 다운되어 있고 원가 침체되고**, 진짜 앞으로 인생 어떻게 하지? 앞으로 뭐 하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평소 학교에 있을 때도 할 게 없네였는데 **진짜 집에만 있으니까 할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1)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솔직히 편할 줄 알았는데 제가 원하는 걸 딱딱딱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략) **대체 어디부터 뭐부터 시작해야 할 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학교를 이렇게 그만둔 게 맞는 선택인가 더 고민하게 되고 (연구참여자 18)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또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번 연구참여자는 학교를 떠난 이후 학교의 급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식사를 못하기도 하였으며, 25번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오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25번 청소년은 집까지 나온 뒤로는 의식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주하는 곳은 지인이 제공한 곳이었으며, 부모님이 수급자로 생계지원을 받고 있어서 본인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검정고시 지원을 받았고, 또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관련 지원을 받기는 했으나 만 18세 청소년으로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사례 모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급식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5번 청소년과 같이 학교와 집을 동시에 나온 청소년의 경우 당장의 생활고와 미래를 위한 준비 등 모든 부분에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중략) 아빠가 옛날 같이 야간(일)을 나가면, 밥을, 반찬 하나 해 주시고 갔어요. 편식을 많이 해서 고기만 먹을 때라 고기 하나 구워주고, 이제 그거 먹다가 아니면 뭐 그냥 과자나 그런 걸로 군것질로만 때워서, 그때 제가 되게 말랐는데요 (연구참여자 1)

(혼자 나와 살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예 돈이 1원도 없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많이 도와주셔서 (연구참여자 25)

학교에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패턴이 불규칙하게 바뀌어 건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었다. 낮밤이 바뀌면서 낮에 자고 밤에 생활하는 패턴을 갖게 되었는데, 연구참여자 18번 청소년의 경우는 심하게 밤낮이 바뀐 상태에서 불규칙한 식사와 생활패턴으로 피부 트러블과 식도염으로 고생하였다고 회고하였다. 31번 청소년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졌고,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진술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생활하는 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밤낮이 제대로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냥 해 뜰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연구참여자 15)

친구들이 학교 늦게 끝나면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6시에 자서**, 오후 애들 학교 끝날 때쯤에 일어났어요 네 다셨시? (중략) 요새는 할 것도 없고, 무기력 해져서 3시에 자서 한 오후 한시 열두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새벽에 배고파서 밥을 먹고 바로 자니까. 바로 자면 이제 속이 너무 안 좋고..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피부도 뭐 나고 속도 쓰리고** 그래 가지고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8)

첫 번째로는 약간 **게을러졌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서, 애들 다 학교 가서 1교시 듣고 있을 때 저는 일어나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좀 빈둥거리다** 확 가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시간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1)

② 긍정적 경험과 정신적 변화

학교를 그만둔 후 부정적 경험을 한 청소년들과는 달리,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과 변화를 겪은 사례도 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은 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받는 것 같다고 하였고(연구참여자 19),

또 다른 청소년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회고하였다(연구참여자 21).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고등학생들보다, 좀 더 받을 기회도 많은 것 같고, 기회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9)

일단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1)

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3, 20, 22, 27). 연구참여자 13번 청소년은 소심한 성격이었으나 학교를 그만둔 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꿈드림 종사자들의 지지를 통해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고 하였다. 이 청소년은 꿈드림 내 자치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다닐 때는 되게 제가 엄청 소심 했었어요. 누구한테 거절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자퇴를 하고 나서 **꿈드림을** 좀 다니다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말씀도 잘 해 주셔서, 제가 **자신감을 좀 많이 얻어서 지금은 소심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그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13)

눈에 띄게 변한 거는 학교 다닐 때는 되게 내향적인 스타일이었는데, 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눈치도 많이 봤고, 그런데 학교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되나 (연구참여자 22)

그 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확실히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는지 지금은 많이 올라간 상태고 약간 **정신적 건강이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덜 우울하고, 자존감 자신감도** 더 많이 생겼고 (연구참여자 27)

또 다른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향적인 성격이었으나 이제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회고하였으며(연구참여자 22), 연구참여자 27번은 학교 다닐 때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신 건강이

좋아졌고, 자신감도 많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성도 좋아졌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선택이 폭이 넓어졌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으나 한편으로는 소속이 없어 불안해하는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30).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시간에 책임을 갖게 된 청소년들도 있었다. 25번 청소년의 경우는 이제는 학교에서처럼 교사가 도와주거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에 더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생활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9번 청소년의 경우도 자신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계발할 시간이 많아졌으며, 시간이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자퇴하기 전에는 사실 학교만, 학교 다닐 때는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는 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누가 학교처럼 도와주거나 무슨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다 책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책임감이 더 생겨서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5)

(학교를 그만두고) 좋은 건 저만의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한테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자기계발 할 시간이** 많아진거죠. (중략) 원래 제가 책을 잘 읽는 편은 아니었고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시간을 학교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값지다는 걸 제가 알았으니까 (연구참여자 29)

심리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겪은 또 다른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심리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성격이 많이 변하게 되었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8, 16). 연구참여자 28번 청소년의 경우 학교 다닐 때의 불안했던 인간관계, 친구관계에 대해 이제는 편안하고 자유로워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학교 재학 중에 경험한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공통적으로 학교 재학 시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심리정서적으로 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을 볼 때, 따돌림이나 폭력피해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 또는 정신건강측면에 이슈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학교를 그만두고) 되게 **여유로워 졌어요**. 그냥 되게 여유로워지니까 생각이 깊게 되잖아요. 그니까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학교 때문에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사람이 되게 유해지더라고요**. (중략) 이제 여유가 있어서 그런 지 살도 좀 찌고 성격도 나긋나긋해지고 (연구참여자 16)

(학교를 그만두고) 되게 편하고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인간관계나 친구관계 그런 게 끊기기 싫어 가지고 되게 불안해야되나 그런 게 속에 응어리진 게 있는 것 같았는데 학교를 나오니까 내가 재량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고 해서 **그런 편안함도 있고 해서 자유로워진 것 같고 확실히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8)

표 V-12.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 변화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변화	부정적 경험	자신없음과 막막함	자퇴 후 막막했고 자존감도 떨어졌었음(6)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고 학교 그만둔 것도 자신감이 없었음(18)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고, 앞으로 인생 어찌해야 할지 걱정함(11)
		힘들게 지냄	학교 그만두고 하루에 한끼 식사만 하기도 했음(1)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 학교 그만둔 뒤 집을 나와 힘들게 자냄(25)
		불규칙한 생활패턴	밤낮이 제대로 바뀜(15) 밤낮이 바뀌어서 건강도 해침(18) 게을러졌음(31)
	긍정적 경험과 정신적 변화	기회/혜택이 많아짐	학교를 나와서 혜택을 더 받는 듯 함(19)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21)
		자신감이 생김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얻어서 학교 싶은 말을 할 수 있음(13) 더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사람으로 변함(20) 자신감 갖게 되고 외향적, 적극적으로 변함(22)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덜 우울하고 자신감이 많이 생김(27)
		책임감과 자기관리	책임감이 생겨 더 열심히 살게 됨(25) 시간이 값지다는 걸 알게 됐고 스스로 자기 관리, 자기계발함(29)
		여유롭고 편해짐	여유롭게 성격이 많이 변했음(8)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집에 있어서 편함(12)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사람이 유해짐(16)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워짐(28)

(3) 학업중단 이후 차별 경험

학교 밖 청소년이란 이유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는지 탐색한 결과, 대부분은 차별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부는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고, 또 안 좋은 시선을 실제로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적 비난과 차별을 받거나 제도적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란 이유로 공모전 등에 참여를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① 차별받은 적 없음

차별받은 적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의 조사참여자들은 ‘없다’고 응답했다(연구참여자 1, 2, 3, 4, 6, 7, 8, 11, 14, 15, 29, 31). 그러나 공개적으로 차별받은 경험은 없지만 남들이 좋지 않게 볼까봐 스스로 위축되거나,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무섭고 불안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연구참여자 5, 17).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해서 차별을 받은 적 있으세요?) 이니오. **그런 적은 없어요** (연구참여자 1)

면접자 본인이 그런 불합리한 차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어서?
청소년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저 혼자 안 좋게 볼까봐** 그런 게 있어요 (연구참여자 17)

면접자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나를 안 좋게 볼까 봐 걱정 돼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좀 마음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무섭기도 하고 좀 불안했어요.** (중략)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굳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뭔가 그 사람이 안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어차피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학교 나왔다는 것만으로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5)

②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시선

직접적으로 차별을 당하지는 않아도 좋지 않은 시선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청소년들은 상당 수 있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연구참여자 9), 또는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왜 밖에 있는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을 대면하거나(연구참여자 12, 20), 자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16, 25, 28).

학교 밖에 일단은 검정고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진로를 위해서 나온 건데 그런 시선에만 틀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덜 한데,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에 밖으로 돌아다니면, **애는 뭐지 라고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중략) 청소년처럼 보이는 아이가 대낮에 돌아다니니까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2).

아직은 자퇴했다고 하면 시선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중략) 아무래도 학교 갈 나인데, 저는 막 일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솔직히 꾸미는 것도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연구참여자 16)

③ 비난과 차별을 받음

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었다. 자퇴 이후 친구와 어울렸다가 친구 아버지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연구참여자 13), 친구가 물건은 훔치는데 같이 있었다가(조사 참여 청소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나온 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더 불리한 경험을 한 것 같다는 보고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8).

제가 자퇴하고 친구랑 저랑 한 번 놀았었어요. 그때 **친구네 아버님께 전화가 와서 너가 자퇴했는데 만약에 내 딸까지 물들어서 자퇴하면 다 너 탓이야**, 이렇게 말하신 적은 있어요 (연구참여자 13)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대부분 질이 나쁜 애니까 당연히 그럴거야라고 하고 단정지어 버리는 게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중략) **만약에 제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런 편견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가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없는데 자기가 잘못을 약간 실수를 하게 되면 보여지는 시점이 좀 안 좋게 비춰지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8)

누구한테 조언을 해 줄 때나 그런 거를 할 때, 저는 자퇴를 해봤으니까 자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퇴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자퇴에 대해서 너무 미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너가 자퇴를 했다고 자퇴가 좋은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인식이 아직도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있죠 (연구참여자 23)

23번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자퇴가 나쁘지 않다는 조언을 했다가 자퇴를 미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만연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로 인해 청소년이 힘든 경험들을 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현장종사자들이 강조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더욱 심각해 보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사례도 있었다.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현재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교육청에 항의한 사례도 있었고(연구참여자 19), 졸업한 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 원서에도 학교 밖 청소년 항목이 없어 어떻게 원서 작성을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청소년도 있었다(연구참여자 30). 연구참여자 33번 청소년은 직장 체험과 같은 이벤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회고하였다.

교육청 사업이라고는 하나 해당 지자체 내에서 학생과 비학생을 구분하여 청소년이 참여하고자 하는 권리가 박탈된다거나, 대학원서에 졸업한 학교를 기재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험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청소년은 “학생”으로만 생각하고 학생이외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적 차별 피해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〇〇시 교육청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행사에 왜 자퇴생은 (참여)안되나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그때 항의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19)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서류상에 적어야 되는데 학교가 없어, 그러면 적을 수가 없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항목이 없을 때가 가끔 있어요. 특히 이번에 대학교 원서 넣었을 때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밖 청소년 항목이 없었어요. 무조건 학교를 나와야 했고, 그게 전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차별이 있고 약간 고정관념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30)

학교 밖 청소년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직장 체험 있잖아요? 그걸 할 때도 뭔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좀 불편했거든요 (연구참여자 33)

표 V-13. 학업중단으로 인한 차별 경험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에 따른 차별 경험	차별받은 적 없음	차별받은 적 없다고 생각함	차별받았다고 생각해본 적 없음(1)(2)(3)(4)(6)(7)(8)(11)(14)(15)(29)(31)
		스스로 위축됨	차별받은 경험은 없지만 혼자 그렇게 생각함(17) 학교를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걱정됨(5)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시선	안 좋게 보는 시선	검정고시생에 대한 안좋은 시선(9) 학교에 있을 시간에 왜 다니지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12)(20) 자퇴했다고 하면 시선이 안좋음(16)(25)(28) 전체적으로 인식이 안좋음(22)
	비난과 차별을 받음	개인적으로 비난 받음	친구부모님의 부정적 인식(13) 중퇴라는 이유로 더 의심하고 나쁘게 봄(18) 자퇴를 미화하지 말라고 함(23)
		제도적 차별 경험	교육청사업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중퇴자라고 참여를 못함(19) 대입원서에 꼭 졸업학교명을 써야 함(30) 공모전 참여도 못한 경우가 많았음(33)

4) 분석결과: 현재 생활 탐색 및 생활시간 분석

(1) 현재 생활 탐색

① 학업/진학 준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 생활을 탐색한 결과, 검정고시나 수능을 준비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있거나 자격증 등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고 휴식을 취하거나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먼저 학업/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면접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고(연구참여자 1, 2, 3, 7, 13, 29), 꿈드림 뿐 아니라 학원, 과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능준비를 하고 있었다(20, 21, 22, 27). 1번 연구참여자는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바리스타 심화자격증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으며, 꿈드림과 청소년쉼터에서 동시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2).

최근에는 이제 **바리스타 시험**보고 오려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 돼서 이번주에는 심화반 계속 다녀서 바빴어요. (중략)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중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이제 고졸을 또 봐야 되니까, 하는데 지금 다 까먹어서 중학교 과정 다시 하고 있습니다. (중략) (검정고시 준비를) 그 **꿈드림에서 멘토링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기로 했었는데 (연구참여자 1)

(검정고시 공부를) ○○ 꿈드림 가서 **학교밖자원센터**에서 공부 배우기도 하고, 그거 토대로 **센터 와서 또 공부**를, 복습도 해요. (중략) 꿈드림에서 화, 수, 목, 금 2시부터 6시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2)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준비는 과외, 자습, 학원,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연구참여자 27번은 꿈드림의 수능대비반을 통해서도 수능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능 준비) 저는 집을 잘 안 나가서 집에서 다 해결하고 있어요. **과외 하나랑 그냥 집에서 자습하고 있어요**. 4시간에서 5시간, 6시간, 짧게 해요 (연구참여자 20)

일단 9시쯤에 일어나서 10시에 약간 독서실 비슷한 학원이 있어요. **수학학원**인데, 다른 과목도 상관없는, 그래서 가는 시간도 딱히 안정해져 있고 요일도 안 정해져 있는 데라서, 매일 10시에 가서 10시쯤 오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2)

저는 **그 학원**이랑 **과외 다니고 인터넷 강의** 보면서 하고 있고, 이제 **꿈드림에서 해주는 수능대비반**에서 하고 있어요 (중략) 정말 빨리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날에는 7시에 일어나서 씻고 독서실을 가서 계속 공부를 해요. 정말 계속 하고 정말 오늘은 좀 공부를 하기 싫다 하는 날에는 정말 오후 3시 4시쯤에 가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27)

② 일/자격증/취업준비

일 경험을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청소년작업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으며, 꿈드림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연구참여자, 5, 9, 11, 24, 26, 29, 31). 아르바이트를 따로 구해서 일하는 사례도 있었고(연구참여자 30), 바리스타나 네일아트 등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연구참여자 1, 6) 취업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연구참여자 25).

(지금 카페에서 하는 인턴십은) **꿈드림이랑 연계**해서 하고있어요. (중략) 처음부터 제 진로랑 카페랑 연관 지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턴십 모집 글에 카페가 있길래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뽑아 주셔서 **카페**를 하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9)

요즘에는 꿈드림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드림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중략) **도서관에서 사서** 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가) 필요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청소년이 알바를 하는 게 되게 드문 기회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29)

여기 프로그램에서 그냥,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페에 연결을 해 주시고 여기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직업 체험까지가 이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하셔서 (중략) 자격증은 2급이 있고 1급이 있는데, 2급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냥 커피 내리고, 맛 보여 드리는 건데, 1급은 커피 콩이 원지를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중이에요 (연구참여자 31)

만 17세인 연구참여자 30번 청소년은 미성년 나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지원 시 여러 번 거절을 당하였고, 결국 가족의 소개로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에서 일할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 구직 시 연령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소개라는 특별한 경로로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일 뿐 다른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나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보고하였다.

면접자 이제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을 갈 거고, **아르바이트**는 5월 달부터 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청소년 ○○○○(**햄버거 프랜차이즈**)

면접자 그래요. ○○○○는 어떻게 알게 돼서 가게 된 거예요?

청소년 원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성년자를 알바로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다 거절당했는데 우리 누나가 소개해 줘서 간신히 들어간 거예요 (연구참여자 30).

③ 진로탐색하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재 하는 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쉬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중인 사례들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28번 청소년의 경우

수시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꿈드림에서 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4번 청소년은 꿈드림을 통해 준비한 검정고시를 패스한 후에 쉬고 있었으며, 8번 청소년은 검정고시 시험 후 ‘놀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요즘 그냥 집에 있거나 **꿈드림센터에서 동아리나 활동**하는 거 있으면 가고, 멘토링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검정고시로 수시 넣었고, 지금 그냥 면접만 남았어요 (연구참여자 28)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검정고시 보고, 그 다음에 **놀이 있었죠** (연구참여자 8)

12번 청소년의 경우는 COVID-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 원래 계획한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다른 청소년들 역시 COVID-19의 영향으로 검정고시나 수능 준비를 학원/과외가 아닌 집에서 주로 한다고 하였고(예, 연구참여자 13, 27 등), 또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등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연구참여자 16). 12번 청소년처럼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와 관련된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COVID-19가 미치는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 일과가 어때요?) 거의 그냥 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자주 못 나가고, 원래 다 나려고 계획했던 **학원도** 지금 못 다니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2)

표 V-14.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 생활 탐색과 고민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현재 주로 하는 일	학업/진학 준비	검정고시 공부	꿈드림(멘토링 선생님) 통해 고졸검정고시 준비(1)(33) 꿈드림과 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2) 꿈드림에서 중졸 검정고시 준비(3)(7)(13)(29) 집에서 검정고시 준비(31)
		수능/대학입학 준비	하루에 4~6시간 정도 수능 공부(20) 검정고시 결과 나와서 이제 수능 준비 중(21) 하루 대부분 시간을 학원, 독서실에서 공부(22)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꿈드림 수능대비반 등 통해 수능 준비(27)
		관심있는 것 배우러 다님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토익 영어학원 다님(19)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일본어 등 관심 학원 다님(32)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일/자격증 /취업준비	인턴십/직업 프로그램 참여	꿈드림 통해 검정고시 패스 후 바리스타 인턴십 참여(5)(9)(31) 유사 지원 서비스 통해 검정고시 시험 후 인턴십 참여(11) 취미로 목공 인턴십 하는 중(24) 앙금 플라워와 약과만들기 등 제과제빵 쪽 인턴십 참여(26) 꿈드림에서 드림잡이라는 프로그램 통해 아르바이트함(29)
		아르바이트	거의 직장인처럼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음(30)
		자격증	바리스타 심화 자격증 취득 준비(1) 네일아트 자격증 준비(6)
		취업준비	취업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있음(25)
	진로 탐색하기	꿈드림 활동	꿈드림에서 동아리 활동,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28)
		검정고시 후 휴식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준비했고, 이제 패스 후 휴식(4) 검정고시 시험 후 놀고 있음(8)
		하는 일 없음	COVID-19때문에 학원도 못다니고 집에서 놀고 있음(12)

(2) 현재 고민/걱정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 고민거리는 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의 면접내용 중 일상에 대한 걱정을 포함하여, 고등학교나 대학입시에 대한 걱정, 진로 고민, 이후 자립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일상과 관련한 고민을 보면, 연구참여자 12명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해이해진 생활습관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걱정하였다. 연구참여자 5명 청소년은 최근 COVID-19에 감염된 꿈을 꾸 이후로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또 24명 청소년은 수면부족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함을 호소하였다. 특히 COVID-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면부족을 호소한 청소년의 사례는 전염병의 확산에 따른 필요한 지원과 다양한 기회의 제한 뿐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너무 놀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중략) **해이해져서**, 원래 자퇴하고 나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랑 너무 달라서요 (중략) 원래는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할 것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안 되고 거의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연구참여자 12).

저녁에 자다가 제가 **코로나 걸렸던** 꿈을 꿔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잠을 잘 못 자는 거,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울한 거**, 그런 거 말고는 딱히, 학교 문제를 제외하면 그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4)

또 다른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입학과 검정고시 준비 사이에서 고민하였으며(연구참여자 15), 대입입시를 위한 정보 부족을 걱정하거나 수능준비를 해서 더 나은 학교/학과로 진학할지 여부를 고민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9, 24). 취업을 계획하다가 대학진학으로 생각이 바뀌기도 하였고(연구참여자 5), 계획을 세워도 실천에 어려움이 많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7, 18). 연구참여자 31번 청소년은 자신의 원래 꿈이 부모님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였다.

지금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가야 되나, 계속 검정고시를 해야되나 고민 중이에요 (연구참여자 15)

검정고시생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입시 이런 거를 자료, **정보가 부족하니까** 찾아보고 요즘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요 (연구참여자 9)

수능을 쳐서 다른 대학 좋은 학과를 갈까, 수능 안치고 이 내신으로 바로 대학 가버릴까,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무슨 과를 갈지, 어떤 학과를 선택을 할지, 진짜 갈 수 있는지** (연구참여자 24)

(어떤 고민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구참여자 5)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이돌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여러 군데를 붙었었는데 부모님이 안 보내 주셔서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직업을 뭐로 삼아야 될지 몰라서**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연구참여자 31)

청소년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8번 청소년은 향후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구체적인 자립생활에 대해 걱정 하였다. 25번 청소년 역시 지인의

도움으로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1번 청소년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혼자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고민들은 대부분 지원 욕구로 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내년에 자립해야 해서) **생활문제**(가 고민이에요). (종락) 검정고시 같이 본 친구랑 같이 살려고. 거기로 방 구해 가려고요 (연구참여자 8)

(가장 고민거리) **저는 사실 돈 문제예요**. 돈 어떻게 벌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종락) **혼자 꾸리고 지금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집도 사실 직접 구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참여자 25)

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내가 혼자서 그런 거 잘해 낼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도 있고, 가끔씩 문득 생각하면 갑자기 나는데 (연구참여자 1)

표 V-15.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 걱정거리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일상의 걱정	너무 놀아서 걱정	너무 놀아서 걱정,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12)
	정신건강(우울/불안)	코로나 감염 꿈 꾸뒤로 잠을 못잠(5) 잠을 못자고 주기적으로 우울(24)
입학/입시 걱정	고등학교 입학 여부 고민	고등학교 입학과 검정고시 사이에서 고민(15)(17)
	대학입시 걱정	대학입시, 정보 부족 고민(9) 수능준비해서 더 좋은 대학/학과를 갈지 고민(14)
진로걱정	진로 걱정	취업하려다가 대학교 가고 싶다고 생각이 바뀜(5) 계획을 다 잡아도 실천하기 어려움(7) 하고 싶은 걸 결정해야 함(18) 부모님 반대로 아이돌을 못하게 되었고 이제 뭘 해야 할지 고민(31)
장래 생활 걱정	자립생활 걱정	어디서 살고 어떻게 생활할지 고민(8) 경제적인문제, 집도 문제(25)
	사회생활 걱정	사회에 나가서 잘 할 수 있을까(1)

(3) 현재 하루 일과

①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과생활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크게 규칙적인 생활과 불규칙한 생활(수면 습관 등)을 하는 사례로 구분하였다. 수면 습관은 이제는 학교 등교를 이유로 일찍 기상할 필요가 없어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불규칙해지기 쉬우며,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이후 학교/사회생활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규칙적인 생활은 평일 기준 일반적인 오전 기상 및 밤 시간 취침 패턴을 가지면서 낮에 주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오전/오후 시간에 검정고시, 공부, 학원 등에 가야 해서(연구참여자 2, 3, 27, 32),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 청소년 작업장, 아르바이트에 가야해서(연구참여자 5, 9, 11, 29, 31) 아침 7~8시에 기상하고, 밤 11~1시 사이에 취침하는 일반적인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사례는 오후 일정(꿈드림)으로 기상시간과 취침 시간이 다소 늦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였다.

(잠은 한 어느 정도 주무세요?) 많이 자요 일단 한 **8시간, 7시간 정도 자요** (연구참여자 27)

아침에 7시 반쯤, 7시 반~8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인턴십하는 카페를 가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꿈드림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하면 거의 5시, 6시, 이때쯤 끝나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씻고 쉬다가 자요 (연구참여자 5)

인턴십 하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밤, 낮이 바뀌어서 3, 4시에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요즘은 일 가야지 하면서 일어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1)

(꿈드림) 가는 날엔 한 (밤) 12시? 1시, 그쯤 자고 그 다음에 8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5)

② 좋지 않은 수면의 질, 들쭉날쭉 생활 패턴

또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낮에 특별한 일과가 없는 상태에서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지내거나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일정한 생활패턴이 아닌 들쭉날쭉하게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생활하거나 일정한 기상/취침시간 없이 지냈

고(연구참여자 14, 25), 밤낮이 뒤바뀌어 생활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1, 12, 16, 20, 23). 특히 밤낮이 뒤바뀐 경우가 많았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시청하느라 새벽에 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이에 따라 오후 1시 이후에 기상하기도 하였다. 33번 청소년의 경우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약 복용) 있는 상태였는데, 여러 생각 때문에 불면증이 재발함에 따라 새벽에 취침하지만 아침에는 또 일찍 일어나는다고 하여 수면부족이 우려되는 사례였다.

그냥 원래 학교를 그만두면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말이랑 평일이 자연스럽게 구분
이 사라지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4)

(취침시간) (새벽) 3시, 4시에 자요. 요즘에...그게 요즘에는 좀 바쁘니까 유튜브나 그런 걸
많이 못 봐서, 딱 누워서 유튜브를 많이 봐서 늦게 자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

(새벽 1시 넘어서) 핸드폰 (많이 해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연구참여자 12)

요즘엔 잠 못 자요. **잡생각이 너무 많고, 불면증이 또 도졌거든요.** 그래서 한 세 시쯤에
자다가, 저는 한 시에 자동으로 눈이 감기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신경 쓸 게 많다 보
니까 새벽 세 시쯤 잠자고, 아침에는 진짜 빨리 눈이 떠지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3)

낮 시간동안 학업이나 인턴십 등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여기에 제시되는 청소년들의 사례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상황에 따라, 생활패턴이 바뀌거나 정해져있는 일과가 없는 경우 늦은 취침시간을 보였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기도 했다. 수면 패턴은 개인차가 있고 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후 학교 및 직장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일과시간 활동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습관화하는 것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11번과 15번 청소년의 사례에서도 낮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여가/자유 시간 보내는 방법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가,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많은 수가 휴대폰을 통한 게임, 유튜브 시청, SNS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청소년은 친구를 만나 같이 카페를 가거나 대화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였으며(연구참여자 11, 19, 30), 또 레고나 퍼즐 맞추기, 운동이나 독서, 그림그리기와 같은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다(연구참여자 9, 13, 14, 23, 27, 2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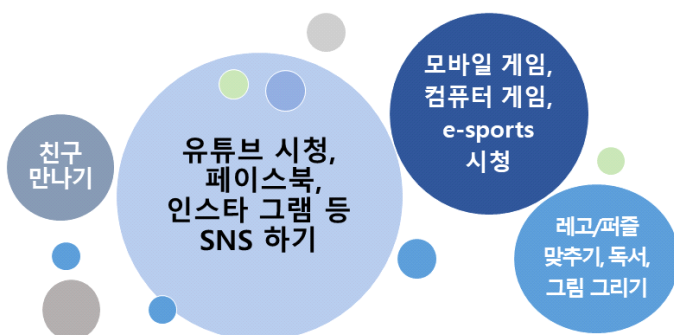


그림 V-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자유시간 주 활동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시청(연구참여자 1, 3, 4, 15, 24, 28 등),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하면서 자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연구참여자 4, 16, 27, 20, 24, 27, 28, 32). 물론 앞서 언급한 다른 취미활동과 같이 병행하는 사례도 있었으나(연구참여자 14: 운동+독서 등), 대체로 휴대폰을 가지고 유튜브나 SNS, 게임 등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으며, 야외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배드민턴 한 번 치고, 이제 낮에는 센터 가고 하루 2시간 공부 하고 게임 하고 유튜브 보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연구참여자 1)

저는 누워서 핸드폰 하기, 아니면 제가 개인 노트북이 있어서 노트북으로 게임하고, 게임 안 하면 그냥 누워서 핸드폰 보고 좀 자다가, 언니들이랑 노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5)

(여가시간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SNS같은 걸 해요 (연구참여자 27)

표 V-16.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하루일과(수면시간, 자유시간 등)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생활 방식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	검정고시, 공부/ 학원 때문에	검정고시 공부로 규칙적인 생활 7~8시 기상, 밤 11~12 취침(2)(3)(27) 학원가기 위해 7시 기상, 새벽 1~2시 취침(32)
		인턴십/작업 장/아르바이 트 가야해서	인턴십, 작업장 가기위해 규칙적 생활(7~8시 기상, 밤 12시경 취 침)(5)(9)(11) 공부와 아르바이트 때문에 10시 기상, 새벽 2시 취침(29) 아르바이트 위해 9시 30분 기상, 1~2시 취침(31)
		꿈드림 가기 위해	꿈드림 가기 위해 7~8시 기상, 밤 12시~1시경 취침(15)(30) 꿈드림 가기 위해 9시 기상, 새벽 1~3시 취침(28)
	좋지 않은 수면의 질, 들쭉날쭉 생활 패턴	주말과 평일 구분이 없어짐	(취침시간) 들쭉날쭉 주말 평일 구분 없음(14) 주말, 평일 구분 없이 12시~새벽 4, 5시에 자기도 하고, 11시에 기상(25)
		밤낮이 바뀜	유튜브 보느라 새벽 3~4시에 취침(1)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하느라 1시 넘어서 취침(12) 새벽 늦게 취침, 오후에 기상(16)(20)(23) 불면증 때문에 새벽 취침(33)
자유 시간 보내는 방법	친구만나기		친구 만나기(11)(19)(30)
	다양한 취미활동		레고 맞추기 (13), 운동이나 가벼운 독서(14), 축구 동아리(23), 나노블럭 27), 그림그리기나 디자인(9), 퍼즐맞추기(32), 독서/영화보기(29)
	게임관련 활동		컴퓨터 게임(15)(24), 모바일 게임(1)(3)(28), e-sports 보기(4)
	유튜브/SNS		유튜브 보기(5)(24)(26)(27)(28)(3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하기(16)(17)(20)(24)(27)(28)

(4) 학교 밖 청소년 5명의 생활시간 분석 결과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았다. 생활시간 분석은 개인의 일련의 발달 경험(developmental experience)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출발점이다(Larson, 2001: 160).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을 자율적으로 쓰게 됨에 따라 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많은 시간 사용한다고 할 때, 비대면적 상호작용에만 집중함으로써 소외나 고립을 경험할 수

있고, 결국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은, 김준엽, 2019). 심지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여건상 이러한 우려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앞의 면접결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게임, 유튜브 시청, SNS 등)이 대부분인 것을 볼 때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파악은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다.

학생 청소년은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냄에 따라 방과후 시간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게 되나, 학교 밖 청소년이 경우는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평일과 휴일 중 각각 하루씩 각 24시간 동안의 생활에 대해서 앞서 조사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웹다이어리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 활동 장소, 동반/동행인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입력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V-17(평일 기준)과 표 V-18(휴일 기준)과 같다. 본 생활시간 조사에 참여한 5명의 청소년은 만 15~19세에 해당하였으며, 이 중 향후 진로가 미정인 청소년이 1명, 대학진학을 결정한 청소년이 2명, 대학진학을 고민하는 청소년이 1명,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이 1명이었고, 희망하는 장래에 따라 당연히 이들의 각 시간별 활동에는 차이가 컸다.

① 평일기준 생활시간 조사결과

평일을 기준으로 각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만 16세인 연구참여자 1번 청소년은 아직 장래에 대한 계획이 미정인 상태였는데, 하루 중 총 4시간을 꿈드림에서 검정고시를 위한 자습이나 강사와의 문제풀이 등 학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의 일과시간과 밤 시간에는 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 시청이나 게임 등으로 많은 시간(9시간)을 보냈는데, 이로 인해 조사에 응답한 당일 수면시간은 총 3시간여에 불과했다.

표 V-17. 평일기준: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ID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26	연구참여자 27
나이(성별)	만16세(남)	만16세(여)	만15세(여)	만17세(여)	만19세(여)
거주지	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특별시·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장래희망	미정	대학(디자인분야)	대학진학 고민	취업(요리사)	대학진학(간호학)
조사요일	월요일	목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24~1시	게임, 유튜브	수면	수면	수면	여가/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용
오전1~2시			식사		수면
오전2~3시			수면		
오전3~4시					
오전4~5시					
오전5~6시					
오전6~7시	아르바이트: 도배	이동(버스)			
오전7~8시			일(인턴십)/청소년작업장: 약과만들기		
오전8~9시		부모님과 식사		건강/스트레칭, 체조	
오전9~10시	수면	여가/집에서 PC로 게임	아르바이트: 도배	학업/수능준비: ebs 인강, 교재 정독	
오전10~11시					아버지와 식사
오전11~12시	유튜브, 음악듣기				
오후12~1시	외출준비	포토샵 학원으로 이동	부모님과 식사	작업장에서 점심	식사
오후1~2시	지하철			버스 이동	
오후2~3시	학업/꿈드림:자습	학업/포토샵 GTQ 1급 자격증 준비 학원에서 문제풀이	아르바이트: 도배	학업/꿈드림: 독립과 자립의 차이 이해 보드게임, 퀴즈 (강사포함 10인 참여)	여가/넷플릭스, 유튜브 시청
오후3~4시	학업/꿈드림: 선생님과 문제 풀이 및 수학 기초 쌓기			컴퓨터 학원 (회계 2급 시험 준비)	이동
오후4~5시					
오후5~6시				세면	학업/수학학원에서 수능 공부, 모의고사
오후6~7시	이동	지하철 이동	가족들과 식사	가족과 식사	
오후7~8시			수면	자격증/ITQ한글 자격증 공부	도보 이동
오후8~9시	가족들과 식사, 대화				
오후9~10시		페이스북, 카톡		여가/가족과 티비시청, 대화	
오후10~11시	수면				학업/수능준비 -ebs 연계
오후11~12시					

ID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26	연구참여자 27
주요 활동별 소요시간					
수면시간	3시간	10시간	5시간/5시간	7시간/2시간	8시간
학업/학원/ 꿈드림 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인턴십/ 아르바이트	-	-	8시간	4시간	-
여가시간	9시간	5시간	-	1시간	2시간

연구참여자 9번 청소년의 경우는 시각디자인 분야로 구체적으로 진로를 정하고 대학진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미 검정고시를 치른 상태에서 본인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포토샵 자격증 학원에서 오후 4시간 정도를 보냈다. 또한 저녁 시간에도 PC로 그림을 그리는 등 본인의 주요 관심사에 맞추어 시간을 활용하였으며, 수면시간은 상대적으로 긴 10시간으로 보고하였다.

14번 연구참여자는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은 이미 취득한 상태여서 대학진학을 고민 중에 있었고, 조사한 당일에는 도배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아르바이트로 총 8시간을 할애하였고, 아르바이트 이후에는 컴퓨터 학원에서 회계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였다.

26번 연구참여자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향후 제과제빵, 요리 쪽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전에 일찍 기상하여 꿈드림과 연계된 관련 청소년작업장에 출근하였고 이곳에서 오전 4시간을 보냈다. 오후 4시간은 꿈드림에서 강사 및 다른 청소년 10명과 함께 독립과 자립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보드게임과, 퀴즈게임 등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27번 청소년은 만 19세로 이 중 나이가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간호학 쪽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능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BS 인강과 교재를 통해 자습을 하고 또 수학학원에서 3시간 정도 공부하였다. 수면시간은 8시간 정도로 충분해 보였다.

여가시간 중심으로 보면 조사당일 아르바이트로 분주했던 연구참여자 14번 청소년과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 26번과 27번 청소년의 여가/자유 시간이 1~2시간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모두 평일 여가시간과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 유튜브 시청,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카카오톡으로 의사소통하였다. 요약하면, 평일 기준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진로목표와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수행하면서(당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26번 청소년 제외), 규칙적인 수면시간과 함께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하였다. 1번 청소년만 예외적으로 새벽시간 게임과 유튜브 시청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매우 짧았다. 특별히 수능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업에 쏟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여가, 자유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주말기준 생활시간

본 생활시간 조사에 참여한 5명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말 생활시간을 조사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평일보다는 수면과 여가/자유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에 비해 시간을 보낸 학업이나 학원 등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거나 또는 평일에 비해 매우 적었다.

연구참여자 1번 청소년은 일요일에 평일보다 훨씬 긴 수면을 취하고 아버지와 함께 조부모댁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저녁시간에는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9번 연구참여자 역시 9시간의 긴 수면시간을 보낸 후 친구들과 종일 노래방, 쇼핑몰, 서점 등을 방문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친구집에서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다. 연구참여자 14번 청소년은 컴퓨터 학원에서 2시간을 보낸 것 외에 대부분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을 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저녁시간에는 거주지역 일대와 마트 등을 산책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26번 청소년

은 가족들과 식사하거나 가사일을 수행하였으며 밤시간에는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여가시간에는 SNS를 하거나 게임을 시청하였다.

표 V-18. 주말기준: 학교 밖 청소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ID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26	연구참여자 27
나이(성별)	만16세(남)	만16세(여)	만15세(여)	만17세(여)	만19세(여)
거주지	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특별시·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장래희망	미정	대학(디자인분야)	대학진학 고민	취업(아동요리지도사)	대학진학(간호학)
조사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24~1시	아버지와 식사	수면	여가/스마트폰 게임	수면	학업/수능준비: ebs 인강, 교재 정독(당일 가족들과의 나들이 대비 학습 보충)
오전1~2시	여가/모바일 게임		수면		
오전2~3시	취침 준비				
오전3~4시	수면				
오전4~5시					
오전5~6시					
오전6~7시					
오전7~8시					
오전8~9시					
오전9~10시	친구와 약속잡기	장보기			
오전10~11시	여가/집에서 게임		여가/독서	여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여가/가족나들이(지역 축제, 단풍 구경 등)
오전11~12시			세면, 외출준비	부모님과 식사	
오후12~1시	이동	친구와 식사	여가/샌드위치 만들기		
오후1~2시	아버지와 조부모 방문, 식사	여가/친구와 노래방		여가/가족나들이(지역 축제, 단풍 구경 등)	
오후2~3시	귀가	이동			
오후3~4시		여가/친구들과 공원, 쇼핑몰, 서점 등 방문	식사	여가/게임 시청	
오후4~5시				여가/유튜브 시청, 게임	
오후5~6시		여가/유튜브 시청, 게임	이동		세면
오후6~7시	여가/친구집에서 영화시청, 식사				수면
오후7~8시		여가/게임, 야식	수면		
오후8~9시	여가/가족들과 TV시청				
오후9~10시		여가/가족들과 TV시청			
오후10~11시	여가/가족들과 TV시청				
오후11~12시		여가/가족들과 TV시청			

ID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26	연구참여자 27
주요 활동별 소요시간					
수면시간	8시간	9시간	8시간	9시간/2시간	6시간
학업/학원/ 꿈드림 시간	-	-	2시간	1시간	4시간
인턴십/아르 바이트 시간	-	-	-	-	-
여가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6시간	12시간

연구참여자 27번 청소년은 당일 가족들과 종일 나들이가 계획된 관계로 새벽까지 수능준비를 위한 학업에 몰두함으로써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하였다. 또한 당일 가족들과 지역축제 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 아니라 귀가 후 역시 가족들과 함께 영화나 TV를 같이 시청하면서 일요일 내내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전체적으로 평일에 비해 친구, 가족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일부는 틈틈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자격증이나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번 연구참여자의 경우 아버지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이지만 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보냈고 또 거의 식사도 같이하면서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7번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를 위한 준비도 면밀히 잘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매우 밀접한 이상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 청소년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식사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하고 TV를 시청하면서 하루 일과시간 동안 있었던 일과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이 청소년은 가족 나들이로 소홀할 수 있는 학업을 전날 늦은 시간까지 보충하는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간호학 전공을 위해 여가시간 유튜브를 시청할 때에도 간호학과 학생 블로그(Vlog)를 시청하는 등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하

고 있었다. 이는 가족들과의 원만한 관계와 지지 속에서 더욱 자신의 진로 및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생활시간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이 시간을 의미 없게 쓸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자신의 진로목표에 맞게 나름의 시간을 규모 있게 잘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가/자유 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과 유튜브 시청 및 게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평일 수면시간이 매우 적은 사례도 나타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여가시간 활용의 필요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평일 기준 한 시간 정도의 스트레칭, 체조를 한 27번 사례를 제외하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모두 평일과 주말에 운동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무한 운동시간은 학교에서의 체육시간을 경험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야외활동이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분석결과: 자신에 대한 생각과 진로계획

(1) 자신에 대한 생각

가. 긍정평가

①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자신을 완벽주의적이고, 자신감과 책임감이 있으며,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가치관이 뚜렷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다. 스스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9명 청소년은 계획을 세우고 또 계속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길 희망하였고, 작은 성취를 통해서도 나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연구참여자 14). 또한 13번 청소년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이 청소년의 장래 희망은 사회복지학과 나 간호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자신의 적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

온라인 수업에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때 되게 깐깐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때 별명이 열정○○라고 선생님들이 저를 불렀어요 (연구참여자 1)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성공할 사람**이요 (연구참여자 8)
 그래도 시킨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9)
 예전에는 자신감 없고 약간 순한 양이었던 것 같으면, 그래도 지금은 **자신감 넘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3)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여러 가지 이뤄 놓은 게, 저 혼자서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뤄낸 게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소하게 대단한 사람** (연구참여자 14)
낙관적이에요, 또 자기주장도 좀 제 **신념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죠.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약간 고집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29)

② 자유롭고 사교적인 사람

또 다른 청소년들은 자신을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 사교적인 사람,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19, 20, 31). 그러나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한 단어로만 간단히 이야기할 뿐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며, 이는 다음의 32번 청소년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교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친구도 잘 사귀구요 (연구참여자 31)

③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함

연구참여자 32번 청소년은 중학교 때는 자존감이 낮았으나 이제는 프로그램/훈련 참여를 통해 자신을 가능한 높게 평가하려고 함으로써, 이러한 개입의 유효함을

잘 보여주었다. 33번 청소년은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스스로를 ‘청춘’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잡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제가 중학생 때는 자존감이 되게 낮은 상태였거든요? (중략) 그런데 그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내 자신은 소중하고 귀엽고, 어찌고 저찌고, 뭔가 자존심 높이기 그런 걸로 해주는 것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나 칭찬해주기 이런 것.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뭘 하든지 기본적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가능하면 높게 평가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2).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많은데, ‘청춘은 청춘이니까’라는 말을 제가 되뇌게 되거든요.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만큼 나이가 많이 먹어도, 내가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언제나 청춘이었고, 청춘 자체였다는 것을 많이 심어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33).

나. 자신에 대한 부정평가

①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

앞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과업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 대해 긍정평가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으로 평가한 사례도 있었다. 자신을 노력하지 않거나, 책임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고(연구참여자 12, 22), 게으르거나(연구참여자 23, 28)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폄하하였다(연구참여자 24).

자신이 대한 부정적 평가는 학교를 떠나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해야 하는 이들을 더욱 주저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움츠러들게 한다. 연구참여자 22번 청소년은 모든 일에 자신감 넘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또 23번 청소년은 성실한 사람이 되길 희망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현재 모습은 불만족스럽지만 향후 긍정적 발전이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되지 않도록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작은 성취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저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덧붙이자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사람 (연구참여자 12)

(저는) 뭔가 일단은 **정확한 계획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짜여진 대로 따라가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연구참여자 21)

바뀌보고 싶어요 **게으른 나**를 (중략) 원래도 되게 시간이 촉박해질 때까지 미루고 미루는 성격이었어요 (연구참여자 28)

책임감이 제가 너무 없어요. 그냥 부딪치긴 하는데, 한 번 부딪쳐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해야 되는 건데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연구참여자 22)

저는 **게으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3)

(저는) **바보, 멍청이**예요. 저는 솔직히 잘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보잘 것 없어서**, 그냥 그런 애 (연구참여자 24)

② 상처 잘 받고 불안정함

자신의 성격, 정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을 보면 주로 상처를 잘 받고 소심한 편이라고 하거나, 반대로 시한폭탄 등으로 표현한 청소년들도 있었다(연구참여자 6, 7, 16, 17, 27). 연구참여자 6번 청소년은 사람을 믿고 싶지 않음에도 또 믿게 되고 그로 인해 상처받는다고 하였고, 27번 연구참여자는 차분한 편이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많고 소심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참다가 결국 터지는 시한폭탄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17번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 사용으로 집과 학교를 모두 나온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이었는데 이러한 과격하고 폭발적인 성격과 태도를 순화하고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7번 청소년의 사례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청소년은 자기만의 자리가 없다는 표현을 통해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한 자신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학교를 떠난 이후 현재 자신의 상황이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원에서도 소속감을 찾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고 한 14번 청소년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뒤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저는 약간 잘해주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는 이만큼 잘해주면, 이만큼 뭐가 와야 되는데 (중략) 상대방은 안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래요 (연구참여자 6)

(저는) 저만의 자리가 없는 사람? (중략) **뭔가 한가지에 박힌 사람이 아니고 제 자리가 없어요.**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기쁘고.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연구참여자 7)

소속감이라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학원에서 채워 주지 못하는 소속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모자라다는 걸 가끔씩 실감을 해요 (연구참여자 14)

안 건드리면 되게 순한데, 건드리는 걸 몇 번 참다가 팡 터져 가지고 이게 결국 쌓이고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누가 잘못 건드리면 이게 한 번에 터지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때는 저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연구참여자 17)

저는 차분해요, 좀 잘 들어주는 편이고요, 단점은 **겁이 많고, 좀 소심한 편**이고 (연구참여자 27)

표 V-19.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 자신에 대한 생각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현재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긍정 평가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사람	간간한 완벽주의적인 성격(1) 나중에 성공할 사람(8) 장단점 있지만 책임감있는 사람(9) 자신감있는 사람(13) 소소하게 대단한 사람(14) 최선을 다하는 사람(27) 낙관적이고 신념, 가치관이 뚜렷함(29)
		자유롭고 사교적인 사람	재밌고 행복한 사람(19) 자유분방한 사람(20) 사교적인 사람(31)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함	자존감이 낮았지만 지금은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려고 함(32) 자존심이 떨어져도 청춘이라고 생각(33)
	자신에 대한 부정평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12) 계획이 필요한 사람(21) 책임감 없는 사람(22) 게으른 사람(23)(28) 바보, 멍청이, 보잘 것 없는 애(24)
		상처 잘 받고 불안정함	잘 해주지만 상처를 잘 받음(6) 나만의 자리가 없는 사람(7) 외강내유(16) 시한폭탄(17) 차분하지만 겁이 많고 소심한 편(27)

(2) 진로계획 및 장기적인 희망

① 단기 진로 목표: 고교 입학/검정고시 준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계획과 장기적인 희망 진로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입학 및 검정고시 준비, 대학진학 준비, 취업 준비 등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가지고 특정 직업이나 창업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일부 청소년들은 아직 탐색 중인 경우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는 사례도 있었다.

먼저 단기적인 진로 목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입학을 계획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자신의 꿈을 위해 또는 여러 이유로 중학교시기에 학교를 그만 둔 뒤 중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를 치른 후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연구참여자 3, 7, 15). 또 다른 청소년(연구참여자 17)은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 역시 검정고시를 통해 마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을 때 취업에 장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생활을 추천하는 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근 특성화고 입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내년 4월 달 검정고시 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중략) 지금 ○○ 꿈드림 가서 학교 밖 지원 센터에서 공부 배우기도 하고, 그거 토대로 쉼터 와서 또 공부를, 복습도 해요 (연구참여자 2)

아무래도 중학교를 자퇴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검정고시를 따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다니게 되면 1년을 복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검정고시 따고 내년에 일단 **고등학교 갈 수는 있으니까 생각 중**이거든요 (연구참여자 15)

검정고시 봐 가지고 중학교 중졸하고, 내년에는 이제 ○○○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인가? 거기서 이제 복학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략) 학교를 졸업을 못하면 취업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학교 제대로 졸업도 못하면 사람들에게 무시 받으니까 이걸 검정고시를 다 따야 하나 **중학교만 검정고시로 따고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좀 안전하게 가야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말을 하기를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거보단 제대로 고등학교 3년 다니는 게 졸업도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래가지고 (연구참여자 17)

② 단기 진로 목표: 대학진학 준비

○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함

장래 희망 직업을 위해 관련 대학과 전공에 진학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었으며⁸⁵⁾, 일부는 대학을 조금이라도 빨리 진학하기 위해 수시 원서를 제출하거나 수능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들 청소년은 비교적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22번 연구참여자자는 대학도 1년 일찍 가기 원했고, 자신의 인간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으며 면접 진행 당시 원서 접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또 다른 청소년은 인명을 구하는 의료인의 꿈을 가지고 수시 원서를 제출하였다(연구참여자 27).

제가 내년에 대학교를 가거든요. 1년 일찍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중략) 이번 달 24일 날 **원서 접수**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예민한데, 저는 그거를 예민하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 얘기를 먼저 꺼낸대거나, 눈치는 좋은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둔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서 심리학 지원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22).

수시 넣었어요. (중략) 저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요. 원래는 의사가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중략) 의사랑 좀 더 가까운 꿈인 간호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 살리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의료인들이 되게 멋있어 보여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7)

○ 큰 목표는 없지만 대학진학 고려 중

대학진학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장래 희망직업이나 구체적인 목표에 따른 진학이 아닌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학교 재학 중에는 대학 진학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한 상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6, 28). 특히 28번 연구참여자자는 학교를 그만두고 고졸 검정고시가

85) 당장의 대학진학보다는 장래 희망직업과 관련된 대학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사례들은 이후 직업과 연결하여 '장기적인 진로계획'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최종학력이 되는 것이 ‘불품없다’는 생각에 대학진학을 희망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은 대학 진학을 조건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학업중단 허락을 받아 억지로 대학 진학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연구참여자 20), 연구참여자 21번 청소년은 큰 욕심 없이 그저 대학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로는 이후에 찾을 생각이라고 진술하였다. 32번 청소년은 주변의 대학진학 권고에 대해 고민 중에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향후 희망하는 직업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대학진학을 계획하는 청소년들도 있으나, 단순히 고졸 검정고시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대학 진학을 고민하거나, 억지로 또는 큰 목표 없이 다소 막연히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적성을 고려한 대학진학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처음에 (고졸 검정고시) 딸 때는 원래 이제 약간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면 검정고시, 그 고등학교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되잖아요 졸업장 같은게. 처음엔 그 생각으로 검정고시를 땀 건데, 따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대학도 지금 좀 생각 중이에요. (면접자: 어떻게 생각이, 왜 변했어요 중간에?) 약간 **대학이 그래도 이제 선택이긴 하지만 약간 다들 무조건 가야된 다** 라고 생각하니까 (연구참여자 16)

아무래도 대학을 가는 문제잖아요. **안 가면 눈치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자퇴 허락 조건이 대학을 가라였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0)

(수능준비가) 힘들긴 한데, 엄청 욕심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어서 (중략) 일단 수능 쳐 보고 수시도 해보고, **대학 가는 게 목표예요**. 일단 대학을 가면 4년제니까 4년을 다니고 그 후에 좀 더 확실한 진로를 찾아서 직업을 갖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21)

학교 다닐 때에는 대학 못 붙으면 안 가고 말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자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만약에 검정고시를 따고 **고졸 검정고시가 최종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너무 불품없는 것** 같아서 그 뒤로 대학은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서울로 (중략) 성적도 별로 좋지 않은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좋은 대학교는 못 가니까 성적 맞춰서 생각해봤는데 거기 학교에 과가 많이 없어서 그나마 학교에서 저랑 맞는 학과를 좀 끼워 맞춰서 넣었어요 (연구참여자 28)

일단 주변에서 가급적 대학에 가는 게, 대학에 가지 않고 취직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취직하기 쉬울 테니 이편이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까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연구참여자 29)

③ 단기 진로 목표: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

단기적인 진로 목표로서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 또는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14번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활용능력과 워드 프로세서 등 사무직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스펙을 쌓기 위한 일환으로 더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진술했다. 26번 청소년은 현재 해당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제빵관련 청소년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향후 이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길 희망하였다,

자격증 공부 같은 거는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딱히 실무에 관련 없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학이나 회사 들어갈 때 도움 된다, 그런 스펙의 미로** 좀 쓰고 있어요. (중략) 예전에 컴활 2급을 땀었는데 그냥 바로 컴활 1급 따버리려고요. 워드 1급이랑 컴활 1급이랑 이렇게, 그리고 한국사는 한 번쯤은 따 놔두 괜찮다고 하는 자격증이라고 들어서요 (연구참여자 14)

일단은 (제과제빵쪽) **이 자격증에 올인을 해야** 되겠조? 그리고 자격증을 따다면 이걸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26)

가정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5번 연구참여자는 한부모가정에서 동생들을 돌보며 생활하는 중이어서 대학진학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먼저 취업 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어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11번 청소년은 이미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과 동일 업종인 커피숍이나 서비스 관련으로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희망하였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인 25번 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자란 이유로 취업이 쉽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에 계속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르바이트나 취업 희망 사례는 청소년들의 희망 진로와 관계없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결정이어서, 장기적으

로 이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찾고 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엄마가 그냥 집을 나가시니까 아빠가 혼자 저희 3명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을 때 인문계 가서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데, 아빠가 일용직 일을 하세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데 **그냥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아빠한테 도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한 거였거든요 (연구참여자 5)

일단 10월 말까지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4월 달까지 꼭 할 알바, 커피나 서비스 업종으로 알바를 하고 싶다?** 이 정도는 (계획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1)

취업 준비는 그냥 알바나 일자리 같은 데, 하고 싶은 데 그냥 다 입사 지원 넣어요. (중략) (나이가 어려) **안 써 주죠. 그래도 계속 넣다 보면 언젠가 되니까 계속 넣어 보고 있어요.** (중략) 일단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취업을 하고, 집을 구하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를 모아야 겠다, 그런 거나 내년 1월부터는 꼭 그걸 다닐 수 있게요.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여력이 되자, 이런 거요 (연구참여자 25)

표 V-20. 희망진로 및 미래계획: 단기목표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단기 진로 목표	고교 입학/ 검정고시 준비	재입학	축구 실력을 더 키워서 축구부 있는 고등학교 진학 희망(3) 고등학교 진학 예정(7)(15)(17)(29)
		검정고시 준비	검정고시 위해 꿈드림/쉼터에서 공부하고 있음(2)
	대학진학 준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대학진학 준비	심리학으로 일년 일찍 대학가기 위해 서둘러 원서 접수함(22) 의료인이 멋있어 보여서 간호학과 가고 싶음(27)
		큰 목표는 없지만 대학 진학 고려중	대학을 생각하긴 하지만 고민중(16) 자퇴 허락 조건이 대학진학이어서 준비하고 있음(20) 혼자서 준비하기 힘들지만 큰 욕심은 없음(21) 검정고시로는 볼품없어서 대학가려고 함(28) 대학을 가야할지 고민 중(29)
	취업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네일 아트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음(6) 사회에 나갈 때 필요할 수 있어 다양한 자격증 준비(14) (제과제빵관련) 자격증 준비해서 관련 일자리를 얻고 싶음(26)
		아르바이트, 취업 계획	바리스타 되고 싶고 취업 후 집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싶음(5)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예정(11) 나이가 어려 잘 안되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계속 구하고 있음 (25)

④ 장기적인 진로계획 및 전망: 구체적인 진로 계획

○ 특정 직업 희망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록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장래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대학의 해당 학과 진학을 준비하였고, 궁극적으로 창업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이를 위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공은 매우 다양하였다.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다거나, 멋있어 보여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겠다는 청소년도 있었으며,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좋아해서 사회복지나 간호관련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2, 4, 13). 또 다른 청소년들은 성우나 배우, 싱어송라이터나 보컬 트레이너, 시각디자인 등 예체능 쪽 직업을 희망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9, 12, 25, 32). 31번 청소년은 예쁘게 꾸며주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좀 더 특별한 사례로, 연구참여자 23번 청소년은 본인의 집단따돌림과 학업중단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을 돕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가 되고자 했으며, 26번 청소년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턴십과 관련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좀 더 자격을 갖추어 향후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적성에 맞거나 또는 자신의 과거/현재의 경험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진학이 학업중단을 위한 조건이었던 한 청소년의 경우에서 보듯이(연구참여자 20),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아버지가 종사하고 있는 유사 직업과 관련된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등 다소 수동적인 사례도 있었다.

맨 처음에는 그냥 해커? 이렇게 멋있는, 되게 멋있다 생각하면서 (중략) 개발자가 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멋있어서** (연구참여자 4)

제가 대학을 가려면 이제 과를 정하잖아요. 그때 사회복지과랑 간호학과랑, 그 둘 중에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자격증도 따고 졸업해서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참여자 13)

세무사나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중략) **아버지 영향이 제일 큰데**, 아버지가 세무사여서 (연구참여자 20)

(장래희망으로) 청소년 지도자나 청소년 상담사 생각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사고도 몇 번 쳤었고, 왕따도 당했었고 (중략) 위클래스라 하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게 있고, 제가 알기 때문에 **저 같은 상황에 처해진 애들한테 더 나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연구참여자 23)

아동요리지도사를 좀 해보고 싶기는 해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동요리지도사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 보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26)

지금으로서는 메이크업아티스트나 스타일리스트가 되고싶어요. 뷰티쪽에 관심이 많은데, **남들을 예쁘게 꾸며주고 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연구참여자 31).

○ 결국은 창업을 하고 싶음

본인이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경험하는 있는 직종과 관련하여 향후 창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현재 자격증 준비를 하거나 또 미용일을 하는 것 모두 이후에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일환이었고(연구참여자 6, 8), 현재 생활하는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배운 바리스타 경험에 더해 아르바이트와 용접, 목재작업 등 다양한 경험 후 궁극적으로 카페와 목재 작업 관련 창업을 하고 싶다고도 하였다(연구참여자 17). 네일 학원과 바리스타 경험은 모두 청소년 쉼터의 지원을 통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미래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선은 네일 아트 자격증을 따서, 열심히 네일 아트 일을 해가지고 **제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중략) 네일 아트 차려 가지고 이쁘게 유명해지고 싶은? (연구참여자 6)

(미래에는) 이제 여유롭게 **미용실 차리고** 직원들 (고용)해서 운영을 해야죠 (연구참여자 8)

약간 제가 뭐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뭔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알바로 시작해서 (중략)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제가 하고싶은 거 **카페를 차린다던** 가 목재 작업 그런 다용도실

만들어서 목재로 만들 수 있는 가구나 필기구 같은 걸 만든다거나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7)

⑤ 장기적인 진로계획 및 전망: 미래에 대한 걱정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하였으며 (연구참여자 20), 한편으로는 대학입학이나 진로 준비 뿐 아니라 이후 취직이나 결혼, 그리고 가족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4, 15, 24, 25).

사실 눈앞에 대학도 갈 수 있을 지가 걱정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꿈꾼다고 내가 될까?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사회적 시선의 부담이 적을 텐데, 나는 **검정고시라고 딱 써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이익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걱정,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긴 해요 (연구참여자 20)

24번 연구참여자는 미래의 일임에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성인이 되어 잘 살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염려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했던 사례로 이러한 경험들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5번 청소년은 자신이 희망 진로(실용음악 분야) 준비 과정에서 혼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현재 수준에 대해 우려가 많았고 학원을 다니거나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어 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예체능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였으나 이미 학교는 그만둔 상태에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5번 청소년의 사례처럼 예체능 분야 진로를 더욱 발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혹시 원하는 대학을 떨어질까, 수능을 망칠까, 아니면 취직이 어려울까, 그런거요. 결혼 못 할까 봐,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연구참여자 14)

걱정은 있어요.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고 있을 지가 제일 걱정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가 조금 걱정 돼요 (연구참여자 15)

제가 잘 살 수 있을지, **성인되기 전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을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성인이 되어 있을지**, 엄마도 잘 챙길 수 있을지, 동생은 건강할지 (연구참여자 24)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학원을 다녀 보고 싶은 것도, **좀 제가 희망이 있는 사람인지 약간 알고 싶어요**. (중략) 객관적인 (평가같은) 거를 받고 싶고,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진짜 많은데 (연구참여자 25)

표 V-21. 희망진로 및 미래계획: 장기목표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장기적인 진로계획 및 전망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음.	특정 직업 희망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고 싶음(4)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음(5) 시각디자인, 일러스트 쪽 일을 하고 싶음(9)(32) 배우, 성우가 되고 싶음(12) 아버지와 같은 세무쪽으로 가게 될 듯(20) 장래희망이 청소년관련 일을 하는 것이라 관련 공부를 하고자 함(23) 싱어송 라이터나 보컬 트레이너 희망(25) 아동요리지도사가 되고 싶음(26) 범죄심리학으로 대학진학하여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음(29) 쇼호스트가 되고 싶음(30)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스타일리스트되고 싶음(31)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음(33)
		결국은 창업을 하고 싶음	네일 아트로 창업도 하고 유명해지고 싶음(6) 건축관련 일을 하다가 내 사업을 하고 싶음(7) 헤어숍을 창업, 운영하고 싶음(8) 여러 도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카페 창업이 목표(9)(17)
	미래에 대한 걱정	검정고시 출신 걱정	검정고시 출신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20)
		장래/미래에 대한 여러 불안	대학입학, 취직, 결혼 등을 못할까봐 고민(14) 미래에 좋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15) 잘 살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가족을 잘 챙길 수 있을지(24) 혼자서 진로를 준비하다보니 시행착오가 많고 잘 될지 걱정(25)

6) 분석결과: 지원 경험과 지원 욕구, 지역사회 인식

(1) 학교 밖 이후 지원받은 경험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의 경험

본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대체로 학업과 관련하여 검정고시 대비 교재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았고, 직업관련 지원의 경우 청소년작업장과 다양한 자격증 취득, 그리고 여러 직업을 체험해보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또한 심리 및 진로상담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었으며, 동아리활동과 자치기구 등을 통해 학교를 떠남에 따라 기회가 제한되었던 또래와의 교류가 가능했고, 여러 스포츠 및 문화 활동을 경험했다. 이외에도 교통비와 급식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받은 지원내역들을 정리하면 그림 V-6과 같으며, 이러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주요 지원별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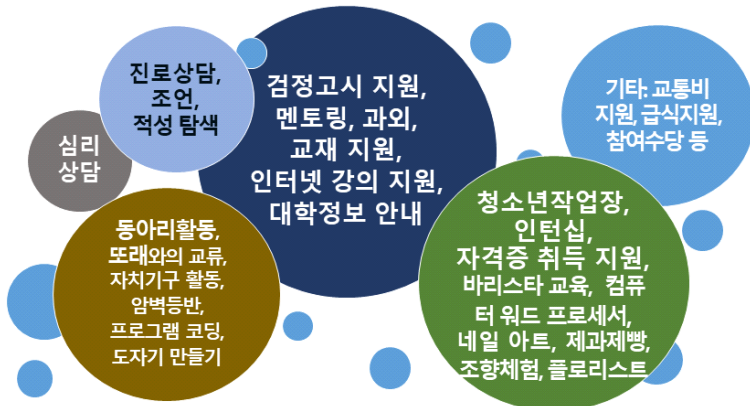


그림 V-6.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꿈드림 지원 내용

○ 다양한 지원과 경험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음

- 검정고시 준비와 진학 정보 제공

면접조사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검정고시 취득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곳에서 강의를 듣거나 과외, 교재 지원 등을 통해 더욱 보완할 수 있었으며,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집이랑 꿈드림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고, **꿈드림에서 선생님분들께 강의받으면서**(검정고시 준비했어요 (연구참여자 9)

저는 지금 **검정고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자기 적성 이런 거 프로그램** 한다든지, 그런 거는 되게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12)

집에서 그냥 검정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센터 가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선생님들한테 도움**도 받고, **진로나 앞으로 미래에 관한 조언**도 듣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5)

검정고시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교재도 엄청 비싼데 그것도 다 주시고 인강도 공짜로 주시는데 (연구참여자 20)

거기서 범위 같은 거? 그런 거나, 그래도 **인강** 몇 개는 봤었어요 (연구참여자25)

- 직업체험/자격증 지원을 통해 도전해 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직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갖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체험 뿐 아니라 자격증 지원을 통해 장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전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청소년들마다 이용하는 꿈드림 센터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 경험에 차이가 있었으나, 문화체험과 직업체험(연구참여자 17), 조향체험이나 바리스타 교육(연구참여자 7)등도 있었고 도자기 만들기 경험을 한 청소년은 새로운 직업을 체험해보는 기회가 좋았었다고 회고하였다(연구참여자 21). 또한 자격증 취득 지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도전해 볼 수 있었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14).

저는 도자기 만들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중략) 일단 그래도 혼자 있다 보면 새로운 직업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1)

자격증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따고 싶었던 자격증을 하나씩 도전해볼 수도 있고 좋았거든요 (중략) 꿈드림 센터에서 자격증 지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컴퓨터 관련해서, 그걸로 워드프로세서를 뒀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4)

- 진로결정에 도움을 줌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이 자신의 진로설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학교를 나온 뒤 무엇을 해야 할지 처음부터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준 것에 대해 도움이 되었고(연구참여자 1), 또 다른 청소년은 혼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보다 꿈드림의 교사와 친구들을 보면서 그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회고하였다(연구참여자 5). 비슷한 맥락에서 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센터 교사(종사자)들의 도움과 진로와 미래에 대한 조언들이 좋았다고 이야기한 청소년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5). 한 청소년은 꿈드림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코딩 수업)을 통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적성과 직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연구참여자 27).

(꿈드림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 가서 상담 받진 않고 여기 선생님이 오셔서 학교 끝나고 일단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이 있고, (중략) 검정고시 하겠다고 해서 꿈드림센터 가서 멘토링 연결시켜 줬고 그래서 아직 하고 있고 (연구참여자 1)

도움이 엄청 많이 됐죠. 그전까지는 검정고시 준비도 그렇고, 검정고시 보고 나서 그런 계획들을 **혼자서 다 해야 했었잖아요.** (중략) 그런데 거기 **꿈드림 선생님이 새로운 길을 알려 주거나 거기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5)

청소년 그 운동헌데 암벽등반? 실내 암벽등반 그거 했었는데 그거 되게 재미있었고요, 또 코딩 프로그램 짜는 코딩 수업을 했었어요

면접자 꿈드림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친구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떤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청소년 **일단 공대는 안 맞다** 공대는 안 맞는 것 같다(중략) 일단 이쪽 길은 아니구나 약간 생각을 했어요(연구참여자 27)

- 다양한 경험과 지원을 제공받음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여러 활동과 지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동아리 구성을 원할 때 꿈드림 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학교 밖에서 또래들과 교류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연구참여자 28). 또한 급식 및 상담, 교통비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교통비 지원의 경우 티머니 충전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연구참여자 22).

약간 생활 건강을 지키자는 **동아리**도 있고, 보드게임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자치회**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28)

청소년 **급식 지원도 받고 상담 지원도 받고, 그냥 교통비도 지원 받고 교육 지원도 받고,** 그런 정도

면접자 아까 지원센터에서 이것 저것 여러 지원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교통비나 이렇게, 그 중에서 제일 도움이 된 서비스는 뭐였어요?

응답자 티머니 카드 10만 원 충전해 주는 거 (연구참여자 22)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한 청소년은 지역사회복지관으로부터 음식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대리 신청으로 가능했다고 보고했다(연구참여자 23). 꿈드림 센터가 해당 청소년의 취약한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긴 한데, 등급이 되게 낮아요. 원래 아버지 몸 상태가 일을 못하시는 몸 상태인데 (중략)

면접자 그렇구나. 그러면 복지관에서 지원 받는 거는 신청을 하신 거예요?

청소년 그것도 **꿈드림센터에서 대리로 신청을 해 주셔서** (연구참여자 23)

이외에도 배우고 싶은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받거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도 제공받고 있었다(연구참여자 30, 33).

-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도 사귀

꿈드림의 지원을 받고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와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성격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친구관계로 힘들어 하거나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과거의 소심함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연구참여자 13), 꿈드림의 청소년자치기구의 임원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22). 또한 학교를 떠난 후 또래와의 교류가 없다가 꿈드림에서 학업지원을 받으면서 친구도 사귀 수 있었다(연구참여자 27).

학교를 다닐 때는 되게 제가 엄청 소심 했었어요 (중략) 꿈드림을 좀 다니다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말씀도 잘 해 주셔서, 제가 자신감을 좀 많이 얻어서** 지금은 소심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그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13)

(**꿈드림 청소년단에 임원활동하면서**) 엄두를 못 냈었는데, 나오고 그런 데도 도전하고 당선도 되니까 그냥 **나도 할 수 있는 놈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2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당장의 필요한 검정고시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 지원, 그리고 꿈드림 종사자와 또래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매우 고무적인 역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검정고시와 인턴십 등 당장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역시 기본적인 꿈드림의 기능이나 간접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 재학 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교사로부터의 피해와 갈등을 겪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지원과 경험이 주는 함의가 크다.

○ 도움이 되어 대체로 만족스럽고 부족하지 않았음

면접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으며 만족스러웠다고 보고하였고, 특별히 부족한 내용은 없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 꿈드림의 지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워 했으며(연구

참여자 3, 4, 14, 27), 부족함도 없었고, 청소년이 원하는 지원은 꿈드림에서 가능한 다 해주었다고 회고하였다(연구참여자1, 9, 21, 26, 29). 이렇게 꿈드림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고 만족한다는 많은 사례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많은 노고를 통한 결과이며 간접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단 **검정고시 교재 지원**도 받았고, **진로 관련된 체험**도 엄청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21)

면접자 지금 대도시 ○○구에서 꿈드림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지 청소년 네. 되게 **만족스러워요** (연구참여자 4)

(센터에 바라는 부분) **다 만족해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꿈드림) 선생님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지원 다 받으면서 (연구참여자 26)

○ 약간의 아쉬움

꿈드림의 지원에 대부분 만족하였으나 일부 청소년의 경우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대학진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이 없다고 하였으며, 센터가 아닌 인근 지역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통해 대학관련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어(연구참여자 20, 22),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입시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직접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진로지원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진로탐색에서 더 나아가 더욱 전문성 있는 깊이 있는 지원(관련 전문가 만나기 등)을 희망했다(연구참여자 32). 마지막으로 꿈드림 선생님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 이상한 해결책을 듣게 되거나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공유한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7), 이러한 경우는 꿈드림과 청소년간의 신뢰 구축에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 향후 서비스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민감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검정고시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교재도 엄청 비싼데 그것도 다 주시고 인강도 공짜로 주시는데, 거기 안에서는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적으니까 입시에 대한 거는 가끔 열리는 **입시 설명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0)

저는 화가나 만화가나 웹툰 작가나 어쨌든 그림 쪽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직업에 가까운 직업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을 만나고 싶다가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직업을 알 수 있고, 그런 것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서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2)

어차피 고민을 선생님한테 말해도 엄마한테 말해요 그래서 말 안 해요 (중략) 저는 그게 저랑 선생님만의 비밀 공유인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해결책을 자꾸 이상하게 말해 줄 때도 있어서 웬만하면 말 안 해요 (연구참여자 17)

표 V-2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지원 내용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다양한 지원과 경험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음	검정고시 준비와 진학 정보 제공	꿈드림에서의 검정고시 강의, 인강 등 지원이 도움이 되었음(9)(25)(30) 검정고시 지원과 자기적성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었음(12) 교재지원, 인강 등 도움이 됨(20)(21) 인근지역 대학생 자원봉사자 통해 강의와 대학진학 정보 등 제공(22)
	직업체험/자격증 지원 통해 도전해 봄	커피 바리스타 심화과정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음(1) 네일 아트, 플로리스트, 도자기 만들기 등을 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됨(21) 자격증 취득(컴퓨터 관련) 지원을 통해 도전해 볼 수 있어서 좋았음(14)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됨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진학 등 진로선택과 관련하 여 여러 안내를 해줌(1) 꿈드림의 선생님의 진로 안내와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음(5) 검정고시 공부, 진로나 미래에 대한 조언 등의 도움이 됨(15) 꿈드림에서의 조언이나 정보가 반 이상 도움이 되었음(23) 코딩 프로그램 체험 통해 본인의 적성/진로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됐음(27)
	다양한 경험과 지원을 제공받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고 센터에서 잘 지원해 줌(9)(28) 급식지원, 상담지원과 더불어 교통비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었음(22) 꿈드림에서 지역사회복지관 지원도 대리로 신청해 줌(23) 문화활동(피아노 등) 지원해 줌(30)(33)
	자신감 생기고 친구도 사귀 었음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소심함이 많이 없어짐(13)(22) 꿈드림에서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할 수 있었음(27)
만족스럽고 부족하지 않았음	대체로 다 만족스러움	꿈드림 지원이 다 만족스러웠음(3)(4)(14) 지원받은 문화활동과 상담이 도움되고 괜찮았음(27)
	부족한 지원 없음	경제적 지원(참여수당)도 받고 있고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느낀 적 없음(1) 꿈드림에서 필요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어 부족함 없음(9)(21)(26)(29)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약간의 아쉬움	대학입시 지원 미흡	입시 설명회를 제외하고 대학진학관련 지원은 없음(20) 인근 지역 대학생의 정보 제공 수준의 지원에 그침(22)
	전문성있는 진로지원 부족	깊이 있는 진로지원이 아쉬움(32)
	비밀 누설	고민을 선생님이 타인에게 누설하고 이상한 해결책을 제시함(17)

② 꿈드림 이용 계기

○ 꿈드림에서의 연락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을 이용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꿈드림에서의 컨택, 학교 상담교사나 담임교사의 소개,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 등의 경로를 통해 꿈드림을 오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를 그만두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청소년에 한해 청소년의 정보가 꿈드림에 연계되는데 몇몇의 청소년은 이를 통해 꿈드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26, 27). 연구참여자 26번 청소년의 면접 내용을 보면, 당초 연락했던 센터(학교 소재지역의 꿈드림으로 추정)가 아닌 현재 거주 지역의 센터로 연계되어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현 거주지 중심으로 센터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학교를 자퇴하고 나니까 (꿈드림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 왜 자퇴했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는 않고, 일단 학교를 자퇴했다고 뜨길래 연락을 한 번 줘 봤다고, ○○구에서 왔는데 저는 ○○구에 있는 상태여서, △△구로 연계가 돼서 △△구 센터로 다니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26)

○ 학교/교사를 통해 꿈드림을 이용하게 됨

많은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학교의 위클래스 상담전담교사나 담임교사의 소개를 통해 꿈드림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1, 4, 9, 20, 22, 23, 28). 이 경우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꿈드림 이용을 염두에 두고 먼저 접촉했을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위 사례에서처럼 꿈드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클래스 선생님이 이런 데가 있더라, 자퇴가 결정되고 나면 연락을 해봐라 해서, **상담 선생님이 알려 주셔서 가게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0)

그거는 학교 **위클래스 선생님이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연구참여자 22)

일단 처음에는 (학교에서) 부모님 오시라고 하였고, 부모님이랑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였고, 그 때 아마 절차를 알려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2~3일 후에 그 꿈드림센터에서 상담을 하자로 왔고** (연구참여자 27)

○ 인터넷 검색

학교를 떠난 후 가족이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찾아 이용하게 된 사례들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19번 청소년의 경우는 어머니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후 꿈드림 이용을 권유하였고, 12번과 21번 청소년은 직접 ‘학교 밖 청소년’, ‘자퇴’ 등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꿈드림 센터를 찾아 지원을 받은 사례이다. 이들 12번과 21번 청소년들의 경우 향후 수능준비 및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욕구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꿈드림을 찾게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면접자 (꿈드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청소년 **어머니가** 한 번 가보자 하셨어요.

면접자 그러면 어머니는 소개를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알아보신 걸까요? 혹시 아세요?

청소년 **검색** 같은 거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9)

면접자 그러면 찾을 때 뭐라고 찾아요? 인터넷에 뭐라고 찾았어요?

청소년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쳤었는데 나왔어요.**(중략) 거기에 인터넷 신청 같은 거를 넣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자기 전화번호 입력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전화가 왔어요 (연구참여자 12)

청소년 그런데 그 전부터 좀 알아보고 있어서, (꿈드림을) 알고는 있었어요. (중략) 결국엔 혼자 나와도 일단 도움을 받아야 할 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찾아보다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돼서 갔어요.**

면접자 무슨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자퇴**,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아요.

면접자 그런데 나왔어요?

청소년 네. 학교 밖 청소년센터, 꿈드림,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1)

○ 친구/지역사회를 통해 알게 됨

지역사회의 공적/민간 기관을 통해 꿈드림을 소개받은 사례도 있었다. 평소 도움을 주었던 지역사회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가 꿈드림을 소개하기도 하였고 경찰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고 꿈드림을 연결시켜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사회 곳곳에 꿈드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꿈드림도 **교회** 선생님이 한 번 연락해봐라 해서 한 거고 (연구참여자 2)

그때 그 **경찰관** 분들이 제가 학교 안 다니고 학교 밖 청소년인 거 알고, 그때 꿈드림을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꿈드림 등록해서 다니고 있고 (연구참여자 5),

표 V-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용 계기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꿈드림의 연락	꿈드림 연락	학교를 그만두고 꿈드림에서 연락 와서 다니게 됨(26)
	지속적인 연락	학업중단숙려제 전에 꿈드림에서 연락이 왔고, 학업중단 3~4개월 후 이용하기 시작(27)
학교/교사의 소개	아버지 부탁	아빠가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알게 됨(1)
	학교/교사의 소개	기숙학교에서 그만두게 될 때 학교에서 꿈드림을 제안해 줌(9) 위클래스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끝난 이후 상담/담임 선생님을 통해 이용하게 됨(4)(20)(22)(23)(28)
인터넷 검색	엄마가 알아봄	엄마가 검색해서 알게 되었고 가보자고 권하심(19)(33)
	스스로 인터넷 검색	인터넷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검색하고 꿈드림이 나와서 인터넷으로 신청함(12) 학교 밖 청소년, 자퇴를 검색하여 꿈드림을 알게 됨(21)
지역사회 통해 알게 됨	교회/경찰이 소개	교회학교 교사가 꿈드림을 소개해 줌(2) 경찰이 꿈드림을 연결해줬음(5)

③ 꿈드림 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

일부 조사 참여 청소년들은 꿈드림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른 지원체계를 통해 꿈드림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 그림 V-7에서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노원구의 와락, 강동 청소년누리터, 친구랑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 뿐 아니라 금융교육 등의 자립지원을 받았고 취업성공패키지로 도움을 받은 청소년도 있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교회,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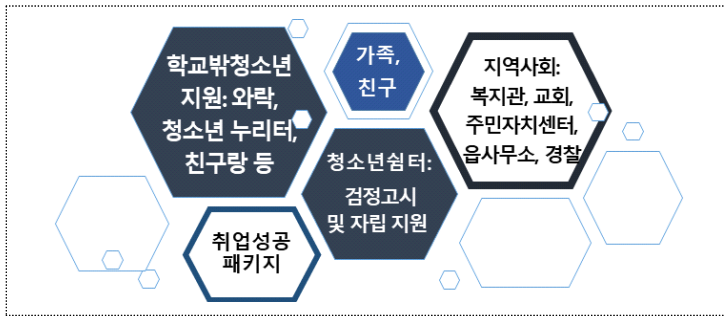


그림 V-7. 꿈드림 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경험

○ 학교 밖 청소년과 유사한 지원체계로부터의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꿈드림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와락⁸⁶⁾과 강동청소년누리터⁸⁷⁾, 친구랑⁸⁸⁾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지원 내용은 꿈드림

86) 노원구에 위치한 '와락'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징검다리 거점공간 중 하나로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아리와 자치회 활동, 진로자립교육등을 지원하고 있다(출처: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와락: <http://www.nowonyouthcenter.org/contents/sub04/?st=su b04&sMenu=02>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87) '강동청소년누리터' 역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강동구 내 징검다리 거점공간으로 와락과 유사한 교육문화사업, 청소년자치활동 및 배움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출처: <http://www.kdnuri.or.kr/>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88) '친구랑'은 서울시 교육청의 학업중단학생 도움센터로 학업지원 및 진로지원 등 꿈드림과 유사한 지원을 제공한다(출처: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notice/notice_11_02.html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과 상당히 유사했다. 지원 받은 청소년들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연구참여자 12번 청소년의 경우 와락을 통해 또래와의 교류를 했던 것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와락이라고 다른 거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좀 괜찮았어요. (중략) 와락은 이제 모여서 수업도 하고, 학교 같은 수업이 아닌 **자기탐색** 같은 그런 수업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중략)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집을 나가서 또 래랑 모일 데가 있다는 거 (연구참여자 12)

(**청소년누리터**에서) 교재도 주시고, 거기서 이제 **과외** 같은 느낌으로 선생님도 구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쉽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6)

제과제빵도 해보고, **바리스타**랑 거기 안에서 단체에서 음식도 만들기도 하고 꽃꽂이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런 걸 여러가지를 해서 뭔가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관심을 다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8)

○ 다른 정부 지원체계의 도움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지원 뿐 아니라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쉼터의 종사자로부터 검정고시 지원 뿐 아니라 고민이나 진로에 대한 조언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연구참여자 10, 26), 특히 한 청소년은 쉼터로부터 신용카드, 금융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교육(기저귀 갈기)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24). 또 다른 청소년은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해 필요한 훈련과 비용을 지원받았고 처음부터 막막했을 취업과 관련한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연구참여자 15).

(쉼터를 통해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다보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거만 나오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겠다**는 **희망** 그런 것들. 좀 자부심도 생긴거 같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연구참여자 8)

(도움이 된 것은) 일단 친구 관계부터 시작해서, 학교생활에 있었던 것도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검정고시 공부도 조금씩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틀어진 거를 다시 잡으려면, 너도 이런 쪽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

니까, 잘 풀리게 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연구참여자 26)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해서, 그런 **금융, 카드, 돈 같은 것도** (교육)하고, 미래에 **엄마가 되는 준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해서 (중략)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시고, 혹시 아픈 데가 있으면 **병원도** 바로 바로 알아봐 주시고,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 예약도 잡아주세요 (연구참여자 24)

청소년 필요한 훈련이 있으면 금액 지원 해 주고, 취업 도와주는

면접자 그러면 그런 취성패 하면서 도움이 됐어요? 아니면

청소년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중략) 맨 땅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도와주니까, 취업하는 거를, 그것 때문에 도움이 더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5)

○ 지역사회/가족·친구로부터의 도움

- 기초 지자체 지원과 꿈드림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계로부터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꿈드림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역사회복지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했고, 또 경찰이 꿈드림과 읍사무소를 연결시켜 주어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연구참여자 23, 5). 지역의 가장 기초단위인 동 주민자치센터와 읍사무소, 그리고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례들은 꿈드림 뿐 아니라 지역의 많은 체계가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구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등급이 되게 낮아요. 원래 아버지 몸 상태가 일을 못하시는 몸 상태인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장애등급을 받아야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짜증이 나죠.

면접자 그렇구나. 그러면 복지관에서 지원 받는 거는 신청을 하신 거예요?

청소년 그것도 **꿈드림 센터에서 대리로 신청을 해 주셔서** (연구참여자 23)

동생들이 연 초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서 경찰서에 갔었거든요. (중략) 그때 그 **경찰관 분들이 제가 학교 안 다니고 학교 밖 청소년인 거 알고, 그때 꿈드림을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꿈드림 등록해서 다니고 있고, (중략)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 경찰관 분들이 읍사무소에 연결을 해줬어요 (연구참여자 5)

- 교회의 지원과 꿈드림 소개

교회에서 도움을 받다가 교회학교 교사로부터 꿈드림을 소개받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2). 지역사회에서 민간영역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례들은 공적 체계 뿐 아니라 민간 체계와도 유의미한 협력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면접자 (쉼터) 외에 다른 도움 받은 경험이 있어요?
 청소년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한테도 많이 받죠.
 면접자 아, 교회 선생님들이 어떤 도움을 주세요?
 청소년 꿈드림도 교회 선생님이 한 번 연락해봐라 해서 한 거고 (연구참여자 2)

-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도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학교를 떠난 이후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는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고민이 생겼을 때는 친구/이성친구로부터 조언을 들었다.

면접자 학교 중단한 이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거나 고민 생겼을 때 주로 누구한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세요?
 청소년 부모님이나 그 과외 선생님께 조언을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20)
 입시 관련해서는 꿈드림 센터에다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약간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 같은 건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연구참여자 27)

표 V-2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외 지원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다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통한 도움	와락에서의 또래와의 교류	수업, 적성검사도 좋았으나 또래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음(12)
	강동 누리터에서의 다양한 경험	과외 선생님을 구해줘서 쉽게 배웠음(16)(18) 제과제빵, 바리스타와 같은 다양한 직업체험 경험을 해볼 수 있었음(18)
	친구랑에서의 악기 레슨	악기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것저것 배웠음(11)
타 정부지원 체계의 도움	쉼터에서의 학습 지원과	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해 줌(8) 고민이나 진로에 대한 내용은 쉼터에서만 도움 받음(10)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자립지원	쉼터의 선생님으로부터 친구관계, 학교생활, 검정고시 공부 등에 대해 도움 받음(26) 신용카드, 금융관련 정보, 미래에 대한 준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교육 등을 지원받음, 상담과 병원치료도 받음(24)
	취업성공패키지의 도움	맨땅이 아닌 필요한 훈련과 비용도 지원해 주었고 취업도 도와주어 많이 도움이 됨(15)
지역사회의 공적/민간 지원	기초 지자체 지원과 꿈드림	꿈드림에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대리로 신청해줘서 사회복지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23) 경찰이 꿈드림과 읍사무소를 연결해줘서 지원을 받았음(5)
	교회의 지원과 꿈드림 소개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고 꿈드림도 소개해 줌(2)
	가족/친구로부터 의 도움	부모님이나 과외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음(20) 학교 중단 후 고민 생겼을 때 남자친구로부터 조언을 받음(2) 친구들에게 고민이야기를 많이 하고 조언을 들음(25)(27)

(2)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욕구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지원 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과, 또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그리고 현재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지원과 서비스들에 대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좀 더 기대하는, 희망하는 지원들도 있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된 지원 요구들을 범주화하여 크게 영역별로 대학진학 지원, 직업/취업관련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다양한 활동 및 기회 지원, 경제적 지원, 학업중단 후 필요정보 제공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정책 및 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면접결과를 가독성을 고려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V-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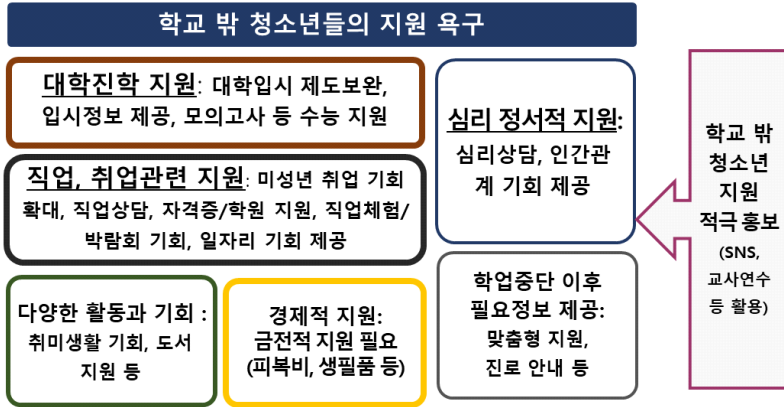


그림 V-8.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욕구와 홍보 필요성

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

○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정보 제공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었고, 학교 중단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안내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청소년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9번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할 필요성과 함께, 무엇보다 청소년 본인에게 맞는 정보들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은 학교를 떠난 직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으며, 이들에게 검정고시를 포함한 많은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연구참여자 18).

(지원관련) 정보를 일단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데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그게 사실 쓸데없는 정보는 필요 없잖아요. **쓸데 있는, 자기한테 좀 맞는 정보들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그냥 **검정고시 준비하는 사람, 자퇴를 하면 알려주는 게 더 많아졌으면 해요** 왜냐하면 검정고시를, 자퇴하고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몰라서 돈 내고 학원다니고 무책임하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차라리 그런 게 많아지면 애들도 자퇴를 했을 때 좀 방법도 알고 대처를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참여자 18)

○ 심리정서적 지원

조사 참여 청소년들은 심리 상담과 인간관계를 만들 기회 등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심리 상담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특히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탐색하길 원했다. 또한 정신적인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충분하지 못한 상담시간을 아쉬워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0, 13, 20, 22). 또 학교를 떠나 또래와의 교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적 특성상 소속감을 갖거나, 친구를 사귀고 비슷한 또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연구참여자 14, 19, 23, 27). 연구참여자 27번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를 나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활동도 하고 싶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것보다 일단 생각 정리하고 **심리적으로 지원 받고**, 자기 자신 찾는 거? 그런 쪽으로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게 더 적성에 맞지 (연구참여자 10)

소속감이라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학원에서 채워 주지 못하는 소속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모자라다는 걸 가끔씩 실감을 해요 (연구참여자 14)

제가 어려운 게 없다고 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어지는 **상담 시간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연구참여자 20)

그냥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 해 주긴 하는데, 정기적으로 필요한 애들은 해도 될 것 같아요(종략). **그럼 치료**, 이런 쪽도 괜찮고, **멘탈 관리**,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22)

일단 친구도 없고, 친구를 만날 데도 없고, 그런 것 같네요.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9)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비슷한 또래 애들이랑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연구참여자 23)

이제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활동도 해보고 싶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7)

○ 경제적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담지원이나 자격증 등 직업관련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청소년들

대부분이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학교를 떠난 이후 꿈드림에서의 다양한 지원 외에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연구참여자 11, 22, 25). 좀 더 구체적으로 피복비나 자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생필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청소년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7, 28).

상담 지원이나 약간 **저소득층 애들 지원해 주는 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그냥 전 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약간 사회적 약자잖아요. (연구참여자 22)

일단은 학업 지원이라던가, 저희 같은 애들은 옷도 별로 입을 그런 게 없어서 옷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해준다던가, 약간 **자기 생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지원해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연구참여자 17)

자취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퇴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런 애들한테 생필품? **최소한의 생필품 같은 걸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8)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난 이후 당장의 경제적 이유로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이해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진로준비 대신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때 진로를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력조건에 더해 결국 이들은 자립 초기에서부터 늦은 출발선에 서게 된다. 꿈드림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울 경우 주민자치센터, 구청,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기관들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대학진학을 위한 지원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의 대학입시와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 욕구를 밝혔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한 경우 대학입학 시 용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연구참여자 9, 21), 구체적으로 대학진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4, 9). 모의고사 등 보다 실질적인 수능 준비를 위한 지원 필요성과 대학입시를 포함한 토익이나 토플 같은

시험 준비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2 19).

대학진학 하는 데는 조금? 뭐 **원서 넣는 법?** 학교도 알아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요 (연구참여자 4)

꿈드림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대학 입시 부분** 같은 경우 약간 컨설팅을 해주시지는 않아서, 그런 게 없어서 딱히 없는 거 같긴 해요 (연구참여자 9)

제일 필요한 거는 **수능 준비**하는 거인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는 모의고사 다 해 주고 (중략) 학교 밖에 나온 애들은 모의고사 라는 개념이 거의 없으니까 (연구참여자 12)

검정고시를 제외하고서라도 **대학 입시나 토익, 토플 같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꿈드림의 스케줄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꿈드림 스케줄은 거의 다 약간 검정고시에 맞춰져 있어요?) 네. 거의 다 그래요. 아니면 취미활동, 빵 만들기 이런 거 (연구참여자 19)

연구참여자 19번 청소년의 경우는 꿈드림에서의 지원이 검정고시 준비와 취미 활동, 제과제빵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이후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시험(토익 등) 준비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길 희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대학입시와 수능 시험준비를 위한 지원과 같은 더욱 심화된 학업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직업, 취업관련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취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들을 요청하였다. 이 내용들을 범주화하여 법적·제도적 변화, 직업상담, 자격증/전문학원 지원, 직업체험과 박람회 기회 제공, 아르바이트 및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법적, 제도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실제 아르바이트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문제 제기하였다. 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은행관련 업무나 아르바이트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으며(연구참여자 25), 또 다른 청소년은 일자리에 지원을 해도 나이가 안 된다고 돌려보내지면서 이를 (사회적)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연구참여자 26). 이렇게 법적으로는 미성년이나 일할 의지가 있고 또

경험을 쌓고 싶거나 실제 경제적인 이유로 일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방식의 취업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디 알바를 지원하려 해도 만 18세부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취업을 해도 만 18세부터 하고, 뭘 하고 싶어도 만 18세, 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거기다가 하나라도 더 급한데 못해서 좀 (중략) 제가 이제 돈 벌고 살아야 하는데, 계속 **이 미성년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뭐 하지도 못하고**, 은행 업무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연구참여자 25)

일단 대부분이 검정고시를 따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청소년이라 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자리든 간에 **일단은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저한테도 (중략) 나이 채우고 와라, 검정고시 봐서 졸업하면 뭐냐고, 나이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서운한 게 있긴 해요. **제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인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6)

또 직업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성향을 탐색하고 맞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해도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못하겠다는 청소년도 있었다(연구참여자 21, 22).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싶거나 1개월이라도 원하는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희망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6, 7, 9).

일단 그 친구의 **성향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는 직업을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 주는 것까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21)

너무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딱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연구참여자 22)

제가 이제 네일 아트를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엄청 많아요. 하고 싶은 건 엄청 많은데 그게 또 마음처럼 안되니까, **자격증을 많이 따 놓고 싶어요**(연구참여자 6)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몇 달 만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원 지원 같은 거. 금전적으로. 학원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뭐 그것도 안되면 1개월 정도라도, 나한테 잘 맞는건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9)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직업 박람회 같은 직업 및 진로와 관련한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였다(연구참여자 20, 22). 대규모의 직업박람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치구 차원에서 작은 규모의 박람회 개최를 원했고, 이 경우 많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했다(연구참여자 10, 18, 20). 특히

22번 청소년의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울과 대구 같은 대도시에서 직업체험기회가 많은 것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아쉬워하였다. 꿈드림뿐 아니라 지역 내 다른 곳과도 연계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면 주위의 시선도 좋아질 수 있다고 제안한 청소년도 있었다(연구참여자 33).

꼭 학원을 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뭐를 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다양하게** 접해주고, 박람회나 그런 데, **직업 박람회** 이런 데, 아니면 무슨 그런 기회를 접했으면 하고(연구참여자 10)

그냥 **여러가지 체험**을 저 말고도 저 같은 애들이 있으면 이런 거 재밌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만 하면 되게 많은 애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8)

저희는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알아봐도 기회가 적으니까, 구청 같은 데에서 그런 걸 주최를 해 주면, 아니면 **작은 박람회**라도 개최해 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친구들이 많을 텐데, 왜 안 해 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20)

진로 찾는 프로그램, 그런 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이것저것 경험하게 도와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다른 데,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직업 체험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가끔 가다가 프로그램 하고, 그냥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연구참여자 22)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소개와 같은 취업지원을 원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곳을 소개받길 희망하였고, 취업이 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사례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3, 15, 22, 26). 이러한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학교를 통해 진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진로지도, 진로탐색과 같은 기회를 갖기 어려움에 따라 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저는 **일자리 지원**,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일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3)

뭔가 연령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곳이 소개가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연구참여자 15)

나이 때문에, 청소년이 이제 검정고시를 뚫다고 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업 될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연구참여자 26)

○ 다양한 활동과 기회 제공

위에서 언급한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관련 정보 제공, 심리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대학진학 및 취업관련 지원 외에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과 기회를 지원받기를 희망했다. 여기에는 취미생활, 운동을 위한 기구 구비, 음악레슨, 학습도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꿈드림에서의 1박 2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내용도 생생히 보고되었다(연구참여자 8, 19, 27, 30). 특히, 30번 청소년의 경우 꿈드림에서의 지원내용이 검정고시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장비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 다른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연구참여자 33).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의 생활을 더욱 유익미하게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희망처럼 다양한 취미생활이나 프로그램뿐 아니라 장소/공간 역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레슨을 받는다고 치면, **레슨 받는 거를 좀 더 저렴하게**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소개도 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9)

저는 그 여행가는 게 있는데 1박2일로 그걸 좀 기대했었는데, 그걸 제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약간 **체험학습** (연구참여자 27)

약간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27)

너무 다 공부에 있어요. 너무 검정고시 지원에 프레임이 맞춰 있어요. 홍보할 때도, 그러니까 가벼운 이런 악력기나 기초 건강 도구, 이런 거, **기초 운동 도구들 지원** (연구참여자 30)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은 쉼터**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33)

표 V-25.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학업중단 이후 필요 정보 제공	맞춤형 지원	각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19)
		진로 안내 및 정보 제공	자퇴 후 검정고시 등 필요한 정보나 방법 제공(18)
	심리 정서적	심리상담 지원	심리적 지원과 자신의 장단점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10) 상담지원 받고 싶음(13)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지원		상담시간이 적게 생각되어 아쉬움(20) 상담을 깊게 받거나 그림치료나 멘탈관리가 있었으면 좋겠음(22)
		인간관계 기회 제공	소속감을 느끼고 싶음(14) 친구를 만날 데가 없고, 인간 관계를 시작할 데가 없음(19) 비슷한 또래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23) 심심하기고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서 꿈드림에 감(27)
	경제적 지원	취약청소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경제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11)(25)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격증이나 직업연계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필요(22)
		피복비나 생필품 지원	학업지원과 피복비 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음(17) 자취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필품 지원 필요(28)
	대학진학 지원	대학입시 제도 보완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자의 대학 입시전형 방식 재고(9) 검정고시 점수의 대학입시 시 점수 환산 등 지원 필요(21)
		대학 진학 정보 제공	대학입시를 위한 원서 등 입시 지원과 학교 정보 제공(4) 대학입시관련 컨설팅 필요(9)
		대학 입시, 수능 지원	모의고사 등 수능 준비(12) 대학입시나 토익, 토플 등도 지원해주면 좋겠음(19)
	직업, 취업관련 지원	미성년 취업 기회 확대	만18세 미만이어서 아르바이트와 취업에 제한이 많음(25) 청소년이어도 아르바이트/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길 바램(26)
		직업상담	개개인의 성향을 알 수 있도록 직업상담을 받고 싶음(21) 취업을 하려고 해도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할 수 가 없음(22)
		자격증이나 전문 학원 등	자격증을 많이 따 놓고 싶음(6)(7) 배우고 싶은 학원을 1개월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음(9)
		직업체험과 박람회 기회 제공	학원 아니더라도 직업박람회 같은 기회를 접했으면 좋겠음(10) 여러 가지 체험 기회가 많으면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 될 것(18) 직업체험과 인턴십 기회가 필요하며, 자치구 수준에서 작은 박 람회라도 개최해 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친구들이 많음(20) 진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직업 체험 센터같은)(22)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길 희망함(33)
		아르바이트, 일자리 기회 제공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면 좋겠음(15)(16)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음(22) 취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좋겠음(26)
	다양한 활동과 기회/ 장소 제공	취미생활/ 운동	취미생활 지원(8) 음악 레슨 지원(19) 운동을 위한 기구 구비(30)
		체험학습	여행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기대(27)
		도서지원	학습도서 지원(27)
		휴식공간 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휴식 공간 필요(33)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에 대한 인식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청소년들은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원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알지 못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먼저 몇몇 사례에서 청소년들은 꿈드림을 통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꿈드림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연구참여자 15, 21). 그 중 연구참여자 28번 청소년은 생활지원비와 학원비 등 뿐 아니라 급식과 생필품 등도 지원해 줌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30번 청소년은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꿈드림) 센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없는 지역이나 그런 곳에서도 만들어지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5)

(정부)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학교 밖 청소년 복지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지원비도 백만원씩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학원비 같은 걸 지원해 거든요 그런 게 있고, 지금이 코로나라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급식 같은 걸 줘요. 약간 집에서 쓸 수 있는 야채나 그런 것들도 되게 택배로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8)

솔직히 저는 여성가족부 일 진짜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누가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건 좀 있어요. 쓸데없는 홍보물 좀 안 돌렸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30)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관련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에 대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청소년들은 과거에 본인들도 이러한 지원에 대해 알지 못했고(연구참여자 2, 10, 14, 18, 27), 또 꿈드림을 학교와 비슷한 성격으로 오해함에 따라(또래관계 측면에서) 처음에는

이용하기를 꺼려했다고 회고하였다(연구참여자 5). 이러한 사례는 학업중단 과정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가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직후에 막막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꿈드림에 대해) 이렇게 **안내를 잘 안 해줘요**. 안 해 준다고 보다는 선생님들도 일 처리가 너무 바빠서 (연구참여자 10)

제가 학원을 잠깐 다녔는데 정보도 한정적이었고, 약간 대학이나 검정고시, 자격증, 아니면 꿈드림 센터 같이 자퇴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좀 많이 홍보해 주면 좋겠어요**. 꿈드림 센터도 존재도 몰랐다가 (중략) 주변에서 꿈드림 센터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서 그냥 막무가내로 자퇴한 사람도 봤거든요 (연구참여자 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대부분 자퇴한 애들은 그런 건 **잘 못 들어봤다고**, 저도 못 들어봐가지고, (중략)네 저도 (들어본 적) 없고, 주변에도 없고 (연구참여자 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근데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작년에 제가 서울로 강의 들으러 갔을 때 **꿈드림센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7)

학교 나오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꿈드림이라는 시설을 알려주긴 했었어요. 그런데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어차피 거기 가서도 일반적인 학교 생활처럼** 다른 친구들하고 내가 싫어도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연구참여자 5)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경험에서 뿐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 사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가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몇몇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페이스 북(facebook) 같은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연구참여자 6, 16).

면접자 학교를 그만두려고 해요. 학생이. (중략) 무슨 도움을 줘야 될까요?
청소년 많이 **홍보를 하는 거**. 이런 지원 같은 게 있다 알려주는 게. 그럼 참여하지 않을까요.
면접자 근데 청소년들은 요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제일 빨리 알아요?
청소년 페이스북?(연구참여자 6)

면접자 그러면 친구들이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와 볼래? 이런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이런 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 아무래도 이제 **SNS를 더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SNS가 제일 낫기는 한데 홍보가 잘 안돼서** (연구참여자 16)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정보 없이 막무가내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 끝까지 지원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구술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꿈드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연구참여자 8, 14, 22). 연구참여자 22번 청소년은 구체적으로 교사연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꿈드림에 대해 홍보할 것을 상세히 제안하기도 하였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걸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꿈드림 센터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서 그냥 막무가내로 자퇴한 사람도 봤거든요 (연구참여자 14)

일단 꿈드림이라는 거 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솔직히, 꿈드림을 모르는 친구가 전국에서 더 많을 정도로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애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나가고 지원 받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자기 혼자 막막하니까, 그런 게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제가 이거는 전국 정책 제안에서 했던 건데, 교사들 연수를 가잖아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연계되는 센터도 더 잘 알았으면 좋겠고 (연구참여자 22)

본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체로 꿈드림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 이에 대한 장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본인들의 현재 생활과 미래 진로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학교를 떠난 이후 아무런 정보나 대책이 없는 주변 사례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 이러한 지원 내용이 더 잘 알려지길 희망하였다. 이들 청소년들이 제안한 대로 교육현장 일선의 교사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꿈드림 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며, SNS의 적극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홍보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V-26.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 전달에 대한 인식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에 대한 인식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음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	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음(15) 꿈드림센터가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함(21) 학교 밖 청소년 복지를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함. 지원비, 학 비, 급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음(28)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잘 해주고 있음(30)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필요	지원정책에 대해 잘 모름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 없음(2)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 해 안내를 못해준다고 생각함(10) 꿈드림 존재도 몰랐음(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음(18) 꿈드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청소년들이) 많았음(27)
		꿈드림에 대한 오해	꿈드림도 학교생활처럼 싫은 친구들과도 어울려야 할까봐 처음 에는 가고 싶지 않았음(5)
		꿈드림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페이스 북이나 SNS를 통하면 홍보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함(6)(16)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많이 알리면 좋겠음(8)(14) 학교에서 자퇴한 사람에게 (지원에 대한) 안내해주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함(18) 꿈드림이 알려지지 있어 지원없이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있음.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꿈드림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음(22)

(4) 지역사회 자원과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① 지역사회 지원 및 관련 인프라

○ 현재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긍정인식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현재 받고 있는 지역사회 내 지원내
용에 만족하고 있었고, 교통편 등 접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대
체로 대도시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에게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많았다. 연구참여자 4번, 11번, 28번 청소년들은
대도시에서의 꿈드림 지원에 불만족이나 불편함이 없으며, 현재 살고 있는 대도시

와 자치구의 특별한 지원이 많아, 학교 밖 청소년 복지가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들은 중간 규모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대도시는 아니어도 충분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며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체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17, 29).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가깝고 버스나 지하철 접근성이 좋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모두 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례들이었다(연구참여자 15, 18, 20, 21).

(현재 지역에 대해) 저는 아무래도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지방에 있는 도시들보다는 어떤 그런 지원이나 그런 게 좀 더 빠르다?** 그러니까 ○○시에서만 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자퇴생 지원금도 ○○시에서만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교통비 지원 같은 것도 이제 저희 ○○구에 서만 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학업중단자 11)

(자치구의 지원에 대해)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가 인구 비율도 되게 높고 (중략) 청소년 비율이 되게 높아서 세손가락 안에 든다고 들었어요. **청소년 복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대해서는** (학업중단자 28)

○○시가 좋은 점이 이제 **청소년 자립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약간 부모님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애들이나.. 학업 지원 이런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배울 곳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연구참여자 17)

○ 현재 지역에서 지원받기 어려움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 지원의 접근성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거리가 멀거나, 학원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꿈드림 지원을 포함한 학원 등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33번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뿐 아니라 보건소와 상담을 받는 곳 모두 산을 넘어가야 하는 등 거리가 너무 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정신건강 측면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청소년의 경우 회복지원 및 진로지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상담서비스, 꿈드림) 접근성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드림은 되게 (거리가) 멀었어요 (연구참여자 19)

(꿈드림 가려면) 저희 지역 자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전부 다 돌아서 가야 돼요**. 전부 다 직접적으로 가는 게 없어서 (연구참여자 23)

정신적으로 상담하는 곳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멀어요. **산골짜기 넘어서 가야 되는**, 그리고 ○○(꿈드림) 센터도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산골짜기 넘어서 가야 되고, 보건소도 산골짜기 넘어서 가야 되고, 주로 건강과 쉼에 관련된 곳은 다 산골짜기 넘어서 가야 돼요 (연구참여자 33)

또한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22번 청소년은 해당 지역에 지하철에 없어 교통이 불편하고 취미생활이나 교육 등이 서울에 비해 수준이 낮다고 해당 지역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했다. 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은 훨씬 컸는데, 30번 연구참여자는 광역시에서 이곳 군지역으로 이사를 온 이후 상대적으로 버스 인프라도 부족하고 학원도 많이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이전이 살았던 광역시는 “없는게 없었죠”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은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컴퓨터 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버스로 편도 2시간이 걸리기도 했으며, 현재 거주지역에서는 학원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인근 더 큰 도시나 대도시를 무조건 가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연구참여자 32). 이렇게 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학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 및 교통편 부족에 대한 불편함을 주로 호소하였다.

단점은 너무 많은데, 일단 지방이다. 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이 없다,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등 (많아요). 취미생활을 하기도 서울에 비해서 너무 동떨어져 있고 전체적인 교육도 서울에 비해서 질이 좀 낮은 편이고, 그냥 안 좋은 점을 말하면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22)

(군지역이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꽤 있어요. 특히 저는 교통수단, 확실히 군이다 보니까 **버스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요. 학원도 많이 없어요**. (이사오기 전 살던) △△(인근 광역시)와 비교할 때 너무 없어요. 학원도 많이 없어요. △△는 다 있었죠. 없는 게 없었죠 (연구참여자 30)

(디자인 컴퓨터 학원을 가려면) **버스로 가다 보니까 좀 걸리는 편이죠, 두 시간 정도?** (배우고 싶은 걸 배우기 위해) ○○(타 지자체)에도 가고, 센터 지원이 아니더라도. (중략)(여기서는) ‘할 게 없어.’ 쪽에 가깝죠. 뭔가 배우고 싶어도 **학원 같은 것도 굉장히 적고**, 대부분 ○○나 □□시(타 지자체나 대도시)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구참여자 32)

근지역에서 예상되는 다소 일반적일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의 불편함에 더해 연구참여자 32번 청소년의 이야기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시작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도 있지만, 읍면수준 지역에서는 서로 가깝고 잘 아는 처지여서 쉽게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만두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시지역 꿈드림이나 청소년관련 시설과는 다른 양상으로, 인구가 많지 않고 따라서 청소년들 간에도 서로 잘 알고 있는 읍면지역에서의 지원서비스 이용에 있어 또 다른 의미의 장벽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뭔가 조금씩 있기는 한데, 홍보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중략) 그런데, 애초에 서로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대부분 친하지 않을 뿐이지 **얼굴과 이름은 알고 있는 사이니까 지역 사회에서 뭔가를 시작하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단체나 YMCA나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아는 사이니까 갑자기 제가 끼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선뜻 들어가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데 또 가볍게 들어갔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그게 또 되게 부담스럽고** (연구참여자 32)

②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 만족하고 계속 살고 싶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만족하고 계속 살고 싶다고 보고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구체적으로 대도시라서 교통이 좋고, 또는 특별한 불편함이 없어서, 원래 살던 익숙한 곳이어서 등의 사유를 언급하였다(연구참여자 5, 16, 11). 중부지역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13번 청소년의 경우는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으나 봄비지 않아서 좋다고 진술하였다.

저는 서울에 있고 싶어요. 서울이 뭐 교통적으로나 이것저것 **더 편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6)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데에 제 친구들 다 있고, 저 아는 형, 누나들 다 있고, 제 후배들 다 있는데 (연구참여자 11)

저는 **여기가 그래도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그래도 여기가, 아직 다른 지역 가기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5)

(지금 사는 곳이)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좋아요**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연구참여자 13)

○ 현재 지역이 만족스럽지 않음

서울에 살고 있는 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도시의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학업스트레스가 크다고 진술하였다(연구참여자 12). 이 청소년은 서울에서의 여가 및 문화생활 인프라가 좋은 것에는 만족했으나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한 면에서는 불만족을 표했다. 이외는 다른 입장에서 지방 소도시의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할 것이 없으며, 주변 지역에 꿈드림 같은 지원기관도 없고, 병원과 같은 시설도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13, 5). 연구참여자 20번 청소년의 경우 대도시 지역이어서 학군은 좋지만 자신과 같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불친절하다고 느꼈으며, 그 이유를 보수적인 지역의 편견 탓으로 보았다.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도 그렇지만 아마도 **학업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는데 주는 압박이 있으니까 (중략) 만족스러운 부분은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별로예요 (연구참여자 12)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 때 할 게 없고요 (연구참여자 13)

○○는 **시골이어서 놀데도 별로 없어요**. 노래방도 없고. △△에는 대부분 많이 있지요 (연구참여자 31)

이 쪽 주변에는 뭔가 큰 게 없어요. **꿈드림 같은 그런 시설도 주변에 없고**, 읍사무소도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병원 같은 것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는 식당이나 그런 거 밖에 없으니까 (연구참여자 5)

(대도시라서) 학군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학교 밖에 나간 저 같은 청소년들한테는 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오히려 (중략) 보수적인 지역이라, 되게 편견이 심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0)

○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음

향후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복잡하지 않아 계속 살고 싶다고 한 청소년과는 달리 이러한 조건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지역을 벗어나고 싶은 이유가 되었다. 2번 연구참여자자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했으나, 20번 청소년은 한적한 곳을 선호했다. 또 교통이나 학원 등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였고(연구참여자 8,

9), 서울에 대한 동경으로 서울로 이주하고 싶다는 청소년들도 있었다(연구참여자 26, 27, 31).

(떠나고 싶어요? 어디로요?) 수도권 쪽으로요. 사람이 그래도 조용한 데 보다는 **복적복적 거리는 데 있어야** 그래도 조금 사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연구참여자 2)

완전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네. 약간 **시골 가서 혼자 동떨어진** (연구참여자 20)

(○○로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거기 인구도 많다고 하고 되게 막 **교통이 발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가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8)

저는 직업 자체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배워야하는 것도 이런 쪽에 더 많으니까**. 이런 쪽에 있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시골 쪽보다는 도시 쪽에 훨씬 더 있고 싶은? (연구참여자 9)

서울 쪽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애들이 맨날 서울 사는 애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거기 촌 동네라고 막 그러니까, **서울은 얼마나 잘 사는지**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26)

물론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좋긴 한데 △△를 벗어나고 싶다는 것보단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강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고 그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7)

나중에는 서울이나 부산을 가고 싶어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이니깐... 부산은 부모님이 부산 출신이셔서 (연구참여자 31)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원관련 내용과 지역사회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 중 일부는 현재 자신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측면이나 거주 측면에서 모두 만족하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중소도시나 군 단위 읍면지역의 경우는 학원 부족이나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규모에 따른 인프라 뿐 아니라 서비스지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전의 연구결과(조아미, 임정아, 2018)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읍면지역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27. 지역사회 지원과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지역사회 지원 및 관련 인프라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긍정인식	현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만족함	대도시(광역시)에서의 꿈드림 지원 만족스러움(4) 지금 살고 있는 시와 자치구만의 지원이 많음(11) (경기도 중소도시) 시스템이 잘 됨, 학원지원 등도, 배울 곳도 많은데 돈이 없음(17) (경기도 중소도시) 체험하고 싶은 것이 없어 어려운 점 없었 음(29) (대도시) 현재 자치구의 학교 밖 청소년복지가 좋음(28)
		교통이 편리하고 가 깝고 좋음	꿈드림이 가깝고 버스, 지하철 접근성이 좋음(15)(18) (20)(21)
	현재 지역 에서의 지원받기 어려움	꿈드림/상담 등 이 용하기에 거리가 멀	꿈드림이 먼 곳에 위치해 있음(19)(23) 상담받는 곳도 너무 거리가 멀(33)
		학원도 없고 여러 인프라 부족	군지역이어서 학원도 없고 다른 곳으로 다 가야 함, 모두 부족(30)(32) 학원, 청소년관련 센터, 교통 모두 부족함(22)
		인근 지역이라 불편함	서로 다 알고 있어서 이용하기 껄끄러움(32)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만족하고 계속 살고 싶음	별다른 불편함 없음	경기도의 꽤 큰 지역이고 불편함 없어서 계속 살고 싶음(5) 교통도 좋고 서울에서 계속 살 예정(16)
		원래 살던 곳이어서	살던 곳이고 지인들이 있고(11) 오래 살았던 곳이라서 익숙함(25)
		분비지 않아 좋음	분비지 않고 좋음. 아쉬운 점은 있지만(13)
	현재 지역에 대해 만족하지 않음	대도시여서 학업 스트레스가 큼	서울/문화생활 등 장점이 많지만 무엇보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압박이 큼. 사람이 많은 것도 별로임(12)
		소도시라서 할 것이 없어 불편함	없는 것도 많고 불편함(5)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할 것이 없음(13) 시골이어서 놀데도 별로 없음(31)
		보수적 지역이라 편견 심함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불친절하고 편견이 심함(20)
	다른 곳으 로 이주하 고 싶음	북적북적한/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음	북적북적한 수도권으로 가고 싶음(2) 한적한 곳으로 동떨어져서 살고 싶음(20)
		교통, 학원 등 인프라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음	교통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음(8) 배워야 할 것이 많아서 도시쪽으로 가고 싶음(9)
		서울에 대한 동경	서울이라 좋을 것 같음(26) 서울에 살아보는 것이 로망(27)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니까(31)

4. 요약 및 시사점

1) 신규 패널 구축 및 1차 조사 실시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한 경험과 관련 지원욕구 파악의 필요성으로 10대 중·후반의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구축하였다. 당초 조사설계와 예산 및 연구 범위에 기반하되, 최대한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을 패널로 포함시키고자 하였고, COVID-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꿈드림과 씬터 등의 협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33명의 청소년을 질적패널로 구축하였다. 학교를 떠난 계기와 이후 경험, 현재 생활, 진로계획, 지원 경험 및 지원 욕구 등에 대한 면접지를 개발하여 기관 IRB승인을 받은 후, 엄격한 조사 참여 동의절차를 거쳐 온라인 화상면접방식을 통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패널로 구축하여 1차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남자 12명, 여자 21명이었으며, 연령대로는 만 15~18세가 26명이었고, 19세 이상은 6명이었다. 대다수가 2019년도에 학교를 그만두었으나 2017년, 2018년에 그만둔 사례가 각각 1건씩 있었으며, 올해 아예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었다. 면접결과는 분석 후 올해 보고서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2차 자료 분석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NVivo입력 등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DB 구축을 준비할 계획이다.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학교를 떠난 계기와 학업중단 과정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계기로는 수년간 지속된 또래관계 문제, 집단 따돌림 탓이 컸고, 여기에 지속적인 학업부진 등이 겹치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다. 과거의 따돌림 피해로 인해 현재까지 심리적으로 힘들어 했고, 같은 동네의 같은 학교에 재학함으로써 예전의 따돌림과 악성 소문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해 결국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누적된 심리정서적 피해에 대한 시급한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학교에서의 조기 개입과 학교를 나온 뒤 꿈드림체계에서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래관계 외에 또 다른 학업중단 계기의 큰 축은 학교와 교사였으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과 폭력행사 등도 문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학교 시기에서부터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하는 사례들이 여럿 있었고, 교급 전환(중학교→고등학교) 시 학교 부적응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논의도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위클래스 상담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상담보다는 실제 학교를 그만둔 후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한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위클래스 등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고민의 계기에 대한 심층 분석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학교 중단이 결정된 후에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꿈드림 등) 대한 정보가 반드시 안내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부모의 부재, 학교에서의 또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복합적인 사례와 가정폭력 피해자였다가 결국 학교에서의 폭력행사로 학교를 그만둔 사례들은 보다 전문적인 개입과 복합적인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 사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지원 체계인 꿈드림,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다 체계의 협력을 통한 복합적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2) 학업중단 이후 변화

면접조사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후회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의 피해경험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꿈드림을 포함한 여러 지원들 덕분에 자신감이

생긴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학업중단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주로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막막함과 또래관계나 단체생활에 대한 동경과 소속감이 없다는 이유들 때문이었다. 이는 꿈드림과 같은 지원체계의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오면서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또래들과의 교류 기회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올해는 COVID-19로 인해 대면접촉을 통한 사회적 교류가 더 위축됨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 섞인 시선을 받거나 실제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모전이나 학생을 위한 행사 등에 참여가 배제되는 제도적 차별까지 겪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3) 현재 생활 탐색 및 고민과 생활시간 조사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수능준비 등 학업·진학을 준비하거나, 인턴십/작업장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한 사례에서는 COVID-19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 없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고 보고하였고, 또 다른 청소년은 COVID-19 전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면부족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겪게 되는 기회나 경험이 제한되는 문제에 더해 COVID-19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들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고민은 주로 진로/자립 생활 등에 걱정이었고 이는 지원욕구와도 연결되었다.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를 탐색한 결과 낮 시간에 학원/꿈드림/인터십 등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으나, 이러한 일과시간(9시~18시)주간 활동이 없는 사례에서는 불규칙하고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수면 패턴은 개인차가 있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후 학교 및 직장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일과시간 활동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습관화하는 것도 이들에게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중 5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 조사(웹다이어리)를 수행하였는데, 대부분은 일과시간 내 활동이 있어 규칙적인 시간을 보냈으며, 한명의 청소년만이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짧은 수면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시간활용을 잘 하고 있었고, 또 가족들과도 예상보다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평일, 주말 모두 별도 운동시간이 전무했으며, 여가/자유 활동은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한 유튜브 시청이나 게임 등이 대부분이어서 야외/신체활동의 필요성과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족들과의 밀접한 관계, 운동시간 부족, 여가로서의 스마트폰의 비중 등은 면접자료에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다. 특히 올해는 COVID-19로 학교 체육수업도 제한적이었지만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경우는 그 체육 수업의 기회도 없음에 따라 더욱 신체활동이나 운동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조사결과였다.

(4) 자신에 대한 생각 및 진로계획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주도적으로 자기관리를 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했지만, 자신을 책임감 없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성실하거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길 희망하고 있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되지 않도록 작은 성취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진로계획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준비, 대학진학 준비, 취업 준비 등을, 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가지고 특정 직업이나 창업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일부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대학진학을 고려

하기도 했고 아직 탐색 중인 경우도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는 사례도 있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비록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장래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대학의 해당 학과 진학을 준비하였고, 궁극적으로 창업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있는 청소년 뿐 아니라 자신이 목표한 진로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진로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5) 학교 밖 이후 지원 경험과 지원 욕구, 지역사회 인식

학교 밖 청소년들은 꿈드림, 유사 지원기관, 청소년쉼터 등에서 진로상담, 학업 관련 지원, 직업체험, 심리정서지원, 활동 및 문화체험, 교통비 및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지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인지하고 꿈드림 센터가 해당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주는 유의미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를 통해 꿈드림을 알게 된 사례도 많았지만 부모님이 알아보거나 스스로 검색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 꿈드림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꿈드림에 대해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꿈드림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청소년들의 보고도 있었다. 꿈드림 외에도 유사한 서울시 및 지역 교육청을 통한 유사 지원 사업, 청소년쉼터, 지역사회복지관, 교회 등으로부터도 지원받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 사업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좀 더 기대하는, 희망하는 지원들도 있었는데, 크게 대학진학 지원, 직업/취업관련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다양한 활동 및 기회 지원, 경제적 지원, 학업중단 후 필요정보 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학교를 통해서도 더 이상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진로지도, 진로탐색과 같은 기회를 갖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더욱 전문적

인 대학입시와 수능 시험준비를 위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학업지원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취업 및 일자리 알선에 대한 욕구가 많았는데 법적으로 미성년자이나 일할 의지가 있고 경험을 쌓고 싶거나 실제 경제적인 이유로 일하기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취업기회 제공 역시 시급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자신의 적성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는 자립초기부터 불평등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긴급한 당장의 경제적 지원과 적극적인 진로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교류와 다양한 활동 및 기회를 제공받기 원했는데 이를 위한 공간/장소 제공과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지원 경험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더욱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페이스북(facebook) 같은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홍보 뿐 아니라 학교/교육청에서 청소년 정보를 콤드림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안내 및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적극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현재 받고 있는 지역사회 내 지원 내용에 만족하고 있었고, 대도시와 대도시 인근 지역의 청소년들은 교통편 등 접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고, 교통편 및 인프라 부족(관련 지원, 학원 등) 등의 이유로 대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규모에 따른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읍면지역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 제6장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대도시) 지원체계 조사

- 1. 조사개요
- 2. 3개 대도시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과
지원 현황
- 3. 3개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4.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5. 요약 및 논의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개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도시⁹⁰⁾ 지역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조사는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내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활용하는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방법론의 장점을 활용하고 한계는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량, 정성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Tashakkori & Teddlie, 2003; Dovona-Ope, 2008, 김영천, 2013: 546~547 에서 재인용). 본 조사는 질적 및 양적 자료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우선해서, 또는 순차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기보다 동시에 두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 연결하여 결과 도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으로서 첫째, 선정된 대도시 및 기초지

89) 제6장의 1절과 2절의 1), 4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2절의 2)와 3), 3절은 조아미 교수·임정아 연구원(명지대학교)이, 5절은 김희진, 임정아 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다.

90)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조사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내용에 대한 것으로, 2019년에는 중소도시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도시지역 지원방안을, 그리고 2021년에는 읍면지역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 대도시로 구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대표격으로 서울특별시 및 일부 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체의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통계자료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둘째, 해당 대도시의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추천받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현황 및 우수 지원 사례를 제시하였고,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로, 전국의 특별시 및 광역시 급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75개의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양적, 질적 자료의 내용과 취합방식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V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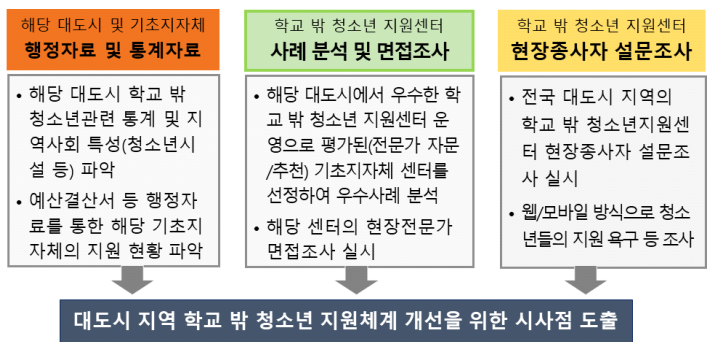


그림 VI-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도시 지역사회 지원 조사 방법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도시를 선정하고 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는 시·군·구센터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2) 조사대상 지역 및 센터 선정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최일선이자 허브기관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조사하였다. 올해 주요 연구내용이 대도시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내용임에 따라 전국의 특별시 및 광역시 급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 충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해당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대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해당 대도시를 선정하고 그 다음으로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운영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국의 권역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도록 수도권 서울, 서남의 가장 큰 도시인 광주, 그리고 동남권을 대표하는 부산 지역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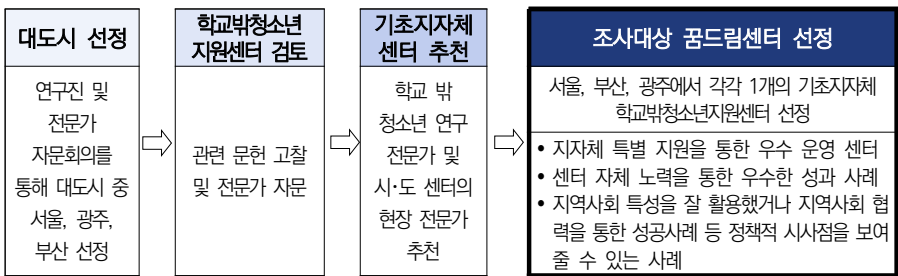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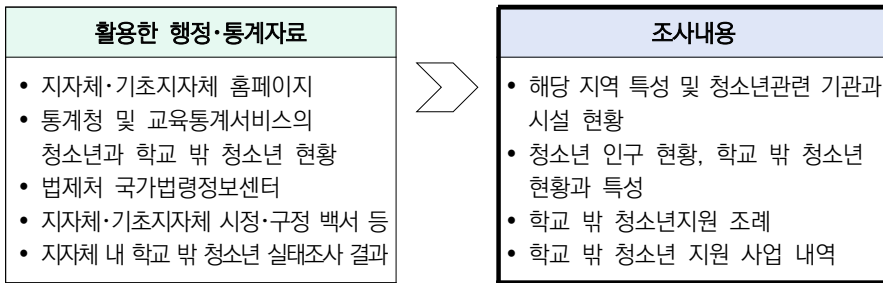
그림 VI-2. 대도시 조사대상 지역과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품드림) 선정 과정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해당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시·군·구) 수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선정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연구 전문가들을 통한 자문과 학교 밖 청소년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중앙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해당 지자체의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서울, 부산, 광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각 1개소의 기초 지자체 센터를 선정하였다⁹¹⁾. 추천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특별한 지원을 통한 우수 사례, 센터 자체 노력만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경우,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을 잘 활용했거나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성공사례 등이 있는 센터로 한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타 센터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센터들이 선정되었다.

91) 추천받은 기관 중 기관내부 사정상 조사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추천받은 센터 중 조사협조가 가능한 센터들이었다.

3)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지리적 위치 및 환경의 특성과 청소년인구 현황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현황,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의 지역별 학업중단자 통계를 활용하였다. 일부 자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자체의 경우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해당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과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따라 본 조사를 위해 활용한 행정 및 통계자료에 차이가 있음.

그림 VI-3. 행정·통계자료 활용 내용 및 조사 내용

또한 청소년을 위한 해당 지역의 시설 및 기관을 살펴보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연계를 통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과 특성,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내용도 살펴보았고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최일선 기관이자 핵심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해당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현황과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업계획서와 구정백서 등을 다운로드받아 해당 내용들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4) 현장종사자 대상 질적·양적 조사

대도시의 기초지자체 수준의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면접조사는 대도시 지역의 3개 시·군·구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전문성을 지닌 팀장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전국의 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 75개 꿈드림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VI-1).

선정된 3개 해당 기초지자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면접조사의 내용은 해당 기관 현황 및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기관의 서비스 제공현황과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 정책적 개선방안,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역 중, 특히 성공/실패 사례 및 관련 요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관계, 개선 방안 등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대도시 종사자 대상의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내용, 결과 분석 방법 등은 3절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 VI-1.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관계 종사자 대상 조사개요

구분	면접조사	설문조사
조사참여자	3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도시 지역 75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참여자 수	팀장급 종사자 3명	56개 센터에서 종사자 조사 참여
참여자 특성	전문성을 지닌 실무 담당자 중심	2년 이상 종사자(기관장 포함 가능)
조사방식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개별 심층 면담 (COVID-19확산 정도에 따라 화상면접으로 전환)	웹/모바일링크 통해 조사지 응답
시간 및 횟수	60~90분 내외/ 1회	15분 정도 소요/ 1회
기타	IRB심의에 따른 조사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사전에 취합함.	

2. 3개 대도시⁹²⁾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과 지원 현황

1) 광주광역시

(1) 광주광역시 환경적 특성

광주광역시는 우리나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호남지역 최대 도시로 인구 수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 이어 6번째 대도시이다. 광주광역시는 동부의 산지와 서부의 평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의 담양, 장성, 함평, 화순, 나주 지역 뿐 아니라 호남지역의 대략적인 중앙에 위치한 경제·행정·교육·문화의 중심거점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광주광역시 홈페이지, 2020)⁹³⁾

광주광역시와 해당 기초지자체 지도	총 인구·청소년인구 현황		
	구분	총인구	청소년인구 (9~24세)
	전체	1,456,468	288,449
	남	720,740	149,885
	여	735,728	138,564
	주: 2019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 출처: 광주광역시 지도는 카카오맵 지도서비스에 인출 <https://map.kakao.com/>에서 2020.08.29. 인출, 인구현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 인구현황 <http://27.101.213.4/#>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그림 VI-4. 광주광역시: 지도 및 인구 현황

92) 서울, 부산, 광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의 각 권역을 대표할 뿐 아니라 인구 규모, 재정수준에서 상당히 차이를 보여 다양한 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이들 3개 특별시 및 광역시는 비교적 최근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규모에 따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서울 순으로 해당 내용을 제시하였다.

93)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lId=www597>에서 2020년 8월 30일 인출

총 인구수는 2019년 12월 기준 1,456,468명으로 남녀 성비는 0.98로 여성 인구가 다소 많다. 그러나 9~24세 청소년 인구는 전체 288,449명으로 전체 인구 중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 149,885명, 여자 청소년 138,564명으로 여자청소년이 약 만명 정도 적었다(표 VI-2 참조).

광주광역시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5개 자치구로 구분되며, 서구가 면적이 가장 작은 47.78㎢이고, 동구(49.32㎢), 남구(60.98㎢), 북구(120.31㎢) 순으로 면적이 크며, 가장 나중에 광주시에 편입된 광산구(222.86㎢)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표 VI-2). 각 자치구별 전체 인구는 북구가 가장 많은 433,533명이었고,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인 자치구는 동구 98,585명이었다(표 VI-2). 만9~24세 청소년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와는 달리 광산구가 가장 많은 9만명에 달했고, 다음으로 북구가 약 8만명 수준이었으며, 가장 인구수가 적은 동구는 15,024명이었다(표 VI-2). 전체 인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자의 수가 많았는데(광산구 제외), 청소년의 경우는 남자 수가 더 많았다.

표 VI-2. 광주광역시: 자치구 면적 및 인구 현황(청소년 인구 포함)

(단위: ㎢, 명)

구분	면적(㎢)	총인구			청소년인구(9~24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광주광역시	501.25	1,456,468	720,740	735,728	288,449	149,885	138,564
동구	49.32	98,585	48,799	49,786	15,024	7,737	7,287
서구	47.78	300,975	147,671	153,304	60,294	31,490	28,804
남구	60.98	218,060	105,027	113,033	41,195	20,864	20,331
북구	120.31	433,533	215,260	218,033	81,496	42,841	38,655
광산구	222.86	405,315	203,983	201,332	90,440	46,953	43,487

* 출처: 인구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 인구현황 <http://27.101.213.4/#> 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면적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lId=www601>에서 2020년 8월 25일 인출

재정자립도는 해당지자체 및 자치구 등의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자립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하며, 지역경제

수준 및 재정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20)⁹⁴⁾.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2020년 5월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 대전과 함께 가장 낮았는데(41.1%),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은 45.2%,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인 서울은 76.1% 수준이었다(표 VI-3).

표 VI-3.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 최근 5년 재정자립도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5월 기준)
전국	46.6	47.2	46.8	44.9	45.2
서울특별시	80.7	80.5	79.2	76.5	76.1
부산광역시	50.9	52.9	52.3	50.0	49.2
대구광역시	50.6	49.9	47.6	45.9	45.4
인천광역시	62.5	60.5	60.3	57.7	54.0
광주광역시	46.7	44.8	43.8	40.8	41.1
대전광역시	50.3	50.9	47.1	43.9	41.4
울산광역시	62.3	60.2	59.9	53.7	51.6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주: 여기에 제시된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후 자료로, 산정기준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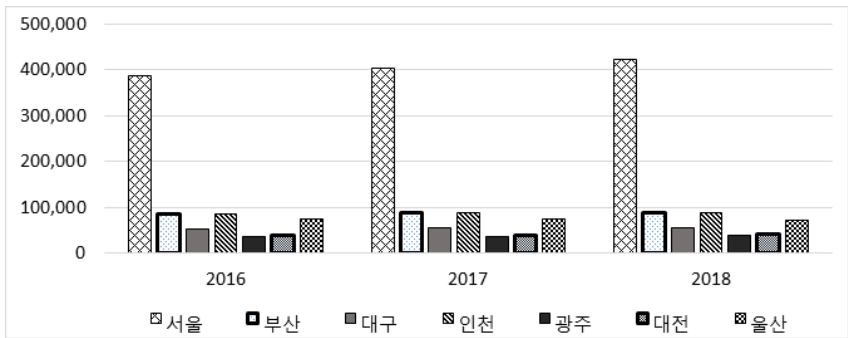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수준은 지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GRDP는 시·도 단위별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사업장 단위로 추계한 해당지역의 부가가치로 시·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이다.⁹⁵⁾ 먼저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의 GRDP를 보면, 그림 V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과 인천, 울산, 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94) 통계청 주석정보.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에서 2020년 8월 25일 인출.

95) 통계청(KOSIS) e-나라지표: 지역내총생산(GRDP).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8에서 2020년 8월 24일 인출.

광주와 대전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추이에서는 서울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른 광역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단위 : 당해년 가격 기준, 10억원)



출처: 통계청(<http://www.kosis.kr>) 지역소득.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8에서 2020년 8월 24일 인출.

그림 VI-5. 특별시 및 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최근 3년 추이

광주광역시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를 살펴보면(표 VI-4), 2020년 5월 기준 광산구, 서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구와 동구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남구가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표 VI-4.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최근 5년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광주광역시	46.7	44.8	43.8	40.8	41.1
동구	13.4	14.0	13.6	11.7	13.8
서구	20.7	21.9	20.4	20.1	19.0
남구	12.6	12.8	12.3	11.9	11.4
북구	13.6	14.1	13.7	13.8	13.9
광산구	20.0	20.3	19.6	20.0	20.5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12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주: 여기에 제시된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인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후 자료로, 산정기준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임.

연도별 추이를 보면, 광산구와 서구는 20% 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북구는 13~14%를 유지하였으나, 동구는 2019년에 11.7%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상반기에 기존의 13~14%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남구는 큰 차이는 아니나 재정자립도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치구 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해당 자치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표로 해당 시의 GRDP 확정치를 기준으로 자치구의 생산활동수준, 산업구조 등 지역 내 경제실태에 근거하여 추계한 것이다⁹⁶⁾. 2017년 기준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는 재정자립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산구가 가장 많은 총생산액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북구, 서구, 동구, 남구 순으로 GRDP가 많았으나 여기에서는 북구가 서구보다 지역내총생산이 더 많았다(표 VI-5).

표 VI-5. 광주광역시: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구분	2015	2016	2017
	총생산액	총생산액	총생산액
광주광역시 총생산액	34,845,589	36,819,006	37,743,917
동구 총생산액	3,003,018	3,261,257	3,510,144
서구 총생산액	8,709,905	9,554,545	9,328,293
남구 총생산액	2,814,024	2,836,235	2,906,857
북구 총생산액	8,669,015	9,149,277	9,564,923
광산구 총생산액	11,649,626	12,017,691	12,433,700

출처: 결과공표: 통계청(<http://www.kosis.kr>)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ld=www717>에서 2020년 8월 24일 인출.

요약하면, 광주광역시는 우리나라 서남부 최대 도시로 총인구 1,456,468명 중 청소년인구(만 9~24세)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청소년 인구수가 여자청소년보다 만 명 정도 더 많았다. 자치구별로 청소년인구수는 광산구가 약 9만, 북구가 8만 수준이었고, 청소년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는 15,000명 수준이었

96) 95번 각주 출처와 동일

다. 재정자립도와 지역총생산(GRDP)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의 특별시 및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광주 북구의 경우 해당 자치구 중 광산구, 서구 뒤를 이어 중간 수준의 재정 상태를 보였다.

(2)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및 관련 인프라 현황

가.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실태

광주광역시의 초, 중등학교 재학 학생 수를 살펴본 결과, 초·중·고등학교, 특수 학교 및 기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020년 1월 기준 총 179,110명이었다(표 VI-6).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86,818명이었고, 중학생은 43,871명,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비슷한 수준인 46,785명이었다. 이외에 특수학교 학생 수는 995명, 기타 학교 학생 수는 641명으로 나타났다(표 VI-6).

[표 VI-6. 광주광역시: 초·중·고·특수 학생 수(2020년 1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계
초등학교	593	84,517	1,708	86,818
중학교	213	31,846	11,812	43,871
고등학교	646	17,369	28,770	46,785
특수학교	-	733	262	995
기타	-	-	641	641
합계	1,452	134,465	43,193	179,110

출처: 광주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en.go.kr/sub/page.php?page_code=introduce_04_01에서 2020년 8월 24일 인출 (2020년 1월 기준), 유치원생 통계는 제외함.

광주광역시의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표 VI-7), 2017년 1,449명, 2018년 1,401명, 2019년 1,390명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 기준,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미인정유학 및 해외출국을 이유로 가장 많은 수가 학교를 중단하였고, 다음으로는 자퇴/퇴학/제적이 많았다. 자퇴/퇴학/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는 2017년 182명이었으나 2018년에 크게 증가하여 235명으로 보고되었고, 2019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 광주광역시: 초·중·고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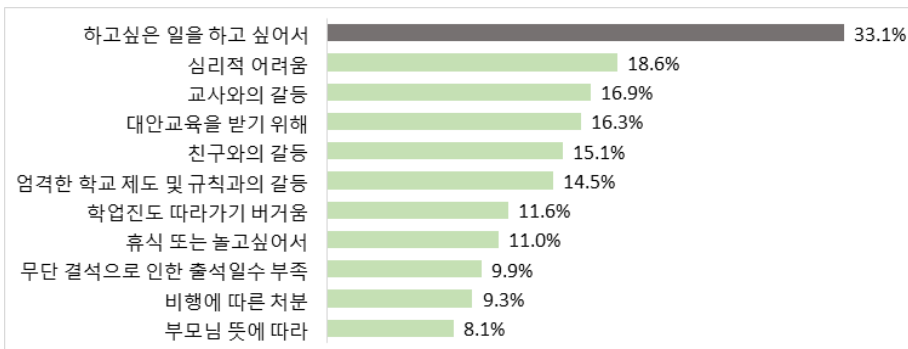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합 계	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주)}	장기결석	자퇴/퇴학/ 제적	기타
2017	1,449	64	436	1	182	765
2018	1,401	45	353	3	235	765
2019	1,390	41	380	4	207	758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19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10월 9일 인출, 2015~2018년도 통계는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하여 인출하였으며 분류를 다시 하여 재편집함.

주: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학업중단 사유를 크게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통계 중 '유예'분류의 미인정유학, '면제'와 '자퇴'의 해외출국 사례를 모은 숫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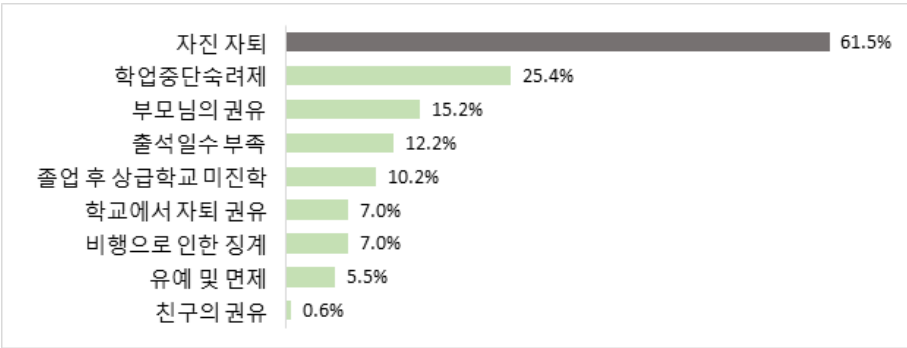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사유와 관련하여 2018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20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344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8).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가 33.1%로 가장 많았고, 학업중단 과정으로 자퇴를 통해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61.5%였으나,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중단은 25.4%로 나타났다(중복응답)(그림 VI-6, 그림 VI-7).



* 출처: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18). 2018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5 해당 그래프 재작성

그림 VI-6. 광주광역시: 학교중단 계기(복수응답)

광주 청소년들의 학교중단 사유는 이외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18.6%, 교사와의 갈등 16.9%, 대안교육 16.3%, 친구와의 갈등 15.1%, 학교제도/규칙과의 갈등 14.5%, 학업진도 어려움 11.6%, 휴식/놀이 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사례는 11.0%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6).



* 출처: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18). 2018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5 해당 그래프 재작성

그림 VI-7. 광주광역시: 학교 중단 과정/절차

광주지역 실태조사에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학교에서 안내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37.4%, 학교중단의지가 확고했다는 33.5%, 나름의 계획이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24.1%였다(표 VI-8). 결국 학교 밖 청소년 중 1/3은 학교에서의 안내 미흡으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중단시 이후 학교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44%였으며, 학교로부터 받은 안내 중 검정고시는 23.9%, 학업중단숙려제 21.3%,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는 13.1%로 나타났다(표 VI-8).

표 VI-8. 광주광역시: 학업중단숙려제 미참여 이유 및 학교 중단 시 학교의 안내

(단위: 명, %)

학업중단숙려제 미참여 이유										
구분	사례수	학교에서 안내하지 않음	학교중단 의지 확고	나름의 계획이 있음	미진학	학교 불신	복교권유 우려	부모님이 거부	기타	-
전체	257	37.4	33.5	24.1	11.3	8.2	4.7	1.2	4.7	-

학교중단 시 학교의 안내										
구분	사례수	안내받지 못함	검정 고시	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기관	대안 교육 기관	복교절차 및 내용	취업 및 직업훈련 기관	기타
전체	343	44.0	23.9	21.3	13.1	9.0	6.7	3.5	2.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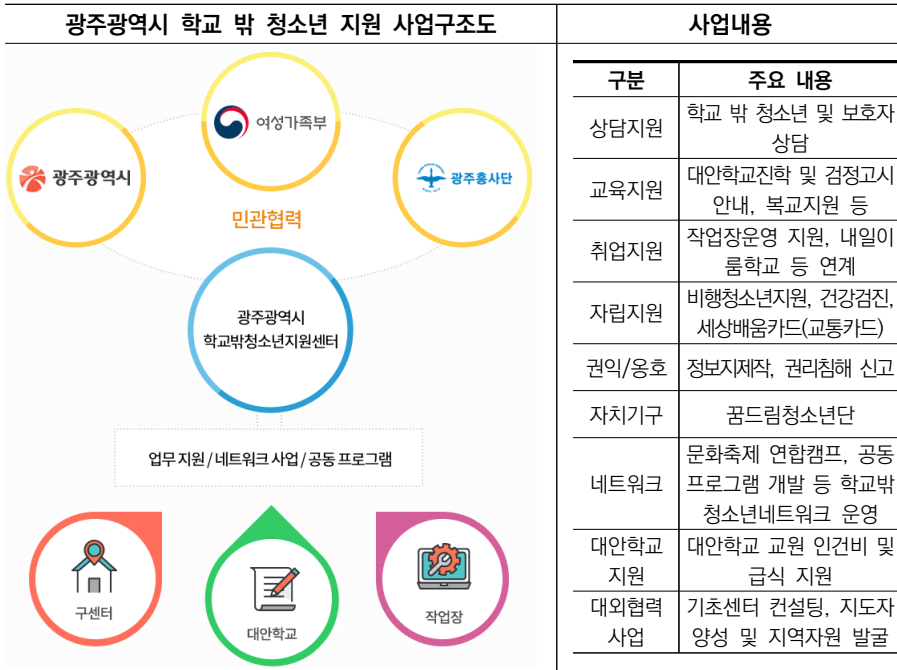
* 출처: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18). 2018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64, 66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2011. 7.27.)를 제정하였다⁹⁷⁾. 2012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한 지자체이며, 이외에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무상급식 지원 등 다각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8), 2020년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총 6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사업민간 위탁기관인 광주홍사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광주광역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시·군·구센터는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작업장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그림 VI-8).

97)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센터소개: <http://www.flyyouth.or.kr/>에서 2020년 8월 30일 인출



* 출처: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lyyouth.or.kr/>에서 2020년 8월 30일 인출.

그림 VI-8.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구조도 및 사업내용 개요

광주광역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교육청으로부터 숙려기간을 거친 학업중단 청소년의 명단이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달되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센터에 대한 소개와 관련 지원에 대한 가이드북을 발송하고 개별 상담 후 욕구에 따라 대안학교, 징검다리 배움터, 멘토 프로그램 등의 자원과 연결된다⁹⁸⁾.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지자체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서 기본적인 상담, 교육, 취업, 자립지원과 함께 권익/옹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보고서(2018)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면,

⁹⁸⁾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lyyouth.or.kr/>에서 2020년 8월 30일 인출.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안학교 입시설명회 개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1인 교사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대안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청소년작업장과 연계한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동/취업/학습 전문멘토와 학교 밖 청소년이 일대일로 연결, 함께 활동하는 꿈드림 멘토단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꿈드림청소년단이라는 자치기구 운영을 통해 관련 정책 제시와 권리침해 사례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여러 학교 밖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캠프나 체험활동 등의 행사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지원 및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인 프로그램으로 세상배움카드를 통해 만 9~18세의 광주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각 자치구 센터와 교육 및 직업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학교와 청소년작업장에 대한 내용은 표 VI-9와 같다.

표 VI-9.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기관(2018년)

구 센터(꿈드림)		대안학교		청소년작업장	
동구센터	서울대 인턴십, 봉사 활동, 자기계발	교육공간 오름	철학/인문학 중심	생각하는 손 (목공)	목공체험, 가구제작
서구센터	스킨스쿠버, 해외봉사	늘품	검정고시, 치유프로그램	러브레더 (가족공예)	가족공예체험, 기념품제작
남구센터	문화데이	래미학교	문화예술 과정	찰나(미디어)	행사촬영, 중계, 홍보영상
북구센터	요리, 바리스타, 드론 등 자기계발프로그램	무진일움학교	진로체험, 검정고시	놀아줄개 (반려동물훈련)	동물훈련, 동물 관련 직종 체험
광산구센터	비즈쿨	별별학교	지구시민교육	#예뻐져라(미용)	메이크업, 헤어, 네일, 피부 등
공통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상담 - 멘토링 활동 - 비행 완화 프로그램 '더 드림' - 검정고시 수업 - 건강검진 - 직접 지원 - 취업지원, 연계		청소년공간 날다	생명평화교육	안테나 (라디오방송)	PD, DJ, 작가, 엔지니어
		Y해일 학교	지구시민교육	* 출처: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18). 2018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55 주: 청소년 작업장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인권이 보호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배우고 일을 경험 하는 곳임(연중 3회 모집)	
		행복학교 36.5	중도입구가정 청소년 대상 교육		
		화월주성장 학교 다온	대안교과, 마을활동		
		지혜학교	인문/철학 기숙형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 꿈드림센터, 대안학교, 청소년작업장 등(표 VI-9 참조)외에 광주광역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청소년관련 시설 현황은 표 VI-10과 같다. 가정불화나 학대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가 총 5개소로 일시쉼터는 남구에 1개소, 단기 쉼터는 북구에 2개소, 중장기 쉼터는 동구와 서구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VI-10. 광주광역시: 청소년 보호기관/활동시설 현황

(2020. 07 기준)

청소년 보호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기관명	소재지	운영자(단체)	기관명	소재지	운영자(단체)
일시쉼터	남구	광주YWCA	시 청소년수련원	서구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단기여자쉼터	북구	광주YWCA	동구 청소년수련관	동구	(사)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단기남자쉼터	북구	광주YMCA	서구 청소년수련관	서구	(재)광주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중장기여자쉼터	동구	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남구 청소년수련관	남구	학교법인 호심학원
중장기남자쉼터	서구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	북구 청소년수련관	북구	한국청소년인권센터
남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북구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광산구	(재)광주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여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서구	살레시오수녀회	시 화정 청소년문화의집	서구	(사)흥사단광주지부
* 출처: 광주광역시 정보공개포털. 청소년보호기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https://www.gwangju.go.kr/open/pj/openList.do?pagelId=open15&category=2 에서 2020년 9월 10일 인출			시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광산구	(사)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
			시 각화 청소년문화의집	북구	(사)꿈과도전
			시 용봉 청소년문화의집	북구	(사)광주기독교청년회연합회
			시 봉선 청소년문화의집	남구	문화행동 S#ARP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서구	서구청장
			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광산구	광산구청장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동구	전남대산학협력단 &광주YMCA
			광천 청소년문화의집	서구	(사)광천사랑숲

또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으나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북구와 서구 각각 1개소가 위치해 있다(표 VI-10). 일시쉼터를 제외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고 있어 실제로 광주에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용가능한 곳은 성별에 따라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각각 1개소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처럼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총 15개로, 서구 5개소, 동구 2개소, 남구 2개소, 북구 3개소, 광산구 3개소가 설치되었다(표 VI-10). 대부분 지역의 청소년단체(흥사단, 스카우트 등)나 종교단체(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등)였으나 예외적으로 서구와 광산구의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해당 자치구가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표 VI-10). 앞서 살펴본 자치구별 9~24세 청소년 인구 현황에서(표 VI-2) 서구의 청소년 인구가 북구와 광산구에 비해 상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시설 개소수가 가장 많은 것은 매우 특징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3)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 중 본 연구에서는 북구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주목하였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시·도센터에서 추천한 센터로서, ‘2019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보고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다⁹⁹⁾. 지자체 자치구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 해당 센터를 통해 대부분 수행된다고 할 때 여타 자치구 중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구의 학교

99) 2019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보고대회에서 전국의 214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적정성, 성과, 지원 사업 운영 활성화 등을 평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센터외에, 서울시 영등포구, 송파구, 경북 포항시, 경남 밀양시의 지원 센터들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일요서울. 2019.1218.<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558>에서 2020년 10월 4일 인출)

밖 청소년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지원 내역을 살펴보았다.

가. 북구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학업중단 현황을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의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VI-11). 2019년 기준, 북구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336명으로 남구(450명)와 광산구(37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구 141명, 동구 92명 순이었다. 학업중단 사유별로 보면 남구의 경우 자퇴/퇴학/제적 학생 수가 유독 많은 것이 비해, 북구의 경우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유학이나 해외출국으로 인한 중단이 많았다.

표 VI-11. 광주광역시: 학업중단 사유_자치구별 현황('19.2월말 기준, 교육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주)}	장기결석	자퇴/퇴학/ 제적	기타
동구	92	4	28	1	5	54
서구	141	3	69	0	7	62
남구	450	19	83	1	120	227
북구	336	7	98	0	32	199
광산구	371	8	102	2	43	21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10월 9일 인출

주: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학업중단 사유를 크게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통계 중 '유예'분류의 미인정유학, '면제'와 '자퇴'의 해외출국 사례를 모은 숫자임.

학교급별로 북구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보면(표 VI-12), 2019년 기준 초등학생이 81명, 중학생이 68명, 고등학생이 187명으로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 학생수가 전체 336명중 55.6%를 차지했다. 학업중단 사유별로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유학 및 해외출국이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자퇴/퇴학/제적 학생수가 유학 및 해외출국보다 많았다.

표 VI-12. 광주 북구: 학업중단 사유_학교급별 차이('19.2월말 기준, 교육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주)}	장기결석	자퇴/퇴학/ 제적	기타
초	81	0	50	0	0	31
중	68	2	23	0	0	43
고	187	5	25	0	32	125
계	336	7	98	0	32	199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10월 9일 인출

주: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학업중단 사유를 크게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통계 중 '유예'분류의 미인정유학, '면제'와 '자퇴'의 해외출국 사례를 모은 숫자임.

나.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및 관련 인프라

광주광역시 북구 역시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¹⁰⁰⁾ 그리고 청소년관련 단체인 광주흥사단에 위탁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북구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독립된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¹⁾. 센터의 주요 서비스 및 프로그램(표 VI-13)으로는 기본적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취업, 자립, 건강지원에 더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치기구인 '우리는북구꿈드림' 등을 포함한 직업, 문화예술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100)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법제처 <http://www.law.go.kr/>에서 2020년 10월 9일 인출.

101)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실무자와의 면접 내용

표 VI-13. 광주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상담지원	심리상담, 진로상담, 학업동기강화상담, 학업중단속려상담
교육지원	검정고시지원, 대안학교연계, 학습멘토 지원
취업지원	자격증과정, 취업연계, 직업훈련 및 인턴십 과정
자립지원	자기계발동아리, 청소년권리교육(노동 및 성)
건강지원	무료건강검진, 금연서비스 지원
멘토링프로그램 지원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링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우리는북구꿈드림, 렛츠드림센터 꿈 JOB운영, 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온라인 방송통신 중·고교 지원, 교과 수업반 운영, 자격취득, 문화체험 등

* 출처: 광주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홈페이지_서비스소개
http://www.ok1388.kr/bbs/board.php?bo_table=sub06_02에서 2020.10.5. 인출.

광주 북구에 있는 청소년시설은 표 VI-14에서 보듯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 각각 1개소, 청소년쉼터와 청소년문화카페가 각각 3개소이다. 많은 수는 아니나 유형별로 여러 기관 및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지원 및 문화활동 등을 포함한 지원을 받기 위한 청소년관련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14. 광주 북구: 청소년 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카페
10	1	1	1	3	1	3

* 출처: 광주광역시 북구(2019). 2019 규정백서 p.214

다. 광주 북구 꿈드림 우수사례

광주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는 관련 기사 검색, 센터의 사업 담당자와의 면접조사, 그리고 꿈드림 홈페이지¹⁰²⁾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지역사회 내 재단(사단법인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과의 연계 지원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은¹⁰³⁾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등의 성과에 대해 축하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크게 동기 부여될 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북구 꿈드림 청소년들의 자치기구인 ‘우리는북구꿈드림’(비반트)은 센터특성화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은 자치위원회(비반트, VIVANT)를 조직, 운영하고, 센터 신규 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며, 센터 실무자와의 협의회 및 센터 홍보에 참여하게 된다¹⁰⁴⁾. 또한, 자체 생일파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 간 상호 소통하고 소속감을 갖도록 동기 부여하며, 성취포상 프로그램을 통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우수 참여자 선정을 통해 성취감을 갖게 하는 등(표 VI-15), 학교를 떠나 어디서도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소속감과 책임감, 성취감 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며, 본인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다른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02) 광주 북구 센터 특성화 운영사업-이달의 우수 프로그램: 우리는 북구 꿈드림. http://www.kdream.or.kr/user/boardManagement/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305&boldx=4160&searchText=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103) 무등일보(2020.0.18). (재)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 북구에 후원금 기탁. <http://www.honam.co.kr/detail/SexeuZ/597830>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104) 102번 각주(광주 북구 센터 특성화 운영사업-이달의 우수 프로그램: 우리는 북구 꿈드림)와 출처 동일

표 VI-15. 광주 북구: 꿈드림 우수 프로그램(센터특성화사업) 내용

구분	자치위원회	자체생일파티	성취포상 프로그램
주요 활동 내용	• 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 자치기구 조직(자치위원회명: '비반트') • 센터 이용 청소년 활동규칙 제정 및 신규 청소년 적응 지원활동 •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실무자와 자치위원 간 프로그램 구성 및 일정 협의 • 센터 오픈채팅방(카카오톡)을 운영하여 센터프로그램 및 활동사항 홍보 • 센터 오프라인 소식지(1~4월) 제작 및 SNS(기관 facebook 페이지) 홍보 • 센터를 대표하여 대외활동 참여(부스 운영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활동 전개) • 마을공동체 내 청소년대표자회의 참여 및 외부 토론회 참여 • 외부청소년 유관기관 방문활동 등	• 매월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생일자 파악 및 파티날짜 공지 • 센터에서 준비한 소정의 생일선물 제공 및 생일파티 진행 • 생일파티 후 교류시간을 통해 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화합의 자리 마련 • 신규청소년과 기이용청소년들 간 소통기회 제공을 통한 소속감 증진	• 3~4개월에 한 번씩 센터 자체 포상프로그램 운영 • 우수프로그램 참여자 (검정고시, 자기계발 등) 상장 수여를 통한 성취감 도모 • 노력가상, 흥부자상, 성실상, 먹보상 등 다양한 시상내역 마련 참여성 증진 • 상장수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책임감과 자긍심 향상

* 출처: 북구 센터 특성화 운영사업-이달의 우수 프로그램: 우리는 북구 꿈드림. http://www.kdream.or.kr/user/board/Management/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305&boldx=4160&searchText=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2) 부산광역시

(1) 부산광역시의 환경적 특성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남동단에 있는 최대의 항구도시이며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의 대표적인 상공업도시로 남동 임해공업지대의 중심도시이기도 하다.¹⁰⁵⁾ 급속한 인구증가로 교통난·주택난 등의 도시문제가 심각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상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롯한 종합적인 장기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¹⁰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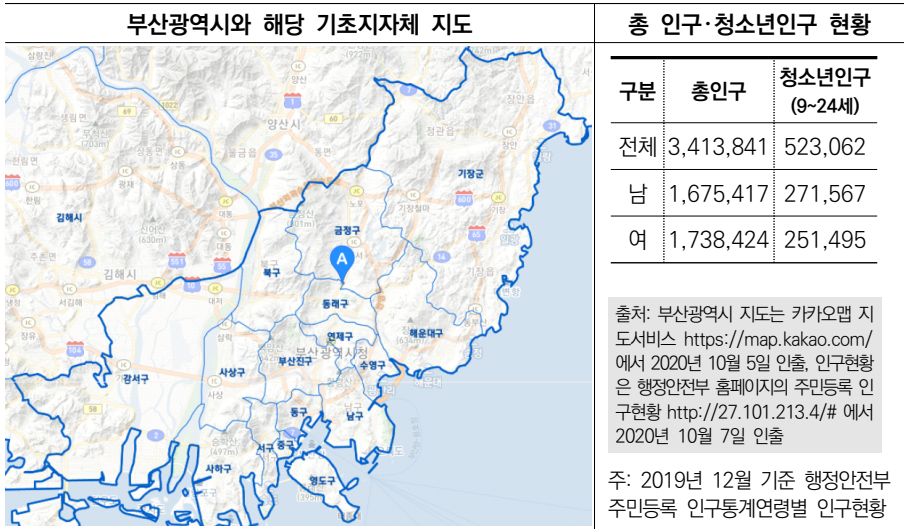


그림 VI-9. 부산광역시: 지도 및 인구 현황

인구수는 1995년 1월 광역시(廣域市) 개칭과 3월 행정구역 확장으로 양산군의 5개 읍·면이 편입되면서 인구는 3,892,972명으로 약간의 증가가 있었으나, 이후 경제침체와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¹⁰⁷⁾. 이후 부산 인구는 계

105)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기본현황. <http://www.busan.go.kr/bhbasisinfo>에서 2020년 10월 25일 인출
 106) 출처 상동

속 줄어들고 있는데, 2019년 12월 기준으로 총 인구수는 3,413,841명이고 성별 구성은 남성 49.9%, 여성 50.1%이다. 청소년 인구는 전체 523,062명으로 전체 인구 중 15.3%를 차지했으며, 남자 청소년 271,567명, 여자 청소년 251,495명으로 여자청소년이 약 이만명 정도 적었다(그림 VI-10).

표 VI-16. 부산광역시: 자치구 면적 및 인구 현황(청소년 인구 포함)

(단위: km², 명)

구분	면적(km ²)	총인구			청소년인구(9~24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부산광역시	769.94	3,413,841	1,675,417	1,738,424	523,062	271,567	251,495
중구	2.83	41,910	20,557	21,353	4,887	2,434	2,453
서구	13.98	108,229	52,627	55,602	14,980	7,488	7,492
동구	9.74	88,165	43,327	44,838	10,498	5,382	5,116
영도구	14.20	116,711	57,629	59,082	15,111	7,927	7,184
부산진구	29.67	357,880	173,446	184,434	52,149	26,314	25,835
동래구	16.63	271,247	132,295	138,952	44,616	23,472	21,144
남구	26.81	274,480	134,519	139,961	45,087	23,344	21,743
북구	39.37	291,132	144,229	146,903	47,023	24,815	22,208
해운대구	51.48	406,102	195,960	210,142	68,998	36,057	32,941
사하구	41.77	321,004	160,101	160,903	50,528	26,552	23,976
금정구	65.28	239,062	117,070	121,992	38,204	19,864	18,340
강서구	181.50	129,566	66,982	62,584	17,096	8,917	8,179
연제구	12.10	209,395	101,253	108,142	31,199	16,094	15,105
수영구	10.21	176,148	83,565	92,583	24,004	12,198	11,806
사상구	36.09	218,094	110,286	107,808	32,083	16,816	15,267
기장군	218.30	164,716	81,571	83,145	26,599	13,893	12,706

* 출처: 인구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 인구현황 <http://27.101.213.4/#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면적은 통계청 행정 구역 (2018 기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2&tblId=DT_104&lang_mode=ko&vw_cd=MT_OTITLE&list_id=202_20203_A&conn_path=I4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주: 2019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은 표 VI-16에서 보듯이 15구 1개 군을 가진 광역시로서 그 면적은 총 769.94km² 에 달한다. 기장군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107) 출처 상동

다음으로 강서구, 금정구 순이다. 부산의 도심지에 해당하는 중구와 동구는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표 VI-16).

각 자치구별 전체 인구를 2019년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VI-16), 해운대구가 가장 많은 406,102명이고 다음으로 부산진구(357,880명) 사하구(321,004명)의 순이다. 중구는 41,910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였다. 만9~24세 청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역시 해운대구가 68,9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인구가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4,887명이다(표 VI-16). 청소년 인구는 대체로 남자 청소년의 분포가 많았으며 각 구별로도 남자 청소년의 분포가 높은 편이다.

표 VI-17. 부산광역시: 자치구별 최근 5년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부산광역시	50.9	52.9	52.3	50.0	49.2
중구	21.7	22.8	21.4	22.2	23.6
서구	10.3	11.4	11.6	11.7	12.2
동구	14.8	15.3	15.3	15.6	15.8
영도구	9.7	9.9	9.7	9.5	9.1
부산진구	21.3	22.8	20.3	20.0	19.8
동래구	21.4	21.1	20.7	20.7	20.1
남구	23.2	23.3	24.8	22.8	19.7
북구	13.9	14.2	14.0	13.3	12.5
해운대구	27.4	28.6	28.3	27.4	30.0
사하구	17.9	18.6	18.6	16.7	18.1
금정구	19.8	19.4	19.3	17.6	16.5
강서구	45.6	49.8	48.1	47.7	45.0
연제구	18.8	20.4	20.5	19.2	16.9
수영구	18.6	18.6	19.5	18.4	18.4
사상구	20.7	20.8	20.3	19.0	19.9
기장군	31.5	32.7	33.3	32.1	30.6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재정자립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0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부산광역시의 2017~2020년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표 VI-17). 이는 부동산 경기 저조,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국가 복지정책 등에 따른 보조금 비중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여진다¹⁰⁸⁾. 2020년 부산광역시 전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표 VI-17), 강서구(45%), 기장군(30.6%), 해운대구(30%), 중구(23.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구, 서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및 관련 인프라 현황

가.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실태

부산광역시의 초, 중등학교 재학 학생 수를 살펴보면(표 VI-18), 초·중·고등학교, 특수·기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020년 1월 기준 총 313,628명이었고, 초등학생 155,589명, 중학생 73,338명, 고등학생 82,132명이었다. 이외에 특수학교 학생 수는 1,808명, 기타학교는 761명으로 나타났다(표 VI-18).

표 VI-18. 부산광역시: 초·중·고·특수 학생 수(2020년 1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계
초등학교	656	152,617	2,316	155,589
중학교	-	60,809	12,529	73,338
고등학교	2,529	38,017	41,586	82,132
특수학교	-	1,258	550	1,808
기타	-	651	110	761
합계	3,185	253,352	57,091	313,628

* 출처: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부산교육통계 https://www.pen.go.kr/board/view.pen?boardId=BBS_0000108&menuCd=DOM_000000605002000000&paging=ok&startPage=1&dataSid=5654441 에서 2020년 10월 8일 인출 (2019년 4월 기준). 유치원생 통계는 제외함. 기타는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수의 합계임.

108)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기본현황. <http://www.busan.go.kr/bhbasisinfo>에서 2020년 10월 25일 인출

부산광역시의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표 VI-19), 2017년 2,449명, 2018년 2,670명, 2019년 2,845명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 기준,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미인정유학 및 해외출국을 이유로 가장 많은 학생 수가 학교를 중단하였고, 다음으로는 자퇴/퇴학/제적 수가 많았다. 자퇴/퇴학/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는 2017년 320명, 2018년 314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385명으로 나타났다(표 VI-19)

표 VI-19.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 분	합 계	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주)}	장기결석	자퇴/퇴학/ 제적	기타
2017	2,449	91	957	9	320	1,072
2018	2,670	121	1,048	4	314	1,183
2019	2,845	170	1,080	2	385	1,208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19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10월 9일 인출, 2015~2018년도 통계는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하여 인출하였으며 분류를 다시하여 재편집 후 제시하였음.

주: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학업중단 사유를 크게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통계 중 '유예'분류의 미인정유학, '면제'와 '자퇴'의 해외출국 사례를 모은 숫자임.

부산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구(홍선영, 박금식, 박지영, 2018)에서 학교 중도시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정보에 대해 2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 VI-20), 정보제공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5.1%로 가장 높았다. 그 외 받은 정보로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안내 16.5%, 검정고시 준비방법 15.1%,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대한 안내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홍선영 외, 2018).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의 경험보다 학교를 그만두는 절차인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는(표 VI-21), 기관 관련해서

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6%, 청소년쉼터 13.6%의 순서로 나타났다.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8.1%, 직업전문학교 프로그램 5.5%, 내일배움 카드 2.7%의 순이었다.

표 VI-20. 부산광역시: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될 당시 학교에서 제공받은 정보(복수응답)

(단위: 명, %)

사례수	정보제공 받은 적 없음	학업중단 숙려제	검정고시 준비 방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대안학교 등 대안 교육기관	홈쿨링	진로·직업 교육시설	기타
279	35.1	16.5	15.1	11.5	9.3	7.9	2.5	1.8	0.4

* 출처: 홍선영, 박금식, 박지영(2018).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2018-15).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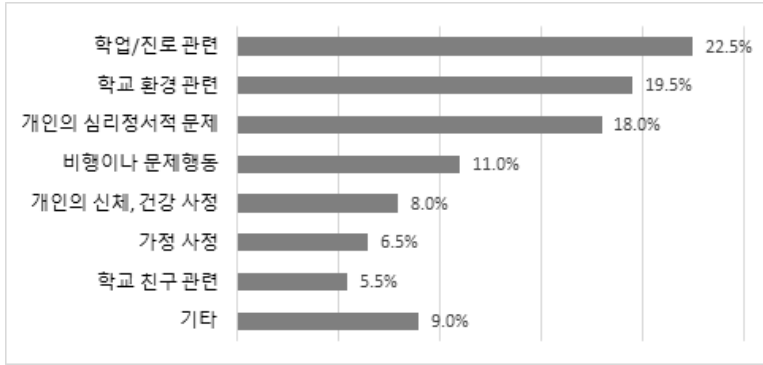
표 VI-21. 부산광역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지원 기관이나 프로그램(복수응답)

(단위: 명, %)

사례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청소년 동반자	학교폭력 예방회복 조정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내일이룸 학교	취업성공 패키지
343	26.1	15.6	2.7	1.1	13.6	0.5	4.7	8.1
	내일배움 카드	직업전문 학교	청소년 시설	상담기관	복지시설	기타	지원기관, 프로그램 모름	
	2.7	5.5	7.2	5.3	5.3	0.5	1.1	

* 출처: 홍선영, 박금식, 박지영(2018).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2018-15). p.65

부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업·진로 관련이(22.5%)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학교 환경 관련 19.5%,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문제 18%, 비행이나 문제행동의 이유가 11%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VI-10).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요 형태는 스스로 자퇴하는 경우가 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출석 및 등교 거부 9.5%, 상급학교 미진학 6%, 소년 원 및 보호관찰소 입소 4.5%의 순서로 보고되었다(그림 VI-10).



* 출처: 홍선영, 박금식, 박지영(2018).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2018-15). p.57

그림 VI-10. 부산광역시: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부산광역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은 전화상담 및 사이버 채팅 상담,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그 외 기타(교육, 진로, 생활 등) 프로그램으로, 9~24세 청소년 중 공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과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표 VI-22).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자립, 건강검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표 VI-23).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의 주요 서비스와 더불어 특성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표 VI-23).

표 VI-22.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중 - 초등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 대상 청소년 포함
이용방법	- 절차/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 구비서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안내 - 온라인신청 - http://www.kdream.or.kr/ -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1-304-1318)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1-304-1318)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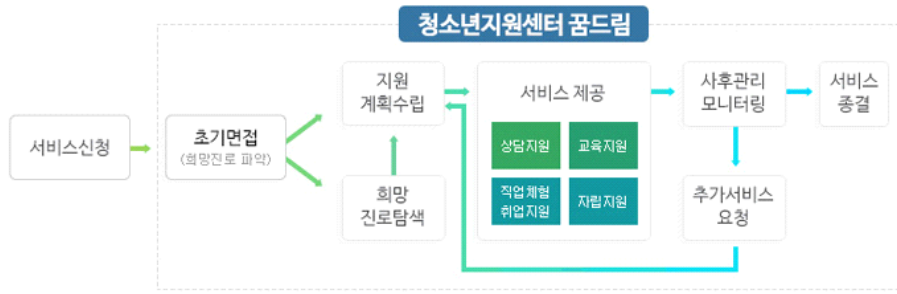
*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6000000423>에서 2020년 11월 14일 인출

표 VI-23.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상담지원	초기상담, 심리·진로상담, 자립·학습동기강화 상담 등
교육지원	복학, 상급학교, 대안학교 진학지원, 검정고시 지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취업지원	직업 체험, 진로 교육, 경제활동 체험, 취업 연계 지원 등
자립지원	생활 지원, 법률 교육, 자기 개발(자격취득 등), 생활기술 지원 등
건강증진 지원연계	건강검진 지원, 건강생활 실천관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특성화 프로그램	재능개발(특기적성), 자원봉사활동, 지역특화체험 프로그램 등
멘토링 프로그램	

* 출처: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cando.or.kr/>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구조는 그림 VI-11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꿈드림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받고 싶은 청소년은 먼저 서비스 신청을 한 후 개인적인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초기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욕구를 파악한 후 어떤 지원을 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희망진로를 탐색한다. 이후 상담, 교육, 직업관련, 자립 등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며, 사후관리를 수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진입한 후 종결한다.



* 출처: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cando.or.kr>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그림 VI-11.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구조도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교육청 사업인 미취학·학업중단생을 위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학업지속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¹⁰⁹⁾. 참여자격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미진학인 자’,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의 조건을 갖춘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표 VI-24. 부산광역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프로그램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 교과교육, 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과정이 있음
학교 밖 학습경험	검정고시 과목합격, 학력인정 대안학교, 자격증 취득, 내일이룸학교 등의 학습경험을 의미함
온라인 교육과정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강의를 기본으로 한 교과교육 프로그램임
부산시정센터 프로그램	자격증반, 학습지원반, 체험프로그램, 봉사활동, 생활과학교실 등이 해당됨

* 출처: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cando.or.kr>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109)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cando.or.kr>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이 사업은 표 VI-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지원,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부산지정센터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밖 학습경험은 검정 고시, 대안학교, 자격증 취득과 같은 학습경험을 의미한다. 온라인 강의를 기본으로 교과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지정한 센터에서 자격증반, 학습지원반, 봉사활동반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게 된다.

표 VI-25. 부산광역시: 청소년 보호기관/활동시설 현황

청소년 활동시설(20개소)			청소년 보호시설(6개소)		
기관명	소재지	운영자(단체)	기관명	소재지	운영자(단체)
양정 청소년수련관	부산진구	(재)안국청소년도량	일시 고정형	사상구	(학)신라대학교
함지굴 청소년수련관	영도구	(재)내원청소년단	일시 이동형	사상구	(학)신라대학교
금곡 청소년수련관	북구	(사)삼동청소년회	단기 남자쉼터	사상구	(학)신라대학교
금정 청소년수련관	금정구	(재)범어청소년동네	단기 여자쉼터	수영구	(재)안국청소년도량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사상구	(재)부산YMCA	중장기 남자쉼터	사상구	(학)신라대학교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기장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중장기 여자쉼터	금정구	(재)범어청소년동네
구덕 청소년수련관	서구	(재)내원청소년단	청소년 특화시설(3개소)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해운대구	(재)부산YMCA	부산광역시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사상구	(학)신라대학교
양정 청소년문화의집	부산진구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광역시청소년 성문화센터	사상구	(학)신라대학교
함지굴 청소년문화의집	영도구	(재)내원청소년단	늘함께청소년 성문화센터	동래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부산진구	(재)부산YMCA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중구	(재)내원청소년단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해운대구	해운대구청장			
사하구 청소년문화의집	사하구	(재)내원청소년단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북구	(사)삼동청소년회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서구	(재)안국청소년도량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해운대구	해운대구청장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부산진구	(사)틴스토리			
화지 청소년문화의집(휴지)	부산진구	동래정씨대종중			
수영구 소년문화의집	부산시	(재)범어청소년동네			

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_여성가족_아동/청소년시
 설 <http://www.busan.go.kr/womanfamily/youthfacil>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부산광역시 지자체와 각 자치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 청소년 활동기관, 보호시설, 특화시설을 살펴보면 표 VI-25와 같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청소년 활동시설은 20개소, 보호시설인 쉼터는 6개소, 특화시설은 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집을 나온 청소년들

을 위한 주요 지원체계가 청소년쉼터라고 할 때, 청소년 활동시설에 비해 보호시설이 시의 규모와 청소년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부산광역시 2020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포함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¹¹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 사업은 시·구·군 17개 센터에서 운영한다(표 VI-26).

표 VI-26. 부산 2020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분	2020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운영	• 시, 구·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 17개 센터(시1, 구·군16)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멘토링, 검정고시반 운영,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한 학업복귀, 학력 취득/진학 지원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등 직업탐색 및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건강검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 지역사회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자기계발비, 치과진료, 교통비, 장학금, 자원봉사
2019년 추진실적	•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등 2,497명 - 상담지원 28,304건, 학업지원 19,154건,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6,295건 등 • 검정고시 합격 : 509명(초졸 14, 중졸 84, 고졸 411) •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63명 지원 • 내일이룸학교 2개 과정, 36명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홍보활동 2회, 신청 466명(수검 318명) • 대학입시설명회 2회, 꿈드림 청소년단 운영 8회 등
2020년 추진계획	• 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1~2월) • 중구 학교 밖 지원센터 개소(3월) • 사업 추진(2~12월) • 모니터링 및 점검(3~7월), 사업성과 분석 및 정산(12월)

* 출처: 부산광역시 2020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pp.172-173

110) 부산시청 아동 청소년과. <https://www.busan.go.kr/womanfamily/ahchildpolicy09>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그들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학력취득 및 진학지원(학습 멘토링, 검정고시반 운영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직업역량 강화, 내일이룸학교 등), 급식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으로는 자기계발비, 치과진료, 교통비, 장학금, 자원봉사 지원이 있다(표 VI-26). 2019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표 VI-26), 학교 밖 청소년 2,497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는데, 그 중 상담관련 지원이 28,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는 509명이 합격(초졸 14명, 중졸 84명, 고졸 411명)하였으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은 100명 정도(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63명, 내일이룸학교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2020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제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교육청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VI-27),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 밖에서의 학습경험도 수업 시수로 인정하여 학력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습지원 시범사업 거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접근이 용이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교육 소외 계층(학교 부적응, 저소득층, 다문화·탈북 등)의 학업중단 학생 대상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도 지원하고 있다.

표 VI-27. 부산 2020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교육청)

구분	2020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교육청)
사업내용	• 학교 밖 학습 경험의 수업 시수 인정을 통한 학력 취득의 기회 부여 • 학교 밖 청소년의 상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습지원 시범사업 거점센터 지정 운영 • 학교부적응, 저소득층, 다문화·탈북 등 교육 소외 계층의 학업중단 학생이 학습 중에 있는 전일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2019년 추진실적	• 공모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시설 선정·지원(5기관)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 - 교육 시설 안전 점검 및 보험 가입 유도 - 특기 적성 교육 및 진로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구분	2020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교육청)
	•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한국교육개발원부설 디지털교육연구센터) • 학습자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지정(부산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 학습자 모집 및 지원을 위한 개인 상담(학습자 80명 등록)
2020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부산광역시 소재 전일제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 사업시행 주체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학업중단학생 교육시설 지원 사업 추진 - 공모를 통한 전일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시설 발굴 - 진로직업, 검정고시, 체험활동지원, 교육 기자재 구입 지원 등 -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교재 구입 등 - 전기설비, 소방시설,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종교의 중립성 유지 시설 -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추진 - 학교자 발굴 및 등록을 통한 학습지원 - 온라인 학습비 지원, 교재 및 도서구입비 지원, 중식비 지원 - 학습지원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및 학습자 등록 유도 - 학습자 개별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제공 - 학교 밖 학습경험 프로그램 개발 및 자격증 취득반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쉼터 지원

* 출처: 부산광역시 2020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pp.176-17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 중 2019년 목표치와 실적 및 2020년 목표치를 살펴 보았을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2019년 목표치보다 실적이 낮음을 볼 수 있다(표 VI-28). 2020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목표치는 2,500명으로 2019년 3,400명보다 900명 가량 적게 목표치로 잡았는데, 현실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표 VI-28).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부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내역을 살펴보면(표 VI-29), 수혜대상 청소년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2020년에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총 6단계의 사업단계를 통해 진로상담과 적성검사를 거친 학교 밖 청소년 모두에게 자립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직장체험을 통해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를 제공하고,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꾸준히 뒷받침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처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교육청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업 및 사회진출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8.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관련 사업

구분	사업목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치
			목표치	실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원 인원	3,400명	2,497명	2,500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예방	교육 인원	1,225명	2,964	1,225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5기관	5기관	5기관
		학교로 가는길 (심성수련교육)	2회	2회	2회
		학교 밖 청소년 학습자 지원	50명	80명	80명

* 출처: 부산광역시 2020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p172, p174, p176

표 VI-29.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원센터(꿈드림) 2020 사업계획(진로역량강화)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2019년 실적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장 발굴 및 청소년 모집	70명	1,200	63명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1단계)	60명	-	63명
	자립동기 부여(2단계)	60명	3,230	53명
	직장체험(3·4단계 통합형)	36명	57,710	36명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5단계)	36명	-	15명
	사후관리(6단계)	36명	-	36명
	수료식	3회	490	36명

* 출처: 부산광역시 2020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p. 302

(3) 부산광역시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가. 동래구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학업중단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표 VI-30), 고등학교 시기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초등학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사유는 기타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미인정 유학 및 해외출국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시기 잠재적으로 학업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고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학업을 그만두게 된다는 여러 선행 연구(명재신, 윤성인, 2017; 박종석, 2018; 백혜정, 송미경 2015; 성운숙, 2016; 유진이, 선다솜, 2018; 최지연, 김현철, 2016)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에서 초등과 중등까지가 의무교육이라는 영향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30. 부산 동래구: 학업중단 사유_학교급별 추이('19.2월말 기준, 교육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주)}	장기결석	자퇴/퇴학/ 제적	기타
초등학교	49	1	39	0	0	9
중학교	34	0	22	0	0	12
고등학교	117	10	27	0	14	66
계	200	11	88	0	14	87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19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10월 9일 인출.

주: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학업중단 사유를 크게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통계 중 '유예'분류의 미인정유학, '면제'와 '자퇴'의 해외출국 사례를 모은 숫자임.

나.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동래구는 부산광역시의 중북부 내지 동북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북쪽은 금정구, 남쪽은 연제구, 서쪽으로 북구와 부산진구, 동쪽으로 해운대구에 접하고 있다. 동래구는 전반적으로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사직동~온천동 구역이 변화가라고 할 수 있으며, 대체로 40~50대 부부와 학생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많은 편이며 비교적 조용하여 주거에 적합하며 학교도 많다(부산시청 홈페이지)¹¹¹⁾. 동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부산광역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다른 자치구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인프라 뿐 아니라 청소년 활동 및 보호, 복지 시설 이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 꿈드림 역시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 학업, 진학, 취업준비 등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기준은 9세~24세의 청소년으로 꿈드림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¹¹²⁾.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세부 기준은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이다¹¹³⁾.

표 VI-31에서 보듯이 상담지원으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제공되며 교육지원 은 검정고시 지원, 복학상급학교 진학지원, 학업동기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자립 지원은 생활지원을 비롯하여 법률교육과 인권교육, 성관련 교육도 병행하며, 진로 지원으로 직업체험 및 훈련 자격증 취득, 경제활동 체험을 하고 있다. 그 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검진 지원, 위생용품 지원도 함께 하고 있으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위탁법인이라는 장점을 살려 성관련 피해·가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표 VI-38).

111)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동래구. <https://www.busan.go.kr/bhdongnaegu>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1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www.1388youth.kr/sub_05_01.php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113) 출처 상동

표 VI-31. 부산 동래구: 꿈드림 서비스 지원

구분	서비스 내용
상담지원	개별상담: 초기상담, 심리검사, 진로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자립학습동기강화 집단상담: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구성원과 함께하는 회기 프로그램(집단에 맞는 내용구성)
교육지원	검정고시지원(교재지원, 학원연계, 인터넷강의), 학습멘토링, 맞춤형 학습클리닉, 기초학습 반 운영, 복학상급학교 진학 지원, 학업동기강화 집단프로그램(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운영
자립지원	생활지원, 생활기술 훈련, 법률교육,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근로교육
진로지원	즐겁고 신나는 비즈니스체험(뽀뽀비즈), 직업체험, 진로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지원, 경제 활동 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성폭력·성문제 피/가해 청소년 프로그램(개별, 집단), 위기청소년과 함께하는 심신회복캠 프 ‘스마일’, 청소년동아리활동, 감성UP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자원봉사활동
건강검진	건강검진, 예방접종 지원, 위생용품 지원

* 출처: 동래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_꿈드림 프로그램 안내 http://www.1388youth.kr/sub_05_02.php에서 2010년 10월 5일 인출

동래구에 위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기관으로 동래구 꿈드림외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교육 기관인 부산 자유학교와, 문화·예술·체육관련하여 늘함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다(표 VI-32). 2022년 상반기에는 연면적 3000m²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예정이어서(부산일보, 2020.01.14)¹¹⁴⁾ 향후 동래구 내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VI-32. 부산 동래구: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및 현황

구분	기관명	운영자(단체)
교육	부산자유학교	부산광역시 교육청 위탁교육기관→(사)부산자유학교
상담	동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문화, 예술, 체육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 출처: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자원맵_부산 동래구 꿈드림 검색 http://www.kdream.or.kr/maps/sub03_1.asp?kwSearch=%ED%82%A4%EC%9B%8C%EB%93%9C%EA%B2%80%EC%83%89&serviceCode=&tcCode3=&tsArea1=%EB%B6%80%EC%82%B0&tsArea2=%EB%8F%99%EB%9E%98%EA%B5%AC&x=32&y=21에서 2010.10.5. 인출

114) 부산일보 2020.01.14. 게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1417302433469>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다. 부산 동래구 꿈드림 우수사례: 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릴레이 정치회담¹¹⁵⁾

동래구 꿈드림의 법인은 부산성폭력상담소로 1992년 개소하였으며, 법인 특성에 따라 성폭력·성문제 청소년 교정프로그램의 진행이 타기관보다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¹¹⁶⁾. 또한 위기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진로 목표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¹¹⁷⁾ 동래구 꿈드림의 프로그램 중 ‘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릴레이 정치회담’은 청소년이 바라보는 세상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며 인권을 말하는 릴레이 정치회담 프로그램이다. 시의원과의 만남과 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아리를 운영 중이다.¹¹⁸⁾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청소년증의 교부, 대낮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이 인식하는 편견, 대안학교 체육시설이용요금의 비할인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차별을 인지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릴레이 정치회담 프로그램은 2018년 청소년 3명이 모여 만든 인권동아리 ‘마우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시·구의원,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 대상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받는 차별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시의원과 소통하면서 목소리를 전달하게 되었다. 이어 2019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여러 활동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정치인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어려움과 지원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까지 가질 수 있다.

115) 꿈드림 홈페이지 우수프로그램에서 발췌, 작성하였다. http://www.kdream.or.kr/user/boardManagement/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305&boldx=4205&searchText=%EB%B6%80%EC%82%B0에서 2020년 11월 19일 인출.

116) 부산 동래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http://www.1388youth.kr/sub_05_01.php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117) 동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실무자 인터뷰 내용(2020.08.27.인터뷰)

118) 115번 각주 출처와 동일

3)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환경적 특성

서울특별시는 총 605.24km²로 25개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치구별 면적을 살펴보면, 서초구가 46.98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구의 경우 9.96km²로 면적이 가장 작다(표 VI-41). 서울특별시의 총 인구수는 2019년 기준 9,729,107명으로 남자가 4,744,059명 여자가 4,985,048명으로 여자가 25만명 정도 더 많았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675,961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았고 중구가 126,171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적었다(표 VI-41).

청소년 인구수는 1,535,84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남자 770,023명, 여자 765,817명으로 남자 청소년 수가 약간 더 많았다(표 VI-41). 2019년 서울시 총 인구 중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0%이나, 향후 청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40년에는 9.3%로 서울시 총인구 10명 중 1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VI-12).



* 출처: 통계청(경인지방통계청), 2019 서울시 청소년 통계. http://kostat.go.kr/regional/gi/gi_ntc/1/1/index.board?bmod=e=read&aSeq=376755&pageNo=5&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20년 11월 18일 인출

그림 VI-12. 서울특별시: 청소년 인구 추이

자치구별 청소년 인구수 분포가 많은 곳은 송파구와 노원구로 십만 명이 넘으며, 반대로 중구와 종로구는 청소년 인구수가 24,000명 이하로 매우 적은 분포를 보였다(표 VI-33).

표 VI-33. 서울특별시: 자치구 면적 및 인구 현황(청소년 인구 포함)

(단위: km², 명)

구분	면적(km ²)	총인구			청소년인구(9~24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서울특별시	605.24	9,729,107	4,744,059	4,985,048	1,535,840	770,023	765,817
종로구	23.91	151,290	73,746	77,544	23,687	11,633	12,054
중구	9.96	126,171	61,910	64,261	15,670	7,671	7,999
용산구	21.87	228,670	110,356	118,314	31,549	15,547	16,002
성동구	16.86	300,889	147,273	153,616	43,769	21,656	22,113
광진구	17.06	351,350	170,262	181,088	56,202	27,445	28,757
동대문구	14.22	346,194	172,113	174,081	53,022	26,082	26,940
종랑구	18.5	397,015	196,959	200,056	55,677	28,326	27,351
성북구	24.57	442,650	214,437	228,213	74,775	36,729	38,046
강북구	23.6	313,954	153,235	160,719	46,058	22,970	23,088
도봉구	20.66	333,362	163,051	170,311	51,616	26,462	25,154
노원구	35.44	532,905	257,923	274,982	100,444	51,926	48,518
은평구	29.71	480,032	231,528	248,504	74,183	37,431	36,752
서대문구	17.63	309,397	148,663	160,734	49,248	23,884	25,364
마포구	23.85	374,035	176,891	197,144	58,020	28,002	30,018
양천구	17.41	458,165	225,186	232,979	87,373	45,532	41,841
강서구	41.44	591,796	286,563	305,233	87,346	43,523	43,823
구로구	20.12	406,664	200,987	205,677	58,936	29,804	29,132
금천구	13.02	232,810	118,209	114,601	32,018	16,141	15,877
영등포구	24.55	367,678	182,438	185,240	48,998	24,523	24,475
동작구	16.35	395,963	191,976	203,987	60,487	29,935	30,552
관악구	29.57	500,094	251,009	249,085	73,127	34,792	38,335
서초구	46.98	430,826	206,039	224,787	76,156	38,313	37,843
강남구	39.5	545,169	260,806	284,363	99,708	50,923	48,785
송파구	33.87	675,961	327,164	348,797	109,333	55,174	54,159
강동구	24.59	436,067	215,335	220,732	68,438	35,599	32,839

* 출처: 인구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 인구현황 <http://27.101.213.4/#>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면적은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19 서울시 행정구역(구별)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412/S/2/datasetView.do>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주: 2019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살펴보면(표 VI-34), 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는 서초구가 54.7%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가 15.8%로 가장 낮았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VI-34.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최근 5년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특별시	80.7	80.5	79.2	76.5	76.1
종로구	50.4	50.8	47.4	47.4	47.0
중구	57.1	58.4	53.4	54.9	53.5
용산구	41.0	42.4	41.1	39.2	39.3
성동구	37.3	34.5	34.1	32.5	32.7
광진구	27.2	28.1	27.1	26.7	26.2
동대문구	27.8	27.2	25.6	23.8	23.2
중랑구	21.0	20.6	19.0	18.1	17.5
성북구	22.8	21.8	19.6	19.6	20.0
강북구	19.1	18.8	17.6	16.8	16.8
도봉구	20.4	19.8	18.5	17.8	18.4
노원구	17.7	17.8	15.6	15.4	15.8
은평구	20.8	19.0	18.0	17.5	17.9
서대문구	26.2	26.6	25.4	24.1	23.4
마포구	33.1	32.9	31.5	30.7	31.6
양천구	28.2	28.5	26.8	24.5	25.2
강서구	22.5	21.6	21.5	19.7	21.1
구로구	24.8	24.0	22.5	21.8	22.2
금천구	26.8	27.2	25.6	25.3	24.7
영등포구	42.8	42.0	37.9	35.7	36.0
동작구	28.7	27.2	26.8	26.0	26.4
관악구	20.7	20.6	19.4	18.7	19.3
서초구	57.9	52.5	53.4	53.3	54.7
강남구	60.0	58.2	53.3	54.4	52.3
송파구	42.9	42.8	39.0	38.4	37.6
강동구	30.2	30.1	31.0	22.2	26.3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2)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인프라 현황

가.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실태

서울시의 초, 중등학교 재학 학생 수를 살펴본 결과(표 VI-35),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020년 1월 기준 총 875,930명이었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422,293명이었고, 중학생은 207,413명,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조금 많은 236,689명이었다. 이외에 특수학교 학생 수는 4,324명, 기타학교는 5,211명으로 나타났다.

표 VI-35. 서울특별시: 초·중·고·특수 학생 수(2020년 1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계
초등학교	1,248	400,137	20,908	422,293
중학교	1,057	156,265	50,091	207,413
고등학교	1,730	79,508	155,451	236,689
특수학교	477	1,439	2,408	4,324
기타	577	2,053	2,581	5,211
합계	5,089	639,402	231,439	875,930

*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통계 주요지표 <http://statistics.sen.go.kr/>에서 2020년 10월 8일 인출 (2019년 4월 기준), 유치원생 통계는 제외함. 기타는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수의 합계임.

표 VI-36. 서울특별시: 학업중단 현황_초·중·고 학업중단 사유 및 연도별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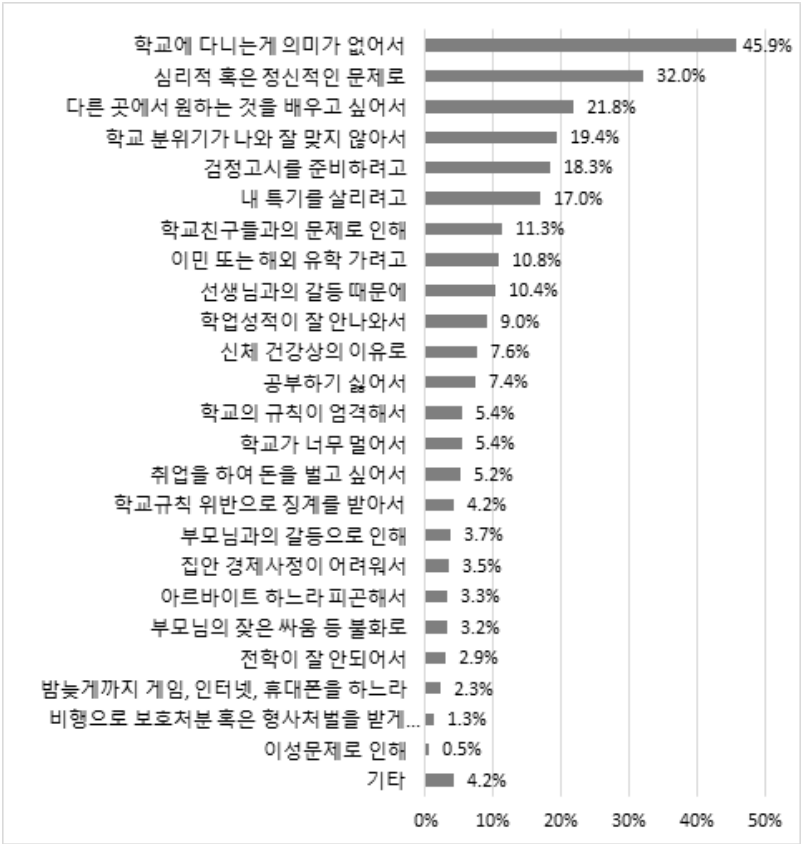
구 분	합 계	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주)}	장기결석	자퇴/퇴학/ 제적	기타
2017	10,939	278	6,594	11	878	3,178
2018	11,529	268	6,845	3	831	3,582
2019	11,826	314	6,952	3	711	3,84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19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10월 9일 인출, 2015~2018년도 통계는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하여 인출하였으며 분류를 다시하여 재편집 후 제시하였음.

주: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학업중단 사유를 크게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통계 중 '유예'분류의 미인정유학, '면제'와 '자퇴'의 해외출국 사례를 모은 숫자임.

서울시의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표 VI-36), 2017년 10,939명, 2018년 11,529명, 2019년 11,826명으로 해가 바뀔수록 미세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미인정유학 및 해외출국을 이유로 가장 많은 수가 학교를 중단하였고, 다음으로는 자퇴/퇴학/제적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사유와 관련하여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윤철경 외, 2019)의 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출처: 윤철경 외(2019).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47

그림 VI-13. 서울특별시: 학교를 그만둔 이유(복수응답)

그림 V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가 4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 32.0%,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21.8%, ‘학교 분위기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19.4%,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18.3%, ‘내 특기를 살리려고’ 17.0%, ‘학교친구들과의 문제로 인해’ 11.3%, ‘이민 또는 해외유학을 가려고’ 10.8%, ‘선생님과의 갈등 때문에’ 10.4% 등이 10% 이상의 복수 응답을 보이며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성문제(0.5%), 비행으로 인한 보호처분(1.3%)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그림 VI-16).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는 ‘주변의 선입견 및 편견과 무시 등’(47.0%)을 가장 힘들어 했으며, 다음으로 ‘의욕이 없어짐’(37.0%), ‘진로를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36.3), ‘혼자라는 불안감’(33.5%), ‘학교 친구와의 관계 단절’(32.8%), ‘도움 받을 곳이 없음’(28.2%), ‘부모와의 갈등’(25.3%)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었다(윤철경 외, 2019: 131).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한 후 주로 한 일은(표. VI-37) 검정고시 준비와 대학입시 공부(각각 24.6%)였으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했다는 경우도 17.4%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다’도 15.1%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했다.

표 VI-37. 서울특별시: 학교 중단 후 주로 한 일

(단위 : 명, %)

합계	대안학교 다님	검정고시 준비	정규학교 복교	교육청 학력인정 프로그램 참여	집에서 공부
753 (100.0%)	4.4	24.6	1.7	0.5	4.8
	대학입시 공부	직업기술 배움	자격증 및 취직시험 준비	하루 8시간 이상 일함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
	24.6	2.3	4.6	17.4	15.1

출처: 윤철경 외(2019).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73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게 될 때 ‘학업중단속려제에 대한 설명’을 60.2%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VI-38). 다음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46.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 39.3%, ‘학교 복학절차’ 37.1%, ‘검정고시 준비방법’ 31.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26.6% 등의 순으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38). 또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으로는 꿈드림센터 이용경험(31.9%)과 청소년증 이용경험(3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VI-39).

표 VI-38. 서울특별시: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받은 정보(복수응답)

(단위: 명, %)

사례수	학업중단속려제에 대한 설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정보	학교 복학 절차	검정고시 준비 방법
343 (100.0%)	60.2	46.1	39.3	37.1	31.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진로나 직업교육·훈련시설	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사업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26.6	18.7	17.7	12.0	6.1

출처: 윤철경 외(2019).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50

주: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의 종류별로 ‘있다’고 응답한 사례수와 비율을 하위문항별로 제시한 것임.

표 VI-39. 서울특별시: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경험

(단위: 명, %)

사례수	대안학교	꿈드림센터	청소년 쉼터	평생학습시설	내일아름학교	취업성공 패키지	직업전문학교
243 (100.0%)	12.1	31.9	3.6	2.0	0.8	4.6	2.0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수당	친구랑 센터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청소년증	학업중단 청소년 학력인정 사업	
	3.2	5.7	2.7	10.0	30.4	1.7	

출처: 윤철경 외(2019).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134

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 현황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V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과정은 사전과정→기초과정→심화과정→결과→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 사전과정에서는 사례접수 후 초기상담 과정을 거쳐 유형을 분류하고(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진로미결정형), 개인 상담과정을 거친 후 심화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대비, 사회진입지원, 진로종합캠프, 1:1 멘토링, 성장캠프 등의 다양한 지원을 수행한다.



* 출처: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teen1318.or.kr/>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그림 VI-1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내용 및 과정

꿈드림 프로그램 대상 기준은 다른 꿈드림과 동일하게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들로 ①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며,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가능하다¹¹⁹⁾.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역시 다른 시·도센터와 유사한데(표 VI-40), 진로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진로목표 설정과 일상생활을 위한 기초역량 학습을 교육하고 직업 체험 및 실습을 통해 실물 경제 체험과 진로동아리를 운영하며 진로에 대해 좀 더 탐색할 기회를 많이 부여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진출을 위해 자격증취득, 취업연계 등 구직활동을 지원해 준다. 학습적인 부분으로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상담, 맞춤형 학습클리닉 등으로 학업동기를 강화하고 스마트 교실을 오픈하여 검정고시와 기초학습에 대비하게 할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캠프, 또래 활동 등의 문화체험을 통해 소속감과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다(표 VI-40).

표 VI-40.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용

영역	내용
진로교육	진로 목표 설정 및 일상생활 훈련을 위한 기초 역량 학습
직업체험 및 실습	실물 경제 체험 운영, 진로동아리 운영
사회진출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구직활동 지원
학업동기 강화	학업복귀 강화프로그램, 맞춤형 학습클리닉, 진로상담, 학업중단숙려 상담 운영, 문화체험
문화체험	진로캠프, 또래지지도임, 문화활동 지원
학습지원	스마트교실(검정고시 준비반, 기초학습대비반) 운영 검정고시 지원(교재비, 학원비 일부), 멘토-멘티제 운영

* 출처: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teen1318.or.kr>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서울시에 소재한 청소년을 위한 활동 및 보호시설, 특화시설은 표 VI-41과 같다. 여기에는 모든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은 포함하지 않았다. 청소년 활동시설은 전체 2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호시설 12개소, 특화시설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시설들 외에도, 인터넷중독예방상

119)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teen1318.or.kr>)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답센터 6개소, 청소년 성문화센터 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청소년지원 및 활동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표 VI-41. 서울특별시: 청소년 보호기관/활동시설 현황

청소년 활동시설(21개소)			청소년 보호시설(12개소)		
기관명	소재지	운영자(단체)	기관명	소재지	운영자(단체)
서울	중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용인일시	용산구	(재)서울가톨릭청년회 유지재단
보라매	동작구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드림일시	강남구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문래	영등포구	(재)송석문화재단	강북드림	강북구	(학)충신대학교
목동	양천구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서북이동(버스)-여우별	서북	(재)서울가톨릭청년회 유지재단
수서	강남구	(사)한국청소년세상	서북이동(버스)-우리별	서남	
노원	노원구	(재)푸른나무청예단	동북이동(버스)-다작은별	동북	(사)인터넷꿈희망터
종량	종량구	(사)한국청소년연맹	동남이동(버스)-작은별	동남	
강북	강북구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신림단기	광악구	대한상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구로	구로구	(사)청소년교회연합회	금천단기	금천구	(사)한국청소년연맹
성북	성북구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망우단기	종량구	(사)삼동청소년회
동대문	동대문구	(사)한국청소년연맹	신림중장기	관악구	대한상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은평	은평구	(사북)엔젤스헤이븐	금천중장기	금천구	(사)한국청소년연맹
성동	성동구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청소년 특화시설(6개소)		
금천	금천구	(재)푸른나무청예단	근로청소년복지관	경기 광명	(사)한국청소년연맹
서대문	서대문구	(사)한국청소년재단	활동진흥센터	동작구	(사)한국청소년연맹
창동	도봉구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직업체험센터	영등포구	(학)연세대학교
망우	종량구	(재)서울가톨릭청년회유지재단	미디어센터	용산구	(재)푸른나무청예단
광진	광진구	(사)흥사단	문화교류센터	중구	(재)대산문화재단
마포	마포구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드림센터	강남구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화곡	강서구	(사)흥사단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_가족복지_청소년 시설 현황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385937 에서 2020년 10월 6일 인출		
강동	강동구	(사)한국청소년연맹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가.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서울시 노원구의 학업중단 사유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초등학교 이 218명, 중학생이 113명, 고등학생이 387명으로 고등학교에의 학업중단 학생 수가 전체 718명중 53.9%를 차지했다(표 VI-42). 학업중단 사유별로 보면, 초등학교 생과 중학생은 미인정 유학 및 해외출국이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기타 경우(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의 학생수가 225명으로 미인정 유학 및 해외출 국 60명보다 많았다.

표 VI-42. 서울 노원구: 학업중단 사유_학교급별 차이('19.2월말 기준, 교육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주)}	장기결석	자퇴/퇴학/ 제적	기타
	218	2	202	0	0	14
중학교	113	3	80	0	0	30
고등학교	387	17	60	0	85	225
계	718	22	342	0	85	269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19년 통계는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10월 9일 인출, 2015~2018년도 통계는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하여 인출하였으며 분류를 다시하여 재편집 후 제시하였음.

주: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학업중단 사유를 크게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통계 중 '유예'분류의 미인정유학, '면제'와 '자퇴'의 해외출국 사례를 모은 숫자임. '기타' 사유는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에 따른 학업중단을 의미함.

나.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서울시 노원구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들의 공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하고 있다¹²⁰⁾. 지원프로그램 및 서비스로 다른 꿈드림과 동일하게 진로·이

120) 노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http://www.nowonyouthcenter.org/contents/sub04/?st=sub04&sMenu=01>에서 2020년 11월 19일 인출.

성·가족문제 상담,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정보 제공, 자격취득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²¹⁾.

표 VI-43. 서울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상담지원	초기상담, 심리·진로상담, 자립·학습동기 강화 상담
교육지원	복고 및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학업중단예방 지원 등
취업지원	직업체험, 진로교육, 경제활동체험, 인턴십, 취업연계 지원 등
자립지원	생활 지원, 건강·정서·지원, 법률 교육, 자기개발(자격취득 등), 생활 기술 지원 등
건강증진	건강검진 지원, 건강생활 실천관리 지원, 체력관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특성화 프로그램	재능개발(특기적성), 와라스쿨(단기학교), 지역사회 참여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교과서 학습 지원, 특기 적성지도, 진로상담, 심리·정서 지도 등

* 출처: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리플릿 자료

서울시 노원구 꿈드림은 중단 없는 배움, 스스로 탐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청소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네 가지 목표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표 VI-44). 목표는 첫째, 발굴 및 지원체계 안정화, 둘째, 배움을 통한 교육적 성장지원, 셋째, 진로자립 역량강화, 넷째, 학교 밖 청소년 허브센터로 이에 따른 핵심과제는 학교 밖 청소년 접근성 제공, 맞춤형 교육 개발과 적용, 진로자립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로의 연계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꿈드림 멘토링, 검정고시반 운영, 자기계발, 진로자립교육, 현장인턴십 지원, 학교밖 성과 보고대회, 학교밖분과운영, 꿈드림연합 사업, 실무자역량 강화가 있다.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네 가지 목표 중 다른 기관과 차별화가 되는 부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허브센터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 중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거나 또는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사각지대에 있는

121) 출처 상동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노원구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허브센터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 인프라 개발 및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표 VI-44).

표 VI-44. 서울 노원구: 꿈드림 지원 서비스의 목표 및 주요 사업

비전	중단 없는 배움, 스스로 탐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청소년			
목표	발굴 및 지원체계 안정화	배움을 통한 교육적 성장지원	진로자립 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 허브센터
핵심과제	학교 밖 청소년 접근성 제고	맞춤형 교육 개발과 적용	진로자립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로의 연계
세부목표	•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	• 일상성 회복과 대인 관계 능력향상 • 기초학습력 제고 및 학력 취득과정 지원	• 체계적 진로자립교육 개발 및 적용 • 현장적용 교육을 통한 사회진입 역량 강화	•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 개발 및 구축 •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역량 강화
주요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 꿈드림 멘토링	• 검정고시반 운영 • 자기계발	• 진로자립교육 • 현장인턴십 지원	• 학교 밖 성과보고대회 • 학교밖분과운영 • 꿈드림연합 사업 • 실무자역량 강화

* 출처: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http://www.nowonyouthcenter.org/contents/sub04/?st=sub04&sMenu=01>에서 2020년 11월 19일 인출

노원구의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자원으로는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대안교육기관인 나우학교가 있으며, 문화, 예술, 체육부분의 자원맵으로는 시립노원청소년 센터,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징검다리거점공간이 있다(표 VI-45). 나우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위탁받은 학교이며 학교에 다니는 상태에서 나우학교로 위탁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나우학교는 학교 부적응 및 질병치료의 사유로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개인적인 특성으로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보통교과의 수업과 대안교과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¹²²⁾.

122) 노원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나우학교 <http://www.nowonyouthcenter.org/contents/sub02/?st=sub02&sMenu=01>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과 성장,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곳곳에서 필요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¹²³⁾. 나우학교와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지속적인 학업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시립청소년센터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노원구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과 도서관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있다¹²⁴⁾. 이들 시설은 지역사회 내 자원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더욱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복합문화공간도 필요해 보인다.

표 VI-45. 서울 노원구: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및 현황(서비스 자원맵 내용)

구분	기관명	운영자(단체)
상담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대안교육기관	나우학교	
상담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문화,예술,체육	시립노원청소년센터	푸른나무재단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징검다리거점공간 '나도, 꽃'	

* 출처: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자원맵_서울 노원구 꿈드림 검색 http://www.kdream.or.kr/maps/sub03_1.asp?kwSearch=%ED%82%A4%EC%9B%8C%EB%93%9C%EA%B2%80%EC%83%89&serviceCode=&tcCode3=&tsArea1=%EC%84%9C%EC%9A%B8&tsArea2=%EB%85%B8%EC%9B%90%EA%B5%AC&x=25&y=11에서 2010.10.5. 인출

123)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징검다리. http://seoulallnet.org/sub/bbs_view.php?code=board21&startPage=60&idx=4643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124)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http://www.gycenter.or.kr/sub01/sub01-1.php>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다. 서울 노원구 꿈드림 우수 사례: 동아리활동 프로그램¹²⁵⁾과 ‘와락’과의 연계 노원 꿈드림의 경우 검정고시 학습지원과 일대일 멘토링과 같은 기본 프로그램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운동 동아리, 보드게임 동아리, 텃밭가꾸기 및 공예활동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의 다양한 활동과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후 또래와의 교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때, 이러한 동아리활동을 통한 또래와의 교류 기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성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자체 꿈드림 사업 뿐 아니라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징검다리 거점공간인 ‘와락’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와락’ 역시 만 15~20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기회(바리스타, 사진, 공예 등)와 자기탐색 및 자기계발과 동아리, 청소년자치회 운영, 인턴십 등을 제공하고 있다¹²⁶⁾. 특히 진로자립교육의 경우 꿈드림과 연계¹²⁷⁾하여 해당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러 활동과 체험기회를 경험하고 또 자립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지원체계가 작동중이다. 2020년에 수행한 ‘체험 프로그램 또래와락’은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COVID-19 확산 상황에서 유튜브를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진행한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사전에 재료를 배달해 준 후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방식은 향후 지역사회 내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착안에 함의를 준다.

125) 노원신문(2020.5.20.)('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정서 프로그램·체험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http://nowon.newsk.com/bbs/bbs.asp?exe=view&group_name=109&section=4&category=2&id_x_num=33796&page=6&search_category=&search_word=&order_c=bd_idx_num&order_da=desc 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의 기사 내용과 노원구 꿈드림 현장실무자 면접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126) 노원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우. 와락. <http://www.nowonyouthcenter.org/contents/sub04/?sMenu=02&st=sub04>에서 11월 7일 인출

127) 출처 상동

3. 3개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1) 조사개요

(1) 자료수집

본 조사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추천을 통해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팀장급 실무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으며, 반구조화된 면접내용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참여자 A, B, C는 30~40대 연령대로 근무기간은 2~5년 정도였고, 자료수집은 2020년 8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에게 대면면접과 화상면접 중 면접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에 한 명은 연구진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후 전염병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나머지 두명 참여자의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면 면접 당시 COVID-19 상황은 방역 1단계 수준이었으며, 기관 방문 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를 사용하였고,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여기는 조용한 장소이면서 또 투명 아크릴판으로 개별 칸막이로 구획이 나누어진 곳에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온라인 화상 면접은 영상을 통해 보이는 모습이 제한적이었고, 스트리밍이 단절되는 등 추가적인 주변의 방해 요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질문 및 주변 환기 등을 통해 가능한 원활한 면접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대면 및 화상 면접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자료의 누락과 오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접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면접 시 참여자의 행동, 연구자의 느낌, 중요 사항 등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여 활용하였다. 면접은 사전에 작성된 반구조화된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면접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질적연구의 기초적인 해석방법에 근거한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질적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질적 자료분석 방법으로서(Weber, 1985), 본 연구에서는 White와 Marsh(2006)의 4단계 과정(연구 문제 제기, 표본 추출, 코딩, 분석)을 거쳐 질적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제기는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단계로 예상 질문이나 반구조화된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대도시) 지원 내용’에 초점을 두어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면접을 진행하고 표본추출과 코딩 작업을 거쳐 분석을 수행하였다. 코딩 작업 시 녹음과 전사된 원자료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전사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면담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문장, 문단을 코딩하였다. 이후 주요 영역과 핵심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유사한 문장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범주를 도출하여 명명하였다. 분석 후에는 자료 분석의 진실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인의 전문가에게 점검을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에 대한 코딩 과정 및 분석 결과 집필의 전 과정에 걸쳐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와 분석된 결과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문가들이 자료분석 결과에 동의할 때까지 분석을 반복하였다. 전문가들은 연구자와 함께 자료 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자료 해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3) 면접 내용

심층 면접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면접질문지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완성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 IRB심의를 받은 후 인터뷰에 사용되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의 심층 면접 질문 항목과 주요 내용은 표 VI-46과 같으며,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표 VI-46.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지원센터 실무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조사 영역	세부내용
기관 현황	예산 현황, 공간 현황, 조직 현황 등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시기 및 이유, 주 이용자 연령,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경로, 청소년 욕구 등
실무자 담당 업무	실무자 업무, 실무자 자격 등
기관 프로그램 제공 현황	프로그램 종류 및 기관 특화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연계,유지의 어려움, 프로그램 제공 시 중점을 두는 부분, 프로그램 제공 시 애로 사항, 프로그램 성공사례 및 타 기관보다 노력하는 부분, 프로그램 홍보방법
대도시 지역 특성 및 지원방안	대도시 지역의 장점 및 단점, 애로사항, 자치구마다 지원정책이 다른 이유,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핵심 역할 및 기능, 자치구별 지원방안
지역사회 지원 및 네트워크	자치구 및 지역에서 받는 지원, 기관의 위치 및 시설의 적합성, 지역 주변 환경 특징, 지역 특성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한계점, 지역 청소년 이용기관의 종류,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보완할 점, 지역구청장의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 지역사회 지원 협의체 유무 및 관련 내용
정책 실행 시 어려움 및 개선방안	중앙부처 정책 실행 시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각 주체별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2) 면접결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의 심층면접 결과의 범주 구분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VI-47과 같다. 범주들을 전체적인 기관 현황, 학교 밖 청소년, 기관 실무자 업무 및 자격, 기관 프로그램 제공 현황, 대도시 지역 특성 및 지원방안,

지역사회 지원 및 네트워크, 정책 실행 시 애로사항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 등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VI-47.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심층면접 내용 및 범주

내용	영역	범주
기관 현황	예산	- 국가보조금(국비와 지방비)으로 운영 - 국가보조금(국비, 지방비)과 후원금으로 운영
	공간/시설	- 독립된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 - 타 기관 내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시기/이유	- 그냥 학교 다니기 싫음 -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또래관계의 어려움 - 뚜렷한 목표가 있음
	센터 이용연령	이용 청소년의 연령은 주로 17-19세가 많음
	발굴경로	- 친구들의 소개 - 본인이 직접 방문 - 실무자들이 방문 권유
	청소년 욕구	- 검정고시 준비와 합격 - 또래관계 유지 - 경제적 활동
기관 실무자 업무 관련	실무자 업무	- 행정업무의 부담 -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인건비 - 찾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속도 하락
기관 프로그램 제공 현황	제공 프로그램 상세 현황	꿈드림 기본 프로그램은 모두 지원하며 그 외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음
	지역연계 프로그램	- 진로지원 프로그램 - 생활지원 프로그램 - 교육지원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연계 및 유지의 어려움	- 인턴십 체험장소 부족 -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능력 부족 - 사업비 및 행정 처리의 어려움
	프로그램 제공 시 중점을 두는 부분	청소년마다 개별적인 특성 파악
	프로그램 제공 시 애로사항	- 실무자 처우 문제(많은 업무량, 낮은 인건비) - 청소년의 낮은 참여도
	프로그램 성공 요인	- 지역사회의 지원 - 실무자의 적극적인 의지 - 청소년들에게 소속감 증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 마련

내용	영역	범주
		•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제공 시 타 기관보다 더욱 노력하는 부분	• 지자체와의 연계 및 협력 •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책임감, 인간관계, 인내심) •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홍보방법	• 아웃리치를 통한 홍보 • 지자체 및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 SNS를 통한 홍보
	대도시 지역의 장점	• 다양한 인프라 구축 •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좋음 • 지자체 및 지역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대도시 지역의 단점 및 애로사항	• 지역자치구별 지원정책의 차이 • 사업(프로그램) 초기 시범모델 운영
	대도시 지역 자치구별 지원정책이 다른 이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정도 • 해당 자치구의 의지 차이
대도시 지역 특성 및 지원 방안	대도시 지역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핵심역할 및 기능	• 자치구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 •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활성화
	대도시 지역 자치구별 지원방안	• 실무자 처우개선(인건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독립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접적인 예산 지원
	해당 자치구 및 지역에서 받는 지원	• 해당 교육청 및 구청의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 • 해당 구청의 장학금 지원(비정기 지원)
	해당 기관의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 접근성이 문제 • 위치와 이용시설의 적절함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보완할 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허브기관 역할 부여 • 일자리 제공 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 개선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의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의지 중요
지역사회 지원 및 네트워크	지역사회 지원 협의체 유무 및 관련 내용	• 지역사회 공식 협의체 및 운영모임 유지
	중양부처 정책실행 시 어려움	• 중양부처와의 교류 부족 • 성과 위주의 평가체계 • 현장 실무자에 대한 처우(많은 업무량)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부족
	중양정부 정책 및 지원체계 발전방안	• 지역(자치구)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필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분리 •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내용	영역	범주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학생 청소년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 기관 통일
		•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하는 요구를 트렌드에 맞게 지원
	광역자치단체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 학교 밖 청소년의 기관별 지원방법 및 인식 차별화
		• 수도권에 집중된 청소년 지원 서비스 확충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예산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 처우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전담 공무원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공공근로 사업 추진
		• 사회 트렌드에 맞는 일자리 및 창업 지원
		• 기관 미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교육청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 공교육 기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연계 의무화 및 홍보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교육청 전담 실무자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연계를 위한 노력 확대

① 기관 현황

가. 예산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 운영 현황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보조금(국비, 지방비)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국가보조금은 시·군·구의 경우 7:1.5:1.5의 비율로 지원되나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5:5로 지원이 되었다. 둘째는 국가보조금(국비, 지방비)과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 국가 보조금(국비, 지방비)으로 운영: 세 기관 모두 국가 보조금(국비, 지방비)이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담당 자치구에서의 예산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없었으며 그 중 두 기관은 후원금도 전혀 없었다.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입니다. 꿈드림 기관 내 수익, 후원금은 전혀 없고 상담복지센터 예산으로 시간외 수당이라거나 임대료를 내주고 있습니다...(중략) 학교 밖 지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사업비랑 인건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거기서 내려온 딱 정해진 만큼

만 5:5 매칭해서, 국비 지방비 1대1로하고 있습니다(A)

저희는 어쨌든 일단 국가보조금이 전체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 비율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으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모든 사업은 나라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는 구비지원이 전혀 없구요. 일단 최근, 올해 들어서 각 구별로 '담당하는 예산을 책정해라' 라고 내려 온 상태라 내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C).

그 법인 자체에 받는 후원은 있으나 (중략) 후원금이 실질적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한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 청소년한테는 정말 이 친구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로 의료비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받을 수 없죠(C).

○ 국가보조금(국비, 지방비)과 후원금으로 운영: 한 기관은 단체에서 후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원계좌를 열었으나 이 경우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후원계좌는 별도로 안 만들었어요. 기존에는. 왜냐면 후원금 처리도 힘들고 저희는 제로 예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년에 좀 특이하게 지역에 있는 ○○재단에서 복지사각지대 위기청소년들 지원을 위해서 △△만원 후원금을 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후원금 통장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그 외에는 후원금 수익은 별도로 없고 저희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B).

나. 공간/시설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공간 현황은 두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첫째로 독립적인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로 타 기관 내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을 사용하는 사례였다. 대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임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없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독립된 전용공간 사용: 조사에 참여한 한 센터는 처음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있었으나 몇 년전부터 따로 독립된 공간을 임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아지기도 하였고 별도의 공간을 구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 별관을 얻어서 다같이 노력하여 리모델링 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임대료는 구에서 지원해줍니다. 구의 예산이 상담복지센터예산으로 들어가서 저희에게 오는 겁니다(A)

상담복지센터 친구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 활동하는 경우는 없고 학교 밖 아이들 전용공간

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학교 밖 아이들만 여기를 이용합니다(A)

○ 타 기관 내 전용공간 및 공용 공간 사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 전용공간 부족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다. 인터뷰한 세 기관 중 두 기관은 공간이 독립되어 있진 않지만 타 기관 내에서 전용 공간도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용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저희 꿈드림 센터가 (중략) 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수련관 1층에 원편 공간 전체를 ○○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저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그다음에 옆에 도서관 이 있는데, 그렇게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B).

한번 쓰면 수련관 전체를 다 사용하니까 그런 점들은 저희하고 조율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가 전용해서 쓰는 상담실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공간은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좀 번갈아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가 별도로 전용해서 쓰는 공간도 있고요(B).

저희가 사실 단독공간은 없고 원래 꿈드림 예산 자체가 적고 저희 예산중에서 운영비 속에서 도 또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요 (중략) 저희가 사실 단독공간은 없고...상담복지 센터랑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 사무실 안에 꿈드림팀은 요쪽, 뒤 상복팀은 요쪽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중략) 근데 계속 단독공간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그 ○사업 을 통해서 상담복지센터랑 같이쓰는 건물에서 자유공간을 받기는 했어요(C).

② 학교 밖 청소년

가. 학업중단 시기 및 이유

조사에 참여한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시기는 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17세 정도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유는 첫째, 그냥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둘째,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교우관계의 어려움으로, 셋째,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등으로 범주화 하였다.

○ 그냥 학교 다니기 싫음: 기관을 찾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중단 이유를 질문할 때 가장 많은 답변이 ‘그냥’ 학교 다니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은 청소년들의 ‘그냥’이라는 표

현 속에 숨어있는 고민들과 생각들을 읽어내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중단합니다. 최근에는 점점 연령이 내려갑니다. 학업중단 이유는 간단해요. 학교가 맘에 안들어서 중단합니다. 배울게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A).

평소 중학교는 통학거리가 길어야 30분 이내 짧으면 20분 이내인데 고등학교를 가는 순간 거기 앞에 1시간이 더 붙거든요. 그러니까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늦잠지게 되게, 그니까 한마디로 거리가 멀어서 학교가기 귀찮아서 그만 둔 친구들이 좀 가장 많은 편이에요(B).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 사례가 많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숙제 같은 경우에도 고1, 2가 가장 많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연령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요(C).

○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또래관계의 어려움: 학교 내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부모보다는 또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하게 된다.

교우관계로 인한 중단사유가 많아요. 집단따돌림이라든가 친했던 그룹에서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학업중단 선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선생님과의 갈등도 있기는 한데 비율이 엄청 높은 건 아니고 교우관계로 인한 중단이 더 높아요(B).

그 외에는 또래관계 문제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죠. 갈등 같은 부분에서 조금 해소하기 보다는 그냥 단절하고 나의 일을 하겠다 라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C).

○ 뚜렷한 목표가 있음: 현장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가 싫다는 이유와 또래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지만 본인의 확고한 목표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사실 저희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나름의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인거죠(C).

막상 자퇴를 할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C).

나. 센터 이용연령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대체로 17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꿈드림 등록이 가능한 연령은 9세-24세까지 모두 가능하나 주요 이용연령은 17세-19세라고 하였다.

저희는 17세에서 19세가 제일 많고...(중략) 주요 인원이 17-19세라고 했는데, 등록되는 아이들은 15세부터 등록이 되긴 합니다. 요즘은 16세가 많기도 하고, 등록이 가능한 아이들은 9세부터 24세부터 다 가능합니다(A)

저희가 한 17에서 19살 친구들 가장 많은 편이에요. 보통 주축을 이루는 친구들이 17-18살 친구들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17살 때 자퇴한 친구들이 가장 많은 편인데, 몇몇은 17살 자퇴하고 바로 센터 이용하지 않고, 한 몇 달 놀다가 18살 정도 되면은 오죠, 센터로(B)

보통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구요. 드물게 중학교 친구들이랑 20대 초반 친구들도 꽤 있어요. 보통은 17세, 18세가 가장 많아요(C).

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경로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청소년들의 발굴경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진다. 첫째, 친구들의 소개로 지원센터로 오게 되는 경우, 둘째,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찾아오게 되는 경우,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 리스트를 통해서 또는 아웃리치를 하면서 실무자들이 직접 센터방문을 권유하는 것이다.

○ 친구들의 소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고 함께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들이 그냥 소개, 친구 소개가 많습니다(A)

친구 통해서 온 친구들 비율이 높은 편이구요(B).

사실 저희는, 오랫동안 사례를 해오면서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C).

○ 본인이 직접 방문: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 경우 학교 대신 다른 배움의 공간을 찾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미리 알아보기도 하고 그만둔 후에도 적극적으로 기관을 알아본 후 본인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양상은 아이들이 꿈드림에 대해 스스로 다 알아보고, 어제 학교 나왔는데, 오늘 바로 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습니다(A)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직접 검색해서 찾아오거나..(B).

○ 실무자들이 방문 권유: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청소년들 명단을 교육청에서 받아 실무자들이 직접 전화하여 기관홍보와 더불어 기관방문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검정고시 고사장 등에서의 아웃리치과정에서 직접 만나서 꿈드림 방문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동의한 친구에 대해서 정보를 받으면 저희가 전화로 일일이 전화해서 센터이용안내라든가 홍보를 한 다음에 내방상담을 좀 유도하죠(B).

그 외에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는 아웃리치에서 자료를 보고 전화를 하거나 하는데, 이 아웃리치는 보통 검정고시 고사장이나 접수장에서 많이 진행이 되어요. 여기서 조금 많이 발골하는 편입니다(C).

라. 청소년 욕구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는 크게 검정고시 준비와 합격, 또래관계 유지,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로 범주화되었다.

○ 검정고시 준비와 합격: 현장 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검정고시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검정고시 합격이고, 이후에 진로탐색, 기술배우기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표면적으로 검정고시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 압력이 있으니깐 고졸은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정고시와 또래관계가 비슷하게 욕구가 있습니다 (종락) 등록하고 나오지 않은 학생들도 검정고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매번, 4번방이 가장 큰 방인데, 40명씩 들어오는 방인데, 서서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의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작년에 검정고시만 120 몇 명이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오죠(A).

친구들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정고시 준비 이게 가장 크고(B).

일단 그게 우선이다, 라고 해야 하는지가 조금 고민인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오면 검정고시라는 단계를 거치려고 해요(C).

○ 또래관계 유지: 학교를 벗어난 후 홀가분한 감정이 있겠지만 한편으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도 존재한다. 또래와의 교류, 관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주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건 또래관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말은 하진 않지만, (중략). 그래도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던 친구들, 예전에 비해서 엄청난 왕따가 아니어도 나오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죠(A).

○ 경제적 활동: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는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생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출이 많아지게 된다. 교복이 아닌 일상복을 위한 지출, 먹을 것에 대한 지출, 친구들과의 놀이를 위한 지출 등이 그것이다.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데 학교를 그만 두게 되면서 지원받던 용돈이 끊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현장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의 인턴십과 같은 수당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용돈을 벌기 위해 꿈드림을 찾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그니까 한 마디로 경제적 활동이거든요. 그니까 뭐가 있냐면, 학교를 그만두면 시간이 남잖아요. 근데 놀아야 되는데 학교도 안 가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주라고 하니까 눈치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놀 돈이라든가 어떤 눈치 안 보게 하고자하고...(중략)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보통 나이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살, 18살 이다보니까 나이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좀 어려운 나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근데 친구들이 어떤 센터에서 뭐 인턴십이라든가 뭐 이런 돈을 주는 프로그램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은 편입니다(B).

③ 기관 실무자 업무 관련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업무적인 부분은 여러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타 유사 직종에 비해 낮은 인건비, 실무자들의 잦은 이직에 따른 낮은 업무 숙련도로 범주화하였다.

○ 행정업무의 부담: 업무 과부하로 인한 부담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이 모두 언급하였다. 과중한 업무, 특히 행정업무로 인해 청소년 지원에 있어 소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에서 업무에 대한 성취감을 얻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행정업무가 많다 보니 아이들에게 소홀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지요. 그나마 저희가 해결하는 것은 그래도 아이들한테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로 치환 가능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는 부담되지만, 성취감을 얻는 게 있어서 그게 엄청 큰 위안이 됩니다(A).

○ 타 유사 직종에 비해 낮은 인건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소속만 다를 뿐 같은 공간에서 청소년 관련한 업무를 보는 건 비슷하다. 하지만 처우의 문제, 즉, 실제로 받는 임금의 차이가 상당했으며,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인건비 보존이 가능할지 걱정하기도 하였다.

상담복지센터가 훨씬 높아요. 일례로 그냥 저희 꿈드림에 최저 임금비 가이드 기준으로 상담복지센터 행정원 1.5호봉도 안 됐었거든요. 팀원 기준으로, 팀원의 인건비 최저 기준이 상담복지센터의 행정원 1호봉도 안됐어요. 그래서 격차가 한 20만 원 정도 날거예요(B).

일단 처우는 당연히 임금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임금을 봤을 때 꿈드림사업 자체가 전체 1년 사업 자체가 크지 않은 편이잖아요. 이 중에서도 사업비에 대한 비중이 제한되어 있어요. 사업비 전체에 30%는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 최소 몇%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추다 보니까...(중략) 근데 저희도 지금까지는 버텼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연차가 다 올라가고 또 이제 그런 인건비를 이만큼 보존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은 매년하고 있는거죠(C).

○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숙련도 하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실무자들은 업무적인 부담과 낮은 인건비로 실무자들의 잦은 이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임자의 이직으로 인해 새로운 실무자가 들어오면 업무에 능숙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능숙해지면 또 이직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꿈드림 종사자들의 업무숙련도가 떨어지게 된다.

상담복지센터보다는 처우가 더 열악하죠. 그래서 이직률이 높고...(중략)그래서 솔직히 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지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꿈드림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려면 결국 안정성이거든요. 일례로 광역센터는 퇴사자가 없었지만 시·군·구는 저 빼고 나머지가 바뀌었다 했었잖아요(B).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바뀌게 되면, 실무자가 바뀌게 되면 친구들은 아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안 오거든요. 뭐 할려고 해도 라포 형성이 다 끊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친구들이 접근을 안 하게 되고 참여를 안 하게 되니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실무자가 업무 숙련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끊겼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완성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뭔가 좀 1-2년 하다보면 다른 곳 가고. 그러니까 꿈드림 사업의 전문성이 높은 편은 아니죠(B).

사실 저희 센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실무자들의 근속연수가 조금 긴 편이거든요. 3년, 4년 이렇게 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2년마다 막 바뀌기도 하세요. 선생님이 안 바뀌어야 우리 친구들이 갈 곳이 있는데 자꾸 자꾸 바뀌니까 우리 친구들 오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 또 새로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저희는 너무 미안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종사자가 안정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C).

④ 기관 프로그램 제공 현황

가.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 상세 현황

조사에 참여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침상 꿈드림 프로그램(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은 모두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 각 기관마다 초점을 두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 E 꿈드림 특화프로그램: E 꿈드림은 모의창업 및 취업,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모의창업 및 취업 프로그램은 공간지원 사업을 통해 카페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 학교 밖 청소년이 모의창업을 해보거나 카페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심있어 하는 창업에 대한 기술과 경제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VI-48. 대도시 E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 프로그램

모의 창업 및 취업 프로그램	• 2017년에 공간지원 사업을 받음 • 매년 카페에 대해 모의창업을 하는것처럼 실습 • 사회생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 경제생활 등 습득 • 취업에 대한 욕구도 해소
정책 참여 프로그램	• 정치인을 만나 가지고 의견을 얘기하고 소통 • 최근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까지도 함께 진행

정책참여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만나 소통하며 지역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정치인들을 전혀 만나 볼 기회가 없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함께 가지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 F 꿈드림 특화 프로그램: F 꿈드림이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토래 활동 지원 프로그램,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 수준별 검정고시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토래 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토래들이 모여 교육부터 활동까지 함께 하는 활동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검정고시와 관련하여 일대일 멘토링을 진행하고 활동 프로그램에서는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토래끼리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를 벗어난 후 소속감이 없어지고 토래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속감과 토래와의 의사소통을 함양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업비 지원이란 명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겐 원동기 면허증을 딸 수 있게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그 외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준비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수준별 검정고시 반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검정고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학습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기초학습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수준별로 반을 편성한 뒤 멘토와 1:1 매칭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표 VI-49. 대도시 F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 프로그램

또래 활동 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 • 유관 기관 사업 간 교류를 통해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줌 • 검정고시로 시작을 하고 일대일 멘토링까지 진행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	•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원동기 면허 등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 지원 • 기관 방문이 저조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을 찾아오는 계기가 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수준별 검정고시반 프로그램	• 검정고시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매년 상반기 시작 • 2월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월수금 오전과 오후 구분하여 진행 • 학습 경계선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수준별로 반 편성 • 멘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지원 • 스터디 카페 지원 • 노트북 임대하여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

○ G 꿈드림 특화프로그램: G 꿈드림은 검정고시 멘토 지원 및 등록대행 프로그램, 수능 면접대비 프로그램, 인턴십 체험 프로그램,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검정고시를 위한 교육지원은 다른 기관과 동일하지만, 여기에서는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공부를 돕고 교재 등도 무료로 지원해 준다. 특히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는 부분은 검정고시 원서 접수를 대신해 주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일이 관련서류 등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실무자들이 함께 도와서 접수를 돕는다. 수능 면접대비 프로그램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면접 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인턴십 체험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에 있는 청소년작업장에서 직업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인턴십을 통해 청소년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턴십 후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직업학교나 내일이룸학교 등으로 연계도 해준다. 문화활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야외활동과 체육활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또래와도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봉사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표 VI-50. 대도시 G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 프로그램

검정고시 멘토지원 및 등록 대행 프로그램	- 검정고시 학원 등록을 이유로 부모님에게 학원비를 받은 후 한 달도 채 안다니는 경우가 많음 -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수업은 멘토 선생님들로 구성함-꿈드림멘토단 - 학습 멘토를 받으면서 편한 분위기에서 수준형 맞춤지원 - 인터넷 강의, 교재 무료 지원 - 검정고시 원서 대리접수
수능 면접대비 프로그램	- 대학 입학을 위한 검정고시 전형 대비 - 대학 수능 관련 면접 대비 및 교육지원
인턴십 체험 프로그램	- 아르바이트 등의 일 경험 제공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의 직업강화역량 프로그램 제공 - 일 경험을 쌓고 참여하면서 교육수당 제공 - 인턴십 참여 시 아르바이트비를 받음 18세 이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학교, 내일이룸학교로 연계
문화 활동 프로그램	- 다양한 야외활동, 문화 활동 제공 필요 - 또래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꿈드림 역할 중요 - 정기적인 야유회활동, 캠프, 문화체험, 야구장, 연극, 스포츠, 볼링 체험 - 해외봉사등의 외부 자원과 연계·지원

나. 지역연계 프로그램

조사에 참여한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었다.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첫째, G지역의 인턴십 체험 프로그램과 F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희망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둘째, F지역의 성취포상 포인트제 프로그램, E지역의 도시락 지원 프로그램, 건강식품지원 프로그램, 교통카드지원 등의 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셋째, E지역의 교육교재 지원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 진로지원 프로그램: 대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하는 장소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하고 싶은 곳은 카페이지만 지역 내에서 바리스타 체험 및 관련 아르바이트

를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센터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해주고 있다.

작년에는 일자리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은 네트워크에서 분담을 하고 있어요. 인턴십 같은 것도 업장(일할 수 있는 곳) 풀(리스트) 같은 것을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A).

○○구에는 일 경험 센터가 있어요. 독립된 센터로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구청 아동 청소년과에서 청년 사업에 주력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인턴십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전달드려 똑같은 나만 나이가 15-39세까지라는 점이 다릅니다. 인턴십에 해당되지 않는 나이의 아이들을 일경험 센터의 인턴십으로 연결하여 지역으로 아이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A).

진입장벽이 낮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카페입니다. 바쁜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실제 업장을 훑어서 가기도 하지만, 업장 카페는 매우 바빠서 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청소년 카페,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안에 꽃 다방, 아동복지관 ○○카페 세군데에 주로 일자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이돌봄관련) 센터(○○에 20개 정도 위치)에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A).

학교 밖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드림온처 라는 사업인데 지금 오백만원 올해 받고 있습니다. 대학캠퍼스투어하고 직업군탐방 등을 하고 있어요(B).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좀 힘들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좀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참여시키게끔 하고 있어요(B).

○ 생활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실질적인 지원은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여러 분야에 서 생활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단에서 사업비 하라고 해줬는데 그것도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교부를 받아요. 제가 이제 아이템 내서 한 게 1인 1색 성취포상포인트제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성과를 포인트로 해서 일정 포인트를 달성하면 친구들한테 현금을 싸줍니다. 성취축하 달성 금액이죠. 큰돈은 아니에요. 뭐, 그게 이제 70포인트부터 250포인트까지 있는데, 250포인트 달성하면 50만원이고 70포인트는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이제 지금 30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B).

저희가 이번에 연계사업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 건강보험공단이랑 연계해서 저희가 월마다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그 전까지는 현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시락 지원을 조금 해주셨었거든요. 20만원씩 현금으로 주시는건 올해 들어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저희는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아이들 필요한 뭐 활동비 같은 거를 조금 지원해줘요(C).

시 교통시민기금이라는 곳에서 친구들 교통 카드, 10만원짜리 카드를 지원해줬거든요. 요 부분은

전체를 해준 건 아닌데 저소득층 친구들한테 지원해서 조금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준 사례도 있었어요. (중략). 그 외에 뭐 생리대 같은 것도, 이제 원래는 이마트 쪽에서 해주다가 요게 중단된 뒤로는 올해는 시에서 지원을 또 받아서 최근에 배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C).

○ 교육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욕구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업지원이다. 조사에 참여한 꿈드림 모두 검정고시와 관련된 교육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 상시적으로 ebs에서 검정고시 교재, 수능교재 같은 것들을 계속 지원 해주고(C).

다. 지역연계 프로그램 연계 및 유지의 어려움

지역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인턴십 체험장소 부족,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능력 부족, 사업비 및 행정 처리의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였다.

○ 인턴십 체험장소 부족: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난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공교육 체제 안에서는 실질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체험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인턴십 체험 장소 역시 카페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험 장소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다. 카페마저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아서 실무자들에게는 연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에서는 일경험 센터에서 오는 친구들을 받기도 하고 꿈드림에서 오는 친구들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많은데 일자리는 별로 없게 되는거죠. 일을 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쉽지 않습니다(A).

○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능력 부족: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인성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의 사업장 입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완벽히 업무를 파악할 때까지 기다려 주기보다는 처음부터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하게 된다.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기술습득과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업무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업장에서는 받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흡수하는 식으로 업장을 뚫는 것이 반복입니다 (중략) 인성교육, 일머리 교육이 몇 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이걸 통합적인 교육 안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청소년 활동하면서 늘 고민되는 지점입니다(A).

○ 사업비 및 행정 처리의 어려움: 대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험의 폭을 넓히게 되고 사회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는 적응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실행과정 중 요구되는 행정 처리는 실무자들의 몫으로 보인다. 실무자들은 연계 프로그램마다 예산집행 및 경과보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5백을 쓰나 5천을 쓰나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뭐, 근데 50이 10개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실무자들이 더욱 힘든거죠. 사업을 실행한 후 정산부분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행정적인 서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구요. 지역연계가 많이 되더라도 우리 실무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B).

라. 프로그램 제공 시 중점을 두는 부분

○ 청소년의 개별적인 특성 파악: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 제공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검정고시 합격, 생활 자립, 진로 등에 대한 관심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지원하기 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고 있었다.

저희는 실무진들이 모여서 센터에 오는 친구들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자주 오지 않고 담당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 기억해두었다가 아무 때나 들어오는 지원서비스가 어떤 친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실무단에서 계속 공유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한 아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적어도 전산망에 등록된 아이들은

지원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떻게든 필요한 서비스와 적합한 서비스를 매칭해주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A).

우리 친구들은 다양한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의지가 약한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의지부족, 참여도 낮거나 목표의식 부재하거나, 또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좀 충분한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연락을 취하려면 사무실 전화에는 한계가 분명하고, 연락도 안 되면 저희가 답답하니까. 개인 SNS를 활용해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연락취하고 있어요(B).

일단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편이죠. (중략) 개인상담 속에서 심리적인 부분, 불안한 부분들을 항상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개인 상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C).

마. 프로그램 제공 시 애로사항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프로그램 제공 시 힘들어하는 부분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실무자의 많은 업무량과 그에 비해 낮은 인건비 문제였고, 두번째는 프로그램 실행 시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 실무자 처우 문제(많은 업무량, 낮은 인건비): 조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 크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수의 실무자들이 많은 행정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소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질적이 아닌 양적인 수치로 평가함에 따라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분, 처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A).

선생님들이 성과에 대한 것을 불안해해서 어떻게 성과와 의미를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단순 성과에 대한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A).

꿈드림 오래 계신 선생님은 하루종일 앉아서 실적인 입력하다가 시간이 다간다고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행정처리 하느라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쉽습니다. 차라리 인원을 늘려서 분담을 해도 좋을텐데요(A).

○ 청소년들의 낮은 참여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프로그램 지원 시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노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않고 무관심한 청소년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일단 친구들이 약속을 잘 어기고 그다음에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거나, 마음이 자주 바뀌거든요. 뭐 이 프로그램 하기로 했는데, 저 내일 아르바이트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데 한 2주 있다가 뽐 저 핸드폰 바꿨는데 번호가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한다든가, 중도 탈락하는 그런 확률도 높고(B).

학교 밖 친구들이 학교에 시스템이 불편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학교처럼 와, 가, 해야 돼 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걸 존중해주다 보니 친구들이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해이한 마음이 있어요(C).

바. 프로그램 성공 요인

각 꿈드림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지역사회 의 지원, 실무자의 적극적인 의지, 청소년들의 소속감 증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 마련, 다섯째, 프로그램 기획 시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 반영 등으로 범주화 하였다.

표 VI-5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성공요인

성공요인(범주)	의미단위
지역사회의 지원	지역의 힘이라고 생각함. 일 경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할 때에는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함(A)
실무자의 적극적인 의지	아이들을 정성껏 보려고 하는 실무자의 마인드가 주요 요인이라고 봄. 우리 기관은 실무자들이 ‘일’이라고 하지 않고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 일환임(A)
청소년들의 소속감 증진	청소년들 간 교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생일파티를 열어주고 있으며, 소속감이 높아지니 프로그램 참여도도 높아지는 것 같음(B)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 마련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우수한 결과물이 안 나더라도 잘 웃고 다니면 흥분 자 상이라든가 지각 안하고 잘 참여하면 그 나름대로의 상을 수여하면서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률이 높아졌음(B)
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계획 시 청소년들 욕구를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같이 함(B) 청소년들이 (센터에서) 하고 싶은 걸 자기들이 했더라는 것이 가장 큰요인(C)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계속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해보자 라고 방향을 맞춰가고 있음(C)

사. 프로그램 제공 시 타 기관보다 노력하는 부분

타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보다 더욱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세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지자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노력, 둘째, 청소년들의 향후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 셋째,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상담 및 지원 등이었다.

○ 지자체와의 연계 및 협력: 대도시 지역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중 한 곳은 타 기관보다 지자체와의 연계가 활성화 되고 있었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센터에서도 관심을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활발한 연계와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치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전에 구청장님이 아동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희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구청도 직원 중에 청소년쪽 업무 좀 한다는 사람을 모아서 어벤져스 팀을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업무가 확장되서 힘들기도 하지만, 구의 엄청난 힘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A).

○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책임감, 인간관계, 인내심)

책임감, 대인관계 경험, 인내심 등은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된다. 대도시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교육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불규칙하게 행동하는것에 좀 제한을 뒀요. 그니까 스스로 운영규칙을 만들게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청소년들한테 홍보를 시키게 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뭐 몇 회 이상 지연한다 하면은 제가 제 권한으로 중도탈락 시킨다든가 이용을 일주일 제한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려고 해요. 대신에 영구가 아니라 항상 기간을 두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너희들이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 식의 몇 번의 충분한 경고를 주고 나서 결정을 하거든요.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느껴야 되고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중략) 그니까 꼭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것보다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내심 정도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힘들더라도 참아야 한다든가, 우리 친구들이 이런 훈련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B).

학교에서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 같아서 여러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사회에 딱 나가게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B).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지겹고 힘든 공간이지만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면 졸업을 하는 거구요. 학교 밖 아이들은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은 편이라 인내심을 길러주려 해요. 사회적응의 한 요소이기도 하구요(B).

○ 심리상담 및 지원

대도시 실무자들은 청소년들과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선 개인 심리에 대한 상담과 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고민과 특성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있었다.

사실 상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잘 살게, 사회에 잘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다 보니, 가장 먼저 초기 상담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개인사 문제잖아요. 이 속에서 저희가 성폭력이랑 가정폭력 대한 부분은 사실상 노출되지 않은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굉장히 가능하죠. 저희는 상담 지원과 프로그램 활동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C).

아. 프로그램 홍보 방법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크게 아웃리치를 통한 홍보, 지자체 및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SNS를 통한 홍보로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 아웃리치를 통한 홍보: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아웃리치를 통한 홍보는 기본적인 홍보방법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아웃리치 장소로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검정고시 고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웃리치는 기본으로 하고 있지요. 예전에는 근처 공원도 가고 그랬어요.(실무자1)

뭘, 검정고시 시험 보러 와도 저희 센터 ○○에 있는 시·군구·센터에 등록 안 된 친구들도 검정고시 보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홍보가 되기도 하죠(B).

○ 지자체 및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 센터는 지자체에 직접 프로그램 브리핑을 하고 홍보하기도 하였다. 지자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용을 지역 신문에 홍보해주거나 센터에서 직접 지역신문에 홍보하기도 하였다.

구청신문을 통해 홍보하기도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협업해서 일을 만들어 합니다(A).

저희는 일단 무조건 사업 하나가 시작되면 뭐 저희 법인 홈페이지, 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는 기본이고, 그 시에 생활의 정보라는 곳에 (중략) ○○신문사 자체에 홍보를 하면서, 이제 신문사에 저희가 게시해서 인터넷 기사로 홍보를 하고 있구요(C).

○ SNS를 통한 홍보: 기관설명과 함께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는 하나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에는 개인 SNS 계정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기관의 SNS 채팅방을 홍보에 활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기관 리플렛이라든가 홍보전단지,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떤 관공서라든가 유관기관 방문용으로 쓰고 청소년은 거의 안보고요. 방문하는 친구들도 거의 안보고, 저희는 이제 sns, 기관 페이스북이라든가, 저희 센터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비번이 걸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하고 있어요. 그럼 채팅방에 들어온 친구들이 주변 학교 밖 친구들을 초대하구요(B).

그 외에는 우리 친구들 워낙 sns 많이 하고, 특히 페이스북에서 많이 활용을 할려고 하다보니 까, 페이스북 활용을 해서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어요(C).

이제 페이스북은 사실은 저희 법인 전체가 다뤄져있어서 그 속에서 이제 뭐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정보도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에 대한 정보도 있고 꿈드림에 대한 정보도 있어서 운영이 되고, 이제 카카오톡 채널은 이제 저희가 단독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실제로 고민 상담을 오프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있어요(C).

⑤ 대도시 지역 특성 및 지원방안

가. 대도시 지역의 장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대도시 위치의 장점은 첫째, 다양한 인프라, 둘째, 대중교통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기관의 접근성이 좋다는 측면, 셋째, 지자체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 다양한 인프라: 대도시에는 여러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지역 내의 시설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른 중소 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많다는 점은 대도시 지역의 장점이다.

우선 인프라가 많습니다(A).

인프라 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교가 좀 안되죠(B).

아무래도 대도시라 하면 상업이나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자원이 많고 정보가 빠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C).

○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좋음: 대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다. 타 지역은 불편한 교통편으로 청소년들이 꿈드림에 잘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조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교통의 편리성은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교통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 청소년들 접근이 빠르죠(A).

저희는 광역시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교통편이라든가, 접근도가 엄청 높은 편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읍면동 보다는 훨씬 저희는 유리한 편인 것 같아요(B).

다른 곳은 서비스 하나 할라고 하더라도, 차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워요. (중략) 인근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구내 지체에서 교통편이 시간대가 자주 다니거나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할려는 친구들 모집해서 또 장소까지 이동한다든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어요(B).

찾아오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찾아올수 있게끔 교통이 좋은 편이에요. 시골지역은 아무래도 교통의 어려움이 있죠(C).

○ 지자체 및 지역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모든 대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그렇진 않지만 지자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이야기 하는 기관도 있었다.

지역네트워크도 잘 되어있습니다. 구청하고도 그렇고, 전문인력도 많습니다...(중략) 저희는 워낙 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역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구량도 잘 되어 있다는게, 민관학 협력 워크숍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못하고, 구청, 저희처럼 위탁, 민도 있고, 다 같이해서 실무자들이 제주도 워크숍을 간다거나, 지역차원에서 있었습니다. 지역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A).

나. 대도시 지역의 단점 및 애로사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대도시 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한 단점이나 애로사항은 두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첫째, 각 자치구별로 지원정책이 상이함에 따른 단점이 있었으며, 둘째, 사업초기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대도시 지역에 샘플링을 해보게끔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 지역자치구별 지원정책의 차이: 대도시는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별로 구분되며, 또 자치구별로 정책 수행에 있어 다소 상이하다.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00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수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구마다 지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구가 좀 더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도 들죠(A).

○ 사업(프로그램)초기 시범모델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될 때 대도시에 샘플링으로 모델을 운영해보라고 권고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였다.

단점으로 보자면 어떤 사업이 처음 시행되면 어쨌든 큰 도시, 대도시 쪽에 집중해서 진행해보라, 이렇게 한 번 모델을 운영해보라 라는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약간 시행착오가 많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저희의 업무에 추가되는 부분도 생기는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C).

다. 대도시 지역 자치구마다 지원정책이 다른 이유

대도시 지역 자치구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다른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에 대한 관심 정도의 차이, 해당 자치구의 의지 유무의 결과로 보고되었다.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 정도: 청소년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나아가서는 구청장 등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지원하는 데 차이가 크다고 하였다. 더불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홍보 및 노력이 더해지면 자치구의 지원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자치구의 능력이라던가, 꿈드림 자체의 성향,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의 직원 한사람만 관심이 있다고 해도 학교 밖 사업이 확 바뀌기도 하고(A).

○ 해당 자치구의 의지 차이: 해당지역 자치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홍보하고 노력하여도 자치구에서 지원의 의지가 없으면 그 자치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른 구보다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안에서도 지원금을 받는 구도 있고, 받지 못하는 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지만 그 만원일지언정 굉장히 중요한 구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역할을 구에서 해주지 않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우리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모르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고, 저희도 계속 그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 뭐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나오고 있습니다(C).

라.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핵심 역할 및 기능

대도시 지역 꿈드림의 역할과 기능으로써 첫째, 자치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둘째, 대도시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활성화가 도출되었다.

○ 자치구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자치구별로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실무자들은 해당 자치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구는 생활지원이나 자립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구의 특성상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진로경험이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자치구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구도 열악한 지역이 있고, 굉장히 또, 뭐 구의 특성에 맞춰서 지원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아이에게 인강하고 종합 기출문제 들어있는 종합 책 한 권 있습니다. 두꺼운거. 검정고시 관련해서 줄 수 있는게 그 책 한권이 다입니다. 근데 ○○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깐 거기는 한 사람당 100만원 상당의 세트를 준다고 합니다. 과목별로 정리되어있는 풀 패키지 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게 구의 특성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겠죠(A).

○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활성화: 현장 실무자들은 대도시에 위치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인프라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지역연계 활성화를 통해 여러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경험과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을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꿈드림의 역할로 보았다.

일단 어쨌든 많은 자원을 갖추고 있다하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새로운 지원 방법, 새로운 문화, 청소년들의 시선이 뭐지 라는 것들을 빨리 빨리 캐치를 해서, 이게 또 구, 각 지역으로 또 전파가 되면 청소년들 문제를 좀 더 빨리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C).

마. 대도시 지역 자치구별 지원방안

대도시 지역의 자치구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으로 첫째, 실무자들의 처우 개선, 둘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독립적인 지원, 셋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직접적인 생활비 등 예산 지원의 필요성으로 범주화하였다.

○ 실무자 처우개선(인건비):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은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업무량도 그렇겠지만 그에 비해 인건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에서 보완해 준다면 실무자들의 업무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구마다 통일해서 그 다 인건비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꿈드림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떨어져있지만, 상담복지센터에서 한 팀으로 있으면,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이랑 일은 비슷한데 처우는 낮으니까 꿈드림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소망은 상담복지 직원으로 가는겁니다(A).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독립적 지원: 꿈드림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자치구에서 꿈드림 단독으로 지원하지 않고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 실무자는 꿈드림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꿈드림이 저는 독립 센터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설기관 말고.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발을 맞춰주고, 우선은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그것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A).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접적인 예산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지만, 대부분 부모에게로 직접 지원이 되다보니, 정부의 혜택이 청소년에게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는 가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부모가 청소년에게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예산중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은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그 외에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경제상황은 문제없지만, 그 갈등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어찌다보니 이게 사각지대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소득기준이 되니까 지원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청소년은 집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대한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C).

⑥ 지역사회 지원 및 네트워크

가. 해당 자치구 및 지역에서 받는 지원

대도시 꿈드림 중에는 지역에 따라 자치구의 지원이 없는 곳도 있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의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이나 구청에서 비정기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 해당 교육지원청 및 구청의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 급식 등 기초지자체의 지원도 일부 있었으나, 지역의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지원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공모사업 성격의 사업에 신청하여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 공모사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교육청 사업으로는 학업중단속려제, 그건 예산이 400만원이고,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미취학학습지원 시범사업 이거는 작년에는 3900만원이고 올해는 5800만원 지원받아서 공모사업처럼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또 ○○구청에서 400만원, 급식 및 간식비 지원 사업 받았어요(B)

저희 분과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연계해서 천만 원짜리 아동청소년 꿈찾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컨소시엄 기관에 저희 센터가 참여해서 저희 친구들이 진로라든가 직업체험하고 진로 콘서트 이런 거, 야유회 활동 하는 거 그런 거 참여했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비 받은 건 아닌데, 컨소시엄 참여해서 그거를 다 같이 한거죠(B).

○ 해당 구청의 장학금 지원(비정기 지원): 구청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었지만 규칙적이지 않아서 정기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저희 ○○구 안에서는, 안에서 받는 지원이라하면 간혹 이제 뭐 구에서 장학생 추천을 하라, 요렇게 해서 저희가 제출했을 때 당선이 되면 뭐 한 소정의 10만원 이런 장학금 정도를 받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고정적이진 않고요. 그때그때 생기면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거라 사실상 어떠한 지원도 없는 상황이죠(C).

나. 해당 기관의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대도시 꿈드림의 위치 및 시설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여건인지 알아본 결과, 접근성 등 다소 어려운 조건도 있었지만 대체로 위치와 시설 모두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 접근성의 문제: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하지만 자치구 내에서도 끝부분에 위치해 있으면 이동 동선이 길어 청소년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지금은 열악하지만) 나중에 저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는 이사를 하면 ○○에서도 끝쪽입니다. 접근성에선 그렇게 좋진 못하지만 센터 자체가 좋아지는 건 있습니다 (중략). 애들은 공간이 중요해서 나름 관리를 한거긴 한데.. 여기는 딱딱한 공간이라서 공간적으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A)

○ 위치와 이용시설의 적절함: 꿈드림 센터의 소재지가 대중교통 이용이 좋은 위치이고 또, 청소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들을 보유한 곳도 있었다.

저희가 원래 저희가 쓰는 공간이 있는데, 완비가 된 공간은 아니었어요. 2017년도에 한국마사 회재단에서 지원해주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공간, 특성화 공간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바리스타라든가, 제과제빵할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해가지고 그때 공간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뭐 안하더라도 그냥 있을 공간이 있어야지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다른 센터들은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친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더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죠(B). 저희가 위치상으로는 지하철역이랑 바로 연결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왔다갔다 하기 정말 좋아서 그냥 오며가며 놀러 와서 쉬다가기도 할 만큼 공간이 참 잘 활용되고 있고요 (중략) 시설 부분도 저희가 여기로 아예 이사한지 이제 한 3~4년 정도밖에 안되어 가지고 공간 자체가 쾌적하고 깨끗한 편이라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고, 여기에 드러누울 수도 있게끔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와서 쉬기 좋아요(C).

다.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보완할 점

지역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 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허브기관 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의 사업장에는 인센티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허브기관 역할 부여: 지역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허브기관이 필요하다. 허브기관은 청소년마다 개인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인한 뒤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 실무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업무를 보는 핵심적 인 허브기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모든 아이들의 정보가 여기로 모여야 합니다. 아이들 정보가 한곳에 모이면,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해서 그거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 기관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줄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직접경비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도 있고...(중략) 학교 밖 일을 하는 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예산 편성도 하고 그런 걸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독립적인 학교밖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원과 지지와 역할의 기능을 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A).

○ 일자리 제공 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 지역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 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장에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아직은 직무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 지역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에 요청하는 것은 인턴십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지역의 사업장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착업장, 10만원 지원 이런 것 말고 그 업장에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식으로 협력이 돼서 분야별로 딱딱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A).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선이 아직 부정적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우선 지역 차원에서 이런 시선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지역사회 주민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센터가 위치한 환경에 있는 일반 주민들의 인식개선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일반시민들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B).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어딜 가셔도 적응을 못할 것이고 어디에 가셔도 학교 안다녔으니까 너는 금방 그만 두겠구나 라는 편견이 만연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지역사회 자체 안에서도 이런 편견을 깨뜨리는 거, 우리가 뭘 하는 걸 보여주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도 주민들이 편견을 깨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합니다(C).

라.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의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중요함: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 지역연계는 활발하나 기초지자체 단체장인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곳도 있었으며, 구청장의 관심이 많아 기관방문도 자주 이어지는 지역도 있었다. 구청자의 관심이 많은 곳은 자연스럽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일단 저희가, 어, 구에다가 이제 저희 우리 아까 친구들이 인식개선 하면서 구 의원님 만났던 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구청장님도 한 번 뵙고 싶더라고 어필을 했는데 사실

상은 진행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각 구 별로 꾸려져 있었어요. 저희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거기에 좀 심어서 이 친구들이 구청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관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거 같아요(C).

저희는 구청장님이 자주 오세요. 민생현장방문의 날이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두 번이나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구청장의 말씀 한 마디 하면 (중략) 급식지원사업 예산 말하니까 바로 배정됐고, 저희 장학금,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600만원도 바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또, 뭐, 이런 필요한 게 있으면 구청장님이 오더하면은 바로 열심히 메모하시고 구청장님이 진행 사항을 체크하시거든요(B).

⑦ 정책실행 시 어려움 및 개선 방안

가. 중앙부처 정책실행 시 어려움

현장실무자가 진술한 중앙부처와 관련된 내용은 첫째, 중앙부처와의 교류 부족, 둘째, 성과위주의 평가체제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 셋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넷째, 중앙부처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 확대의 필요성으로 범주화하였다.

○ 중앙부처와의 교류 부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이나 사업수행 등 여러 업무적인 부분은 시·도 꿈드림 센터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부처와의 교류는 거의 없는 편이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부처에 현실감있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께서는 예산이 뭐다 이런 정도만 오는거지, 주로는 시 꿈드림을 통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시를 통해서 주로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옵니다. 꿈드림 전산망을 통해서 와요.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오는 거는 국정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려 그런 것 만 오구요. 여성가족부가 구를 통해서 전달을 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A).

○ 성과 위주의 평가체계: 중앙부처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과정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수치화된 데이터이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가 되다 보니 성과에 치중하게 되고 질적인 활동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꿈드림 사이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견제를 합니다. 시 꿈드림을 통해서 오니깐 꿈드림 간에 협력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A).

이번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부딪히는 건데 저희 현장에서는 친구들 하나하나를 질적으로 보기, 지원하고 케어 하기가 너무 급급한데, 어쨌든 이해는 하지만 위에서는 어쨌든 수치화된 실적을 요구 하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하는 기준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라 (중략)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참 매번 고민이어서 서로 좀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C).

○ 현장 실무자에 대한 처우 문제(많은 업무량):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은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의 생각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업무량에 비해 실무자들의 인원은 부족하고 시간 외 업무에 대한 고려도 없는 편이었다.

어정쩡한 예산에 실무자들은 실제로 일에 치이고 있는데 (중략) 인력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요(B).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 부족: 현장에서는 지금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이 보호와 복지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제도적인 관심이 요구되었다.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일선에 있으니 아무래도 빠르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 욕구 등이 조금씩 변하잖아요(C).

나. 중앙정부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중앙정부의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제시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들을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①지역(자치구)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필요, ②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분리, ③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④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⑤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학생

청소년들과 (학교 내에서 받고 있는)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제공, ⑥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 기관 통일, ⑦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하는 요구를 트렌드에 맞게 지원할 필요성 등의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각 범주의 상세 내용은 표 VI-52와 같다.

표 VI-52.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체계 발전방안

범주	내용
지역(자치구)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필요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과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 필요 • 이용 청소년의 많은 숫자로 대단위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 그 안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화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분리	• 꿈드림 분리 필요: 상담과 복지를 한 그릇에 담기에는 범위가 너무 큼. 상담복지센터의 부속 팀으로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을 많이 지원하기 어려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중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부정적임 • 학교 밖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회피함 • 인식 개선은 기관에서 하기에는 효과가 부족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인 인식개선 사업을 시작해 줘야 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학생 청소년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제공	• 학생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다양한 지원들이 많은데, 학교 밖 청소년도 차별 없이 적절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함 • 여러 지원과 시설 등 확충, 지원 필요 • 사회에 빨리 나온 청소년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 필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 및 서비스 기관 통일	• 학교 밖 청소년이 일관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 및 지원체계 마련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하는 요구를 트렌드에 맞게 지원 필요	• 경제적인 지원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된 현물 지원 필요

다. 광역자치단체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본 조사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기관의 특색에 맞게 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에 대한 역할을 독립적으로 부여 하는게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 지원서비스(상담지원, 문화활동지원 등)를 전국의 모든 대도시 쪽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표 VI-53.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및 지원체계 발전방안

하위 범주	내용
학교 밖 청소년 기관별 지원방법 및 인식 차별화	대안교육기관과 꿈드림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되며, 대안교육기관은 그대로 열어두고 꿈드림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함.
수도권에 집중된 청소년 지원 서비스 확충	대도시라도 보완되어야 할 지원이 많음(예, 수도권에는 성소수자 친구들이 상담 받는 전문 기관이 있음)

라. 기초자치단체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실무자들이 제시한 내용은 다음의 여섯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예산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일자리 및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서비스 및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리되며, 각 범주의 세부내용은 표 VI-54와 같다.

표 VI-54.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및 지원체계 발전방안

범주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예산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사업비 예산, 지원 필요 - 공간을 반드시 구분해줘야 하고, 완전한 독립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 처우개선	실무자 인건비가 매우 낮는데 광역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 청소년 담당 공무원이 빈번히 바뀌며, 이 경우 일의 흐름이 끊김 - 제안이라든가 건의 등이 거의 반영이 안됨

범주	내용
전담 공무원 필요	• 학교 밖 실무자들의 행정적인 일에 대한 부담이 큼 • 소통 창구가 항상 있어야 함
학교 밖 청소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 경험을 쌓아줄 필요가 있음 •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 일 경험과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필요
사회 트렌드에 맞는 일자리 및 창업지원	•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청소년의 욕구도 많이 변하며, 이에 맞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 • 소수정예로 꾸준히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기관 미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 센터에 오지 않는 청소년들은 지원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음.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마. 교육청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대도시 교육청 지원과 관련된 발전방안으로 현장실무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공교육 기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 교육청과의 업무가 많을 경우 교육청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연계를 위한 노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표 VI-55. 교육청의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범주	내용
공교육 기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의무화 및 홍보 강화	• 청소년의 학교 중단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기관은 학교에 방문하여 홍보할 의향이 있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교육청 전담 실무자 지원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사업의 연계로 학업중단숙려제, 미취학학습지원 사업을 같이 수행하는데 있어 실무자들의 소진이 큼 •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등의 지원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 연계를 위한 노력 확대	•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관련 정보를 교육청보다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음. • 전화 컨택 시 100명 중에 10% 정도만 참여의사를 밝힘 • 연계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더욱 필요함

4.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¹²⁸⁾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는 전국 대도시(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75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¹²⁹⁾이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웹/모바일 링크 방식을 통해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내용을 종사자 현황과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기관의 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한 특성, 심리 및 진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그 도움 정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관련한 청소년 및 기관 관련 문제점, 지역사회 내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 및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것으로 설문문항 뿐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조사지를 설계함으로써 현장종사자들의 의견을 가능한 많이 수렴하고자 하였다. 면접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내용은 기관 IRB 심의를 거쳤으며 웹상에서 본 조사에 대한 설명(이익과 위해 등)을 인지하고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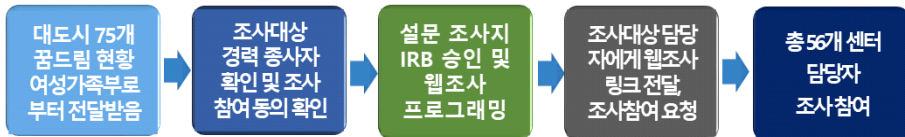


그림 VI-15. 대도시 꿈드림 현장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수행 절차

본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총 75개 센터에서 56개 센터의 종사자가 참여함에 따라 전체적인 응답률은 77.8%였다. COVID-19로 인해 꿈드림 사업 운영에 지장이 많아 조사 참여가 쉽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오랜 기간 조사를 수행한 결과였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8) 이 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본 조사개요(조사방법/내용 등)는 본 장 1절에 제시되어 있다.

129) 당초 3년 이상 종사자로 계획하였으나 사전 현장 컨택 시 3년 이상 실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일부 센터에서는 2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은 조사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고, 응답에 있어 시·도/시·군·구센터, 종사경력 5년 이내/5년 이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 검증(chi-square 검증, t-test)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매우 많은 의견들을 제시함에 따라, 마치 질적 자료 분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부 내용별로 정리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크게 영역별, 주제별, 세부 내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VI-56.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설문조사 내용
응답자 현황	• 근무기간 및 직급 • 성별, 연령대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기관 특성	• 청소년의 연령대별 이용자 수 • 기관의 전용공간 사용 여부 • 기관의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접근성 및 쾌적한 시설환경 등)
서비스 제공 여부	• 심리·상담 및 동아리 봉사활동 등 심리·사회 지원 및 연계 • 건강검진, 자산관리, 기초생활 지원 등 일반생활 지원 • 복교 안내 및 검정고시 준비와 대입진학 상담 등 학업지원 • 진로지도, 직업훈련(인턴십) 및 취업준비 지원 등 진로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관련 애로사항	•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서비스 대상 청소년 발굴 어려움, 청소년의 자립의지 및 사회적 기술의 부족, 행동문제 등 • 꿈드림 기관관련: 예산 부족, 시설(인프라) 미흡, 전문 인력 부족, 종사자 처우 수준, 정보 접근 어려움, 기관 간 서비스 수준 편차 • 지역사회 및 정부 정책관련: 지역사회 내 연계기관 부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 행정업무의 과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도시 꿈드림 특성	• 대도시 꿈드림 실태 인식: 충분한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인력의 전문성, 원활한 협력체계 등에 대한 인식 • 대도시 위치 센터로서 운영에서의 애로사항(개방형 질문) • 대도시 꿈드림 간 격차와 지역규모를 고려한 차별화 관련
사업 방향성 및 지역 사회, 정부관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성(개방형 질문)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필요 정책 및 서비스(개방형 질문)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VI-57), 남자는 30.4%, 여자는 69.6%였으며, 20~30대 연령의 응답자는 73.2%, 40대 이상인 응답자는 26.8%였다. 응답 시설 중 시·도센터는 12.5%, 시·군·구센터가 87.5%였으며, 응답자 중 시설장은 2명 정도였고 본 조사의 당초 응답자인 팀장/선임급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잦은 이직을 고려할 때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종사자가 없는 센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시설장이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57. 현장종사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56	100.0
성별	남자	17	30.4
	여자	39	69.6
연령	20~30대	41	73.2
	40대 이상	15	26.8
센터구분	시·도센터	7	12.5
	시·군·구센터	49	87.5
시설/기관 직급	시설장	2	3.6
	팀장/선임	54	96.4
종사경력	5년 미만	45	80.4
	5년 이상	11	19.6

2) 설문조사 결과

(1)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기관 특성

응답 기관들 중 자치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꿈드림은 6개로 12.2%였고 40.8%는 재단법인, 36.7%는 사단법인이었다. 나머지 10.2%정도는 법인 외/기타 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었다(표 VI-58).

각 센터별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조사하였는데, 이 항목의 경우 전체 56개 기관 중 시·도센터 5개소, 시·군·구 40개소가 응답하였다. 표 VI-59에서 보듯이 전체 이용자 수의 센터 당 평균치는 163.96명이었으며(중위수는 162명) 최소값 22명, 최대값 336명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대도시 센터에서 상대적으로 이용 청소년 수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사 당시 COVID-19

확산 속도가 줄어들면서 1단계로 방역등급이 낮아져 오프라인에서 청소년이용 및 활동이 다소 많아졌을 시점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VI-5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주체

구분	사례수 (명)	자치구		재단법인		사단법인		법인외 단체		기타 단체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56	6	10.7	22	39.3	20	35.7	4	7.1	4	7.1	
센터 구분	시·도	7	0	0.0	2	28.6	2	28.6	1	14.3	2	28.6
	시·군·구	49	6	12.2	20	40.8	18	36.7	3	6.1	2	4.1

표 VI-59.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령대별 평균 꿈드림 이용자 수: 전체 이용자수 기준

(단위: 명(표준편차))

구분	센터 당 평균 인원 수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성별		센터구분	
					남	여	시·도(5개)	시·군·구(40개)
전체 (45개센터)	164 (89.23)	22	336	162	74.3 (42.02)	89.7 (49.44)	108.2 (97.00)	170.9 (87.00)

연령별로 청소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평균값 기준)(표 VI-60), 전체적으로 만 15~19세가 가장 많은 120.5명이었다. 만 15세 미만은 약 15명, 만 20~24세는 약 29명 정도였고, 전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 이용자의 수가 많았다.

표 VI-60.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령대별 평균 꿈드림 이용자 수: 연령별 구분

(단위: 인원수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센터당 평균 인원 수)	성별		센터구분	
		남	여	시·도	시·군·구
만 15세 미만	14.9(14.37)	7.27(7.90)	7.62(7.35)	14.00(8.80)	15.00(15.00)
만 15~19세	120.5(72.68)	54.29(34.34)	66.22(40.25)	80.60(85.43)	125.50(70.58)
만 20~24세	28.6(34.56)	12.71(15.19)	15.84(19.95)	13.60(8.79)	30.43(36.16)

센터를 이용하는 특수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수를 보면(표 VI-61), 다문화 배경 청소년은 센터 당 1명, 탈북/제3국은 1.2명, 청소년쉼터

청소년은 0.73명 수준이었으나 보호관찰 청소년은 6.6명으로 6배 이상 많았다.

표 VI-61. 특수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 이용자 수

(단위: 인원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센터당 평균 인원 수)	센터구분	
		시·도	시·군·구
다문화	1.04(1.48)	0.80(0.84)	1.08(1.54)
탈북/제3국	1.20(4.99)	0.00(0.00)	1.35(5.28)
보호관찰	6.62(9.19)	7.80(15.82)	6.48(8.33)
쉼터 거주 청소년	0.73(1.14)	0.60(0.89)	0.75(1.17)

대도시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드림 이용 경로를 살펴본 결과(표 VI-62), 1순위로 나타난 것은 Wee클래스를 포함한 학교나 교육청을 통한 것으로 35.7%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족, 친구 및 선후배의 소개가 30.4%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꿈드림을 찾아온 비율도 25%에 달하였다.

표 VI-62.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1순위)

(단위: 빈도(%))

주요 이용 경로	전체	센터구분	
		시·도	시·군·구
학교·교육청 통해(Wee클래스 등)	20(35.7)	2(28.6)	18(36.7)
청소년 쉼터	1(1.8)	0(0.0)	1(2.0)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3(5.4)	1(14.3)	2(4.1)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1(1.8)	0(0.0)	1(2.0)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14(25.0)	2(28.6)	12(24.5)
가족,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17(30.4)	2(28.6)	15(30.6)

1, 2, 3순위 응답을 합하여 살펴보면(그림 VI-16),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꿈드림을 찾은 비율이 71.4%, 가족/친구/선후배의 소개가 69.6%,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경우가 66.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은 ①청소년

년의 자발적 이용, ②가족/친구/선후배 소개, ③학교/교육청 연계의 이 세 경로를 통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꿈드림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홍보전략 구상에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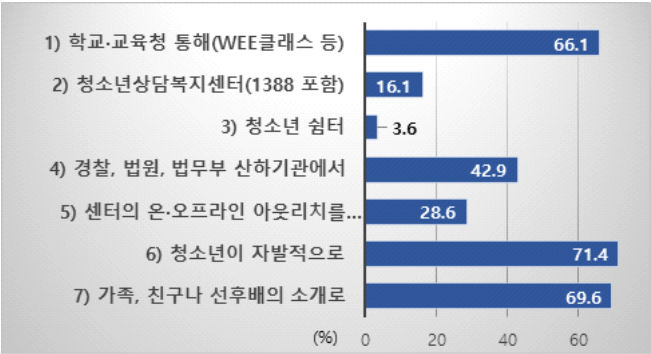


그림 VI-16.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1, 2, 3 순위 합친 응답)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시설 및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표 VI-63). 대도시 지역임에도 독립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꿈드림은 23.2%에 불과하였으며, 타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비율은 21.4%, 타 기관과의 공간 공유사례는 55.4%로 나타났다.

표 VI-63. 꿈드림 공간 사용 현황

(단위: 빈도(%))

배경변인		기관의 공간 사용 현황			전체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	타 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 사용	타 기관과 공간 공유	
전체		13(23.2)	12(21.4)	31(55.4)	56(100.0)
센터구분	시·도	3(42.9)	1(14.3)	3(42.9)	7(100.0)
	시·군·구	10(20.4)	11(22.4)	28(57.1)	49(100.0)

타 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센터들 중 개방형 응답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로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었다. 타 기관과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였고, 예외적으로 법인 공간을 포함해 2개소가 있었다. 결국 절반정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꿈드림 전용 사무 공간 및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꿈드림의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표 VI-64),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곳에 있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율이 73.2%로, 조사에 참여한 2/3의 센터의 물리적 접근성은 비교적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에 대해서는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 53.6%가 긍정 응답이었고 46.4%의 비율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 역시 유사한 수준의 긍정/부정 응답률을 보여 청소년들의 활동 및 이용 공간 및 시설이 충분치 않거나, 쾌적함에 있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4. 꿈드림의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에 대한 생각

(단위: 빈도(%), 평균)

지원항목	인식, 빈도(%)		전체 사례수 (%)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센터구분(평균값)			종사경력(평균값)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시·도	시군구	t	5년 미만	5년 이상	t
1)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곳에 있다	15 (26.8)	41 (73.2)	56 (100.0)	2.98 (0.86)	3.14	2.96	0.523	2.98	3.00	-0.076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26 (46.4)	30 (53.6)	56 (100.0)	2.68 (0.90)	2.71	2.67	0.112	2.78	2.27	1.703
3)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	25 (44.6)	31 (55.4)	56 (100.0)	2.70 (0.85)	2.57	2.71	-0.412	2.80	2.27	1.884

(2) 꿈드림 지원 서비스 내용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원서비스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표 VI-65), 모든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인 ‘건강검진 안내 및 제공’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 지원과 대입정보 제공/대학진학 상담, 직업훈련이 동일하게 조사 참여 센터 중 98.2%가 지원하였고, 다음으로 동아리, 예체능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제공이 96.4%, 진로지도(진로상담, 적성검사)가 94.6%, 검정고시 강의 제공 및 학원/교재비 지원이 각각 92.9%, 91.1%의 꿈드림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이는 대도시지역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지원, 검정고시 및 대입지원, 직업훈련 및 진로지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6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항목(지원하는 센터수와 비율)

(단위: 빈도(%))

지원항목	제공 센터 수 (전체 56개 센터 대비 비율)	센터구분	
		시·도	시·군·구
1) 심리·상담 지원	55(98.2)	7(100.0)	48(98.0)
2)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	31(55.4)	7(100.0)	24(49.0)
3) 동아리, 체육, 문화예술, 봉사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지원	54(96.4)	6(85.7)	48(98.0)
4) 건강검진 안내 및 제공	56(100.0)	7(100.0)	49(100.0)
5) 수당(교통비) 등 배움, 자립을 위한 기초생활 지원	48(85.7)	7(100.0)	41(83.7)
6) 급식 지원	50(89.3)	7(100.0)	43(87.8)
7) 자산관리 등 경제 교육(저축 관리, 합리적 소비생활 등)	39(69.6)	5(71.4)	34(69.4)
8) 복고 절차 및 방법 안내	49(87.5)	6(85.7)	43(87.8)
9) 검정고시 준비위한 강의(수업) 제공 등 직접 지원	52(92.9)	5(71.4)	47(95.9)
10) 검정고시 위한 학원 및 교재 지원	51(91.1)	7(100.0)	44(89.8)
11) 대입 정보 제공 및 대학 진학 상담	55(98.2)	7(100.0)	48(98.0)
12) 진로지도(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53(94.6)	6(85.7)	47(95.9)
13) 직업훈련 지원(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인턴십 등)	55(98.2)	7(100.0)	48(98.0)
14) 취업준비 지원(면접 준비/이력서 작성 지원, 노동권리 알기 등)	48(85.7)	5(71.4)	43(87.8)
15) 취업정보 제공(일자리 알선·연계 등)	40(71.4)	7(100.0)	33(67.3)

그러나 인터넷 중독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는 55.4%, 자산관리 등 경제교육은 69.6%, 취업정보 제공 등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제공비율을 보였다(표 VI-65). 이는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또 취업/아르바이트 연결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보여준다.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 간 항목별 지원 비율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자원 연계나 교통비 등의 기초생활 지원은 시·도센터가, 그리고 청소년대상의 검정고시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직접지원은 시·군·구센터에서 지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도와 시·군·구센터의 기본적인 역할/기능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쟁점 인식

①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현장종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VI-66에서 보듯이 먼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렵다”에 대해서는 응답에 참여한 센터 78.6%가 긍정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함에 따라 3/4의 센터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값을 기준으로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를 비교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센터에서 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70%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및 행동수정 등의 보다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현장종사자들이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는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관의 약 80% 가까이가 긍정 응답을 보였다. 이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 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및 독립 거주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VI-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단위: 빈도(%), 평균)

지원항목	인식, 빈도(%)		전체 센터수 (%)	전체 평균	센터구분(평균값)			종사경력(평균값)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시·도	시·군·구	t	5년 미만	5년 이상	t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렵다	12 (21.4)	44 (78.6)	56 (100.0)	2.95	2.14	3.06	-3.433**	3.02	2.64	1.607
2)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자원에 어려움이 많다	17 (30.4)	39 (69.6)	56 (100.0)	2.86	3.00	2.84	0.554	2.8	3.09	-0.966
3)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 등 등의 문제가 많다	12 (21.4)	44 (78.6)	56 (100.0)	3.00	3.00	3.00	0.000	2.98	3.09	-0.506
4)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	20 (35.7)	36 (64.3)	56 (100.0)	2.77	3	2.73	0.994	2.71	3.00	-1.309
5)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대인 관계/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 족하다	16 (28.6)	40 (71.4)	56 (100.0)	2.84	3.00	2.82	0.723	2.82	2.91	-0.409

* $p<.05$, ** $p<.01$, *** $p<.001$

표 VI-66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64.3%의 긍정 응답률을 보였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것을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의지 고양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항목의 경우 71.4%가 ‘그렇다’고 응답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구축을 위한 서비스와 다양한 기회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② 꿈드림 기관 관련

꿈드림 기관과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표 VI-67), “예산이 부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 현장종사자 80.4%가 긍정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하였으며, 특히 5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에 참여한 60.7%의 센터에서 긍정 응답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부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율로 (60.7%)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조사에 참여한 현장종사자 거의 전수(96.4%)가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표 VI-67), 이 역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오랜 종사자에게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장기간 최일선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애쓴 종사자들의 이러한 응답 결과는 꿈드림 종사자 처우 개선의 시급함을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VI-6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 기관 관련

(단위: 빈도(%), 평균)

지원항목	인식, 빈도(%)		전체 센터수 (%)	전체 평균	센터구분(평균값)			종사경력(평균값)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시·도	사군구	t	5년 미만	5년 이상	t
6) 예산이 부족하다	11 (19.6)	45 (80.4)	56 (100.0)	3.23	3.29	3.22	0.197	3.13	3.64	-2.015*
7)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	18 (32.1)	38 (67.9)	56 (100.0)	2.95	2.86	2.96	-0.277	2.84	3.36	-1.741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부족하다	22 (39.3)	34 (60.7)	56 (100.0)	2.88	3.14	2.84	0.844	2.82	3.09	-0.890
9)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2 (3.6)	54 (96.4)	56 (100.0)	3.73	3.86	3.71	0.674	3.67	4.00	-3.964***
10)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36 (64.3)	20 (35.7)	56 (100.0)	2.43	2.29	2.45	-0.546	2.47	2.27	0.782
1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 정보 접근이 어렵다	27 (48.2)	29 (51.8)	56 (100.0)	2.55	2.00	2.63	-2.657*	2.6	2.36	1.026
12)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	19 (33.9)	37 (66.1)	56 (100.0)	2.89	3.00	2.88	0.398	2.84	3.09	-0.970

* $p < .05$, ** $p < .01$, *** $p < .001$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표 VI-67), 64.3%의 현장종사자가 부정적으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현재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3정도의 센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시·군·구센터의 경우 시·도센터에 비해 서비스 정보 접근이 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6.1%의 센터가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VI-67). 이 결과가 대도시 꿈드림 센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그 격차는 더 클 수 있으며, 향후 꿈드림의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③ 지역사회 및 정부 정책관련

표 VI-68에서 보듯이 조사에 참여한 꿈드림 중 60.7%는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상담센터, 취업지원 기관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40% 가까이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도시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정도의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기관의 부족을 응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더 부족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꿈드림의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와 관련하여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55.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여전히 40% 이상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78.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한 센터 92.9%가 “정부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시·도센터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시·군·구 기초센터 중간에서 보고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적은 수의 종사자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소진이 결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VI-6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및 정부 정책관련

(단위: 빈도(%), 평균)

지원항목	인식, 빈도(%)		전체 센터수 (%)	전체 평균	센터구분(평균값)			종사경력(평균값)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시·도	시·군·구	t	5년 미만	5년 이상	t
13)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상담센터, 취업지 원 기관 등)이 부족하다	34 (60.7)	22 (39.3)	56 (100.0)	2.43	2.29	2.45	-0.587	2.42	2.45	-0.139
14)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 족하다	31 (55.4)	25 (44.6)	56 (100.0)	2.55	2.57	2.55	0.055	2.49	2.82	-1.074
15)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 족하다	12 (21.4)	44 (78.6)	56 (100.0)	3.05	3.14	3.04	0.298	2.96	3.45	-1.801
16)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	4 (7.1)	52 (92.9)	56 (100.0)	3.52	3.71	3.49	0.877	3.44	3.82	-2.386*
1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2 (3.6)	54 (96.4)	56 (100.0)	3.61	3.86	3.57	1.732	3.58	3.73	-0.788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센터 대부분이(96.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표 VI-68).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한 결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부분은 실제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4) 대도시 꿈드림의 장점 및 애로사항

① 대도시 꿈드림의 장점에 대한 인식

대도시, 특히 본 조사대상인 기관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경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활용 가능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거나, 높은 서비스 접근성 및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 자원이 많음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보다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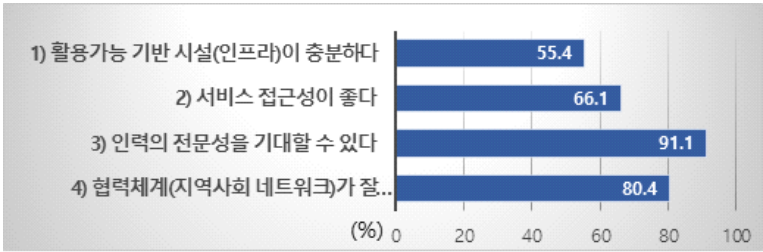


그림 VI-17. 대도시 꿈드림의 환경 및 실태에 대한 인식(‘그렇다’ 응답률 기준)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에 위치한 꿈드림의 경우 기대와는 다소 다른 응답들도 있었다. 그림 VI-17, 표 VI-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절반이 약간 넘는 55.4%정도 였고,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에 대해서는 66.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표 VI-69. 대도시 꿈드림으로서의 장점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평균)

항목	인식, 빈도(%)		전체 센터수 (%)	전체 평균	센터구분(평균값)			종사경력(평균값)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시·도	사군구	t	5년 미만	5년 이상	t
1)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	25 (44.6)	31 (55.4)	56 (100.0)	2.54	2.57	2.53	0.117	2.64	2.09	1.982
2)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19 (33.9)	37 (66.1)	56 (100.0)	2.80	3.00	2.78	0.675	2.84	2.64	0.753
3)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5 (8.9)	51 (91.1)	56 (100.0)	3.05	3.14	3.04	0.453	3.09	2.91	0.965
4) 협력체계(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11 (19.6)	45 (80.4)	56 (100.0)	3.00	3.00	3.00	0.000	3.07	2.73	1.484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91.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고 응답해, 대도시의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협력체계(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80.4%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표 VI-69). 시설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다른 조사항목에 비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② 대도시지역 꿈드림 운영의 애로사항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서의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는 표 VI-70과 같다. 대도시에 위치해 있음에도 전용공간의 부족함과 낙후된 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서비스 접근성의 경우도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인근 읍면지역과 다를 바 없이 교통편이 부족한 사례들이 상당 수 있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찾기는 어렵지 않으나 처우수준이 낮아 이직이 많았고, 많은 이용 청소년들을 감당하고 실적 및 성과관리까지 인력부족에 따른 종사자 소진의 심각성도 지적되었다. 또한 조사 참여자들은 자치구별 관심과 지원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꿈드림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대도시의 특수성으로 자연친화적 공간이 부족하고 또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도시의 단점을 고려한 개입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파악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대도시 지역 특성 상 지역사회 내 유사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시설이 많음에 따른 대상자 중복과 이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대한 어려움이다. 청소년들이 인근 자치구 꿈드림까지 중복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지만, 대도시 지역사회 내 상당수 위치해 있는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들, 그리고 지역 교육청의 유사 서비스 등 청소년들이 꿈드림을 찾아 오기까지 여정이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러한 부분은 유사 서비스와 기관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꿈드림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이 더욱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I-70. 대도시위치 센터 운영의 애로사항

영역	범주	구체적인 내용
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중복 관련	인근 자치구 꿈드림과 서비스 중복	- 인근 자치구 지원과 중복 우려(센터 쇼핑 유발)
	유사 지원/서비스가 많아 청소년들의 관심이 낮음	- 대도시에는 자원이 많아 꿈드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가 낮음 - 관내 다양한 유사서비스 존재(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등) - 지역사회내 유사서비스가 많아 청소년들의 기대수준이 높음
	청소년 인구수 부족	- 지역 내 청소년인구가 적어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인력적 측면	인력부족	- 청소년들의 수가 많아 개별적 관리 어려움 - 청소년 발굴, 관리, 지원까지 질 높은 지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인력부족으로 종사자 소진 - 실적 및 성과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매우 많음
	낮은 종사자 처우	- 대도시 특성상 인력 변동이 심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움 - 고학력 실무자를 기대하지만 처우가 낮아 이직이 잦음
인프라 관련	시설, 공간의 부족	- 전용공간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이 있음 - 이용 학생 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함 - 꿈드림이 공유하는 청소년 기관, 시설이 낙후됨
	대도시 외곽지역의 낮은 접근성	- 대도시 외곽 지역의 경우 커버해야 할 지역이 넓고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음(교통편 등) - 대도시라고 해도 외곽지역이라서 인프라가 부족함
지자체, 지역사회	자치구별 지원 차이	- 자치구별 서비스에 차이가 있음 - 자치구의 관심과 지원 부족
	지역사회 연계 부족	- 신규 청소년 발굴을 위한 연계 체계 부족 - 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
	환경적 부분의 단점	- 자연친화적 공간 부족 -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존재함

③ 대도시 꿈드림 간 격차 및 차별화에 대한 인식

대도시 지자체 간, 그리고 기초지자체(자치구) 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에 차이에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표 VI-71), 85.7%의 기관이 ‘그렇다’고 응답함에 따라 꿈드림 간 서비스 격차의 심각성을 재확인해 주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화나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87.5%의 센터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표 VI-72).

표 VI-71. 대도시 꿈드림 간 격차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평균)

지원항목	인식, 빈도(%)		전체 센터수 (%)	전체 평균	센터구분(평균값)			종사경력(평균값)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시·도	시군구	t	5년 미만	5년 이상	t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차이 정도	8 (14.3)	48 (85.7)	56 (100.0)	3.21	3.14	3.22	-0.465	3.16	3.45	-1.316

표 VI-72. 지역규모를 고려한 차별화 필요 여부

(단위: 빈도(%), 평균)

지원항목	인식, 빈도(%)		전체 센터수 (%)	전체 평균	센터구분(평균값)			종사경력(평균값)		
	부정 응답	긍정 응답			시·도	시군구	t	5년 미만	5년 이상	t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화나 초 점을 두어야 할 부분 여부	7 (12.5)	49 (87.5)	56 (100.0)	3.05	3.29	3.02	0.977	3.00	3.27	-1.212

대도시 꿈드림 간 차이가 어떠한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현장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취합된 의견들을 정리한 결과는 표 VI-73과 같다. 가장 많이 언급된 지자체/자치구 간 꿈드림 사업 격차의 원인은 지자체/기초지자체 단체장(자치구청장)의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이다. 이러한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과 또 관련 공무원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에 따라 인건비, 시설/공간 지원, 사업비 등에서 차이가 많았으며,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인력 추가 배정, 정규직 전환, 직원복지 후생 등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컸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와의 물리적 조건인 재정자립도, 청소년인구 수, 지역사회 인프라수준에 따라 투입 예산 부족 뿐 아니라, 인턴십 기회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표 VI-73. 대도시 꿈드림 간 격차 원인 및 세부 내용

원인		영역	격차의 세부 내용
지자체/자치구 관심도 차이	⇒	인건비	- 인력 추가배정 여부 - 정규직 전환에도 차이가 큼 - 직원복리후생관련 초과근무수당, 명절수당, 통신회, 교 통비에도 차이
		공간 및 시설	- 전용공간 활용에 차이가 큼
		사업비	- 검정고시 대비 수험서 제공에도 차이가 큼
지역사회 물리적 조건 차이	⇒	재정자립도	- 투입 예산 부족
		청소년인구 수	- 청소년인구 수가 적을 경우 지자체 관심이 전무
		지역사회 인프라	- 인턴십 기회, 청소년작업장 등 지역사회 내 연계처 부족
		전문인력	- 인력 전문성에 있어 차이

대도시지역 꿈드림 차별화를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할 지원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크게 ‘서비스 차별화 및 특성화’,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핵심 기능 담당’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VI-74). 첫 번째 영역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된 관심사인 진로 특화 서비스와 이들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영역인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핵심 기능 담당’과 관련해서는 대도시의 경우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음에 따라 이를 적절히 연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대도시 지역 내 센터 간, 또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센터와 연합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필요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러한 대도시 꿈드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 인구수 뿐 아니라 대도시라 하더라도 지역 간 인프라 차이가 큼에 따라 이러한 지역 인프라를 모두 고려한 사업과 서비스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목할 만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VI-74. 대도시 내 꿈드림 운영의 차별화 방안

영역	범주	내용
서비스 차별화 및 특성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파악과 이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	-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파악 - 욕구에 따라 심리/학습/진로/자립 등 서비스 차별화
	공간 차별화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카페, 보드카페 등) 제공 - 대도시 내 문화/놀이공간과 차별화된 사업 구비 및 홍보 필요
	진로관련 사업 특성화	- 진로에 초점 둔 지원 필요(검정고사→인턴십→일경험→일자리 알선→취업 등) - 전문적인 취업 및 대입 서비스 필요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핵심 기능 담당	많은 인적, 물적 자원 효율적 활용	- 많은 자원(전문인, 경험자 멘토링 등)의 적절한 활용 및 연계 - 지역사회 내 돌봄센터, 프랜차이즈 등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활성화: 다양한 기관(대학, 마을공동체 등) 연계 - 다양한 문화체험, 예술활동 등 제공
	연합사업	- 단일 센터가 운영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경우 센터간 연합하여 제공 - 중소도시, 읍면지역 센터와의 연합사업 실시(대도시 인프라 활용한 연계프로그램 제공)
	핵심, 통합적 기능	- 도서관, 체육시설, 예체능활동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현장종사자들은 많은 의견들을 전달하였다. 서비스 내용/대상 및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과 서비스 전달 체계 및 행정측면으로 영역별로 구분한 결과, 표 VI-75와 같이 정리되었다. 앞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현장종사자들은 지역특성과 해당 지역 청소년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과 경제성 지능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내용,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시설공간에 대한 개선 필요성들을 센터의 향후 방향성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종사자 처우(급여, 직업 안정성 등)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 종사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였으나,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지금까지

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숙련/비숙련 현장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은 결국 현장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게 하며, 꿈드림 사업의 질적 수준과 더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해의 COVID-19 상황을 고려한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염병 확산 시국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비대면 상황이 확대되어 갈 것을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의 필요성 역시 유의미한 지적이다.

표 VI-7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성

영역	범주	내용
서비스 내용/대상 및 인프라 관련	지역/대상/의의성 고려한 서비스 특성화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 특성과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생활지원, 취업지원(청소년직업장, 일자리 발굴 등) 자립관련 사업 강화 - 문화·체육·여가·활동 기회 확대 - 대면/비대면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사업 구상 필요
	지원대상 확대	- 경계성 지능 청소년 대상의 지원 필요 - (대학)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시설공간 재고	- 종사자 처우 개선(인력 충원, 급여 및 직업안정성 개선 등) - 꿈드림 전용 공간 확보
서비스 전달체계 및 행정 측면	별도 센터로서의 독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한 부서와 다른없는 작은 구조임에도 별도 기관처럼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부서와 같은 구조가 아닌 별도 독립된 센터로서 분리
	행정 측면 개선	- 동일 대상의 중앙부처별, 지자체별 중복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 - 예산 지원 및 사업평가 시 실적/성과 중심에서 탈피 -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성과측정 방법도 변화 필요(한명의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 부담이 매우 많으나 성과에 제대로 반영안됨) - 행정업무 축소 - 꿈드림 특성을 반영한 전용 전산망 필요
	대대적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공익광고 필요 - 센터 홍보 및 인지도 향상
	지역사회 내 협조	- 지역사회 내 대안학교와 같은 인프라와의 유기적 협조위한 지자체 노력 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방향성과 관련한 또 다른 측은 서비스 전달체계 및 행정적 측면이다. 먼저 여러 부처 및 지자체 내 부서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중복되는 개별 사업들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센터가 실제 업무는 단독 센터와 같이 수행하고 있으나 조직과 인력배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속한 부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별도 센터로서의 독립성 보장과 또 그에 부합하는 인력구성과 예산, 시설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현장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을 사례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 및 에너지 투입을 고려할 때, 예산지원 시 단순히 실적/성과 중심에서 탈피해야 하며, 성과측정 방법 역시 바뀔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행정업무의 축소와 꿈드림 특성을 반영한 전산망 구축 등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대적 공익광고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꿈드림에 대한 인지도 향상 필요성과 지자체 내 여러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 현장종사자의 표현대로 꿈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나 사회복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정체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6)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필요 정책 및 서비스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수준에서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지역사회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VI-76과 같다. 인력충원 및 종사자 처우, 전용공간 확보 등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게 재 언급되었고,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또는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 기회와 취업기회 확대, 경제적 지원 등에 있어서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취업관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의 밀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 역시 더욱 강조되었다.

표 VI-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의 필요 정책 및 서비스

영역	중앙부처 차원	지자체/지역사회 차원
인력충원, 종사자 처우	-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발생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인건비 지침 마련, 정규직화 등)	- 인력 충원 지원
시설공간	- 꿈드림 전용공간 확보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협조
복합기능 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의 통합 및 전문화	- 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센터 필요
행정측면	- 행정업무 축소	- 지자체 장과 담당공무원의 이해 노력
교육/취업 관련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대학입시박람회 개최 - 검정고시 통한 대학진학 확대	- 지역 내 청소년작업장 기회 발굴 지원 - 지역 내 인프라 활용 가능 기관/사업장 혜택 제공
경제적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업비 및 생활 전반 지원(교통비, 교육참여 수당 등) 확대	- 교통비 및 프로그램 참여 수당 지원
네트워크	- 부처간 협력 통한 취업/직업체험/인턴십을 위한 지역연계 시스템 확대	- 지역사회 내 안정적 취업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마련 및 공유를 통한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 - 지역 내 관련 기관(교육청 등) 간 협력 관계 구축
인식개선	-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실시	- 지역사회 내 인식 개선 노력
기타	- 센터 독립 및 관련 예산 확보 - 건강검진 외 의료비 지원 - 청소년증 혜택 확대	- 대도시 특화 연합사업 추진 - 중소도시/읍면지역 꿈드림 교류 및 연계 지원 - 지역내 사업에서 학생/학교 밖 청소년 구분 폐지

5. 요약 및 논의

1) 3개 대도시 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과 지원 현황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먼저 환경적 특성을 개관하고 이어 관련 인프라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광주광역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의 남자청소년 인구수가 여자청소년보다 만 명 정도 더 많았으며, 학업 중단 학생수는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정자립도와 지역 총생산(GRDP)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 확대 등 여러 부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힘쓰고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북구 꿈드림센터는 2019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많은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자치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제안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동시에 소속감을 갖도록 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인구수는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이나 학교 밖 청소년은 2019년 2,845명으로 2017년 2,449명, 2018년 2,670명보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2020년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제 6차 청소년정책 기본 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동래구 꿈드림은 위탁법인이 부산성폭력상담센터로 성폭력·성문제관련 교정프로그램 운영에 장점이 있다. 주요 특성화 프로그램인 ‘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릴레이 정치 회담’은 시의원과의 만남과 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보는 세상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물론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도 완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서울특별시의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939명, 2018년 11,529명, 2019년 11,826명으로 미세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의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원구 꿈드림은 학업을 떠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원구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꿈드림 멘토링, 수준에 따른 맞춤형 검정고시반 운영, 자기계발, 진로자립교육, 현장인턴십 지원, 또래 교류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허브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3개 대도시 지역 꿈드림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대도시 3개 지역의 시·군·구 꿈드림의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COVID-19 상황을 고려한 제한적인 대면면접 및 온라인 화상 면접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 현황은 국가보조금(국비, 지방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공간사용은 전용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타 기관 내에서 공용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졌다. 종사자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이어서 재고용에 대한 불안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낮은 처우 속에서 업무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소개 또는 알아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웃리치를 하면서 실무자들이 직접 센터방문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주요 욕구는 검정고시 준비와 합격, 또래관계 유지, 경제적 활동을 위한

것이였다.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실적보고를 포함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컸다. 타 유관 기관(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한 사기저하와 소진 등의 문제가 많았으며, 실무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센터들은 여전히지역연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주로 인턴십 체험장소 부족,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능력 부족, 사업비 및 행정처리의 어려움, 반복된 체험 활동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기 어렵다는 내용들이 있었으나, 업무부담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좋은 성과를 끌어낸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지역사회 지원, 실무자의 적극적인 마인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속감 증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이벤트 마련, 프로그램 기획 시 청소년의 욕구 및 의견 반영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위치한 센터로서 많은 장점이 있었는데, 특히 다양한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에 따른 우수한 기관 접근성, 지자체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원활한 연계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센터의 위치와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해당 자치구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는 단점도 도출되었다.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보완될 사항으로는 꿈드림에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허브기관 역할 부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사업장 대상 인센티브 강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해당지역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지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연계가 활발하며,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지역(자치구)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분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발전방안으로 기관의 특색에 맞는 꿈드림 지원, 수도권에 집중된 청소년 지원서비스(상담지원, 문화활동지원 등)의 타 지역 확산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예산지원 확충, 실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전담 공무원 배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제공,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일자리 및 창업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3) 대도시 지역 꿈드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COVID-19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위치한 75개 꿈드림 중 56개 센터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이용 주요 경로는 청소년의 자발적 이용, 가족/친구/선배 소개, 학교/교육청 연계의 세 경로를 통한 이용 사례가 많았으며, 이를 활용한 홍보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꿈드림 중 독립된 전용공간을 사용하는 비율은 23.2%였고, 타 기관 내 전용공간 사용은 21.4%, 타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는 55.4%로 전용공간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2/3는 물리적 접근성이 좋았으나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공간이 충분한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절반가까이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도시지역 90% 이상의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신체적 건강지원(건강검진은 100% 센터에서 지원), 검정고시 및 대입지원, 직업훈련 및 진로지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는 55.4%, 자산관리 등 경제교육은 69.6%, 취업정보 제공 등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제공비율을 보였다. 3/4의 센터들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특히 시·군·구센터에서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2/3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방임 및 가족 갈등 등 문제가 많고, 사회적 기술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한 종사자의 80%는 예산이 부족하며, 90%는 종사자 처우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였고, 66%정도는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대도시 지역임에도 약 40%의 종사자가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78.6%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약 94%가 행정업무가 많다고 생각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홍보 필요성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대도시 지역의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 수준, 서비스 접근성과 인력의 전문성, 원활한 협력체계 등의 장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용공간의 부족함과 낙후된 시설,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인근 읍면지역과 다를 바 없이 교통편 부족, 전문성 있는 인력을 찾을 수는 있으나 낮은 처우수준에 따른 잦은 이직, 인력부족에 따른 종사자 소진, 지역사회 내 꿈드림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 유사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시설이 많음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중복과 이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대한 어려움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유사 서비스와 기관들 사이에서 꿈드림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꿈드림 간의 격차는 지자체/자치구의 관심도 차이와 지역사회의 물리적 조건의 차이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인건비, 공간 및 시설 활용, 사업비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도시지역 꿈드림 차별화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제공 내용에 있어서의

차별화’, ‘특성화와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핵심 기능 담당’의 두 가지가 도출되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특히 주요 관심사인 진로에 특화된 서비스와 휴식 및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도시 지역 내 센터 간, 또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센터와의 연합 사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도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중 서비스/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역/대상/시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특성화, 경계성 지능 청소년 등 지원대상의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임금지급 지침 마련 및 고용안정성 등), 서비스 전달체계/행정측면에서는 별도 센터로서의 독립과 실적 중심 평가방식 변경, 행정업무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인력충원 및 종사자 처우, 전용공간 확보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또는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와 취업기회 확대,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취업처와의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강조되었다.



제7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지역사회 지원을 중심으로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1) 선행연구 고찰

학업중단 학생, 학업중퇴자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던 ‘학교 밖 청소년’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법 제2조 2항에 의해 법적으로 명료하게 정의되었다¹³¹⁾. 교육통계에 따른 학업중단 현황에서 2016년 이후 학업중단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유학, 해외 출국 사유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고등학생은 학교부적응과 조기진학, 종교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추산하였는데, 하형석(2020)의 간접추정방법(부분집합방식/주민등록인구현황)에 의하면 24만명으로 나타났다. 윤철경 외의 연구(2018a)에 비해 약 7만명 가량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산을 위한 활용 통계가 다르고, 또 통계마다 모집단 기준과 통계수집 및 발표 시점의 차이, 연령범위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하형석, 202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130) 제7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13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이러한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정의되고 있다.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13~2017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적 패널을 구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의 패널들은 2018년에 질적패널로 전환되어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주요 환경인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어 따라 2018년에는 기초조사, 2019년에는 중소도시, 2020년에는 대도시, 2021년에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2022년에는 총괄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차원의 정책 집행 및 서비스가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 국내·외 정책 사례

여성가족부는 2015년 관련법 제정 이후 전국 214개 지역에 시·도, 시·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인 내일이룸학교 운영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나 미취업 및 학업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과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도시 지자체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꿈드림 시·도센터 외에 별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 2곳에만 꿈드림이 설치됨에 따라 시·도센터가 일부 직접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타 시·도센터와는 다소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국외사례로서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아일랜드(더블린), 스웨덴(스톡홀름), 일본(요코하마)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아일랜드(더블린)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NFQ로 통합함으로써 재학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등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웨덴(스톡홀름)은 지자체에게 부여한 모든 학령기 청소년 교육 의무의 일환으로 대안학교 학비 면제를 원칙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요코하마)은 성인 은둔형 외톨이 혹은 니트(NEET)에게 적절한 수준의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홍보·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기존 패널 면접조사 결과

(1) 3차년도 조사결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만 21~25세의 기존 패널 22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 구분과 이에 따른 필요 지원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과 CQR-M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중단 이전 단계의 자발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능동형’은 학업중단이후의 진로목표가 명확하였으며, ‘불가피형’은 심리적·신체적 외상,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등의 영향으로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지속적인 지지와 관리가 필요했다. 특별한 동기나 원인 없이 학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한 ‘도피형’은 비행또래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등을 통한 동기부여, 규범내면화, 성취 기회, 적성 발견 등의 개입이 요구되었다.

학업중단 직후의 유형 중 먼저 자아성찰과 주변에 대한 관조 속에서 학업 복귀를 추구하는 ‘정지형’(정지×학업형)은 심리적 지지와 관심을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의미 없는 학교생활로부터 탈출 이후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배회형’(배회×학업형)은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도 정상에서의 이탈에 대한 불안으로 멘토링과 같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 밖 경로를 선택한 ‘주도형’(주도×학업형)은 자기만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 노력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입시설명회, 대학진학 멘토링 등이 지원될 경우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취업형 중 ‘정지형’(정지×취업형)은 장기적 전망 없이 단순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교육, 자격증 교육 등의 서비스가 요구되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원치 않는 직업을 전전하는 ‘배회형’(배회×취업형)은 인턴십, 자격증 교육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이후의 유형 중에서, 성인기에 들어선 소수의 ‘정지형’들은 사회적 자원과 소속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존감, 동기, 의욕, 삶의 의미에서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배회형’은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진학 좌절(배회×학업형), 취업 좌절(배회×취업형) 등을 겪으며 목표의식 상실, 자신감 결핍 상태로서 진로·직업 체험, 멘토링, 로드맵 코칭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참여자 다수를 차지한 ‘주도형’ 성인들은 적극적으로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이행하는 중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정보와 조력을 제공할 지원 시스템을 필요로 했다.

(2) 질적 종단자료(2018~2020년)의 심층분석 결과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대도시 거주자 11명의 지난 3년(2018년-2020년) 동안의 전사 자료에 대해 귀납적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질적종단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난 3년 동안을 기준으로,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은 이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기대(의미)와 현재 삶의 만족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3년간의 진로 경험에서 발견되는 진로 관련 특징은 “일관된 흐름”이었다. 학업중단 초기에는 청소년으로 할 수 있는 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닦치는 대로 하며, ‘일하고 놀기,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하기’를 반복하는 모습이었으나 학업중단 후 5-7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유사 직종의 일을 지속하는 모습, 높은 학벌을 향해 공부하는 모습, 같은 꿈을 쫓는 모습 등을 보였다. 이제 20대 초반을 넘어가는 시점을 놓고 볼 때, 이들의 진로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뒤늦은 진로 선택”, “여지가 없는 선택”으로 나타났다. 도움 경험과 관련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을 잘 모르는 경우’, ‘학업중단 초기에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막상 살아보니,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분류하였다.

질적 종단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첫째, 학업중단 이전부터 학업중단 이후의

당면 문제(부모자녀관계, 시간/금전/경력관리 등)를 중심으로 조기지원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학업중단 사례들을 이해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었다. 끝으로 꿈드림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신규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1) 신규 패널 구축 및 1차년도 조사 결과

기존 패널이 학업을 중단한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최근 실태와 정책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 15~20세의 학교 밖 청소년 33명을 신규 패널로 구축,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경험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학업중단 계기와 과정, 이후 변화, 현재생활 탐색, 자신에 대한 생각/진로계획, 학교 밖 이후 지원 경험과 지원 욕구, 지역사회 인식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위해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으나, 상당수의 사례에서 학교 내에서의 또래관계, 특히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 피해가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교사와 학교의 무관심 속에서 결국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대부분이 학업중단을 후회하지는 않았으나, 간혹 후회할 때는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막막함과 또래관계나 단체생활에 대한 동경과 소속감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올해는 COVID-19로 더욱 대면접촉이 위축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사례도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현재 검정고시/수능준비 등 진학을 준비하거나, 인턴십/작업장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자격증 취득 준비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COVID-19로 인해 학원에 가지 못하는 등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청소년들은 주도적으로 자기관리를 하고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나, 자신을 책임 없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진로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입학 및 검정고시 준비, 대학 진학 준비, 취업 준비 등을, 장기적으로는 특정 직업을 갖거나 창업하길 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에 대해 청소년들은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대학진학 지원, 직업/취업관련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다양한 활동과 기회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대도시/서울인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았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다이어리 방식으로 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조사하여 현재 생활 탐색에 대한 면접조사결과와 함께 분석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수능준비, 인턴십/작업장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활동에 참여하는 평일·낮시간의 생활과 활동이 없는 주말·야간 시간의 생활 패턴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낮에 주요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생활했지만, 주요 일과가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폰/PC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수면시간과 운동시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대도시 지원현황 및 현장실무자 조사결과

(1) 3개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도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자체임에도 학교 밖 청소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는 2019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이 우수한 사례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는 2020년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제 6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부산시 동래구 꿈드림은 위탁법인이 성폭력상담센터임에 따라 성폭력·성문제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장점이 있었다. 서울 꿈드림 시·도센터는 25개 자치구 기초 센터 지원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노원구의 경우 다양한 활동 및 동아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지역사회 내 여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적인 요구에 부합하고자 노력하였다.

(2) 3개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종사자들 대부분 무기계약직이었으나 낮은 처우 수준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였으며, 실적보고를 포함한 행정 업무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성과를 보인 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현장실무자의 의지와 노력,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속감 증진,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사업 수행, 청소년의 욕구 및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등의 성공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도시에 위치한 센터들은 다양한 인프라와 교통 편의성, 지자체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원활한 연계와 같은 장점이 있었다. 개선사항으로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서의 꿈드림 역할 강화, 지역 내 청소년사업장 대상의 인센티브 강화, 지역주민 대상의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지원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의 확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예산지원 확충, 꿈드림 종사자의 처우개선, 관련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이 강조되었다.

(3)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도시에 위치한 75개 꿈드림 중 56개 센터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자치구에서 설립, 운영하는 꿈드림은 6개소였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비율은 각각 약 40% 정도였다. 만 15~19세 청소년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 20~24세, 만 15세 미만 순이었으며, 꿈드림의 주요 이용 경로는 청소년의 자발적 이용, 가족/친구/선후배 소개, 학교/교육청 연계를 통한 사례가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대도시 지역 90% 이상의 센터에서 심리, 신체적 건강지원(건강검진은 100% 센터에서 지원), 검정고시 및 대입지원, 직업훈련 및 진로지도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인터넷 중독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는 55.4%, 자산관리 등 경제교육은 69.6%, 취업정보 제공 등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제공율을 나타냈다. 3/4의 센터들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조사 참여 센터의 2/3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방임 및 가족 갈등 등 문제가 많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대도시 지역에서의 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전용공간의 부족함과 낙후된 시설,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인근 읍면지역과 다를 바 없는 교통편 부족을 언급했으나,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 유사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시설이 많음에 따른 대상자 중복과 이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이었다. 이는 꿈드림 센터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도시지역 꿈드림 차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내용에 있어서의 차별화’, ‘특성화와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핵심 기능 담당’이 도출되었다. 향후 꿈드림의 발전 방향으로 지역/대상/시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특성화, 경계성 지능 청소년 등 지원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사회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취업처와의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강조되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지역사회 지원을 중심으로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시사점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를 설정하였다(그림 VII-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체계, 또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이러한 방향성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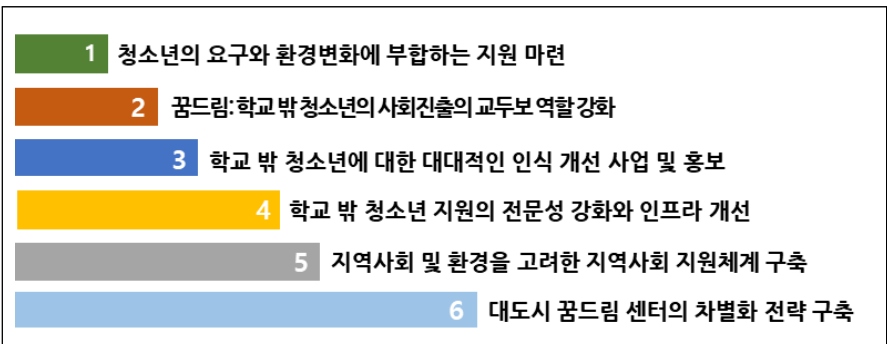


그림 VI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

(1) 청소년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원 마련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며 이에 따라 지원 욕구도 다양하다. 예전과는 달리 자발적인 의지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많아졌으며, 이들을 계속적으로 동기화시키면서 적극적인 진로발달을 지원해야 한다. 경제적 문제와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둔 청소년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당장 시급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다양한 지원체계의 도움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년간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피해로 고통 받았다면, 학교를 그만두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인 심리적 외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 적응이 어려워 목표 없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떠나기 전 잦은 결석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도치 않게 학교 시스템과 학교 밖 시스템으로부터 모두 방치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 패널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배회형×취업형’과 같이 진학을 원하지만 아직 목표가 없거나,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자 하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면, 이들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탐색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더 이상 목표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부응하여야 한다. COVID-19 확산으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접촉 방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가장 최적의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지원이나 프로그램 구성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미래사회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에서 최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장래 직업과 미래 설계를 위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로 지도 역시 필요하다.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의 교두보 역할 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 및 적응을 위한 교두보 역할에 더욱 힘써야 한다. 대부분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불안해한다. 특히 부모의 부재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정규학교 과정도 마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속에서 자립을 해야 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드림은 이들이 자신감 있게 사회로 나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적응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및 홍보

본 연구의 면접조사결과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위해, 그리고 학교생활이 도움이 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대학진학에 힘쓰거나, 자신의 전문분야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면접조사결과와 생활시간조사 결과,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자습하였으며, 틈틈이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청소년들과 교류를 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 예상보다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낮밤 시간이 바뀌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사례도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하거나 차별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오래전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할 때 낙인이 되었던 일탈, 비행의 이미지는 이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모두 대대적인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가 필요하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개선

청소년을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물리적 공간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꿈드림 종사자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또 행정업무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적은 그만큼 기록되지 않았으며, 급여나 직업 안정성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 많았다. 대도시의 한 현장실무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과 낮은 종사자 처우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

고 진술하였다. 한편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한 대도시 청소년들의 기대수준이 높았으며, 또 실제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꿈드림 내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공간의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5) 지역사회 및 환경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이제 지역사회는 새로운 배움의 장이 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학생 인구수와 학업중단 학생수 뿐 아니라, 지역의 교통접근성과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들(대안교육기관, 학원, 청소년작업장 등)이 어느 정도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하고 인근 지역의 상황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적절히 조합하여 해당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면밀히 구축되어야 한다. 해당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는 어떠한지 실태조사를 통해 잘 파악하고(예,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이에 맞는 지역사회 자원과 적절히 매칭시키는 것이 꿈드림의 주요 역할이어야 한다.

(6) 대도시 꿈드림 센터의 차별화 전략 구축

대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들 중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지자체의 유사 지원이나 민·관 서비스(대안교육기관, 학원 등)가 많아 현재 꿈드림으로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들이 상당수 있었다. 대도시의 경우 청소년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러 군데의 유사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꿈드림만의 차별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먼저 꿈드림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으며, 다른 서비스들과 어떻게 차별화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제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정책사례 현황 검토, 기존 패널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그리고 대도시 지역 꿈드림 지원 내용과 현장종사자 대상의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과 대도시에서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아래 그림처럼 꿈드림 등을 통한 현장지원체계에서→ 일반 지역사회 체계→ 대도시 체계→ 중앙부처 순서대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아래 표 VII-1은 전체 정책과제와 세부정책과제, 추진기간과 추진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VI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총괄표

영역	정책과제 • 세부 정책과제 내용	추진기간	(현장-지자체-중앙정부) 관련 추진체계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접지원 관련 정책과제	1-1. 패러다임의 전환: 비대면 사업 개발 및 대면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단기~중기	꿈드림현장, 여성가족부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확대		
	• 만 19~24세 연령 청소년	중기	꿈드림현장, 여성가족부
	• 장기결석학생	단기~중기	꿈드림현장, 여성가족부, 교육부
	• 경계선 지능 학교 밖 청소년	단기~중기	꿈드림현장, 여성가족부
	1-3. 청소년 요구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공간 지원		
	• 전문적인 심리상담/심리적 외상 치료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지자체
	•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진로지도	단기~장기	꿈드림현장 여성가족부
	• 수능, 대입지원 확대	단기	꿈드림현장, 여성가족부, 교육부
	• 청소년 요구·지역특성 고려한 인턴 십 기회 및 청소년작업장 개발	단기~중기	꿈드림현장, 여성가족부, 지자체
	• 문화체험, 야외/신체활동 기회 확대	단기	꿈드림현장
	• 청소년 자치기구, 위원회 사업 활성화	단기	
	• 사회성, 업무역량 개발	단기~중기	
	• 통합지원 필요한 사례들을 위한 지역 사회 연계 강화	중기	
	• 휴식/놀이 공간 마련	단기~중기	꿈드림현장, 여성가족부,
	1-4. 미래 설계 기초를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단기~중기	꿈드림현장,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영역	정책과제 • 세부 정책과제 내용	추진기간	(현장-지자체-중앙정부) 관련 추진체계
(2) 지역사회 수준에서 의 지원 체계 관련 정책과제	2-1. 지자체, 지역사회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	단기-장기	행정안전부, 지자체, 꿈드림현장
	2-2. 지자체/기초지자체 내 종사자 처우/시설 인프라 지원 노력	중기	지자체, 기초지자체
	2-3. 지역사회 내 관참은 일자리 개발 및 지원 환경 구축	단기-장기	지자체, 고용노동부, 꿈드림현장
	2-4. 행정체계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중장기	지자체, 행정안전부
(3)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관련 정책과제	3-1. 대도시 지역에서의 꿈드림 차별화 전략		
	• 꿈드림 정체성 재정비	중장기	꿈드림, 여성가족부
	• 진로관련 사업 특성화	중기	꿈드림현장, 지자체
	• 휴식 공간/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차별화	중기	꿈드림현장, 지자체, 여성가족부
	3-2.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재구조화		
	• 대도시 내 인근센터와의 통합 모델 운영	중장기	꿈드림현장, 지자체, 여성가족부
	• 꿈드림 연합사업운영체(가칭) 설립	중기	
	•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중장기	
	3-3. 대도시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단기-중기	지자체, 여성가족부
(4)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과제	4-1.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관련 법·제도적 측면 개선		
	• 청소년정보 연계관련 법령개선	중기	여성가족부, 국가인원위원회
	• 꿈드림 운영의 향후 방향성 설정 필요	중기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사업실적 평가체계 개선	중기	
	4-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가적 차원의 꿈드림 홍보	중장기	여성가족부
	4-3. 현장실무자 처우와 전용공간 마련 등 인프라 개선		
	• 종사자 처우 개선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 독립된 전용공간 확대	단기-장기	
	4-4. 교육부/교육청의 꿈드림 인식 개선과 비 학생 대상 공평한 기회 제공		
	• 꿈드림에 대한 인식 제고	단기-중기	교육부, 교육청
	• 조기 개입 시 꿈드림과 연계	중기	교육부,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중장기	교육부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접지원 관련 정책과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 정책과제들을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크게 ‘패러다임의 전환: 비대면 사업 개발 및 유기적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확대’, ‘청소년 욕구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공간 지원’, ‘미래 설계 기초를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등으로 이를 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과제 1-1	패러다임의 전환: 비대면 사업 개발 및 대면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¹³²⁾
내용	
COVID-19으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이지만, 이를 계기로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향후 대면/비대면 사회를 염두에 둔 다양한 접근법 개발 및 대면/비대면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	

2020년 일년 동안 COVID-19는 사회 전반에 큰 어려움을 주었으나, 불가피하게 선택한 비대면 접촉 및 사업 수행 방식들이 실제로 대면하게 되는 현실 사회와 유기적으로 잘 연계된다면 충분한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분간은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여전히 비대면 사회를 유지하게 되겠지만, 이와 별개로 향후 비대면 접촉과 관련한 환경적 변화를 예측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장에서도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학생청소년들에 비해 대인접촉이 적고 또래 교류가 부족하다. 그런데 COVID-19로 인해 더욱 고립되고 힘들게 지냈으며, 시간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본 조사에서도 학교를 떠난 후 이러한 점 때문에 가끔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기도 하며, 앞으로도 소속감 없이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안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있었다.

이는 꼭 COVID-19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132) 이 정책과제는 현장전문가 대상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였으며 청소년 학계 전문가와의 논의과정에서 도출되었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뿐 아니라 비대면 접촉 방식을 통한 검정고시를 포함한 각종 시험 준비나 간접적인 직업체험 혹은 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할 시기에는 비대면시 경험과 효과적으로 접목, 연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군 단위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에서 특히 더 유용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비대면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and 꿈드림 내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VID-19로 인해 청소년들이 더욱 심리적, 신체적으로 위축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선적으로 비대면 접촉방식으로라도 심리사회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신체적으로도 방역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확대

확대 필요 지원 대상		내용
1	만 19~24세 연령 청소년	19+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
2	장기결석학생	장기 미등교 학생/학교에 대한 아웃리치
3	경계선 지능 학교 밖 청소년	경계성 지능이거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첫째, 만 1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¹³³⁾.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시기에 학교를 그만둘 경우 잠시 시간을 두고 꿈드림을 찾아오는 것을 지체하게 되면 바로 학령기 연령대가 지나게 된다. 이 경우 청소년이나 청소년의 부모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찾기 어렵다. 특히 학교를 그만두고 3년 이상이 된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이 가장

133) 이 내용은 윤철경 외(2019) 연구의 정책제언에서 착안하였다.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윤철경 외, 2019), 이와 같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위한 연령범위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 대도시 지역 꿈드림 종사자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19세 이상 연령대 청소년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센터들이 만 15~18세 청소년에 집중하고 있어 19~24세 연령대에 맞는 지원프로그램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부터 실질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실무기술이나 기본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까지 많은 영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

둘째, 장기 미등교 학생과 학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도 여러 청소년들이 학교를 장기 결석하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나 부모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를 거부할 경우 학교에서는 별 다른 개입 방법이 없었다. 어쩌면 이 경우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를 가지 않게 된 오랜 시점부터 학교와 학교 밖 시스템에서 소외, 방치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면 지역사회 내 꿈드림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경계성 지능이거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담당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많은 수의 경계성 지능, 또는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청소년을 만나게 되며,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들 청소년 대부분은 일반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업수준도 따라가지 못해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며,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공하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도 이들에게는 어려운 도전이 된다. 이렇게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될 경우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못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을 확률이 크다. 개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자체나 권역별로 꿈드림을 지정하거나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1-3

청소년 요구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공간 지원

세부과제(프로그램)		내용
1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적 외상 치료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2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진로지도	청소년의 욕구 및 사회 환경적 변화에 부합하는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3	수능, 대입지원 확대	본격적인 수능 준비와 대입입시 정보제공 및 지원
4	청소년 요구·지역특성 고려한 인턴십 기회 및 청소년작업장 개발	바리스타 프로그램만이 아닌 청소년들과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인턴십 기회와 청소년작업장 발굴
5	문화체험, 야외활동/신체활동 기회 확대	학교에서의 기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과 신체활동 기회 확대
6	청소년 자치기구, 위원회 사업 활성화	적극적인 참여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알게 해줄 수 있는 청소년 자치기구, 위원회 프로그램 참여
7	사회성, 업무역량 개발 필요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사회성과 업무역량 개발 지원
8	통합지원 필요한 사례들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내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
9	휴식/놀이 공간 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하게 방문하여 쉬고 토래와 교류할 수 있는 전용 휴식 공간 마련

청소년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적 외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재학기간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례들도 있었다(예, 아웃팅당한 후 괴롭힘 등). 또한 수년전 괴롭힘이 아직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이 수년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은 동네, 같은 학교에서 자행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청소년들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어 그만두었으나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현재 가해자를 회피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때의 고통스런 경험은 남아있고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심리치료가

만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요구 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 변화에 부합하는 진로탐색 및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은 일부 유행을 쫓는 경향도 보이지만, 대체로 실제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또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경제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스스로 터득하기 어렵다. 특히 학교 밖에서 이런 정보를 얻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부모님의 강요나 또는 ‘그냥’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한 인식에서 출발한 사례도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본격적인 수능과 대학입학 준비를 안내하고 지원해주기를 원했다. 단순 검정고시 뿐 아니라 보다 심화된 학습지원인 수능 준비와 대학 입시 지원을 위한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 많은 인턴십 기회와 직업체험 기회를 원했다. 대부분의 모든 지역의 꿈드림에서 제공하는 바리스타나 네일아트, 제과제빵 보다는 청소년 각자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그래서 더 나아가 자신의 희망진로와 관련된 취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인턴십과 직업체험을 하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뒤에 제시될 지자체, 지역사회 내 지원 부분에서 더 논의하였다.

다섯째, 문화체험, 야외활동/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면접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 이상 학교생활을 통해 또래들과 단체 활동이나 캠프 등을 경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매우 부러워했고 또 꿈드림에서의 체험학습 기회 등을 매우 기대하였다. COVID-19 상황이 개선되면 더욱 확대되어야 할 지원 내용으로서, 다양한 문화활동 및 야외/신체활동 기회가 더욱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과 시간 내 여가/자유시간에 주로 스마트폰이나 PC만을 보고 있었으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여섯째,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치기구나 위원회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 재학 당시에는 소심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봤다고 회고한 한 청소년이 꿈드림 자치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예, 시의회 의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일곱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및 취업을 위해서는 사회성 뿐 아니라 업무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면접조사결과에서 상당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또래관계나 인간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게 했다. 또 본 연구에서 현장실무자들은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였으나, 사업체로부터 청소년이 적응을 힘들어한다거나 이들의 업무역량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여덟째, 통합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해야 한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님의 이혼과 사별, 학교에서의 따돌림 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체계를 통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꿈드림 뿐 아니라, 중장기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포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찰서나 교회의 소개로 꿈드림을 알게 되기도 하였고, 또 꿈드림에서 이들 청소년 가정을 위해 대신 수급자 신청을 해주기도 하였다.

아홉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부담 없이 찾아와서 편하게 쉬고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전용 휴식/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꿈드림이 다른 유관기관과 공간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다소 비현실적인 제안일 수 있음에도 현장실무자와 청소년들은 이러한 공간의 필요성을 매우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꿈드림

내 전용 공간 마련이 불가능하다면, 지역사회 내 관내 유휴 공간을 지원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윤철경 외, 2019), 이는 지자체, 자치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청소년의 희망대로 꼭 보드 카페나 PC방 형태는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고 자주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책과제 1-4	미래 설계 기초를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내용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당장의 소득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훈련참여수당 지원 확대, 청년주택지원 확대, 수급자 지정 기준 완화, 생필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상술한 바와 같이,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경제적인 부분이었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생계가 막막하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장기적인 진로계획과 진로 준비를 실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부모님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혜택 없이 어렵게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웠던 청소년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급식서비스는 매우 필수적인 지원이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것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직업선택을 위한 내일이룸학교의 교육훈련수당 확대, 완화된 기준의 청년주택지원, 또 미성년이면서 부모와 살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당장의 긴급 지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청한 피복비나 생필품 지원 등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원 체계 관련 정책과제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관기관 관계자, 특히 지자체/기초지자체단체장(구청장)을 포함한 ‘정책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와 자치구 차원에서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시설 지원’, ‘지역사회 내 괜찮은 일자리 개발 및 지원 환경 구축’, ‘행정체계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과제 2-1

지자체, 지역사회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

내용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역사회 정책 수립 및 행정 담당자(지자체장, 자치구청장,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 담당 공무원 등)들의 인식 개선과 이를 통한 지원 확대

지자체,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관계자들, 특히 지방정부 정책수립 및 수행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시 특정 꿈드림의 경우 자치구청장의 특별한 관심과 꿈드림 방문이 바로 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사례와 또 이에 대한 다른 지역 꿈드림의 부러워하는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시·군·구 의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 꿈드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매우 크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자체 평가나 점검 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노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기초지자체 성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제 2-2**지자체/기초지자체 내 종사자 처우 및 시설 인프라 지원 노력****내용**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시설 지원 우선

위의 과제와 유사한 맥락에서 지자체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종사자를 위한 처우와 시설 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중앙부처의 역할이 크지만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센터들마다 인건비가 다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직원복리후생과 관련된 초과근무 수당, 명절수당, 통신비, 교통비 등의 지급에 있어 센터들 간 차이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 또는 자치구나 군 단위의 노력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꿈드림 전용공간과 관련해서도 관내 시설/공간을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지자체 사례도 있었다.

정책과제 2-3**지역사회 내 괜찮은 일자리 개발 및 지원 환경 구축****내용**

지역사회 내 인근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마련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으나 현재 살고 있는 익숙한 곳에서 계속 일하며 살고 싶은 청소년들도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 괜찮은 일자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청년들의 인구수가 줄고 있는 중소도시/읍면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인턴십, 청소년 작업장, 아르바이트, 그리고 나아가 안정적인 괜찮은 일자리를 개발하

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장, 꿈드림 등이 모두 연계되어야 하는 일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후 청년이 되어서도 일자리 때문에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성년인 청소년에게 맞는 일자리, 그리고 청년이 된 이들의 상황에 맞는 취업처 개발이 결국은 지자체가 규모있는 인구와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 될 수 있다. 비록 학교를 떠났으나 청소년들도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소속감을 갖고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2-4	행정체계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내용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사업 연계	

본 연구의 정책제언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한 현장전문가는 특정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급식비 지원(COVID-19 관련) 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사례를 제시하고 행정체계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본 조사에서 꿈드림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로 연계되어 정부지원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반대의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방식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의 연계는 역시 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과 관계자들의 관심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협력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3)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관련 정책과제

올해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2019년의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에 이어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지역의 3개 꿈드림 센터와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그리고 전국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56개 꿈드림을 대상으로 종사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도시 지역에서의 꿈드림 차별화 전략’,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재구조화’, ‘대도시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책 과제와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정책과제 3-1

대도시 지역에서의 꿈드림 차별화 전략

세부 과제		내용
1	꿈드림 정체성 재정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체성 재정비 및 차별화
2	진로관련 사업 특성화	가장 요구가 많은 진로사업 특성화에 집중 필요
3	휴식 공간/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차별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 공간 및 관련 프로그램 제공으로 차별화 모색

첫째,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대두된 내용은 대도시의 많은 유사 지원 및 서비스와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의 인프라로 인해 꿈드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기에 적절히 개입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도시의 높은 교통접근성으로 인근 여러 곳의 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만큼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 이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이는 관내 유사기관 및 서비스와 지원 대상이 겹치는

상황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또 이를 기초로 서비스를 차별화시켜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한다. 대도시 꿈드림 간, 또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꿈드림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며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유지,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위와 같은 맥락에서 대도시지역에서의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요구가 가장 큰 진로와 관련한 사업으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요구가 있으나 학교를 떠난 후 가장 막막하게 여기는 주제가 진로문제이며, 처음 검정고시 지원 뿐 아니라 진로탐색을 시작으로 취업 알선까지 필요로 한다(예, 검정고시→인턴십→일경험→일자리 알선→취업을 포함한 사례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아닌 어디에서도 청소년의 요구에 맞춰 이러한 일련의 지원을 제공하고 끝까지 사례관리 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와 또 해당 자치구마다 여건에 차이가 있겠으나 이러한 특성화 사업은 전문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사설 학원 등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청소년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휴식 및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와 지식 등은 사설 학원이나 업체를 통해 일부 제공받을 수 있으나 이에 더해 휴식을 위한 편안한 공간과 여가 프로그램까지 동시에 제공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꿈드림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시설/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카페 운영, 간단한 게임기 구비 등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에서 편안한 공간 마련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가기 전까지의 잠깐의 휴식시간, 또는 잠깐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에 이러한 공간에서 편안히 머물며, 다른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청소년들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공간이 될 뿐 아니라 소속감까지 갖게 할 수 있다.

정책과제 3-2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재구조화

세부과제		내용
1	대도시 내 인근센터와의 통합 모델 개발·운영	인근 자치구 센터 2~4개 정도로 통합하여 운영
2	꿈드림 연합사업운영체(가칭) 설립	연합 사업만을 위한 별도 운영체 설립
3	학교밖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모델 지정·운영	모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첫째 대도시 내 인근 자치구 꿈드림센터 2~4개 정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근 센터와의 통합이나 연계 사업은 비교적 교통편이 좋고 인접한 대도시에서 가능한 방안이다. 현재 ‘다’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담인력이 2명으로, 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 뿐 아니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소년들의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수행하고 있다. 한편으로 청소년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원을 받고 싶을 수 있으나 대도시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꿈드림으로부터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실무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또 청소년의 다양한 지원 욕구를 고려할 때 인접한 자치구 내 센터를 일부 통합하여 운영하는 실용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Ⅷ-2 참조). 이 경우 센터 당 2명씩 종사자가 있다면 실제로는 6명의 종사자가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또 그 안에서 수능과 대학입시 지원 담당 종사자, 청소년사업장과 취업지원 담당 종사자로 각각 사업 특성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다. 이는 꼭 물리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센터에서는 초기 상담과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검정고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이후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 원하는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꼭 대도시 내에서 뿐 아니라 인근 군

단위, 중소도시 내 센터와도 연계·운영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 예산문제가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각 센터들이 일정 예산을 고르게 할당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A센터에서는 초기상담이후 검정고시 지원을 받으면서 B센터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 경우 사업 성과는 A, B 센터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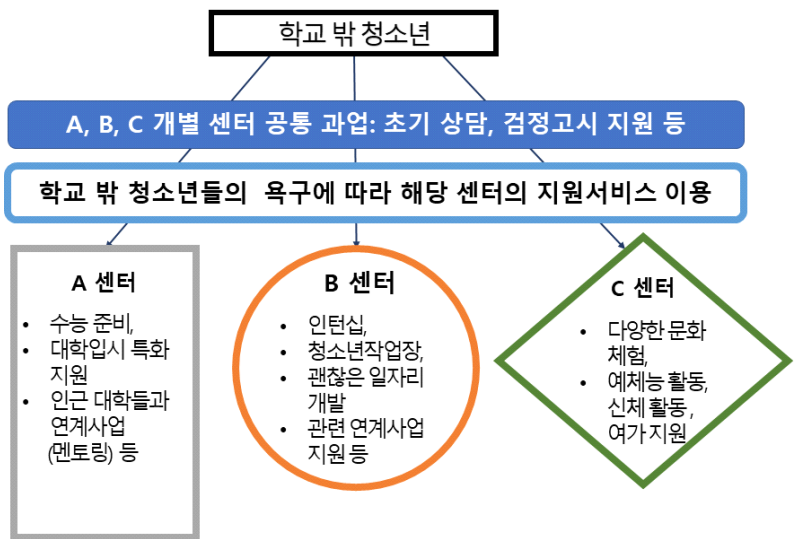


그림 Ⅶ-2. 대도시 내 인근 센터와의 통합 모델(안)

둘째로 꿈드림 연합사업운영체(가칭)를 설립하여 센터들 간 연합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 수행하는 것이다. 대도시 내 자치구 센터들 간 연합사업을 통해 각 센터 청소년들이 타 센터 사업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의 장점과 함께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분의 지원도 보완할 수 있다. 대도시 내 센터들만의 연합사업 뿐 아니라 대도시의 접근성 좋은 인프라와 특성화된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자 원하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센터들과 같이 수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도시 센터에서는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위해 읍면지역 센터와의 연계를 원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센터들 간 연합사업운영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연계하여 다양한 연합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셋째, 대도시 내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가칭)를 지정·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그림 VII-3 참조). 이 통합지원센터는 단어 그대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통합지원센터로 직접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다른 지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간접지원을 포함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건이 가능하다면 법정 청소년 연령인 만 24세까지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또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따라,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원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근 지역의 지역사회 내 가용 인프라 자원을 모두 파악하여 관내 유관 기관들, 서비스, 자원들을 최대한 연계, 활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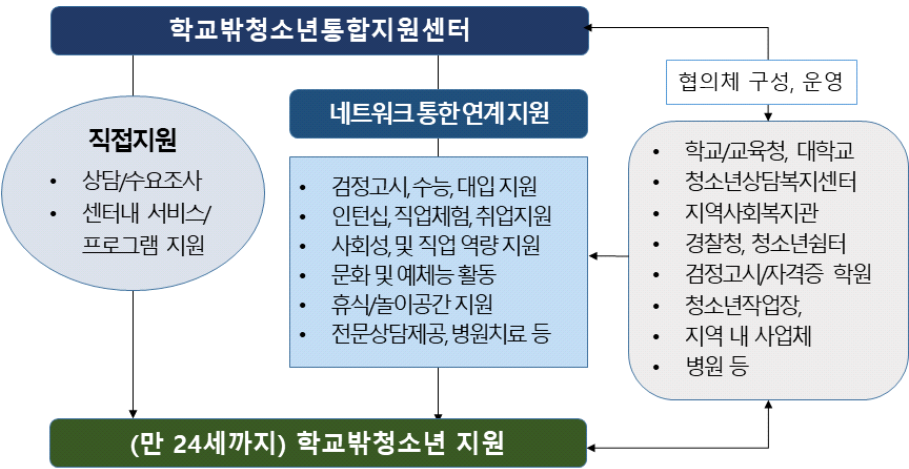


그림 VII-3.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지정·운영(안)

정책과제 3-3	대도시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내용	
대도시 외곽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 및 시·도센터의 추가 지원과 컨설팅 제공	

행정체계상 대도시이지만 실제로는 도시 중심가와와는 전혀 다른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을 지닌 곳들이 많다. 오히려 인근 군 단위 읍면지역의 생활여건과 유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상당히 소외된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 실제로 꿈드림 현장실무자 조사에서 대도시 중에서도 외곽지역 자치구 센터의 경우 담당해야 할 지역이 넓고 또 교통편 등 청소년들의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지하철이 곳곳에 운행하고 또 외곽이라도 해도 생활수준과 인프라에 크게 차이가 없는 서울은 예외일 수 있으나 다른 대도시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특히 인근의 군 단위 읍면지역에 둘러싸여 있어 여러 여건과 인프라에 크게 차이가 없는 지역의 꿈드림과 이곳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과 시·도센터의 자원연계 및 컨설팅 등이 더욱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과제

교육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위클래스나 학업중단속려제 등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청소년이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기 전에 개입하게 된다. 실제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사업은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이 중심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관련 법·제도적 측면 개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가적

차원의 꿈드림 홍보’, ‘현장실무자 처우와 전용공간 마련 등 인프라 개선’, ‘교육부/교육청의 꿈드림 인식 개선과 비학생 대상의 제도적 차별 철폐’를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과제 4-1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관련 법·제도적 측면 개선
세부과제		내용
1	청소년정보 연계 관련 법령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꿈드림 제공관련
2	꿈드림 운영의 향후 방향성 설정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꿈드림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유기적/수평적 관계 구축
3	사업실적 평가체계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에 대한 산출 방식 변경

첫째, 학교를 그만둔 직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꿈드림에 제공하는 건과 관련하여 법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학교를 떠난 후 해당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청소년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꿈드림 지원에 아예 접근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어도 꿈드림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¹³⁴⁾.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 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어떤 관점에서 사안을 보느냐와 또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당연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경우는

134)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G0L0S8X1R9C1K3U2M9P0P5T4H6Q6에서 2020년 12월 11일 인출

우선적으로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과 부모가 꿈드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 후에 개인정보 연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에 참여한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 중에는 학교에서 꿈드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학교와 비슷한 곳이라고 잘 못 이해한 사례도 있었다.

둘째, 꿈드림이 현재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독립된 센터로서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안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개선된, 보다 유기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여 나아갈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 앞서 국내 정책사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꿈드림이 2015년 이후 신속하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해밀과 두드림 사업에 기반하여 출발하였으나 기존의 관련 기관 및 사업과의 관계가 미처 재정비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많은 꿈드림 센터가 여전히 별도의 독립된 센터가 아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하나의 부서, 또는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많은 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이 겸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복지센터의 실무자들에 비해 낮은 처우와 사무실 등 업무공간의 공용사용으로 인해 꿈드림의 현장실무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물론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센터로서의 위상 확립, 물리적 공간 확보 등을 통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이고 수평적 관계 구축의 여지도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대안이며 중앙부처와 현장의 고민이 매우 큰 부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방식과 같이 수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누적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 한 한 주무부처와 관계자들의 향후 꿈드림의 운영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발전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꿈드림 사업의 실적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전문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수의 종사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¹³⁵⁾ 현재와 같은 실적 평가는 현장실무자들을 매우 소진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다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있고 또 제대로 자립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성과는 투입된 시간과 에너지 업무량에 비례하여 산출되지 않으며, 그저 한명의 청소년 성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꿈드림 종사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오랜 기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지원할 경우 해당 종사자는 소진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꿈드림 시설 평가까지 더해질 경우 현장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투입된 종사자들의 노력과 이로 인한 성과가 가감 없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실적관리 시스템 및 시설 평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자 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과제 4-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가적 차원의 꿈드림 홍보
내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 필요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이제는 많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또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본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낮 시간 학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비행청소년으로 보는 외부인의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다양한 학업중단 사유를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불편한 시선을 거둘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인식

135) 2020년 11월 11일에 개최된 전문가워크숍과 대도시 현장종사자 면접조사 시 나타난 결과이다..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학교현장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저변의 이해를 돕고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사업도 요구된다. 조사에 참여한 신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직도 주변에 꿈드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막막해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꿈드림을 통해 받는 지원이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에는 관련법이 제정되거나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부주도의 지원사업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기존 패널들은 이러한 집중적인 지원이 없었던 본인들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현재의 꿈드림을 통한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정책적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현재의 꿈드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부분 만족해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꿈드림의 역할과 지원 사업 내용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공공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대적인 국가적 수준의 꿈드림 사업 홍보가 필요하다.

정책과제 4-3	현장실무자 처우와 전용공간 마련 등 인프라 개선

세부과제		내용
1	종사자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 안정성 개선
2	독립된 전용공간 확대	지자체와 함께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 노력 필요

첫째, 정책과제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또한 이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활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도 역시 중요하다. 종사자 처우 문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개입해야 할 문제이나 우선적으로는 면밀한 임금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결과, 대도시 지역의 센터들은 전문성 있는 직원은 많이 찾을 수 있으나 낮은 수준의 종사자 처우로 인해 실제 고용까지 이어지지 않거나 또는 자주 이직한다고 진술하였다.

전용공간의 문제도 시급하다. 읍면지역의 시·군·구센터의 한 현장실무자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용시설 내 매우 작은 공간에서 꿈드림 업무를 수행하다고 하였고,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꿈드림에 방문했을 때 있을 곳이 없다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공간을 제공하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다. 다른 기관/시설에 비해 꿈드림이 지역사회 내 공간, 심지어 청소년 사업을 위한 공간 사용에서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정책과제 4-4

교육부/교육청의 꿈드림 인식 개선과 비학생 대상 공평한 기회 제공

세부과제		내용
1	꿈드림에 대한 인식 제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 제공
2	조기 개입 시 꿈드림과 연계	장기 결석,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동안 꿈드림과 연계
3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평한 기회 제공	학생 대상 공모전·사업에의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첫째,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업중단 과정에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꿈드림에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해 동의여부 과정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 꿈드림 서비스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청소년들과의 인터뷰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의 위클래스나 상담교사를 통해 꿈드림에 대해 소개받았다고 했으나 여전히 상당수는 꿈드림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학교와 같은 기관으로 오해했다가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꿈드림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꿈드림에 대해 잘 이해하고 또 청소년과 보호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조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교사연수 등을 통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꿈드림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둘째, 학교 현장은 장기결석 중이거나 학교를 그만두기 위해 여러 신호를 보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드림과 함께 연계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동안에도 꿈드림과 함께 청소년을 도울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공모전이나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의도치 않게라도 참여를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 섞인 시선을 받을 때 뿐 아니라 제도권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이나 학생을 위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심한 좌절감을 경험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예, 서울시 교육청 학교밖도움센터 ‘친구랑’ 등), 여전히 자격기준을 학생만으로 두고 사업이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인권 민감성 차원에서 학생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근모, 이준기(2015). 포래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87-110.
- 강근모, 이준기(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관련 변인과 체계변인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7(1), 55-82.
- 강연미, 김희수(2016). 청소년의 전문적 도움추구행동 특성 연구: 도움요청장애요인과 위기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8(2), 237-252.
- 광주광역시 북구(2019). **2019 구정백서**. <https://bukgu.gwangju.kr/board.es?mid=a10505010000&bid=0295>에서 2020년 10월 4일 인출.
-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18). **2018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김경애, 선혜연, 조은주, 임종현, 이상은, 안해정, 한은정(2016).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I)(연구보고 RR 2016-1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범구, 조아미(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상현, 양정호(201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81-113.
- 김선녀(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 및 개정 현황과 개선방향 - 2019년 조례제정 및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0(3), 73-195.

- 김성은, 김준엽(2019).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X: 데이터분석보고서-청소년 생활시간 유형**(연구보고 19-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3: Writing (2nd e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희, 허철수(2012).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1991년-2011년. **상담학연구**, 13(2), 1013-1028.
- 김용득(2019). 지역사회 기반 복지관의 공동체주의 지향성 강화 필요성과 과제 - 공공성 담론의 확장과 사회서비스 운영 원리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2), 203-232.
- 김인숙(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 연구II**(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18-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기호(2013). 스웨덴의 교육행정과 교육복지. **최신외국법제정보**, 4호, 68-85.
-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리플릿 자료(내부자료)
- 류기형, 류영미, 박병현(2009).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1-31.
- 명재신, 윤성인(2017). 학교 밖 청소년 소재 파악 및 연결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4(5), 311-330.
- 문창용, 나주몽(2013). 대학 캠퍼스 외부시설의 공간적 특성이 지역커뮤니티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를 사례로. **지역개발연구**, 45(2), 109-138.
- 박병금, 노필순(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과정과 학교 밖 생활경험. **청소년학연구**, 23(8), 47-78.
- 박종석(2018). 고교 중퇴자들의 학교 밖 학력주의 경험과 그 추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진학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8(2), 87-125.

백혜정, 송미경(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15-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2006).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연구보고 06-R1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성윤숙(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연구보고 16-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손혜경(2014). 스웨덴 실업계고의 기업체 견습제도. **국제노동브리프**, 3월호, 70-78.

송광성, 구정화, 이영아, 김소희(1992).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송인덕, 조성겸(2013). 서베이모드와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전화 면접, 대면 면접, 온라인 서베이 응답 비교. **조사연구**, 14(2), 165-199.

송혜승, 이명훈(2017). 지역사회(Community) 연계를 통한 리질리언스 구축 가능성. **한국지방행정학보**, 14(3), 193-212.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0년 2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 한국생산성본부(2020). **내일이룸학교 업무 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연보라, 이윤주, 김현철(2019).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연구보고 19-R5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병돈, 김기현(2013). 청소년복지정책 대상규모 추정: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4), 31-5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유진이, 선다솜(2018).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선택 요인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 연구**, 3(1), 69-110.

- 육성필, 남옥남, 박지란, 박성혜, 김은영(2017).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과정 탐색 및 학업 중단 인식 연구-강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습지중심 교과교육연구**, 17, 535-561.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2002). **학업중단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연구보고 14-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성운숙, 유성렬, 김강호(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연구보고 16-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성운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연구보고 18-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연구보고 13-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2018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연구 I: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8-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2018b).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2019).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연구보고 19-R34)**. 서울: 서울특별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연구보고 15-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연구보고 11-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대희, 서승현(2011). 공무원 건강 감성 변화에 관한 질적 내용분석: 건강감성 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3), 177-193.
-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승현, 박학모, 김성기(2014). **학업중단 예방 법령·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도출 연구(2014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2014-10)**. 세종: 교육부.
- 이주현, 박치성(2010). 지역사회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1-35.
- 이지혜, 조은호, 박미연, 김현경(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지지 및 또래지지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과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65-180.
- 이혜숙, 조운정 (2019).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 방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2019-PR-27), 서울: 서울연구원
- 임윤서, 안윤정(2016). 여대생의 자기성찰에서 드러난 ‘여성으로서 일’의 의미 탐색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2), 195-228.
- 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9-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규필, 김기현, 김수진, 윤제현(2018).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름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개선 방안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6(1), 413-438.
- 조명래(2011).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월간 복지동향**, 157, 4-9.
- 조아미, 이진숙(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청소년학연구**, 21(7), 145-170.
- 조아미, 임정아(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 18-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아미, 임정아, 김남은(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연구보고 19-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준용(2013). 자활제도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종단적 질적 연구
- 근거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13-324.
- 조혜영, 김영란(2018).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참여
경험 연구. **미래교육연구**, 8(3), 63-92.
- 조혜영(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485-498.
- 천정웅(2011). 청소년참여의 유형화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7-47.
-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2016). 질적 내용 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1),
127-155.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최인재, 이윤주, 송민경, 조윤정(2019).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연구보고 19-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 최지연, 김현철(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103-132.
- 하형석(2020). ‘학교 밖 청소년’ 이 얼마나 있을까?. **NYPI 블루노트 통계**, 5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ua51GjZA&brd_id=BDIDX_9QHE68LfE56Tcg80dqU23q&tab=)
[menu_nix=ua51GjZA&brd_id=BDIDX_9QHE68LfE56Tcg80dqU23q&t](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ua51GjZA&brd_id=BDIDX_9QHE68LfE56Tcg80dqU23q&tab=)
[ab=](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ua51GjZA&brd_id=BDIDX_9QHE68LfE56Tcg80dqU23q&tab=)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
- 하형석, 이종원, 이정민(2019). **학교 밖 청소년 추청치 추계방안 연구(연구보고
19-R5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3).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안내서**. 부산: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 한동우(2013). 지역기반의 복지공급체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네트워크. **한국
사회복지행정학**, 15(3), 285-311.

- 함철호(2015).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0(54), 213-243.
- 함철호(2019). **한국지역사회복지론-이론과 사례**. 서울: 학지사.
-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NARS) 현안분석 보고서, 151호.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29717>에서 2020년 10월 10일 인출
- 홍선영, 박금식, 박지영(2018).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2018-15)**.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황여정(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연구보고 17-R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owes, L. M. & Goodman-Delahunty, J. (2014). Life course research design: Exploring career change experiences of former school teachers and police officer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1(1) 62-84.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Sage: Thousands Oaks.
- Larson. R. (2001). How U.S.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What it Tells Us About Their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1), 5-10.

- 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pp.160-164.
- LIFT(Leading Ireland Future Together) 홈페이지. <https://liftireland.ie/events/>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McLeod, D. (2010).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s: Practical Advice Based upon Lessons from Outside the World Bank.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No.0327)*. Social Protection Unit Human Development Network The World Bank.
- Mortimer, J. T. & Shanahan, M. J. (2007). *Handbook of the Life Course*. NY: Springer.
- Patton, M. Q. (2001).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Schielke, H. J., Fishman, J. L., Osatuke, K., & Stiles, W. B. (2009). Creative consensus on interpretations of qualitative data: The Ward method. *Psychotherapy Research*, 19(4-5), 558-565.
- Stockholm Stad (2018). *Outreach activities in Stockholm*. 2018 국외출장 수집자료: 아일랜드, 스웨덴.
- Weber, R. P. (1985). *Basic content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 White, K. W. & Wu Qi(2014). Application of the life course perspective in child welfare research.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46, 146-154.
- White, M. D., & Marsh, E. E. (2006). Content analysis: A flexible methodology. *Library trends*, 55(1), 22-45.

〈관련 법안, 법령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G0L0S8X1R9C1K3U2M9P0P5T4H6Q6에서 2020년 12월 11일 인출.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2020년 10월 9일 인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5%99%EA%B5%90+%EB%B0%96+%EC%B2%AD%EC%86%8C%EB%85%84#undefined>에서 2020년 2월 1일 인출.

〈보도자료〉

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11.28.).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04&opType=N&boardSeq=51526>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2018.10.31.).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 학교 밖까지 개방**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566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1&opType=N>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노원신문(2020.5.20.)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정서 프로그램·체험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http://nowon.newsk.com/bbs/bbs.asp?exe=view&group_name=109&section=4&category=2&idx_num=33796&page=6&search_category=&search_word=&order_c=bd_idx_num&order_da=desc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

대전광역시 교육청소년과(2020.5.8.). **학교 밖 청소년 꿈키움 수당 지원**.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336981750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9.5.7). **학교밖청소년, 올해도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242>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무등일보(2020.0.18). **(재)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 복구에 후원금 기탁**. <http://www.honam.co.kr/detail/SexeuZ/597830>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부산일보(2020.01.14.). **동래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1417302433469>에서 2020년 1월 30일 인출.

일요서울(2019.12.18.). **밀양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558>에서 2020년 10월 4일 인출.

충청투데이(2020.8.6.). **대전 대덕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맘센터에 밀려 무산**.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382>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

〈홈페이지 자료〉

강동청소년누리터 홈페이지. <http://www.kdnuri.or.kr/>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gycenter.or.kr/sub01/sub01-1.php>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광주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초·중·고·특수 학생 수(2020년 1월 기준)**. http://www.gen.go.kr/sub/page.php?page_code=introduce_04_01에서 2020년 8월 24일 인출.

광주광역시 정보공개포털. **청소년보호기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https://www.gwangju.go.kr/open/pj/openList.do?pageId=open15&category=2>에서 2020년 9월 10일 인출.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lyyouth.or.kr/>에서 2020년 8월 30일 인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597>에서 2020년 8월 30일 인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면적**.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597>에서 2020년 8월 25일 인출.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소개**. http://www.ok1388.kr/bbs/board.php?bo_table=sub06_0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교육부 학습지원사업 홈페이지.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https://www.educerti.or.kr/intro/intro.do>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꿈드림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user/sub01_3.asp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꿈드림 홈페이지. **광주 북구 센터 특성화 운영사업 - 이달의 우수 프로그램: 우리는 북구 꿈드림**. http://www.kdream.or.kr/user/boardManagement/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_305&boIdx=4160&searchText=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꿈드림 홈페이지, **걸어온 길**. http://www.kdream.or.kr/user/sub01_3.asp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꿈드림 홈페이지. **내일이름학교 프로그램과정 개요**. http://www.kdream.or.kr/user/sub05_3_1.asp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꿈드림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센터 특성화 운영사업 - 이달의 우수 프로그램: 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릴레이정치회담**. <http://www.kdream.or.kr/user/boardManagement/view.asp?page=1&rows=15&task=ins&bid=bid>

_305&boIdx=4205&searchText=%EB%B6%80%EC%82%B0에서 2020년 11월 19일 인출.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와락**. <http://www.nowonyouthcenter.org/contents/sub04/?st=sub04&sMenu=02>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우학교**. <http://www.nowonyouthcenter.org/contents/sub02/?st=sub02&sMenu=01>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http://www.nowonyouthcenter.org/contents/sub04/?st=sub04&sMenu=01>에서 2020년 11월 19일 인출.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소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djdonggu>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gy1388.or.kr/>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udream1388/>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보건복지데이터포털. **UK Data Service and Archive**. https://data.kihasa.re.kr/oversea/micromacro/view?clickIndex=FRN_MICRO&brdSeq=15에서 2020년 10월 2일 인출.

복지r.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내일이룸학교 운영.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121>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기본현황**. <http://www.busan.go.kr/bhbasisinfo>에서 2020년 10월 25일 인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동래구**. <https://www.busan.go.kr/bhdongnaegu>에서 2020년 11월 15일 인출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부산교육통계(2019년 4월 기준)**. https://www.pen.go.kr/board/view.pen?boardId=BBS_0000108&menuCd=DOM_000

000605002000000&paging=ok&startPage=1&dataSid=5654441에서 2020년 10월 8일. 인출.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www.1388youth.kr/sub_05_01.php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프로그램 안내**. http://www.1388youth.kr/sub_05_02.php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부산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cando.or.kr/>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아동청소년과**. <https://www.busan.go.kr/womanfamily/ahchildpolicy09>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여성가족_아동/청소년시설**. <http://www.busan.go.kr/womanfamily/youthfacill>에서 2020년 10월 22일 인출.

부산광역시. **2020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http://www.busan.go.kr/>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notice/notice_11_02.html에서 2020년 11월 7일 인출.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teen1318.or.kr/>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 첫 지정… 재정지원**.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6329>에서 2020년 12월 5일 인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징검다리**. http://seoulallnet.org/sub/bbs_view.php?code=board21&startPage=60&idx=4643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allnet.org/>에서 2020년 9월 14일. 인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2020년 인턴십프로젝트지원사업 참가자(인턴) 모집 공고**. http://211.110.140.74/sub/bbs_view.php?code=board21&startPage=100&idx=6159에서 2020년 9월 14일 인출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통계 주요지표**. <http://statistics.sen.go.kr/>에서 2020년 10월 8일 인출.

서울특별시 교육청(2020). **2020년 학교밖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공모 공고문**.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5812&ctgCd=190>에서 2020년 10월 8일 인출.

서울특별시 노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꿈드림**. <http://www.nowonyouthcenter.org/contents/sub04/?st=sub04&sMenu=01>에서 2020년 11월 19일 인출.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19 서울시 행정구역(구별)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412/S/2/datasetView.do>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 지역내 총생산**. <http://data.seoul.go.kr/together/statatbook/statbookList.do#none>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서울특별시.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계획**. <http://opengov.seoul.go.kr/>에서 2020년 11월 29일 인출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19 서울시 행정구역(구별)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412/S/2/datasetView.do>에서 2020년 10월 6일 인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가족복지 청소년 시설 현황**.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385937>에서 2020년 10월 6일 인출.

스웨덴 인구통계 사이트. <https://www.scb.se/hitta-statistik/>에서 2020년 11월 27일 인출.

스톡홀름 취업센터 홈페이지. <https://socialtstod.stockholm/vagen-till-jobb/ung-och-arbetslos/jobbtorg-stockholm-for-unga/>에서 2020년 11월 27일 인출.

아일랜드 NFQ 홈페이지. <http://www.nfq-qqi.com/>에서 2020년 11월 21일
인출.

아일랜드 Youthreach 홈페이지 <http://www.ddletb.ie/youth/youthreach/>
에서 2020년 11월 20일 인출.

아일랜드 견습과정 홈페이지 [http://www.apprenticeship.ie/en/employers/
Pages/EmployerInfo.aspx](http://www.apprenticeship.ie/en/employers/Pages/EmployerInfo.aspx)에서 2020년 11월 23일 인출.

아일랜드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education.ie/en/The-Department
/Bodies-and-Committees/](https://www.education.ie/en/The-Department/Bodies-and-Committees/)에서 2020년 11월 18일 인출.

아일랜드 교육부 홈페이지. **SOLAS 소개**. [https://www.education.ie/en/The-
Department/Agencies/An-tSeirbh%C3%ADs-Oideachais-Lean%C3%B
Anaigh-agus-Scileanna-SOLAS-.html](https://www.education.ie/en/The-Department/Agencies/An-tSeirbh%C3%ADs-Oideachais-Lean%C3%BAnaigh-agus-Scileanna-SOLAS-.html)에서 2020년 11월 18일 인출.

아일랜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www.fetchcourses.ie/course
s/fulltime](https://www.fetchcourses.ie/courses/fulltime)에서 2020년 11월 21일 인출.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2016.11.24.).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센터’에서 미래를
찾다**.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0869516461>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http://www.mogef.go.kr/sp/
yth/sp_yth_f010.do](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0.do)에서 2020년 11월 25일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팝업. 건강검진 기프티콘 인센티브 안내 [http://www.mog
ef.go.kr/html/popup/gifticon.htm](http://www.mogef.go.kr/html/popup/gifticon.htm)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요코하마 시 공식 가이드 홈페이지 [https://www.yokohamajapan.com/kr/ab
out/](https://www.yokohamajapan.com/kr/about/)에서 2020년 12월 5일 인출.

요코하마시 동부유프라자 홈페이지. [http://www.sodateage.net/ypt/yoko
hama/](http://www.sodateage.net/ypt/yokohama/)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city.yokohama.lg.jp/kur
ashi/](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란?**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shokugyounouryoku/for_worker/ys-station/index.html에서 2020년 12월 22일 인출.

정부24 홈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6000000423>에서 2020년 11월 14일 인출.

정부24.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09002700001>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카카오맵 지도서비스, **광주광역시 지도, 부산광역시 지도**. <https://map.kakao.com/>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8에서 2020년 8월 24일 인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재정자립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내총생산**. https://stat.kosis.kr:446/statHtml_host/statHtml.do?orgId=202&tblId=DT_F10103&dbUser=NSI_IN_20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통계청 국가포털(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3일 인출.

통계청 주식정보.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에서 2020년 8월 25일 인출.

통계청 행정 구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2&tblId=DT_104&lang_mode=ko&vw_cd=MT_OTITLE&list_id=202_20203_A&conn_path=I4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8에서 2020년 8월 4일 인출.

통계청(KOSIS). **부산 지역내총생산**. <https://stat.kosis.kr/search/search.do>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통계청(KOSIS).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면적(2018 기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2&tblId=DT_104&lang_mode=ko&vw_cd=MT_OTITLE&list_id=202_20203_A&conn_path=I4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통계청(KOSIS). **e-나라지표: 지역내총생산(GRDP)**.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8에서 2020년 8월 24일 인출.

통계청(경인지방통계청). **2019 서울시 청소년 통계**. http://kostat.go.kr/regional/gi/gi_ntc/1/1/index.board?bmode=read&aSeq=376755&pageNo=5&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20년 11월 18일 인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내총생산**. https://stat.kosis.kr:446/statHtml_host/statHtml.do?orgId=202&tblId=DT_F10103&dbUser=NSI_IN_20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자원맵. **서울 노원구 콧드림**. http://www.kdream.or.kr/maps/sub03_1.asp?kwSearch=%ED%82%A4%EC%9B%8C%EB%93%9C%EA%B2%80%EC%83%89&serviceCode=&tcCode3=&tsArea1=%EC%84%9C%EC%9A%B8&tsArea2=%EB%85%B8%EC%9B%90%EA%B5%AC&x=25&y=11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자원맵. **부산 동래구 콧드림**. http://www.kdream.or.kr/maps/sub03_1.asp?kwSearch=%ED%82%A4%EC%9B%8C%EB%93%9C%EA%B2%80%EC%83%89&serviceCode=&tcCode3=&tsArea1=%EB%B6%80%EC%82%B0&tsArea2=%EB%8F%99%EB%9E%98%EA%B5%AC&x=32&y=21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사유별 학업중단자 연도 및 지역 통계/행정구역별 설립별 학생수**.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

=0101&cd=5036&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2015-2019)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10월 9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학생 수 및 학업중단자 수**. <https://kess.kedi.re.kr/>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한국생산성본부(2020.01.03.). **2020년도 내일이름학교 훈련생 모집 공고**. <http://www.kpc.or.kr/Customer/NoticeView.asp?seq=54480>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현황**. <http://27.101.213.4/#> 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K2인터내셔널 홈페이지. <http://k2-inter.com/>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 — 부 록

부록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도시) 종사자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표는 대도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내용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가능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설문조사는 10분 ~ 15분 내외가 소요되며, 완료하신 분께는 감사의 의미로 모바일 상품권 만원권을 휴대폰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담당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044-415-2106)

□ 조사담당자: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황인창 부장 (02-3014-0086)

※ 기관 및 응답자 개인정보 보호, 비밀 엄수의 원칙

-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관련 현황, 지원내용, 애로사항 및 필요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본 조사의 목적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귀하의 개인식별정보를 익명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조사결과는 정규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조사 참여자는 원할 경우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본 조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연락처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4.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2020년 ____ 월 ____ 일 성명 : _____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내용 파악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성별, 직위, 근무기관, 기관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역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2020년 ____ 월 ____ 일 성명 : _____ (인)

1. 귀하가 현재의 기관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년____개월

2. 현재 시설/기관에서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 ① 시설장 ② 팀장급 이상 선임 실무자(3년 이상 종사자) ③ 실무자

3. 귀하의 성별과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별		연령			
① 남자	② 여자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4. 기관 설립주체의 해당 칸에 ○표 해주시고 해당 기관/법인/단체명을 써주십시오.

공공기관			법인		기타 단체 등	
국립	시립	구립	재단법인	사단법인	법인외 단체	기타

4-1. 지자체/법인/단체 명: _____

5. 현재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령대별 이용자 수는 대략 어떠합니까?

구분	성별		특수 환경 청소년(남여, 연령구분 없음)			
	남자	여자	다문화	보호관찰	쉼터거주	기타
① 만 15세 미만						
② 만 15~19세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③ 만 20~24세						

6. 귀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이용 경로에 대해 1~3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학교·교육청 통제(Wee클래스 등)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포함)
 ③ 청소년 쉼터 ④ 경찰, 법원,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⑤ 센터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⑥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⑦ 가족,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⑧ 기타_____

7. 귀 기관의 공간 사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
 ② 타 기관 내 설치된 전용공간 사용(타 기관명:_____)
 ③ 타 기관과 공간 공유(타 기관명:_____)

8. 귀 기관의 위치 및 공간(시설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기관은 청소년들이 찾아오기 수월한 곳에 있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9.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십니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9말, 2020년 초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코로나-19상황 직전)

지원 항목	제공여부	
	예	아니오
1) 심리·상담 지원	①	②
2)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또는 전문상담기관 연계	①	②
3) 동아리, 체육, 문화예술, 봉사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지원	①	②
4) 건강검진 안내 및 제공	①	②
5) 수당(교통비) 등 배움, 자립을 위한 기초생활 지원	①	②
6) 급식 지원	①	②
7) 자산관리 등 경제 교육(저축 관리, 합리적 소비생활 등)	①	②
8) 복교 절차 및 방법 안내	①	②
9) 검정고시 준비위한 강의(수업) 제공 등 직접 지원	①	②
10) 검정고시 위한 학원 및 교재 지원	①	②
11) 대입 정도 제공 및 대학 진학 상담	①	②
12) 진로지도(진로상담, 적성검사 등)	①	②
13) 직업훈련 지원(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인턴십, 자격증 취득 등)	①	②
14) 취업준비 지원(면접 준비/이력서 작성 지원, 노동권리 알기 등)	①	②
15) 취업정보 제공(일자리 알선·연계 등)	①	②
16) 기타 ()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족 관련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2)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이 방임되었거나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많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대인관계/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기관 관련				
6) 예산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7) 기관 내 시설(인프라)이 미흡하다	①	②	③	④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9) 업무에 비해 종사자 처우 수준이 낮다	①	②	③	④
10)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2) 센터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지역사회 및 정부				
13)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할 전문 기관(상담센터, 취업지원 기관 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4)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5)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6) 정부(지자체 포함)지원을 위한 행정업무가 많다	①	②	③	④
1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1. 일반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대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할 때 더 좋은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 그리고 많은 자원과 협력네트워크, 보다 전문적인 인력 구성 등을 기대하게 됩니다. 귀 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활용가능 기반 시설(인프라)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2) 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①	②	③	④
3)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1. 대도시에 위치한 센터로서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_____)

11-2. 대도시라고 해도 지자체별, 기초지자체간(자치구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전혀 그렇지 않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1-2-1. (11-2번에 ‘그렇다(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대도시의 지자체, 자치구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차이가 크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견:_____)

12.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에 차별화나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전혀 그렇지 않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2-1. (12번에 ‘그렇다(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중소도시/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지역을 선호합니다. 대도시 지역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의 차별화된 또는 초점을 두어야 할 지원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_____)

13. 이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_____)

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서비스/프로그램 중 생각나는 내용을 아래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앙부처 차원: _____

② 대도시 지자체, 지역사회차원: _____

ABSTRACT

A Study on Community-based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III: With a Focus on Qualitative Panel Data

The aim of this third-year study on community-based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with a focus on qualitative panel data was to gather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uch youths, and to analyze extensively to shed light on the reasons behind the interruption in their schooling, their post-dropout as well as community support experiences, and career preparation. In addition, a plan to support such youths at the local level, especially in urban areas, in 2020 was proposed.

To achieve the study objective, we first review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status and population estimation of out-of-school youths, community support, and out-of-school youth support systems in three large cities. Second, expert advisory meetings and workshops, working-level policy research meetings, and forums for presenting previous research results on such youths were held. Third, a third round of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and the qualitative data came from the existing panel of 22 out-of-school youths in their 20s was analyzed. Fourth, a panel of 33 new out-of-school youths aged 15 to 20 was established, with whom the first round of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and the data analyzed. Due to COVID-19,

the panels were interviewed via video-conferencing; for the existing panel, both cross-sectional data (collected in 2020) and longitudinal data (collected from 2018 to 2020) were analyzed, and additionally, a time alloc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five interviewees of the new panel. Fifth, interviews with field workers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in Gwangju, Busan, and Seoul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status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in these metropolitan cities; a (web)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field workers of 56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in metropolitan areas; an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were derived: (1) providing services that meets the needs of out-of-school youths and changes in the environment, (2) strengthening the role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as a bridgehead for the entry of such youths into society, (3) improving social perception of out-of-school youths, (4) enhancing infrastructure and highly specialized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5)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local community and out-of-school youths' circumstances, and (6) differentiating strategies for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in large cities. In addition, five policy tasks related to the support system were proposed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for such youths, or more specifically, the development of non-face-to-face programs and systemic linkage with in-person services, relaxation 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out-of-school youth support, support for various programs/spaces tailored to these youths' needs,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and various other policy tasks to support such youths at the metropolitan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Keywords: out-of-school youths,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community-based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in metropolitan cities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II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김영자·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분석 보고서 / 박한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자·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생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생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생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직립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 시 과 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해정

수 탁 과 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영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근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혜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쿼터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문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8.26)
-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10.5)
-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방향 모색)(12.18)
-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쏘다 -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 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가나다 순)

◆ 집 필 진 ◆

임 정 아 (명지대학교·연구원)
정 선 옥 (덕성여자대학교·교수)
조 아 미 (명지대학교·교수)

◆ 자 문 진 ◆

권 해 수 (조선대학교·교수)
김 민 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사무국장)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박 수 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사무관)
박 윤 범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총괄팀장)
방 은 령 (한서대학교·교수)
안 세 영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총괄팀장)
유 성 렬 (백석대학교·교수)
전 경 숙 (평택대학교·교수)
조 혜 영 (공주교육대학교·교수)
현 선 미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장지원팀·팀장/꿈드림 담당)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연구보고 20-R14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인 쇄 2020년 12월 24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44)868-745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91-9 94330
979-11-5654-290-2 (세트)



연구보고 20-R14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919
ISBN 979-11-5654-291-9 94330
ISBN 979-11-5654-290-2 (세트)